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제 1 호(45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김 일 성

신 년 사

(1980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첫해의 새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신심도 드높이 1980년대의 첫 진군을 시작하고있습니다. 1980년대는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변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시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970년대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지난해의 투쟁성과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1979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으며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78년에 비하여 1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석탄과 광물 생

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안주지구탄광들을 비롯한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978년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14%, 압연강재생산은 115%, 화학비료생산은 113%, 세멘트생산은 121%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수송전선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수송전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의 전기화를 적극 다그치고 항들의 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려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잘하여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고압폴리에틸렌공장과 아닐론공장,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의 제2종합가공직장, 단천마그네샤공장의 110메터회전로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시설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지난해에 대외무역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지난해에 1978년에 비하여 상품수출액이 1.3배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면한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수행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을 수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물방법연

구에 성공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인민이 생산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국민소득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을 딸라로 환산하면 1,920딸라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날을 따라 늘어나는 국민소득은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지졌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0년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린다는 새로운 소식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고있으며 당대회의 소집을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

게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지금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도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무연탄생산을 계속 늘이는 한편 안주지구탄광들과 북부지구탄광들에서 고열탄과 콕스탄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유색금속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갱도를 영구화, 콩크리트화하며 여름철과 겨울철 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쳐 전기기관차의 견인비중을 85%이상으로 높이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중량화하고 렬차운행을 고속도화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외무역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짐배생산을 늘이며 강하천들에 배길을 개척하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하여 배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무역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수출품의 포장과 질을 개선하며 대외수송조직을 잘하여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세부화를 잘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알뜰히 애호관리하며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물자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연료를 리용하는 야금로들을 많이 건설하고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야금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선철과 강철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소성로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원료기지를 확장하여 질좋은 세멘트와 마그네샤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며 내화물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바로 기계수단의 현대화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주물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형단조화, 프레스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함으로써 기계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기계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리는데 필요한 대형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기술경제적가치가 높은 과학적발명을 더 많이 하며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에 알곡 9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며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알곡 정보당 수확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부침땅면적을 늘이는데 있습니다. 모든곳에서 새땅을 찾아내고 다락밭을 건설하며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며 축산업과 과수업, 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에서는 일용품공장들과 식료품공장, 특산협동조합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일용품과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하루에 3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나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용감한 어로전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올해에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부리는 장소와 냉동공장, 가공시설들을 늘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허실하지 않고 일년 내내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앞에는 올해부터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력생산을 늘이고 큰물피해를 미리 막으며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강하천들에 크고작은 언제를 많이 쌓고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수력자원을 적극 리용하며 우리 나라를 어떠한 큰물피해도 모르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올해에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

위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의 새로운 리정표

새해 1980년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소집되는 력사적인 해이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올해 10월에 열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기에 소집되는 가장 뜻깊은 대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강령적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으며 거창한 변혁과 창조적성과로 로동당시대를 더욱 찬연히 빛내이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이 심화됨으로써 이 땅우에는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실로 반세기가 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오랜 력사에서 오늘처럼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혁명과 건설이 빨리 발전하고있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보람찬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위대한 전환기에 소집되는 우리 당 제6차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6페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 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은 물론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간다. 당을 강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이것

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우리 당 력사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바로 이 승리로 하여 우리 당 제6차대회는 더욱 뜻깊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될것이다.

주체의 혁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철통같이 통일단결되고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로 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더욱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 건설과 당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함으로써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시위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는 위대한 단결의 대회로 될것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불패의 위력은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에 있다. 군중을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당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왔으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우리 당은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을 일으켰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확고히 다져졌다.

우리 당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웠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벅찬 투쟁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혁명적신조를 확고히 지니고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통일단결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오직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고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받들어나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고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는 바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 당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시위하는 자랑찬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을 총화하는 빛나는 승리자의 대회로 될것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변혁과 창조의 로정이였으며 세기를 주름잡으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온 속도전의 진군력사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힘찬 로력투쟁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튼튼하여졌으며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거연히 일떠섰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혹심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이 빛나게 관철되여 해마다 대풍이 이룩되고있으며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여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주체적인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로 하여 우리 조국의 위력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찬란히 빛내일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휘황한 전망을 펼쳐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총진군의 대회로 될것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우는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실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 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뜻깊은 대회로,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위대한 전환의 계기로 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새로운 력사적계기로 될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행

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충성다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적열정과 투지에 불탄다면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자나깨나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타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투쟁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조선로동당원이며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전투에 몸과 마음,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충성다하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이다.

우리는 채취공업과 대외무역, 수송사업과 협동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전력공업,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경공업과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부침땅면적을 늘여 알곡 950만톤고지를 점령하여야 하며 더 많은 공예작물을 생산해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더 찾아내며 모든 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기술혁명을 힘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쓸어버리고 기술혁명에서 일대 선풍을 일으킴으로써 생산을 빨리 늘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당 제6차대회전으로 올해의 방대한 전투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당대회에 보다 훌륭한 선물을 마련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올해부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국토를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을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으며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전군중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전형이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바로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모범으로 감화교양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3대혁명수행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전당의 주체사상화구호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해당부문의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패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주체의 혁명적인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소집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지는 만만하며 기세는 충천하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더욱 빛내여나가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대중운동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전당적,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과 일본새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온 나라는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더 고조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기운차게 떠밀어주고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 *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4페지)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제때에 발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신자로, 영웅으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운동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라는데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 공산주의적인간개조운동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낡은

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혁명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궁정적모범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적극 본받게 하는 방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궁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그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추동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숭고하고 궁정적인것에로 끊임없이 지향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궁정적모범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것으로 보편화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온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은 비상히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에 파급되고있다.

궁정적모범이 가지는 커다란 힘에 의거하여 사람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이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이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3대혁명수행에서 새로운 결정적전진을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수행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결정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현시기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방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키워야 할 우리 혁명위업의 요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사상혁명의 목적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의 풍모를 숨은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에로 끌어올림으로써 그들을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한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우리 시대의 혁명가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이며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전형이다. 그들은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 싸워온 열렬한 혁명가들이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인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숭고한 높이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

모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떤 높이에서 지녀야 하며 어떠한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 강한 충동을 주며 그들처럼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질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자라나게 될것이며 사상교양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현시기 우리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방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적진보가 없이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멀리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8페지)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오직 과학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여기에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기술혁명수행과 인민경제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이룩한 빛나는 위훈은 기술혁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한 참다운 본보기이다.

숨은 영웅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색하고 탐구하였으며 하나의 문제를 착상하고 설계하여도 우리 식으로 설정하고 풀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실지 이바지하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창조해나갔다. 그들이 발휘한 빛나는 모범은 사람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힘으로 되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면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현시기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방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일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

므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준 당일군의 숭고한 풍모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그대로 본받아야 할 참다운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에서 언제나 높은 책임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혁명동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난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당일군의 숭고한 품성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며 그에 대한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숨은 영웅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어머니당의 당일군의 고결한 풍모는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며 혁명동지들을 어떠한 립장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이 숨은 영웅들속에서 발휘된 그러한 품성으로 일한다면 당의 의도에 맞게 당사업을 하고 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으며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보다 큰 승리가 이룩될것이며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은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의 발현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더욱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지고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끝까지 실현해나가려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끝없는 충성심이 하나로 결합되여 일어나고 그에 의하여 확대발

진되고있는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실로 우리 나라 대중운동력사의 새로운 리정표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또하나의 서사시적화폭으로 된다.

오늘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14페지)

모든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그들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빛나는 위훈을 세워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지향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이 운동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로력적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할수 있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목표가 명확하고 과녁이 뚜렷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 운동을 조직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사업에서 위훈을 떨치는 생산혁신자가 되고 발명가,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조장발전시키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 위력한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긍정적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하고있다.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내세워야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화시키고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창조와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 숨은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며 성실히 일해가는 참다운 애국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적극 내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비록 오늘은 작고 보잘것 없는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자래우고 키워준다면 커다란 열매를 맺을수 있는 새싹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모두가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

하여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고무추동할수 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극복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기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언제나 새롭고 혁신적인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거기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당의 의도와 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보고 판단하며 처리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정책적으로 예리하지 못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있는 가치있고 의의있는 일들을 옳게 가려보지 못하며 대중속에서 발양되는 긍정적모범을 당의 의도에 맞게 조장발전시킬수 없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적안목으로 모든것을 보고 대중의 혁신적발기와 창발적의견을 적극 지지해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에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실천행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곳에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기세가 높고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긍정적모범들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이 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 숨은 영웅들처럼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감으로써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혁명사상

박 태 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반세기가 흘러갔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헤아릴수 없이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언제나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 모든 대륙과 모든 지역의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파급되고있다.

주체사상이 이처럼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세계의 넓은 지역과 광범한 인민들속에 급속히 퍼지고있는것은 이 사상이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어떤 사상을 따르며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베닌인민공화국 내무안전및 민족방향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페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따르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의사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는 사상만이 참말로 인민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사상이 인민적인것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그 사상이 어떤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있다.

반동적인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은 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반인민적인 사상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상은 인민적인 사상으로 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근본적인 리해관계가 모든 피착취, 피압박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일치하며 로동계급은 그 계급적 처지와 본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근로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인 계급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인민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근본 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다는데 있다.

력사무대에 등장한 선진사상이 인민의 참다운 사상으로서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것은 그 사상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 인민대중의 근본 지향과 리익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시대와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어떻게 명확히 밝혀주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시대의 요구는 다름아닌 그 시대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인민대중의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는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의 사상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사람의 근본속성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특성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으며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근본 지향과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근본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이다.》, 《자주성에 대한 개념은 주체의 체계에서 근본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이 자주성의 개념에 주체사상의 기본인 인민대중에 대한 리해가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들에게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을 높여주는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들은 《자주성이 없이는 자유도 행복도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인간,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20세기 인간의 념원과 리상을 충분히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자기 인민과 인류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마당에서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강한 지향을 구현하시여 창시하시였기때문에 특별히 신봉할수 있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주체사상은 인민들의 자유와 자주성의 열쇠》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이다.》라고 격조높이 말하고있다.

이렇듯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근본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기때문에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세계인민들의 높은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고 그들의 운명문제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사상의 인민성은 그 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가 어떤것인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철학적원리가 해당사상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원리로서 여기에 계급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것을 근본원리로 하고있다는것은 주체사상이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증시하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람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다.

바로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보고 대

하는 관점을 주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철저한 인민적성격, 불패의 위력이 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세계관의 창시로 《인류사상상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철학사상, 과학적인 세계관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으며 《새 세계 창조를 위한 인민대중의 진정한 철학, 바로 여기에 선행한 모든 철학사상이 미치지 못하는 주체사상의 력사적높이와 끝없는 생활력이 있는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주체의 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은 비로소 《현실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사명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주인의 견지에서 세상만물을 보고 대하며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여 그것을 자신을 위한것으로 만들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고있다.

소말리아의 한 정계인사는 《주체사상은 전적으로 사람,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인민대중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옳은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리론이다.

주체사상처럼 사람,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지위를 …높이 올려세우고 인민대중의 본질적인 열망과 념원을 그처럼 철저히 대변하고 옹호한 사상은 없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감탄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은 처음으로 력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동력이 자기자신이라는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좀먹고 구속하는 온갖 노예적굴종사상에서 벗어나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내세우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처럼 열렬히 신봉하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특히 주체사상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주고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7페지)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의 인민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참다운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줄 때에라야만 자기의 본래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그것은 운명에 관한 문제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여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생사존망과 관련

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객관세계에 대하여 정확한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것도 결국은 자기 운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려는것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명백한 방도를 찾으려는데 있다.

사람은 세계에서 살고있으며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된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 서서 세계를 보며 세계를 어떻게 개조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로부터 사람의 운명문제를 밝히자면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옳게 풀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무엇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가 하는데 대한 옳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

사람의 운명문제와 관련하여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끊임없는 론쟁을 벌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이나 신비로운 힘 또는 자연의 필연성과 같은 외적인 힘에 예속되여있으며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사람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었다.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은 자기 운명에 대하여서도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하며 사람이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논다는것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라고 말하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 세계의 수억만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힘에 대한 신념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강한 지향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힘주어말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참다운 인민의 사상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더없이 높여주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람찬 삶과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있다는데 있다.

존엄있고 값있게 살려는것은 원래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류의 세기적념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는 사상만이 참다운 인민의 사상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소수특권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며 인간멸시와 인간증오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의 인격마저도 교환가치로 화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세상만물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높이 올려세웠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평가를 가장 충분하게 전개》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불멸의 사상》이라고 감탄하고있다.

요르단공보부의 한 일군은 인도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멸의 의의는 그것이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와 세기적숙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데 있다.》,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보는 주체사상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더 높이 올려세운 사상과 리론은 없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멸시사상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높이 내세운것은 주체사상이 인류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로 되는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서 모든것을 지배하며 결정하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규정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물질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있다. 이것은 사상의식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한 창조적사상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줌으로써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그저 밥이나 먹고 육체적생명이나 유지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질수 없다. 사람은 오직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때에라야만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사회적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일생을 보람있게 살아갈수 있다. 하기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인민대중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존엄을 가지고 값있게 살아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되였다.》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무엇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정확한 해명을 주고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의 활동이나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둘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요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이 요구가 구현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기때문이며 또한 이 요구가 구현될 때 사람들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더욱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큰 역할을 놀수 있기때문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우리나라에서 뚜렷이 실증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

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실로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길데없이 높여주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상인것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의 혁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 인간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리론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참다운 인민의 혁명사상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인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인민의 사상으로 되려면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전과정에 관통되는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혀줄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인간의 전면적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모든 단계의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는 혁명리론을 포괄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통하여서만 완전히 실현된다.

그렇기때문에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해방의 길을 밝혀주는것으로 되려면 그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단계의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일뿐아니라 《인민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재부》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이며 온갖 형태의 예속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주체사상을 따르고 신봉하며 자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였으며 이 거창한 흐름속에서 인민대중은 자주의 길로 힘찬 진군을 하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

림 형 구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로의 장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혁명적열정과 패기와 투지에 넘쳐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굿굿이 이겨가면서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할것이다.

*　　　*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체계적으로 높일 의무가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08페지)

낡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해야 할 거창한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이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할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건설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줄수 있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피흘려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바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대표자이다. 당과 국가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

호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생활과 함께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손아귀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온갖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죽어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당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는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창조적로동으로 만들어낸 물질적부를 향유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여기로부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입고 쓰고살며 아들딸 공부시키고 병치료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당을 믿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는것도 당이 근로자들의 사회정치생활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생명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과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우리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을 믿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고 풀어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을 다같이 책임지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건설을 직접 조직령도하는것만큼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책임적으로 돌보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당의 옳은 령도밑에 모든것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징이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령도를 떠나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목적의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자료와 생활조건들을 직접 책임지고 보장하여주어야만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안착된 생활을 누릴수 있다.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이 제도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더 잘 싸워나갈수 있다.

이처럼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으로서 당과 국가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옳바로 풀어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당의 옳바른 령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폐지)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는것은 당이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당사업, 당활동을 복종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이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활동의 중심을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두며 언제나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활동원칙이다.

이 원칙은 당과 국가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심을 두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생활과 높은 문화생활 그리고 흥겨운 로동생활을 보장할 때 착취사회가 인민생활분야에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들을 성과적으로 청산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수 있도록 중공업과 함께 튼튼한 경공업토대를 축성하며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계통적으로 높여주고 물가를 낮추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는 조치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시책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에 의거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해 농사도 잘되여 농업생산물에 대한 근로자들과 공업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원료위기, 연료위기로 경제파동이 극심하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매해 흉년이 들어 수백수천만명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물론 아들딸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할 걱정, 세금낼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걱정과 고통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랑찬 생활이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온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날로 높아가는 현시기 우리 당은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서 나왔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이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책임적으로 돌보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믿으시고 중요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볼데 대한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업이다.

일군들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생활을 책임지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을 잘 돌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써야 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가닿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포치할 때에도 먼저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 언제나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투쟁의 영예를 찾아야 한다.

인민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곤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으면 제때에 풀어주며 그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고 자기의 혁명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인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하며 아래사람들을 돌볼줄 모르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품성과는 인연이 없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는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생활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소극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온갖 낡은 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하고 참말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보며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페지)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한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적극 동원리용한다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훨씬 늘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다.

소비품생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며 원가를 낮출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여러가지 질좋은 천과 갖가지 모양있는 옷을 요구한다.

일군들은 방직공장들의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하여 여러가지 천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피복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잘 운영하여 갖가지 옷생산을 늘이며 기성복과 반기성복 생산을 배합하고 주문가공을 널리 조직함으로써 누구나 다 기호에 맞는 옷을 해입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용품생산에도 커다란 힘을 넣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고 다양한 여러가지 일용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며 가구와 가정용 세탁기, 랭동고, 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한 가정용품과 문화용품 생산을 늘여 우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식료가공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현대적인 곡산공장과 옥쌀공장, 식료가공공장들이 튼튼히 꾸려져 있다. 이 생산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늘어나는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얼마든지 충족시킬수 있다.

일군들은 식료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식료가공공장들의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기름과 사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영양가높고 맛있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일년내내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은 지방공업이 담당하고있다. 그런것만큼 매개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각종 농부산물과 유휴자재에 대한 수매사업을 강화하고 가내작업반과 편의협동조합을 옳게 운영하여 소비품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대줌으로써 모든 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봉사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이 그것을 골고루 받아서 분한있게 쓰며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절실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봉사사업은 상업, 량정, 도시경영 기관들과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직접 맡고있다.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돌보는 상업, 량정, 도시경영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크게 달려있다.

봉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에 복무하는 봉사일군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봉사부문일군들이 언제나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은 상업의 기능을 더욱 높여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소비품들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상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상업부문일군들은 봉사망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고 모든 봉사시설들을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하며 봉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용필수품은 물론 식료가공품들과 여러가지 고급한 식료품들이 모든 지역,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그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상업부문에서는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강화하여 경공업공장들에서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상점들에 여러가지 천과 신발, 현대적인 부엌세간들과 잡화 등 갖가지 상품들을 다 갖추어놓고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는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여나가는 사회적봉사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생활편의와 위생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준다면 그들이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있도록 목욕탕과 리발소, 미용원, 빨래집, 양복점, 수리소 등 여러가지 편의봉사망을 더 많이 내오고 더 잘 꾸려야 한다. 기술장비수준과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문화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원자재와 부속품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봉사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돌보아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급양, 량정,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배려가 더 잘 미치게 하며 근로자들이 어디 가나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여나가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해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여야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국가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에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랑비하며 허례허식하여서는 언제가도 인민생활을 높일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재부를 알뜰하게 관리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계획화사업,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모든 근로자들이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생산활동을 벌리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다고 하여 되는대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것이 아니라 전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재더미를 헤치고 경제를 일며세우던 그 정신으로 한장의 벽돌, 한오리의 실, 한그람의 연유라도 절약하여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 특히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이 더 많은 쌀을 절약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쌀독이 축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들을 보다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성

박 보 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시대에 살며 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으며 우리 혁명대오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억세고 생기발랄한 전투대오로 강화되고있다.

우리 혁명대오의 이 필승불패의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숭고한 공산주의적의리를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찬 인민으로, 혁명가의 고결한 도덕적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한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맑고 깨끗한 사상감정이며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풍모이다.

❃ ❃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동지적의리도 잘 지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6페지)

의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이다.

사람들이 서로 의리를 지켜나가게 되는것은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이 집단과 사회를 이루고 살며 따라서 사람은 집단과 사회안에서 사람들과의 일정한 관계, 사회적관계속에서 사는 존재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자기 량심에 비추어 어떤 행동은 의로운것이고 어떤 행동은 의롭지 못한것이라는것을 가늠하면서 일정한 도덕적의무를 리행하게 된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남을 도울수 없고 사랑할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리해도 모르는 차디찬 사람으로 되고만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관계는 의리로부터 출발한다.

의리는 사람들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도덕적문제로서 그것은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착취계급사회에서의 의리는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저들의 착취관계를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복무한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은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금전관계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인간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사이의 자연스러운 의리마저 말살하고 물건을 팔고사는데서 맺어지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는것을 저들의 《도덕적의무》로 간주한다. 그들에게는 남남간에는 말할것도

없고 부자간, 모자간, 부부간, 형제간에도 성실성, 진실성이 없으며 자기를 위해서는 친척친우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패륜패덕이 판을 친다. 철저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지들에게는 그 어떠한 인정과 의리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고상한 의리를 지니게 되며 이것을 자기의 고유한 도덕품성의 하나로 삼고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참다운 혁명적의리를 자기의 고유한 품성으로 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들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려는 사상의지가 서로 같아야 참다운 혁명동지로 될수 있고 혁명적단결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12～413페지)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는 집단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실현된다. 집단적단합은 사람들의 사상의지가 서로 같아야 이룩될수 있으며 공고발전될수 있다.

집단과 사회를 이루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상, 목적의 공통성을 이룰 때라야만 자기의 모든것을 집단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 복종시키게 되며 따라서 이 과정에 사람들사이에는 서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련결되게 된다.

사회를 이루고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사이, 집단과 개인들사이의 의리관계를 형성할수 없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릴수 없다.

사상과 목적이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게 되며 사람들사이에는 더욱 깊고 공고하며 진실한 도덕의리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사이에 스스로 자각하고 지키게 되는 동지적의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과 목적으로 결합될 때에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개인의 리익과 향락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동지적관계를 이루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거기에서 혁명가의 참된 삶과 행복을 찾는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같은 사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굳게 단결하여나가는 고상한 혁명적의리를 높이 발양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의리를 자기의 숭고한 품성으로 하고있는것은 또한 그들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의리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며 협조하는 도덕적행동규범인것만큼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만 진정한 의리로 발전할수 있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의리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의리가 아니다.

사상의지의 일치성과 공통성에 의하여 사람들이 결합되여도 그들사이에 동지적사랑이 없다면 혁명동지들사이의 결합은 참다운 인간애로 결합될수 없으며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혁명적인 의리를 맺어주게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강렬한 자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지 못하면 혁명동지들사이에 응당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에 대한 자각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고상한 동지적의리를 발양할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은 건전한 륜리도덕형성의 기초로 되며 참다운 의리형성의 출발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자기의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집단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5～46페지)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열렬한 혁명가들이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을 잘살게 하는것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을 벌려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사람이 발동되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동지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도우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간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사랑, 동지적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더 값있고 귀중한 사랑으로 여기며 진정한 동지적의리를 지니게 된다.

실로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의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과 목적에 기초하고있고 사람에 대한 참다운 혁명적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도덕적품성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혁명적의리는 자기의 수령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며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는데서 높이 발양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사업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준다. 로동계급와 수령의 령도, 수령의 보살핌에 의해서만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람찬 삶과 행복을 마련해준 위원한 수령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며 수령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을 첫째가는 의리로, 마땅한 도덕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숭고한 의리를 높이 지니고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전사모두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삶의 보람을 안겨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있는가 못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손길밑에서 키워지며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이 가장 값있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는것은 진정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삶며 혁명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히우던 우리 인민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가장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지닌 영웅적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의 혁명전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한몸을 다 바쳐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는것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끝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4~345폐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참된 삶과 행복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이며 그런 참다운 생활은 오직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실현된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이 베풀어주는 육친적 사랑과 배려를 떠나서 인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자기의 수령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따르고 신뢰하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을 끝없는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시신 때로부터 오로지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오직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행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최대의 기쁨이시다.

오늘 우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는 것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마음껏 배우고있는것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과 은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적생명의 은인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하는것을 마땅한 도덕적의무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가장 순결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반세기에 걸치는 빛나는 혁명투쟁과정에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싸워온 충직한 인민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왔다.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하루 십여차례의 어려운 전투를 벌리면서도 적들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되돌아가 적들을 족치고 다시 유인하여 끌고 다니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보위한 오중흡동지의 빛나는 모범은 혁명전사들

이 지닌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숭고한 높이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선렬들이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면서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확신하며 끝까지 싸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그대로 말해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혁명적의리의 고상한 미풍으로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였으며 투쟁이 간고해질수록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혁명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절대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고 투쟁할수도 없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간직한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불뿜는 적화구를 서슴없이 막아나섰으며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적진속으로 뛰여드는 무비의 영웅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전후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혁명을 말아먹으려는 배신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지켜내였다.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였으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던것이다.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수놓아진 우리 인민의 자랑찬 로정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빛나게 이어지고 변함없이 고수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숨은 영웅들인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동무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 불면불휴의 영웅적투쟁을 벌려온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공산주의적의리의 미풍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인민들은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하는 이 혈연적뉴대야말로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고결하고 억센 통일단결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다.

참으로 주체형의 혁명가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적로정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티없이 순결한 량심으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혁명의 폭풍을 헤쳐온 자랑찬 나날들이다. 이 성스러운 길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도덕의리적단합은 더욱 굳세여졌으며 우리 혁명대오는 더욱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되였다.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 것은 대중교양의 힘있는 방법

리 태 수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문예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현명한 방침이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쌓으신 혁명적문예활동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와 보급 등 문예활동에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이며 재부이다. 그것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으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것으로 하여 혁명적문예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과 활동을 몸소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며 문학예술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령도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은 문학예술의 창조와 보급 및 공연활동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조선혁명에 철저히 이바지한 주체의 문예활동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문예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에서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였으며 인민들에게도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권, 259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의 목적과 사명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줌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이 혁명투쟁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달려있다.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위주로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가지고 문예활동을 벌림으로써 이 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은 철두철미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도록 교양하고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적문예활동을 통하여 군중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쳐 싸워나갈 불타는 충성심을 키워나갔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문예활동은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빛발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교양하고 고무한 주체의 문예활동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문예활동은 또한 문예창조와 공연활동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문예활동이라는데 그 특성의 하나가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문예활동을 벌리는것은 문예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문예활동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하여야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문예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혁명의 길은 순탄한 대로가 아니라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혁명투쟁이였다.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후방도 없고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준엄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문예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린수 있은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며칠씩 굶으면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은 한술두술 밀가루를 모으고 거기에 풀뿌리를 다져넣어 분장에 필요한 화장품을 만들었으며 쪼박천을 무어서 무대의상도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창작실도 극장도 따로 없었지만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나 행군길에서 각본을 쓰고 대사를 익혔으며 해방된 마을들에서 통나무로 가설무대를 만들고 백포로 막을 쳐서 공연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때로 공연도중 무대우에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쓰러졌다가도 불사조마냥 다시 일어나 계속 혁명가요를 부르고 춤을 추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한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문예활동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의 특성은 또한 문예창조와 공연활동을 광범한 군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벌려나갔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작가도 없었고 작곡가도 없었지만 연극도 하고 노래도 짓고 잡지나 소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모여앉아 서로 의논해가지고 각본도 만들고 노래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연극을 보고 군중은 좋다고 하였으며 거기에서 감동된 많은 청년들이 유격대에 막 들어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98페지)

광범한 군중의 지혜를 동원할 때 문예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일수 있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문예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집체적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문예창조와 공연활동을 벌리였다. 그것은 전문적인 작가나 작곡가, 예술단체가 따로 없는 당시의 환경에서도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공연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은 중요한 담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가 다 손에 총을 쥔 전투원들이였지만 전투가 끝난후이면 우등불가에 모여앉아 서로 지혜를 모아 노래도 짓고 각본도 만들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힘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연활동을 하였다. 상상을 뛰여넘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심장을 격동시키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작품을 가지고 문예활동을 할수 있은것은 연예대원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문예창조와 공연활동에서 집체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한데 그 비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예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도하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광범한 군중의 지혜에 의거한것으로 하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싸우는 고지와 마을들에서 높이 울린 혁명가요의 우렁찬 노래소리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혁명적작품의 주인공들이 웨치는 불타는 호소는 억눌리고 짓밟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맹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르는곳마다에서 활발히 벌어진 혁명적문예활동은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무기로 되였으며 원쑤들에게는 공포와 죽음, 멸망의 불벼락을 안기주는 총탄으로 되였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적재부로 되며 대중교양의 힘있는 방법으로 된다.

2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이다.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문학예술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데서 예술소조, 기동예술선동대와 같은 군중문학예술활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중문학예술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직접 구현되고있는 현실에 발붙이고있는 예술활동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관철자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자신의 문예활동이다. 군중문학예술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전문단체의 본을 따거나 대작주의를 하며 전문인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미리 막을수 있다. 그렇게 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예술활동을 통하여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대중속에 침투시킬수 있으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예활동을 사상성, 정치성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사상성이 높은 노래를 좋아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78페지)

문학예술작품이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어데서나 마음껏 보고 즐

기는것으로 되려면 우선 작품의 정치사상성이 높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문예활동을 하여야 그것이 참말로 사람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인 내용보다 예술적형식에 치우쳐서 《고상성》에 매달린다면 그러한 예술활동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없으며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오락으로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혁명적문예활동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적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하는것이다.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하여야 문예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벌릴수 있다.

원래 예술활동은 창조적인 사업이다. 더우기 군중적인 문예활동에서 고정된 처방이란 있을수 없으며 격식과 틀은 금물이다. 군중적인 문예활동은 응당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간단한 수단, 간편한 형식으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문예창조를 하고 공연활동을 벌려야 격식과 틀을 없애고 전투성과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예술소조활동이나 예술기동선동대활동에서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군중들의 감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례하면 중창이나 독창 반주도 관현악편성으로 크게 하는것보다 손풍금이나 하모니카, 기타로 하여야 하며 의상이나 신발도 늘 입는 옷, 신고 다니는 신발 그대로 하는것이 더 어울리고 보기에도 좋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문예활동은 간단한 수단, 간편한 형식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소박하게 벌린 참다운 본보기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피리, 하모니카와 같이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대중악기로 노래나 무용 반주를 하였으며 하모니카제주, 재담, 만담, 토막극 등 간단한 형식으로 공연활동을 벌리였다. 때로는 큰 형식의 혁명연극을 공연할 때에도 간단한 무대장치와 어디서나 구할수 있는 지님도구들을 널리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서도 예술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보장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상사람들을 격동시킨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화선예술은 격식과 틀이 없이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문예활동을 벌린 항일유격대의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좋은 실례이다. 화선의 인민군용사들은 전투의 짬짬에 불타다 남은 통나무와 총알깍지, 전화줄로 여러가지 화선악기들을 만들고 전투환경에 맞는 간편하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창조함으로써 전투원들에게 대중적영웅주의와 전쟁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었다.

소품은 문예활동을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품은 내용과 형식이 작은 작품이므로 창작하기 빠르고 련습하기 쉬우며 언제 어디서나 공연하기 좋다. 그러므로 군중적인 문예활동들에서는 소품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 군중예술활동에서는 다양한 소품형식들이 많이 창조되고있다. 중창형식만 보더라도 남성2중창과 녀성중창, 복중창, 혼성2제창, 북과 제창, 시와 중창, 3중창이야기 등 그 형식이 다양

하며 화술작품형식에서도 대화구연, 설화시극, 합창대화시, 대화시이야기, 노래토막극 등 다종다양한 형식들이 창조되고있다.

우리는 군중속에서 창조되고있는 이러한 소품형식들을 널리 받아들여 공연활동을 하여야 한다.

군중의 장기와 재능을 살리고 대중화하는것은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2페지)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창조자이다. 진정한 문학예술의 창조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문학예술활동에 광범히 참가하여야 늘어나는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학예술을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다.

군중들가운데는 풀피리를 잘 부는 사람, 입말을 잘 엮어대는 사람, 춤가락을 잘 맞추는 사람 등 각이한 예술적 장기와 소질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장기와 소질을 찾아내여 잘 살린다면 공연을 군중들의 감정에 맞게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문예활동을 더욱 대중화할수 있다.

군중의 장기를 살리고 대중화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내용을 통속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인 혁명적문예활동은 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소박하고 구수하게 해야 하며 그들이 리해할수 있도록 내용을 통속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감동시킬수 있으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문예활동에서는 문예창조와 공연활동을 언제나 통속화하였다. 이러한 공연활동은 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맞았으며 심금을 울리고 전투사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문예활동을 통속화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단위의 수준에 맞게 소박하게 하여야 한다. 례하면 군예술소조공연 같은데서는 수준에 맞게 제창을 위주로 하며 악기편성도 대중악기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상성, 정치성을 위주로 하고 격식과 틀이 없이 간단한 수단과 간편한 형식으로, 군중의 장기를 살리고 내용을 통속화할 때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예술선동을 강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군중적터전우에서 발전시키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쌓은 귀중한 경험들이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창조된 예술선동, 경제선동의 훌륭한 경험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예활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는 빛나는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문예활동의 빛나는 전통과 그것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창조한 예술선동의 귀중한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보람찬 과업이다.

우리는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문예활동이 참말로 우리 당 선전선동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계획화사업

김 원 석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보다 큰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새해의 인민경제계획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개시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의 이 보람찬 투쟁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의 하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는것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지금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도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7페지)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은 있는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국가의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생산을 늘이는데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 방법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면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자금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잘 리용하는것은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올해계획과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로 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낼수 있으며 공업총생산액과 국민소득도 빨리 늘일수 있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다면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련계와 균형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이 절실한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하여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자기가 맡은 생산과제 특히 협동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그와 련관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계획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균형도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관리운영사업도 더욱 개선할수 있다.

만약 공장, 기업소들에서 상순과 중순에는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다가 월말에 가서 돌격식으로 생산하여 월계획을 수행한다면 설비들을 혹사하고 많은 로력을 랑비하게 되며 제품의 질도 보장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로동행정사업과 설비관리사업 같은 기업관리의 중요한 측면들이 헝클어지게 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깐지게 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소의 경영활동전반을 더욱 개선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월초부터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이렇듯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만 가능하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현대적생산은 곧 사회적생산이며 한 기업소에서의 생산활동은 수많은 생산단위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생산의 정상화는 기업소내부에서뿐아니라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생산소비적련계가 원만히 보장될 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의 소유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자원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기업소들사이의 련계를 계획에 의하여 직접 맞물려주기때문에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이 원만히 지어진다.

사회주의경제제도에 의하여 담보되는 생산정상화의 가능성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하여 현실화된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똑똑히 세우는것은 경제발전의 첫째조건으로 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계획성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하여서도,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경제활동전반이 국가의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며 바로 여기에 그 거대한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생산을 정상화하자고 해도 계획화사업부터 잘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짜고들어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도 빈틈없이 맞물려줄수 있으며 필요한 생산조건들도 미리 마련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화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잘 보장하여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는것은 생산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려주어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민경제계획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채취공업을 앞세워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계획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대로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전망성있는 탄광, 광산들을 많이 개발하며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취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며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석탄과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도록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자원에 기초한 가공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도록 계획화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균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수송사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원료,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게 할수 있다.

계획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고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중량화하며 렬차운행을 고속도화하고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켜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업소들에 원료와 자재,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대줄수 있도록 물자계획과 협동생산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15페지)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고 해도 련관된 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물자의 공급규률과 협동생산규률이 엄격히 서있어야 한다.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물자공급규률과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세우자면 물자계획과 협동생산계획부터 잘 세워야 한다.

물자계획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비롯한 모든 물자들을 품종별, 규격별, 용도별로 그 공급원천과 정확히 맞물려서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물자계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수요와 공급을 총량적으로뿐아니라 시기별, 지역별로도 맞물리는것이다. 물자계획은 또한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 진행하며 계획실행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물자의 예비를 마련하는 원칙에서 세워야 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물자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적극적인 작용을 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협동생산계획은 기업소들사이에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한데 기초하여 생산용으로 쓰이는 부속품과 부분품을 비롯한 협동생산품들을 기본제품보다 먼저 만들어내도록 세워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화사업은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잘하여야 할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짜고들어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월전투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의 월전투계획은 국가계획의 요구대로 현행생산을 조직하여나가기 위한 기초이다. 월전투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서는 당면한 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예견성있게 보장해나갈수 없으며 국가계획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없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월전투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야 설비관리, 공장관리를 짜고들고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대주며 생산자들이 기술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기업소의 월전투계획은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도록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동원성있게 세워야 하며 상순, 중순, 하순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 세워야 한다.

월전투계획을 세우는데서 특히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는 생산공정들사이, 기계설비들의 능력사이의 균형을 잘 보장하고 예비부속품을 기준대로 마련하며 원료와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정확히 확보하고 물자예비를 충분히 조성하며 생산계획에 맞게 로력을 잘 보장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월전투계획을 세워야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계속 정상화할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잘 세우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계획은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오직 그것을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

국가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련결시키고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고있기때문에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공장, 기업소에서라도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와 련관된 부문들과 나아가서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모든 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규률을 엄격히 세워 말겨진 계획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생산을 계속 정상화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계획규률은 국가계획을 년간적으로뿐아니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며 생산액적으로뿐아니라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들과 생산기관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계획실행에 대한 지도와 보장 사업,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정황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계속 정상화할수 있으며 국가계획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계획기관들과 생산지도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계획화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해나감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여나가야 할것이다.

협동생산규률의 강화는 사회주의 공업경영의 중요한 요구

리 춘 덕

협동생산을 짜고들며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에 예견된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하여 제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다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37페지)

협동생산은 일정한 제품이나 복잡한 설비의 생산에 함께 참가하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맺어지는 생산적련계이다.

성능과 재질, 기술적특성이 서로 다른 복잡한 기계들과 설비들은 개별적인 부문이나 생산단위의 기술과 능력만으로는 원만히 생산해내기 어렵다. 설사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에서 복잡한 제품이나 설비의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과 부분품을 다 자체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그것은 경제적이 못되며 로력과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한다. 이로부터 복잡한 구조와 여러가지 부분품들로 이루어지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품과 부속품의 생산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부문들과 단위들이 협동작전을 하게 된다.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맺어지는 이러한 생산적련계가 바로 협동생산이다. 협동생산에는 정상적으로, 고정적으로 맺어지는 생산적련계뿐아니라 인시적으로 맺어지는 생산적련계도 포함된다.

협동생산은 거기에 참가하는 부문들과 단위들이 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제정된 질서와 규범에 따라 제때에 생산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정된 협동생산규률을 지키지 못하면 분업과 협업의 우월성을 옳게 리용할수 없게 되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떨어뜨리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협동생산은 오직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제정된 규률을 철저히 지킬 때에라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경영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계획경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서로 밀접한 생산적련계를 맺고있으며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생산자체가 고도로 조직화된 전사회적규모에서의 협동생산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세포를 이루고있는 매개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경영활동이 세부적으로 맞물려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다같이 생산계획을 수

행하고 협동작전을 잘해야만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을 균형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생산이 계획적으로만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어느 한 부문이나 어느 한 기업소라도 계획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협동생산규률을 어겨서 자그마한 부속품 하나라도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에 영향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많이 창설되여 인민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다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들이 생산될수록 거기에 더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참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협동생산을 옳게 조직하여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사회적분업이 심화되고 전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야 인민경제의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 특히 협동생산체계에 망라되여 제품생산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련계를 면밀하게 맺어줄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의 강화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고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생산규률을 세워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06페지)

전사회적범위에서 협동생산이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정된 계획규률을 잘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부속품과 부분품의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그것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기계, 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의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없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킬때에라야 그것을 받아쓰는 부문과 생산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을뿐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면 또한 랑비현상을 철저히 막고 투자된 자금의 순환을 더 촉진시킬수 있다.

협동생산은 여러 부문, 여러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진행되는 협동작전이다. 협동작전에 참가한 단위들에서 지표별계획을 수행하여야 그와 생산적련계를 맺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할수 있으며 반제품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협동생산규률의 강화가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막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그 순환속도를 높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는 신메없이 커졌으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분업과 전문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많이 창설되여 우

리의 인민경제는 더욱 다방면적이고 자립적인 생산구조를 갖추었으며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복잡하고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가 맺어졌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이러한 현실은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맺어진 생산적련계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협동생산규률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협동생산을 더욱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할 때 우리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산잠재력이 비할바없이 커진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유기적으로 보장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끊임없는 생산적고조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있는 자재와 있는 설비, 있는 로력과 있는 자금으로 공작기계와 채취설비, 짐배, 자동차, 뜨락또르 등 여러가지 기계와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세부화를 잘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80년 1월 1일, 9페지)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맞물려진 협동생산계획과제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요구,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협동생산계획은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할 법적과제이다. 협동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맡은 제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것으로 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협동생산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기관본위주의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인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개인의 리익보다도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보다도 언제나 인민경제의 전반적리익, 전사회적리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기풍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협동생산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는데서 주되는 장애물은 온갖 본위주의적 경향이다. 본위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리기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것은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의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주의와는 량립될수 없는 낡은 사상잔재이다. 일군들이 본위주의에 물젖게 되면 금액이 높고 만

들기 헐한 제품생산에만 매여달려 자기 단위의 금액상 계획이나 수행하려고 하게 되며 협동생산품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 되는대로 만들어 제품의 질과 규격, 생산기일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련관된 기업소의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없애야 하며 자기 부문, 자기 공장보다도 다른 부문, 다른 공장의 생산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협동생산품은 월초부터 계획에 맞물린대로 매달 15일전에 무조건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언제나 전국가적립장, 수요자의 립장에 서서 하나의 협동생산품이라도 보다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자면 협동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이 복잡한 생산적련계를 맺고 진행하는 협동생산에서는 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드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협동생산품은 다른 제품보다 먼저 생산보장해야 하는것만큼 이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완제품을 제기간에 잘 만들어낼수 있으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다.

협동생산 조직과 지휘를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협동생산계획작성에서 우리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협동생산계획작성에서 세부계획화방침을 관철한다는것은 협동생산품의 자그마한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하며 거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로력과 설비를 충분히 타산하고 맞물려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협동생산계획을 세부화하여야 협동생산품을 기한전에 앞당겨생산보장할수 있으며 완제품생산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제품의 규격과 재질, 제품을 생산보장해야 할 량과 기간, 그것을 생산하여야 할 기업소들의 내부전문화수준과 생산능력의 리용수준, 기술장비수준과 지역적위치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협동생산과제를 정확히 찍어주어야 한다. 특히 전동기, 감속기, 베아링을 비롯하여 기계설비와 중요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속품과 부분품을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에서 책임지고 수요자 공장, 기업소들에 직접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긴급하지 않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쌓아두거나 당장 필요한것을 생산해주지 않아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게 할수 있다.

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는것은 협동생산 조직과 지휘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자재공급사업을 바로잡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57페지)

자재는 생산을 위한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생산과정은 곧 원료, 자재의 소비과정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아무리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잘 지키려고 하여도 필요한 자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한 제품을 원만히 생산할수 없게 된다. 자재를 잘 보장해주어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생산지휘에 힘을 넣을수 있으며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지표별로 수행하고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만들어낼수 있다.

자재공급부문일군들은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협동생산세부계획에 맞물린 원료와 자재의 보유정형을 늘 장악하여야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그것을 품종과 규격, 재

질과 용도별로 생산에 앞세워 현물로 현장에까지 철저히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생산에 쓸 원료와 자재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거나 필요없이 그것을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협동생산품을 맡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해나갈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며 협동생산지휘에서 과학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과 단위들이 참가하는 협동생산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생산실태를 정확히 알수 없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과 협동생산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하며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주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협동생산에서 달라지는 정황을 처리하기 위한 용단을 제때에 내려야 하며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협동생산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자면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잘해야 한다.

계획수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잘하는것은 협동생산규률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통제적공간으로 된다.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실행정형을 총화할 때 현물지표별 생산계획실행정형과 함께 다른 부문,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 주기로 되여있는 협동생산품과 협동생산용 자재의 보장정형을 엄격히 따지고 그에 따라 평가사업을 하여야 협동생산품을 계획대로 만들어주도록 강하게 자극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협동생산품과 협동생산에 쓸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였는가, 그 질을 계약대로 보장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고 전반적인 계획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계획실행 총화와 평가가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하여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협동생산품을 잘 보장하는 사업은 일정한 제품이나 설비를 원만히 생산해내자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하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자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국토를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

강 윤 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치산치수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국토를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대자연개조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는 올해부터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력생산을 늘이고 큰물피해를 미리 막으며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13페지)

수력자원을 개반하고 물을 옳게 다스리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그것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특히 산과 강하천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으며 해마다 가물과 큰물이 오고 수력이 중요한 동력자원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이것을 잘하여야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을 자연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더 잘 실현해나갈수 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산좋고 물맑은 조국땅에 인민의 주권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아나갈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치산치수와 수력자원개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해방직후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고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대자연개조사업의 봉화를 올리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국토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자연개조방침을 내놓으시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와 현대적인 기재설비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크고작은 관개공사장들과 발전소건설장들을 찾으시고 건설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여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혁명발전

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토지법》을 채택하시고 국토총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자연개조사업을 계획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소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발전소들이 개건확장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동력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저수지들이 건설되고 관개공사와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치산치수사업이 널리 진행됨으로써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나라의 면모는 새롭게 개변되게 되였다. 지난날 일제의 략탈과 미제의 야만적인 전쟁으로 극도로 파괴되였던 공화국북반부의 산과 들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강하천들은 아름답게 정리되였으며 연풍호, 서흥호, 은파호, 만풍호를 비롯한 수많은 《산중의 바다》들이 생겨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는 튼튼한 자립적동력기지의 축성과 수리화체계의 전면적확립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된 조국산천의 새로운 면모,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방침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실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큰물피해를 영원히 막으며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수력자원을 개발하고 치산치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무엇보다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력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전력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금속, 기계, 건재, 화학 제품들과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는 문제가 크게 달려있다.

우리 나라에는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그 발전전망이 매우 좋다. 강하천에 언제를 쌓아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면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눅은 값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공급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연료, 동력 위기에도 구애되지 않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강하천에 언제를 쌓아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은 또한 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오는 자연피해를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게 한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무더기비가 쏟아지고 가물이 들며 해일이 일고 바다물이 밀려드는 등 자연피해를 이겨내자면 강바닥을 파고 동뚝과 언제를 쌓으며 저수지를 건설하고 사방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강을 정리하고 저수지를 만들면 큰물을 잡아두고 배수를 제때에 하여 중요한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 공공시설들을 큰물피해로부터 영원히 막아낼수 있으며 짠물과 해일 피해를 없앨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하천운수도 훨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농사의 대본이라고 불러왔으며 그것을 잘해야 나라가 륭성한다고 했다. 오늘에 와서도 치산치수는 농사를 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나선다. 강을 막고 언제를 쌓아 발전소를 건설하면 큰물로부터 논밭을 보호할뿐아니라 가물이 와도

물을 충분히 대줄수 있으므로 언제나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 그러므로 치산치수와 수력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이야말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은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불러일으키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산들을 나무가 무성하고 풍만한 자원을 가진 산으로 전변시키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애국심을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입니다.》(《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단행본, 2페지)

아름다운 조국산천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힘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을 끝없이 사랑하였으며 거기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여왔다.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려나갈수록 사람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게 되며 그것을 목숨으로 지켜낼 비상한 각오를 가지게 된다. 치산치수와 수력자원개발을 잘하여 강하천에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조국산천에 푸른 숲이 우거져 설레일 때 우리 조국은 더욱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륭성번영하는 민족의 기상과 영예를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치산치수와 수력자원개발은 우리 세대 사람들뿐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사업을 잘해나갈 때 우리는 든든하고 아름답게 정리된 강하천들과 대대로 물려가면서 쓸 크고작은 수력발전소들, 풍치수려한 조국의 산과 들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다.

그러므로 산과 물을 잘 다스리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동시에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대자연개조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과 연료, 동력 위기로부터 오는 영향을 주동적으로 막아낼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휘황한 조국의 미래를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수력발전소들을 만년대계로 튼튼히 건설하고 치산치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웅대한 대자연개조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진두에서 그 실현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그 어떤 대자연개조사업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밑천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수많은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새로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는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건설대상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에 따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1페지)

건설대상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며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대상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에 힘을 집중하여야 로력과 자재,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큰물피해를 미리 막고 전력을 빨리 생산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전력생산과 큰물조절을 위한 기본대상에 힘을 넣으면서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도처에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저수지들과 수력구조물들을 보강하며 강뚝을 쌓고 배수체계를 완비하는 등 치산치수사업을 년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큰 강하천의 류역에 제방을 건설하며 중소규모하천정리와 배수공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논밭을 큰물과 고인물 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설계를 앞세우고 자재, 설비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설계는 건설의 첫공정이며 설계를 앞세우지 않고는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설계를 앞세울 때 우리는 반복시공, 오작시공을 없애고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자면 설계력량을 잘 꾸리고 사업조건을 적극적으로 지어주며 설계를 될수록 표준화, 규격화하고 계산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또한 설계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설계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설계를 앞세우는것과 함께 건설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발전소건설과 치산치수사업을 앞당기는 문제는 결국 건설자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수력구조물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세멘트와 강재의 응결체이다.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만 보장되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

자재공급계획을 수력발전소건설계획과 정확히 맞물려 건설자재를 제때에 공급하며 지방들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때 발전소건설에서는 높은 속도가 이룩될것이다.

수력발전소건설과 치산치수사업은 많은 기계설비들을 요구한다. 굴착기, 화물자동차, 콩크리트혼합기, 압축기와 같은 기계설비들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건설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계획에 예견된 건설기계들을 앞당겨생산보장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가지고있는 기계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대줄수록 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건설자들을 옳게 조직동원하며 그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건설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 규률

있고 전투력있는 부대로 만들며 그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특히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새로운 시공방법을 창조하고 건설작업을 보다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만들며 수력발전소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일군들은 후방생활기지를 잘 꾸려 건설자들이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을 힘있고 전투력이 강한 건설부대로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건설장들마다에 투쟁과 창조의 기상이 나래치고 새로운 기술혁신안들도 끊임없이 쏟아져나올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새로운 시공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수력자원을 개발하고 물을 옳게 다스리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전격적으로 들이댈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발전소건설을 돕는 뜨거운 심정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여 한톤의 세멘트와 강재, 한사람의 로력이라도 더 많이 보내주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건설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력발전소건설과 치산치수사업에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를 위한 자연개조사업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당의 자연개조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일군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달라붙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이 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고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따라배워 수력발전소건설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현장에 내려가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생산지휘를 패기있고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수력자원개발과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국토를 락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은 남조선사회의 퇴폐풍조

리 승 복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여지없이 짓밟고 가장 퇴폐적인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악랄하게 퍼뜨리고 있다.

미일반동들이 남조선에 류포시키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을 사상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마약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8페지)

다른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수법으로서 놈들의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미제는 수많은 나라들에 사상문화적침투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더욱더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상과 반공사상을 불어넣어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부화타락케 만들며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흉악한 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의 민족문화를 파괴하고 귀중한 문화재들을 략탈해가는 한편 제놈들의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을 집요하게 퍼뜨리고있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허울좋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교육위원단》은 사실상 남조선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으며 각종 반동적인 출판물과 방송, 텔레비죤, 영화, 음악도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사회에 숭미반공사상을 부식시키고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악명높은 《제7심리작전부대》의 《인쇄출판쎈터》를 남조선에 옮겨다놓았을뿐아니라 제주도에 《아세아방송국》을 설치해놓고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퍼뜨리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지금 미제는 해마다 10만부이상이나 되는 반동적인 신문, 잡지, 도서들을 번역출판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퍼뜨리고있으며 그 무슨 《교류》요 뭐요 하면서 렵기적이며 색정적인 영화와 음악, 무용을 마구 류포시키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대표단》, 《시찰단》, 《관광단》의 간판을 가진 사상문화적침투의 척후병들을 해마다 십만여명씩이나 남조선에 들이밀어 남조선사회를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으로 오염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양키문화》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부식시키는 왜색, 왜풍으로 하여 남조선사회풍조는 더욱더 어지러워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무엇보다도 사상문화적침투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문화협조》와 《문화교류》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주한일본공

보원》이라는 문화침투기관을 설치하였을뿐아니라 《일한친선협회》, 《일한우호협회》, 《일한간친회》를 비롯하여 50여개의 《친한단체》를 조작해내고 그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친일사대사상과 썩어빠진 왜색, 왜풍을 퍼뜨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반동적인 출판물과 방송, 영화 등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사상문화적침투를 본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일본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아세아서점》, 《해외서적무역상사》, 《해외출판물주식회사》 등이 뻐젓이 자리를 잡고 군국주의사상과 썩고 병든 일본의 반동문화를 류포시키고있다.

《창가학회》와 《천리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들도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하여 들이민 교활한 사상문화침투의 도구이다.

이렇듯 남조선에 대한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사대매국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본격화되고있다.

외세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남조선괴뢰들은 미일상전의 지시에 따라 조상전래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여지없이 말살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제가 부식한 반공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조선에서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그것을 방패로 사회의 모든 진보적요소들을 탄압하고있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식《서부개척정신》과 일본의 《근왕파정신》을 본따서 《유신》파쑈독재체제를 만들어놓고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모든것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놈들은 부패한 미국식생활양식을 극구 찬양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대일문화개방》을 로골적으로 표방하면서 일본반동들에게 사상문화적침투의 문을 서슴없이 열어주고있다.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반동적인 《양키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온 남조선사회를 휩쓸고있다.

미일반동들이 퍼뜨리는 사상문화들은 철두철미 극단한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에 기초를 둔 강탈과 살인, 사기와 협잡, 부화와 방종으로 일관되여있다.

부패타락한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끊임없이 흘러듬으로써 오늘 남조선에서는 아름다운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량속이 빛을 잃고 온갖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있으며 남조선사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썩고 병들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8페지)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민족어가 무참히 짓밟히고 영어와 일본말이 판을 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살아오면서 자기의 우수한 민족어를 발전시켜온 슬기로운 인민이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조선말이 밀려나거나 영어와 일본말이 뒤섞인 잡탕말로 변해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선말을 하는것보다 영어나 일본어를 하여야 《유식》한것으로 되고있으며 영어와 일본말을 뒤섞어쓰는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미스터 김》, 《긴상》이라

고 지껄이면서 영어와 일본말을 아무꺼리낌없이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영어와 일본어는 방송, 출판물에도 공공연히 침습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방송과 텔레비죤에서는 방송제목의 36.8%가 조선말과 외래어가 뒤섞인 잡탕말로 되여있으며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들에는 우리 말로 능히 바꾸어쓸수 있는 외래어가 한 신문당 하루에 평균 800개 단어씩이나 씌여지고있다고 한다.

지어 남조선에서는 거리의 간판, 상품이름, 광고 같은것까지도 조선말로써가 아니라 영어나 일본어로 써붙이고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의봉사부문의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거리에는 《미스타미용》이니, 《미도리식당》이니 하는따위의 잡탕말로 된 간판들뿐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띤 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조선을 방문한 일본의 관광객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불편을 느끼지 않기때문에 전혀 외국에 온것 같지 않다.》고 지껄인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인 우리 말이 이처럼 짓밟히고 변질되고있는곳에 어떻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이 있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는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부르죠아문학예술이 만연되여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족문화예술작품들이 서양화되고있으며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문화와 예술이 밀려나고있다.

남조선에 퍼지고있는 부르죠아예술작품들은 모두 미국이나 일본 사회에서 고취되고있는 인간증오와 색정, 허무와 비애, 부화방탕을 설교하는 더럽고 추잡한 주제와 내용으로 가득찬것들이다.

남조선에서 만들어내고있는 영화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영화나 일본영화의 주제와 줄거리에다 주인공의 이름과 배역만을 적당히 바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과연 남조선영화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반동적인 영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살인과 강도, 폭행 등 범죄행위만을 조장하며 색정과 죽음의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를 류포시키고 있다.

음악은 광증과 비애, 절망과 고뇌로 가득찬 쟈즈나 류행가따위로 일관되여 있다. 남조선에 퍼지고있는 노래는 《당신만 사랑해》, 《미인》, 《하루만 못보면》과 같이 그 가사제목만 보아도 너절하고 추잡한것들이다. 이러한 노래들을 방송과 뻐스에서 마구 불어대고있으며 지어 식당들에서는 《조선노래를 틀면 식당의 위신이 떨어지고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 류행가와 군가를 꺼리낌없이 틀어놓고있다. 이러한 추잡한 노래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의 정신세계를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고등학교학생들이 즐겨부르고있는 노래가운데서 추잡한 행위와 색정을 내용으로 한 노래는 72%, 폭력과 음주방탕을 내용으로 한 노래는 28%나 된다고 한다.

민족무용도 자기의 고전적인 색채를 잃고 《만보》, 《트위스트》와 같이 저속한 동물적인 광증으로 변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부화방탕한 타체화된 춤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여 사회풍조를 더럽히고있다. 극장과 무도장, 《료정》들에서는 미국식생활양식을 본따서 남녀가 《부르스》, 《탕고》, 《고고》 등 더러운 춤을 추면서 추잡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어 고등학교학생들에게까지 퍼져가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의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이처럼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변질되여가고있다.

미일반동들의 이른바 《정신근대화》의 이름밑에 퍼뜨리고있는 온갖 썩어빠진 사상문화는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건전한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

다.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 왜색, 왜풍의 말세기적풍조는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부모처자도 모르고 돈과 일신의 향락을 위하여 미쳐날뛰는 정신병자로, 맥빠진 인간으로 만들고있다.

극단한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를 고취하는 반동영화를 보고 그 본을 따서 대낮에 은행을 습격하고 마을과 거리에서 돈과 금품을 략탈하며 부녀자들을 강간, 희롱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깽영화에 미친 일부 청소년들은 살인과 폭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으며 지어 돈을 위하여 자기 부모를 협박하거나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이는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국식깽단을 그대로 본딴 폭력단, 깡패무리들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성행하여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아갈수 없게 하고있다. 서울에만도 《하기파》, 《일만파》, 《촌놈파》 등 별의별 이름을 가진 깡패무리들이 생겨나 강도, 살인, 강간을 일삼고있다.

사회풍조를 더럽히는 범죄행위는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무려 12만 8천여건의 여러가지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직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이거나 부화방탕한 생활을 설교하는 영화, 텔레비존, 소설과 연극 등을 보고 거기에 물젖은 청소년들이 저지른것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의 10대, 20대 청년들속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것은 보통일로 되고있다. 서울의 명동거리에 있는 술집들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중 80%가 20대의 젊은 청년남녀들이라고 한다. 술과 담배는 남조선의 녀학생들속에서도 널리 퍼지고있다. 경북대학교의 한 연구집단이 발표한데 의하면 이 대학교의 녀학생들가운데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30%이며 술을 마시는 학생은 41%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에는 마약중독자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그가운데서 《대마초》중독자만 하여도 1만명이나 된다.

성도덕은 더욱 문란해지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는 미제침략군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부》들과 《관광객》을 대상하는 《접대부》들을 비롯하여 전문적으로 매음행위를 하는 륜락녀성들이 무려 30만~40만명을 헤아리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휩쓸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또한 옷차림과 몸차림까지도 《미국식》, 《일본식》으로 하고 다니는 퇴폐풍조가 류행되고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녀성들이 민족의 초보적인 량심과 도덕도 버리고 자기의 몰골을 《서양식》, 《일본식》으로 하는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별의별 괴상망측한 옷차림과 몸차림으로 허송세월하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에 물젖은 사람들은 흉측한 무늬와 징그러운 그림이 새겨진 옷을 되는대로 걸치고 맨발로 실내화 같은 신을 끌고 거리를 싸다니거나 속옷같은것을 입고 아무데나 돌아치고있다. 일부 녀성들은 괴상망측한 얼굴치장에 웃통은 거의나 드러내놓고 20센치메터도 못되는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니고있는데 그것은 마치 낮도깨비를 련상시킨다고 한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휘말려든 그들은 《육체로출제일주의》라는 썩어빠진 풍조에 빠져 헤매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녀성들은 《홉도레스》라는 긴치마와 긴바지를 입고 땅바닥을 쓸며 다니고있다.

남조선사람들속에서는 또한 미제침략군옷차림이 급속히 퍼지고있다.

미국놈들에게 고용된 《위안부》와 종업원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그밖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일부러 미제침략군옷을 지어입고 다니고있다. 지어 청소년들중에는 미제침략군놈들의 군사등급과

부대표식, 미제의 기반까지 공공연히 달고 다니거나 영문자로 추잡한 글과 수자를 새겨넣은 속옷을 겉에 입고 거리를 돌아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몸차림도 서양식으로 하고 다니는 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숭미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남조선의 적지 않은 녀성들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길게 기르고다니거나 일부러 《정형수술》을 하여 눈을 괴상하게 째고 코마루에 날을 세우고 입을 좁히며 젖가슴을 돋구는것과 같은 변장놀음을 일삼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에 대하여 《지금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한탄하면서 정형수술장을 찾아가 미국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짜코, 가짜눈섭, 가짜유방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있다.》고 남조선사회의 퇴폐풍조를 폭로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마구 끌어들인것이 남조선사회에 얼마나 엄중하고 해독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구한 민족문화가 짓밟히며 고상한 미풍량속이 흐려지고 온갖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있는 이것이 썩고 병들어가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량심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미국땅이냐, 일본땅이냐, 우리가 발붙일 땅은 도대체 어디냐.》고 하면서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변질해가고있는데 대하여 개탄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일반동들에 의하여 부식된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민족문화와 건전한 민족자주의식을 지켜나가는것은 절실한 사회적요구로 되고있다.

인민들이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견결히 수호할수 있다.

미일반동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한 고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으로 썩고 병들어가고있는 남조선 사회현실을 똑똑히 보고 미일반동들의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견결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남조선에서 발을 붙일수 없게 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민족문화와 고상한 미풍량속을 미일반동들의 침해로부터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성원국들의 숭고한 의무

조 규 일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의 근본성격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력사무대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이 운동성원국들에 의하여 합의되고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들에서 확인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군사쁠럭이나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협조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주요한 원칙들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공통된 념원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바로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뚜렷한 원칙들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으로 하여 위력한 력량으로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오를 급속히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정세발전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수 있게 된것은 바로 이 운동이 자기의 특성과 원칙들을 시종일관하게 고수해온데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이 운동의 강화발전과 그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만일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는 벌써 이 운동의 근본성격을 변질시키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결국 쁠럭불가담운동을 구락부화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을 성실하게 리행하는것은 모든 쁠럭불가담성원국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은 그들의 양보할수 없는 권리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의 안팎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모든 쁠럭불가담성원국들이 이 운동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갈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는데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은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것을 분렬, 파괴, 와해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구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유산들인 령토문제,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분쟁문제들과 제도, 신앙, 종교적차이를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한편 직접 또는 간접으로 쁠럭불가담운동내부를 혼란시키고 지어 이 운동을 자기 궤도로부터 리탈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났으며 그것들은 이렇게나저렇게나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저애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대오안에 생겨난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야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파피책동으로부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고히 보위할수 있으며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결코 그 누구의 지시나 힘에 의해서 해결될수는 없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 모든 성원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하여서만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원칙들을 정확히 리행해나갈 때 쁠럭불가담운동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될것이며 세계정치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것이다.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에 충실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1페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존중하여야 국제적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완전한 평등의 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원래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모든 나라는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자주성을 요구하는 운동이며 이 운동성원국들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자주성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그것은 이 운동의 훌륭한 전통으로 되였다.

쁠럭불가담나라가 자주성을 잃고 어느 한 쁠럭을 따라가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벌써 쁠럭불가담나라라고 할수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갈수도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 나라가 참다운 쁠럭불가담나라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교활한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그들의 세력권쟁탈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이 없이 외부의 간섭과 지배를 허용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끊임없이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수 있으며 나중에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롱락물로 전락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간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한다면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령토와 인구상에서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이 운동의 성원이 된지 오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원국들은 동등한 권리와 자

적을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특권을 허용한다면 매개 나라의 자주성이 무시될수 있으며 이 운동의 통일단결에 엄중한 후과가 미치게 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운동안에서 특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지역 모든 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다같이 이바지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서로 존중함으로써만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존엄을 튼튼히 지키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쁠럭불가담성원국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다.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이 운동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단결해야 승리할수 있고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하고만다는것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하여 통일전선을 이룩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바로 여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첫 력사적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운동이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세계정치와 국제정세발전에 그처럼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은것도 바로 이 운동의 통일단결된 힘에 있는것이다.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인민들의 자주성을 지향하고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우려는 공통된 념원을 가지고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공동으로 손잡고나갈수 있는 기초로 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해나간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의 힘을 몇배로 강화할수 있으며 그 어떤 지배주의세력과도 맞서 강한 타격을 줄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집단적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호상관계에서 독립, 자주권,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며 자기 운명과 자기의 사회정치제도를 자신이 결정하도록 매개 인민, 매개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이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여야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진실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발생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어디까지나 통일과 단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사회제도, 신앙과 신념에서 차이가 있고 정치적견해도 다르며 그의 발전정도도 같지 않은 조건에서 그들사이에 의견상이들이 있을수 있으며 분쟁문제들도 생길수 있다.

그러나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발휘하여나간다면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292페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이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에는 서로 협조하며 교류할수 있는 무진장한 잠재력이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만 교류하여도 그것은 큰 은을 나타낼수 있다.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누구를 예속시키고 지배하려거나 남의 리익을 희생시켜 일방적리익만을 추구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나간다면 이 나라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으며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강력한 경제적 뉴대를 이룩해나갈 때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압력과 예속화정책을 짓부시고 세계 제국주의의 전면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을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들에서 채택된 경제협조강령들을 리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이 운동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과 원칙들을 견결히 지켜나갈 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능히 물리칠수 있으며 이 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인류해방위업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확고히 고수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힘을 합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고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언제나 그들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0년 제1호(루계453호)

편집위원회

번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80년 1월 3일   발 행 • 1980년 1월 5일

ㄱ—9530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 호(454)

차 례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

오늘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보다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전변들과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길우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전변들과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전도는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높이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백전백승의 힘을 지닌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1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장성강화되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인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민주주의혁명,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는 과정에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48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정치적참모부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당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어렵고 방대한 력사적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해낼수 있는 강한 전투력과 백전백승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만이 인민들을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의 위력은 저절로 키워지는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강화된다.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복잡한 투쟁과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그리고 안팎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더욱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강화발전되였기에 그처럼 필승불패의 전투력과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영광떨치고있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이것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당의 전투력과 위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의 향도따라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에 차넘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불패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밝은 앞날을 확고히 담보해주고 있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당의 권위와 위신이 높고 그 위력과 전투력이 강한 때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당의 구령에 따라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당, 이런 위대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59페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는데 있다.

통일과 단결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불패성과 위력은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생활력으로부터 우러나온다. 로동계급의 당은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근로대중의 조직된 전투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다할수 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이 진실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자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되여야 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될때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그것을 고수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참다운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완강하고도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숨쉬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적단합이 이루어졌으며 자기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왔으며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단합된 힘으로 혁명의 난국을 진공적으로 헤쳐나갔다.

우리 당의 이러한 통일단결은 세대와 세대를 내려오면서 순결하게 옹호고수되고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그 불패성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힘이 있음으로써 조선혁명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할것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또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고 있는데 있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의 중요한 담보이다. 전당에 당중앙의 지시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규률이 서야 당이 하나의 혁명대오로 굳게 결속된 정치적력량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될때만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당중앙의 의도와 방침이 하부말단까지 깊이 침투되고있으며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서 숨은 영웅들과 같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려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수없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향도따라 충직하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안에서는 모든 사업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며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집행해나가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이 확고히 서있다. 이리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들이 어김없이 집행되고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실현되여 찬란한 결실을 맺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은 또한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터전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피줄을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모든 사상리론적재부들과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으며 이 위업을 이끌어줄 당이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축성되여있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적인 당이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왕성한 투지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전략과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는 언제나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기치따라 나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고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민족의 광명한 태일이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오직 하나의 지향,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은 조선혁명의 밝은 앞날을 더욱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고 있다.

2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적 변혁의 위대한 설계도가 마련되고 영웅적위훈의 빛나는 력사가 창조된다.

우리 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이 땅우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올리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오늘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더욱 높이 과시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1970년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 서사시적화폭으로 수놓아져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끎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실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그것은 우리 인민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한 힘의 원천이다.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력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0폐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를 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이 없이 남의 풍에 흔들리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창발성도 낼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주체확립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

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계급투쟁과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과제들을 가장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방침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 그리고 3대혁명로선 등은 다 우리 당이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의 리익과 지향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또한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풀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5페지)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력량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들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풀어나가시는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전당적, 전인민적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이끎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켜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발생발전하여온 자랑찬 력사는 바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키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밀어제끼고 혁명과 건설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변혁이 창조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를 휩쓸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투쟁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생산혁신자들과 영웅들이 배출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집단적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칠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생활은 혁명과 건설을 전당적, 전인민적 대중운동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하며 또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구호를 제시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당은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일단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는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진공적으로 점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대중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또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투쟁구호를 제때에 제시함으로써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그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난관과 시련을 대담하게 맞받아나아가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며 강철의 의지와 높은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패기있고 대담하게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우리 당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다.

전체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은 지금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자기 발전에서 위대한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요구이다.

지금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치고 민족적륭성번영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년대가 펼쳐지고있다.

1980년대의 첫해인 올해는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으로써 당 제6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여야 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보다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과 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당대렬의 순결성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투력과 권위를 높이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향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휘황하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 있다.

모두다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근본담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걸어왔다.

세기적인 변혁과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진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 그것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며 그 불패의 위력과 진리성을 검증한 자랑찬 행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언제나 위대한 창조와 변혁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성과적으로 뚫고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확신하고 있다.

1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불평등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력사상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로동계급의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의해서만 승리의 길을 개척하게 되며 빛나게 완성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승리하며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새 력사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졌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백전백승의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승리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고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은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혈맥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 참다운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찬란한 미래

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정치분야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견지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인민대중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무디여져 어떠한 창발성도 낼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덮어놓고 따라가게 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0～221페지)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사상적으로 남에게 매여 살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혁명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주견에 따라 행동하는 자주적인 존재이다.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남이 시키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스스로 혁명투쟁에 나선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이 없이 남의 풍에 놀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게 되며 어느것이 옳고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주견과 신념, 자주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은 결코 제멋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확고한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들이 다 담겨져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한다는것은 또한 모든것을 자기 나라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구체적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당과 로동계급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는 결국 혁명을 지도하는 당이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옳게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있다.

남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공식이나 명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서는 자기 나라 실정과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없다. 무엇이든지 씹어보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나라의 실정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철칙으로 삼아왔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면서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의 근본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철저히 관철해온데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간다는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02페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이다. 혁명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혁명의 승패는 그 나라의 혁명력량이 어떻게 준비되여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물론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 지지와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바로 민족의 자주권을 찾는 힘,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나라밖에 있는것이 아니라 나라안에 있다는것, 자기 인민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시련도 풍파도 용감히 뚫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 당의 경험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현실로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하는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당한 립장이다. 그것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조선혁명의 진행정을 위대한 승리로 수놓게 한 기본요인이며 힘의 원천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온 자랑찬 투쟁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7페지)

주체를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확고한 원칙이였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특히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역시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생소한 길을 헤치며 심각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세워야 하였다.

투쟁의 앞길은 간고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력사적과제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로 불리우는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남달리 어렵고 복잡한 길을 걸으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훌륭히 풀어나간데 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언제나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인간개조, 계급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빛나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을 튼튼히 견지할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세울 때라야만 옳바른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을 가지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새 조선이 나아갈 길, 새로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길을 밝히고 정권을 세우며 정규무력을 건설하고 토지혁명을 수행하는것과 같은 어려운 력사적과제를 가장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

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 그리고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우리 당의 인간개조방침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 등은 다 그 어디에서 본딴것이 아니라 주체적립장에 서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내놓은것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나라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것을 고찰하며 혁명실천이 요구하고 대중이 지향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성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해나갔다. 제 정신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로선과 정책을 주체적립장에서 독자적으로 세웠을뿐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힘있게 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7페지)

남달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하였던 우리 인민앞에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왔다.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된 빈터우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 전후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정권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다시 일떠설수 있고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서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였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과 외세를 등에 업고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사대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이 산산이 짓부셔졌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은 주체의 기치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림으로써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락후성을 가시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의 기치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었으며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온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그것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투쟁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나가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실로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주체의 기치밑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빛나는 투쟁로정이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전진과 승리에로 이끌어온 영광의 력사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고있다. 오직 당의 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며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깊이 자리잡고있는 억센 혁명적의지이며 신념이다. 또한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위력한 자위적방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찬 승리와 불멸의 업적은 주체사상을 견지한 결과에 얻어진 위대한 결실이다.

주체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실천적경험과 생활은 자주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자기 나라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바람이 불고 난관이 조성되여도 그것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위대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튼튼히 지키고 나라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주체, 그것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과거와 빛나는 오늘 그리고 휘황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혈맥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고 전진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3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위업수행에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안팎의 정세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전진운동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혁명투쟁이다. 이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울 때만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려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도 하루빨리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대오로 만들수 있다.

사상교양을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47페지)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자주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참다운 혁명가들인 백설희동무를 비롯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어려운 연구과제를 끝까지 완성하였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기성리론과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식의 전제를 내세우고 우리 식의 방법에 의하여 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숨은 영웅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이다.

사상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징표이다.

혁명은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순조롭게만 진행될수 없다. 혁명의 길우에는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여있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게 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집도 없이 통강냉이와 도토리를 먹으면서 강도 일제와 싸워 승리한것도 바로 그들이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 그리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데 있다. 력사적경험은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없이는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없으며 끝까지 혁명을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며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 우리 나라를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만드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그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자립성을 강화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힘이 없이는 하고싶은 말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일도 마음대로 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당의 요구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식량위기가 세계를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있는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리한 이상기후현상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주체농법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긍지와 영예를 더욱 깊이 느끼고있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이 방침을 실현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기술혁명을 적극 벌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사상의지로 살며 싸워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의 위대한 전환의 력사

변 창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시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더욱 풍부한 경험과 업적이 이룩되고 빛나는 결실이 맺어진 자랑찬 나날이며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력사적인 청산리현지지도를 통하여 주체의 대중령도 사상과 방법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당사업방법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또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1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방법을 옳게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서 그들자신이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혁명과업수행에로 그들을 성과적으로 동원하는 령도방법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히는것과 함께 혁명적 령도방법을 옳게 세워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당사업방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자면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혁명적인 지도방법,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사업방법을 세워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여 경제문화건설과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당사업방법은 객관적현실이 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며 혁명실천활동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8페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일관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원형으로 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초석으로 삼고 대중지도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다 밝혀져있다. 다시말하여 청산리방법에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들,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는 방법,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 등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지도의 방법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대중지도방법과 사업전개원칙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당사업과 국가사업,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도에서 언제나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사업방법의 본질과 특징은 그것이 어면 사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청산리방법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 철학적원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을 어떤 위치에 놓으며 그들이 노는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것은 대중령도의 근본립장, 근본방법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혁명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령도방법, 사업방법과 관련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령도방법만이 참다운 당사업방법으로 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노릇을 똑똑히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게 하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활동방식에 맞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참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민의 리익을 떠난 그 어떤 사업과 활동도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에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업태도와 활동원칙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모든 문제를 군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청산리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활동방식을 옳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사업방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창조적인 사업이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그 어떤 고정된 틀에 맞추어 진행할수 없으며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실정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격식과 틀에 맞추거나 남의것을 그대로 본딴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는것은 물론 실패를 면할수 없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깊이 연구분석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동하고 참신한 방도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이 방법은 또한 격식과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사업하는것을 배격하고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해나가게 한다. 따라서 청산리방법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격식에 맞추어 일하는 낡은 재래식방법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생동하고 창조적인 사업방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대중령도 사상과 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두고 대중의 혁명적각오를 높이고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2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의 위대한 전환의 력사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수놓아진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뽑고 혁명

적인 사업방법과 연면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연설만 한것이 아니라 강서군과 청산리 당단체에 대한 지도사업을 통하여 그 방도를 찾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3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로작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사업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령도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대중지도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범상학, 방식상학을 몸소 조직하시고 일군들에게 정치사업을 하는 방법으로부터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력사의 땅, 청산리를 본보기단위로 꾸리시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의 소박한 농촌집에 들리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 수십차례나 청산리를 찾으시여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많은 《청산리》가 생겨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더욱 힘있게 나래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낡은 재래식방법을 완전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전환하는것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고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사업방법 등 온갖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을 철저히 마스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 탁월한 방침이며 당사업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실속있게 관철하여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와 아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도와주는 사업체계, 당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방침, 사상전의 방법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고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 사업과 사업방법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당사업방법에서 일어난 전변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철저히 세워진것이다. 이것은 당사업의 본질적요구를 관철하며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이다.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의 이러한 본질적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확고히 세워지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섬으로써 일군들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사무실에 앉아 문서놀음이나 하고 지시나 하는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 사업방법이 마사지고 당사업이 진실로 산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정연하게 세워진 이 힘있는 사업체계에 의거하여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있으며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고있다.

당사업방법에서 일어난 전변은 또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된것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과 일군들의 지도수준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며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도대책을 세워 가장 과학적인 지도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우로부터 중앙집권적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며 군일군들은 리에 늘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그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체계가 철저히 서있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사업이 제도화, 생활화되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가고있다.

당사업방법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은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

되도록 하는 사업방법이 확립된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당일군이나 행정경제일군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떻게 하면 광범한 군중속에 더 빨리, 더 잘 침투시키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기대와 발머리, 배전으로 달려나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빨리 들어가게 되였으며 상하가 합심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더한층 높아지고 그들속에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튼튼히 서고있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 귀중한 성과이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약동하는 현실과 생산자대중에게서 배우고 군중들속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조직관념이 더욱 높아지고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다그쳐지고있다.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사업을 지도하는 행정에서 지도수준이 높아지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보다 세련되여가고있다.

언제나 돌격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틀을 차리고 령감티를 내는것과 같은 로쇠현상이 없어지고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사업을 통이 크게 포치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이며 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혁명적기풍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이렇듯 당 사업과 사업방법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한 훌륭한 일군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당사업방법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과 영웅적위훈은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를 더욱 빛내이고있으며 사람들을 투쟁에로 고무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온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는 가운데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높이 울리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 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전환,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거대한 전변,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3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해의 보람찬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대

단히 높으며 투쟁기세는 매우 좋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따라세우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2페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일군들은 혁명실천에서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생산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대중속에 들어가 살며 일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대중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훌륭히 복무할수 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몽땅 그대로 받아안고 언제나 대중과 함께 살며 일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이다.

이신작칙은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발동하기 위한 위력한 사업기풍이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오늘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서면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청산리방법대로 일하자면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풀어나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군들의 높은 령도예술을 요구하며 그러자면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 과학과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기술실무적으로 밝은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이 확증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이 위력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하며 오늘의 총돌격전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옳은 결합

염 원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특히 당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움직이는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경제사업과 옳게 결합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인 기백과 열정이 차넘치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와 경험들은 경제건설을 잘하는 문제가 당조직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어떻게 결합시켜나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 *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입니다.

당조직정치사업은 응당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경제사업은 당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건설에 대하여》 제3권, 262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당대렬을 꾸리고 공고히 하며 당조직들을 옳게 발동하여 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이 다름아닌 당사업이다. 당사업의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그 성과는 경제건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는 경제사업은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사업을 잘하여야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줄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는 문제는 결국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사업, 당활동 전반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나가는데 달려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다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정

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은 일찌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라는것을 밝히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사명,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의 호상관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내놓은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8페지)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쌓는 경제건설을 떠나서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업, 당활동은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이 다같이 잘사는 공산주의사회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데로 지향되고 거기에 복종되여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밀착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여 그들을 경제과업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근로자들자신이 경제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게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야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그 어떤 편향도 없이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는것이다.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착되면 될수록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조직에 더욱 철저히 의거하게 되며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호흡을 같이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여 경제과업수행에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밀착은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합심하여 투쟁할수 있게 하며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을 당적으로 보장하는 사업과 행정실무적인 사업을 밀접히 련결시킴으로써 인제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야 당일군들이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외면하거나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신들이 도맡아하는것과 같은 사소한 편향도 제때에 극복하고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올바로 지도할수 있으며 행정경제일군들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는것은 당이 내놓은 경제적과업과 그것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

고한 담보로 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또한 당사업자체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사업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 없는 기본구성부분이다.

당내부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과 당조직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사상사업이다.

당내부사업의 목적은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데 있다. 혁명과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경제사업을 떠난 당사업, 당내부사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하지 않는 당내부사업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당내부사업을 소홀히 하면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없고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바로 지도할수 없다. 행정경제사업의 성과는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여야만 원만히 보장될수 있으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의 성과여부는 당내부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할 때에는 해당단위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는데 복종시켜 진행하는것은 당내부사업의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복종시키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업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참모부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사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당내부사업을 강화하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릴뿐아니라 당사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활동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구체적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더욱 밀착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앞에 나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실현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당의 옳바른 정치적지도밑에서만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더욱 앞당겨수행해나갈수 있다.

* *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 문제는 모든 당일군들이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잘 알고 옳게 구현해나가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명시하시여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바로 지도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당사업, 당조직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당위원회, 군당위원회 그밖에 다른 모든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지)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자기 단위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수행하는것이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진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해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경제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일군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 수행방도를 잘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며 앞선 경험을 널리 따라배워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일군들을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이 옳은 방법론과 주견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것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당사업에서 쓸데없는 문서놀음을 없애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람과의 사업, 행정경제사업의 실제적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러한 평가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떼놓고보는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을 중심에 놓고 장악지도함으로써 당사업의 결과가 경제과업수행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며 그것으로 당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의 사업대상은 사람이며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38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당사업이 사람들을 힘있게 움직이는 명실공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수행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며 당정책집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당사업이 순수 당사업으로가 아니라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당사업으로 될수 있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사업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울 때만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아래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책임일군들은 언제나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작전과 구상을 잘하고 자체의 구체적실정을 료해장악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현실적인 집행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그것이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일단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목표와 방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 실현에로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경제건설에서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투쟁목표가 제시되면 당위원회 부서들사이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배합 및 협동 작전을 면밀히 진행하며 모든 사업을 혁명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조직하고 생산자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생산자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한편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늘 지도하고 통제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중간총화와 재포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되도록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행정식사업방법과 행정대행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원래 당기관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정치기관이다. 당기관들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이나 행정대행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움직이고 간부들이 당원들을 움직이며 당원들이 군중을 움직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경제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당조직들이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을 힘있게 조직지휘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직접 아래단위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며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이끌어주는것은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된다.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바로 지도하는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행정식사업방법과 함께 행정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을 없애야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바로 지도할수 있다.

경제사업이 중요하다 하여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경제실무적인 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당이 정치적령도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당일군들은 행정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이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치적으로 옳바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며 행정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의 사업상 권위를 세워주고 행정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또한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존중히 하며 행정적으로 포치되고 제기되는 문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주며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일상적으로 방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들이 행정실무적인 사업에 말려들지 않게 되며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하고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줄수 있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기 위하여서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방법론을 가지고 일한다는것은 제기된 경제과업을 대상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세밀하게 타산하여 묘술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는데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구체적인 사업조건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세워야 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체적방법론을 세우시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한다면 좋은 방법론을 찾을수 있다.

어떤 사업에서든지 일군들이 자체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광범히 협의한다면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은 해결 대책과 방도를 찾을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기 위한 방법론도 자체의 구체적실정을 료해장악하고 현실을 옳게 타산하며 많은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야 바로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자체의 사업대상의 구체적실태를 정확히 료해하며 일군들과 군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집체적협의를 널리 진행함으로써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해결하는 원칙에서 방법론을 찾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일군들은 행정일군이나 기술일군과는 달리 제기된 문제를 언제나 당적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풀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배워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경제지식을 알아야 하며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워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0페지)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경제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할뿐아니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있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의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자면 행정경제사업을 맡고있는 경제기술일군들은 물론 경제건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당일군들도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능숙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전반사업을 료해장악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을 떠밀어주기 위한 작전을 바로하며 걸린 고리들을 풀기 위한 방향과 당적보장대책을 옳게 세울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당사업, 정치사업을 하는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정력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이며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당일군들이 아는것이 적고 머리가 비면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유격대식으로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풍부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바로 지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당의 방침의 요구대로 당사업도 잘하고 경제사업도 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여온 전통적미풍

리 대 호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의 발현이다.

군민일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일찍부터 꽃피여났으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치고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더욱 공고화되고 높이 발휘되여온 전통적미풍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군대와 인민들 앞에 나서는 숭고한 의무이다.

군민일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합된 인민대중과 혁명군대와의 호상관계를 말한다.

군민일치는 로동계급의 혁명군대, 참다운 인민의 군대와 인민들사이에서만 있을수 있는 고상한 기풍이며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의 하나이다.

군대와 인민사이의 호상관계는 군대의 계급적본질과 사명에 따라 다르다.

적대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국가군대는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지배의 도구로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는데 리용된다. 자본주의국가군대는 이러한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로 하여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억압자로, 잔인무도한 교형리로 되며 따라서 이러한 반인민적인 군대는 언제나 인민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미제침략군대와 제국주의국가군대 그리고 식민지고용군대인 남조선괴뢰군이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는것은 그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군민간의 밀접한 관계는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와 인민들사이에서만 맺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다. 인민군대의 이러한 계급적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인민군대와 인민은 혈연적인 련계를 가지게 되며 하나로 굳게 뭉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리익과 목적의 공통성으로써 또한 자기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는 과업의 공통성으로써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과 그들의 아들딸로 조직되여있는 인민군대는 철저히 인민들속에서 나온 참다운 인민의 군대이며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에 있어서 인민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맡고있는 혁명임무와 초소는 비록 다르지만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이와 같이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밀접한 련계를 맺게 되며

하나의 통일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인민들과 밀접히 련결되여있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군대의 중요한 특성과 우월성이 있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나라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혁명군대의 전투력은 인민들의 정신적 및 물질적 지원에 크게 달려있으며 인민들의 안전한 창조적로동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은 군인들로 하여금 혁명군대에 복무하는 드높은 영예감과 긍지감을 가지고 전투력강화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맡겨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인민들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인민군대오를 끊임없이 보충해주고있으며 자기들의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물질기술적준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인민군대가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서있음으로 하여 마음놓고 창조적로동을 벌리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또한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성의있는 정치적 및 로력적 방조에 크게 고무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로력적성과를 확대해나가게 되며 현대적인 공장건설과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게 된다.

참으로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들을 로력적위훈에로 추동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군민일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맺어지고 줄기차게 꽃피여온 고상한 전통적 미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지주,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싸우며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66페지)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사이에서 발양되는 군민일치의 고상한 기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군민일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항일유격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조금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인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교양하시였으며 군민일치의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숭고한 실천적모범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인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여 원쑤놈들과 싸웠다.

그들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헤쳐나갔으며 위험에 처해있는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구출하였다. 그들은 부락에 잠시 머무를 때에도 될수록 인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애썼을뿐아니라 마당도 쓸어주고 터밭의 김도 매주었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의 생활형편이 가슴아파 적들을 들이치고 빼앗은 식량과 옷감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군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묶어세웠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만이 조국을 찾아주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혁명의 군대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항일유격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인민들은 항일유격대를 위하여 자기들은 굶는 한이 있어도 식량을 장만해주었고 적정을 알아다가 련락하여주었으며 적들의 토벌로 하여 항일유격대공작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희생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주군하였다.

특히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유격대와 인민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일심동체가 되여 원쑤들과 용감히 싸웠으며 준엄한 싸움의 불길속에서 군민일치의 고상한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가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15성상 강대한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워이길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항일유격대와 인민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싸웠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해방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그대로 계승되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3년간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이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참으로 엄혹한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성스러운 싸움에 결연히 일떠선 인민군군인들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으며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원호를 받으면서 싸움마다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치였다. 그들은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어떤 어렵고 불리한 전투정황에서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으로 지켰으며 사랑하는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 인민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혁명의 전취물을 몸바쳐 수호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원쑤들의 야수적폭격과 함포사격을 무릅쓰고 위험속에서 인민들을 구출하였고 전투의 여가를 리용하여 인민들의 바쁜 일손을 도와줌으로써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전선에서 피흘려싸우는 인민군대를 적극 돕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긴 우리 인민들은 모두가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전선원호사업에 한결같이 동원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무너져가는 토굴집에서와 지하에서 낮에 밤을 이어 전시생산을 다그쳤고 농민들은 소잔등과 농기구를 위장하고 적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시식량증산에 떨쳐나섰으며 수송전사들은 불구름을 헤치면서 전시수송을 보장하였다. 전선지구인민들은 싸우는 인민군대를 도와 사선을 헤치면서 전선에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였으며 담가대를 조직하여 부상병들을 후송하고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들은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결전장에서 인민군전투원들과 한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겨주군하였다.

포연이 타래치는 전선길을 헤치고 1211고지의 영웅적방위자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날라다준 속사리인민들, 사품치는 강물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몸으로 다리를 떠받듦으로써 월비산과 351고지에 대한 전시수송을 보장한 남강마을사람들을 비롯하여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인민군용사들을 도와 희생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인민군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한 그들의 고귀한 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군민일치의 고상한 기풍은 적후에서도, 남반부에 진

격하였을 때에도 높이 발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 영웅적이며 헌신적으로 싸움으로써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주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견결히 싸울 때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군민일치는 전후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더욱 공고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승리한 고지로부터 전후복구건설장으로 달려온 인민군군인들은 인민들을 도와 잿더미를 헤치고 공장과 도시를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인민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다그치고있는 인민군대를 도와나섰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주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보람찬 나날에 인민군대와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밀접하여졌으며 건설장과 농장별 그리고 인민군초소들에는 군민일치의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지고 높이 발양된 군민일치의 미풍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 힘찬 진군길에서 더욱더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달성한 그 모든 성과속에는 우리의 영웅적인민군 군인들이 흘린 고귀한 땀이 스며있으며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장성강화된데는 전체 인민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성원이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더 철벽으로 다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여야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73페지)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도록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민일치에 관한 사상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이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혁명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결합되여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민일치에 관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실천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조그마한 현상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따라배워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들속에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군대안에서는 인민군대의 본성과 사명, 군민일치의 중요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생동한 사실과 결부하여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들속에서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친혈육의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성심성의를 다하여 물심량면으로 원호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지역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가지고 군인들이 군무생활에서, 군사적임무수행에서 아무러한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는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군사복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애국렬사유가족,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들을 세심히 돌봐주어야 한다. 특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자기 초소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고무해주어야 한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군인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함께 그의 물질기술적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인민군대가 요구하는 각종 물자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며 농촌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과 부식물을 인민군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인민군대가 인민의 충복이라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인민들을 대하고 도와주는것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인민군군인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고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예절바르게 대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민군군인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여가를 리용하여 주둔지역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건설사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사업,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똑바로 평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리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1

민족문화유산을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는가 못하는가,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25페지)

매개 민족은 자기 발전의 력사를 가지는것과 함께 그 과정에 창조된 고유한 문화예술을 가지고있다. 문화예술은 민족생활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다시말하여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의 력사와 련결시켜보아야 하며 민족의 력사를 알자면 민족문화유산을 알아야 한다.

자기 인민이 어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왔고 자기 조국의 력사가 어떻게 발전하여왔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생길수 없다. 민족문화유산을 무시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과 인연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면서 무엇보다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똑바로 세우도록 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문화유산이 민족의 발전력사를 전하여주는 귀중한 민족적재부로 된다는 립장과 관점을 세우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전위적기수인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견결하고 혁명적일뿐아니라 애국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문화와 민족의 모든 훌륭한 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랑스러운 문화적재부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은 바로 우리 민족의 력사를 전하여주는 귀중한 민족적재부로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와 우리 나라 민족문화유산의 풍부성, 우수성을 잘 알 때 애국적감정은 더욱 깊어질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 립장과 관점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생겨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지난날의 문화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 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우리 나라 문화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29페지)

어느 시대의 어떠한 문화든지 그것은 선행한 문화와의 계승성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한다. 선행한 문화와의 련관을 가지지 않는 문화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문화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도 여기에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이 결합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킨다는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나라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며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혁명과 인류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나라와 민족이 있고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적인것을 무시할수 없으며 문화를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민족적바탕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만이 그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감정에 맞고 그들의 혁명투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기때문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에게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문화의 민족적형식이 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애국적인 인민일뿐아니라 아름다운 풍속과 례의도덕을 가진 문명한 인민이다. 조선인민은 점잖고 부드럽고 연한것을 좋아하며 예술분야에서는 조선화나 민요, 민족무용과 같이 오랜 력사적발전과정에 형성된 민족적인 예술형식들을 좋아한다.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에는 바로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심리정서적특성과 창조적재능이 담겨있으며 그들의 생활감정을 표현하는데 알맞고 그들이 좋아하는 민족적형식이 여러가지 형태로 깃들어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함으로써만 민족적형식을 살릴수 있고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아 인민대중의 감정과 비위에 맞고 그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훌륭히 꽃피울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계승하는것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민

족문화유산이 파괴략탈당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그것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온갖 썩어빠진 반동문화가 판을 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참으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적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주체가 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와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는것이다.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유산의 옳바른 계승발전을 두 극단에서 가로막는다.

민족허무주의는 문화유산에 남아있는 부정적측면만을 일면적으로 보면서 자기 민족의 지난날의 력사와 문화, 자기 민족의 모든 우수한것을 다 부인하고 배격하는 그릇된 경향이다. 민족허무주의는 공산주의사상과 인연이 없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민족허무주의가 조장되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끌어들여 이색적인것이 판을 치게 할수 있으며 민족적인것은 배제되여 문화의 주체적발전을 이룩할수 없게 한다.

이와 반면에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혁명적 사상조류이다. 복고주의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인연이 없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밑에 덮어놓고 옛날것을 그대로 되살리며 찬미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의 얼빠진 행위이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가운데는 옛날 량반들의 구미에 맞게 창작된 시조나 판소리 같은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 또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다 하여 그대로 하라고 하면 청년들은 그런 사람을 얼빠진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을것이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민족문화유산의 옳바른 계승발전도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90페지)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민족문화유산들을 정확히 평가하며 그에 기초하여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유산계승에서의 원칙적요구이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는데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리익과 그 당의 정책적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들을 평가처리하고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민족문화유산들을 그것이 창조된 구체적인 조건들과 관련시켜 고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문화유산은 지난날 착취사회의 조건밑에서 각이한 계급, 계층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이리하여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계급적 및 력사적 제한성이 있게 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문화인것만큼 그것이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이어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이며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서 계승할 가치가 있는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어떤것이며 혁명에 해롭고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가려내는것은 유산계승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또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원래 시대가 변하면 인민들의 정서도 변하기 마련이다. 문화의 민족적형식자체도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발전하는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은 우리 시대와 다른 사회력사적조건밑에서 창조된것만큼 그것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맞을수 없는것은 물론, 사회주의문화의 혁명적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아무리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개작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골라 오늘의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민족문화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형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갈 때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참다운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가 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이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주체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고 반대하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견해와 그릇된 관점이 산산이 부서지고 로동계급의 문화건설리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찬란한 우리 민족예술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2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민족문화유산들을 전면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정확히 평가처리하며 그것들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자그마한 문화재를 놓으시고도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지어는 조상들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고적의 단청을 잘할데 대하여서까지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당적, 국가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적, 군중적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져있으며 민족문화유산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들과 민족문화유산들을 진렬하고있는 박물관들, 문화보존사업소들이 널리 조직되여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판도에서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

우수한 민족적유산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집정리하는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정당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개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유적, 유물들과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 력사책들을 발굴하고 수집정리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 과정에 고인단계의 사람들인 《력포사람》과 《덕천사람》, 신인단계의 사람인 《승리산사람》이 발견되였고 대안시 덕흥리벽화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 유적, 유물들이 새로 발굴정리되였으며 민요, 구전설화, 민속무용 등 인민창작과 1910년대, 1920년대의 작품을 비롯한 지난날의 문학작품들이 널리 발굴수집되였다.

또한 1,763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력사책인 《리조실록》번역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묘향산의 대웅전과 만세루, 안주의 백상루를 비롯한 고적들이 옛모습 그대로 훌륭하게 복구되였다. 오늘 대웅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서적인 8만대장경과 불교관계의 유물들을 진렬한 박물관으로서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이 불교의 허황성과 반동적본질,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우수한 건축예술과 출판문화를 리해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전면적으로 심의평가한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이 오랜 력사적과정을 두고 형성되였고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각양각색의것으로 이루어져있는만큼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평가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조급성을 범하면 사상사업과 문화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우리 당은 민족문화유산을 심의평가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이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수천년을 두고 창조된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와서 로동계급의 리익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전면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민족적바탕에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민족문화유산을 사상, 문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취급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효과적

으로 리용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찬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조선력사를 주체의 방법론에서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방대한 《조선전사》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고 조선문화사, 조선문학사, 조선철학사 등 부문사들이 새롭게 체계화되여 근로자들과 후대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하는 주체가 선 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게 한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예술에서 주체란 다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하는 것이다.

문학예술유산들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되였다.

음악분야에서는 쐑소리를 없애고 조선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주체적인 발성법을 완성하였으며 우아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민족악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정서에 맞게 음량을 더욱 풍부히 하고 음역을 넓히는 방향에서 개량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의 음악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힘있게 발전하고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형식의 옳은 결합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되였다.

미술분야에서는 조선화의 전통적인 화법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현대적미감에 맞는 화법을 창조하였고 무용분야에서는 민속무용발굴사업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부드럽고 섬세한 춤가락과 률동을 가진 민족무용이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음악, 미술, 무용뿐아니라 모든 종류와 형태의 문학예술이 조선적인것,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식으로 발전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고 주체가 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이다

리 상 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은 훌륭한 혁명적대작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창작되고있다. 이 대작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준 독창적리론이다.

* *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았다.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리론은 문학예술에서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 구체적으로는 대작에서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품이 대작으로 되려면 형식보다도 내용이 대작다와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75페지)

모든 사물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도 내용과 형식은 변증법적관계에 있다. 내용을 떠난 형식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도 있을수 없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것은 내용이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여 형식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내용은 그에 알맞는 형식을 통하여서만 정확하게 표현될수 있다. 또한 내용에 맞게 잘된 형식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하면서 내용을 더욱 생동하게 드러낸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고상한 내용과 세련된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기본문제의 하나로 되며 혁명적대작창작에서도 근본문제로 나선다.

창작실천에서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를 생활의 법칙에 어긋나게 다루면 형식주의에 빠질수 있다. 대작창작에서 형식주의에 빠지면 내용이 가치있고 깊이있는 작품보다도 형식과 규모가 큰 작품을 쓰는데 매달리는 대작주의를 범하게 된다. 대작주의적경향은 한 작품안에 주인공이 투쟁을 시작한 첫날부터 승리할 때까지의 전과정을 전기나 년대기 식으로 담으려고 하거나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끌어들여 조립식으로 꾸며내는데서 나타난다. 창작에서 대작주의를 하면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 파고들 생각은

하지 않고 혁명의 전략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요란한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을 끌어들여 방대한 구성을 세워놓게 된다. 이렇게 한편의 작품에 혁명투쟁의 전과정을 다 담으려고 할 때에는 어쩔수 없이 생활을 라렬하거나 기록하게 되며 결국 규모만 크고 내용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학과 예술은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심도있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혁명사상을 심어주고 투쟁 경험과 방법을 배워줄수 있게 되려면 어디까지나 내용이 깊이있게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작품을 대작으로 만들려면 형식보다도 내용을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이렇듯 대작에 관한 문제를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밝히고 대작의 본질적특징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고 정식화하였다.

대작은 그 어떤 특수한 형식의 작품이 아니다. 묘사방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학예술에는 대작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따로 없는것이다. 어떤 작품에 대하여 대작이다, 걸작이다 하는것은 그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 따르는 평가이지 형태상 특성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대작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그 본질적특징이 있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심도있게 풀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큰 도움을 주는 작품이 바로 대작인것이다.

이로부터 대작은 혁명발전로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면서 준엄한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형상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발전과정을 깊고도 폭넓게 일반화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혁명적대작은 지난날 흔히 말해오던 서사시적형식의 큰 작품들과는 마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혁명적대작이 지난날의 《대작》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현시대의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발전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 보통작품과 다른 대작의 특징이 있는것이다.

물론 대작은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낸다. 그러나 대작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오랜 력사적기간에 벌어지는 사변들을 크게 벌려놓고 방대한 생활내용을 담아야 하는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대작에는 오랜 시기에 걸치는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방대한 생활내용을 담고있는 규모가 큰 작품도 있고 혁명발전의 어느 한 시기의 력사적사건에서 자그마한 이야기를 잡아가지고 형상의 폭을 넓혀서 만든 작품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작품의 가치는 내용에 의하여 평가된다. 아무리 사건과 생활규모가 방대한 작품이라고 하여도 내용이 깊고 풍부하지 못하면 대작으로 될수 없다. 반대로 규모는 작아도 사상적내용이 깊고 풍부하면 얼마든지 대작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나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가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본질을 밝혀내는 다부작형식의 대작이라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자그마한 이야기 줄거리를 잡아쥐고 폭을 넓혀 심도있는 형상을 창조하여낸 대작이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규모가 커서 대작으로 된것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농촌이라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한 머슴군가정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주인공 꽃분이의 생

활과 그의 인정심리세계를 통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작은것에서 큰 문제,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 한 평범한 인간의 성장을 통하여 혁명의 필연성을 밝혀낸데 이 작품의 고전적모범이 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서사시적인 력사적사건이나 비범한 영웅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한 평범한 조선의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의 본보기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대작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추었다.

결국 대작은 취급된 사건의 규모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상적내용의 깊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비록 작은 이야기거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민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는 작품이라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그것을 마땅히 대작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대작의 규모와 형식은 그 내용에 따라 규정되는것만큼 대작을 쓰려는 작가는 언제나 내용을 대작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혁명적대작이란 어떤 작품인가를 새롭게 인식시키며 그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르게 풀수 있는 과학리론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또한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용을 대작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깊은 해명을 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내용을 대작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종자를 잘못 잡으면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을뿐아니라 규모에만 매달리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건과 생활 규모가 방대하고 요란한 반면에 내용에서 크게 건어질것이 없는 작품은 똑똑한 종자를 쥐지 못하고 창작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것이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는 혁명의 기본흐름속에서 잡아야 하며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안고있는것이여야 한다.

대작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따라 혁명발전의 기본흐름을 옳게 그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창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력사적사실을 당성원칙과 력사주의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의 흐름을 따라 우여곡절을 그리면서도 력사발전의 본질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허구를 리용하여 사실가운데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것만 돋구어내면서 일반화하여야 한다.

대작에서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취급될수 있다. 사회혁명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문제들, 다시말하여 혁명의 근본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의의있는것일 때에는 얼마든지 취급할수 있다. 그러나 대작이라고 하면 혁명발전과정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혁명투쟁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어야 하는만큼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설정되여야 한다.

대작에서는 또한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은 대작에서 내세운 혁명의 기본문제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생활을 통하여서만 옳바르게 밝혀질수

있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내용을 대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물의 성격장성과정, 특히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통하여 혁명발전의 본질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밝히였다.

작품의 기본문제는 혁명의 진리와 그 승리의 필연성을 점차 깊이 인식하고 신심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인물들의 성장과정에 더욱 뚜렷이 확증되면서 풍부한 사상적내용으로 확대심화된다. 작품의 기본문제가 커다란 사상적내용으로 확대심화되는 과정은 주인공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주인공은 혁명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 그 본질을 더욱 깊이 알게되고 미래에 대하여 락관하면서 목적의식적으로 싸워나가게 된다.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사상의식과 생활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담아내는데 대작의 참다운 내용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가 대작으로 될수 있은것은 주인공어머니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낸데 있는것이다.

내용을 대작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또한 형상을 집중화하는 것이다.

형상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한다는것은 이야기를 벌려놓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나 생활을 그려도 그것을 여러모에서 깊이있게 그려내여 그 한가지 사실을 통하여 많은것을 느끼고 알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록 소재는 간단한것이라도 내용을 깊이있고 폭넓게 형상하면 얼마든지 대작이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89페지)

워낙 형상의 본질은 인간과 생활을 사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보고듣는 과정에 그속에 체현되여있는 깊은 뜻을 감성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는데 있다.

작품에서는 형상이 집약되고 섬세하게 될수록 크지 않고 길지 않은 이야기에도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킬수 있다.

대작에서는 인간의 사상의식발전과 혁명운동의 전진을 방향짓고 추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데 형상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도, 혁명발전의 합법칙성도 다 옳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역할을 제대로 놀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건이나 인물이라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심도있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에서 사건과 생활을 집약화하여 그리려면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맞물리게 사건을 잘 짜야 하며 인물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낼수 있는 생활국면들을 잘 조성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고 사건이 발전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잘 짜나가야 규모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이야기를 깊이있게 펼쳐나갈수 있다. 또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잘 조성해놓아야 작품을 지루하게 벌려놓지 않으면서도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할수 있다.

극을 안지 못한 사건, 내용이 없는 생활은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건과 생활은 규모와 형식만 커지게 할뿐이다.

작품을 대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내용과 함께 형식도 집약화하여야 한다. 형상을 극적으로 집중하는가 아니면 평면으로 늘어놓는가에 따라서 그 형식이 조화롭게 째일수도 있고 부피와 길이가 필요이상 늘어날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식도 집약화하여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째이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구성을 잘 짜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실재한 혁명가들을 원형으로 하여 대작을 쓸데 대한 문제, 대작의 다양한 주제방향에 대한 문제, 대작주의를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문제 등 대작창작에서 나서는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내용을 대작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적대작을 훌륭하게 창조해낼수 있는 창작리론을 정연한 체계로 완성하였다.

* *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리론은 혁명적문예리론발전과 대작창작실천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은 무엇보다도 혁명적대작에 대한 전혀 새롭고도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대작에 관한 리론을 정연하고 완벽하게 체계화할수 있는 과학리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지난날에는 일반적으로 서사시적형식의 큰 작품이면 대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대작을 주로 규모와 형식의 측면에서 고찰한것으로서 대작이란 어떤 작품이며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여야 하는가에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내용보다도 규모부터 크게 하려는 이러한 견해는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는 규모가 큰 작품이면 다 대작으로 여기고 요란한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을 끌어들이여 방대한 구성을 세워놓는것으로써 한몫 보려는 그릇된 견해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대작의 본질적특징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통하여 혁명발전의 본질을 밝혀주는 작품이 바로 대작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이것은 대작의 개념과 그 특징을 과학리론적기초우에서 새롭게 밝힌것으로서 대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준 일대 전환으로 된다.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은 또한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대작을 더 훌륭히 창조해낼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혁명투쟁을 벌리고있는 주체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큰 도움을 주는 혁명적인 대작을 많이 창작해낼것을 요구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체계화함으로써 크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주체시대의 벅찬 혁명적현실을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특히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리론은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있게 그려내여 조선혁명운동의 본질을 훌륭하게 밝혀낼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혁명투쟁의 본질을 밝히는것은 혁명적대작의 주되는 형상적요구이다. 우리의 혁명적대작은 조선혁명운동의 본질을 그려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대로 조선혁명의 력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수많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이 발전하는 과정에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사변들이 생겨났다.

내용을 대작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불멸의 력사를 타렬하지 않고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었다.

실로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리론은 거대한 력사적사건과 방대한 생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주인공의 운명발전과 결부하여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력사발전의 본질을 일반화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또한 이 리론은 대작창작에서 전기나 년대기 식으로 한편의 작품에 혁명투쟁의 전력사를 담으려고 하거나 여기저기에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끌어들여 조립식으로 작품을 꾸며내는것과 같은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이 리론에 의하여 대작창작에서 규모와 형식만을 크게 하려는 그릇된 편향을 없애고 내용이 가치있고 깊이있는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다.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나라 혁명적대작창작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예술형식에 옮겨놓는 과정에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그대로 옮긴 영화와 가극과 소설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오늘의 무대에 다시 올린 혁명연극 《성황당》,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과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나라 혁명투쟁력사의 본질적내용들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소설,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분야에서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주제령역에서도 훌륭한 대작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현실은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이 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사회주의적문학예술발전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시대와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대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

백 재 욱

대중운동은 혁명과 건설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는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옳게 이끌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적극 발동시켜야 한다. 대중운동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중운동을 확고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려 수백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때만이 혁명과 건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대중운동이 얼마나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건인력과 생활력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어떻게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있다.

새로운 대중운동이 발생하고 높은 형태로 심화되는 과정은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운동이 일어나자면 주객관적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대중운동은 그것이 충분한 정신적 및 물질적 력량에 토대하여 일어날 때에만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킬수 있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는 그에 맞는 대중운동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정치사상적 및 사회경제적 성과에 토대하여 발생발전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발기되고 조직령도되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일어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커다란 전변에 토대하여 합법칙적으로 발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0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이 심화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할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의지로, 확고한 생활신조로 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려는 높은 경지의 충성심이 튼튼히 뿌리내리게 되였으며 그것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확고하게 신조화되고 보편화되게 되였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대단히 좋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이것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이와 같은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숨은 영웅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은 사상정신적기초로 되였다.

숨은 영웅들이 보여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고상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지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뚜렷한 발현이며 그 필연적귀결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으며 당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적풍모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참된 전형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생동한 본보기이다.

숨은 영웅들이 보여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모범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

뗑게 하면 값있고 보람있는 일을 더 많이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영광스러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혁명적지향과 열망으로 불타게 하고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두가 그들처럼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세련된 지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의 열정과 높은 혁명적열의,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확고한 각오와 굳은 결심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합법칙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발전할수 있게 하는 사회적요인으로 되였다.

이처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이룩된 전변에 토대하여 발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한층 더 높일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바로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로정에서 이룩된 문화적 및 경제적 성과에 토대하여 합법칙적으로 일어난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29페지)

대중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사상의식과 함께 사회의 일정한 문화적 및 경제적 조건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사회의 일정한 문화적 및 경제적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질 때 사람들은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해나갈수 있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 실천적으로 기여할수 있으며 거대한 위훈과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문화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였으며 교육과 과학을 빨리 발전시켜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하였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고등중학교 졸업정도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가고있다.

이와 함께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최신기술로 장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히 다져졌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달라붙는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도 능히 풀어나갈수 있는 문화적 및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특히 오늘 당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세대들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든지 다 주체적립장에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기본적인 과학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 든든한 물질기술적조건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대중적으로 나올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순간을 살아도 당을 위하여 살고 한생을 영원히 당과 혁명을 위하여 바치려는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몸바쳐투쟁한 숨은 영웅들은 다 우리 당이 길러낸 100만의 인테리대군의 당당한 성원들이며 그 믿음직한 전위들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로정에서는 결코 몇몇 뛰여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깊이 체득하고있기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명과 발견을 할수 있으며 다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것이다.

이미 알려진 숨은 영웅들이 바로 그러하였으며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과학적발명과 기술적변혁들은 다 이러한 토대우에서 일어난 비약이며 위훈인것이다.

숨은 영웅들이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업적들은 기성의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모방하고 적용한것이거나 이미 사람들이 알고있던 문제들을 개선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누구도 풀지 못하였고 풀수 없다던 문제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명이며 발견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발명과 발견들은 문화기술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일어난 위훈들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다그치게 하는 귀중한 업적들이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이처럼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바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문화적, 경제적 성과에 토대하여 발생하고 앞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행해나가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있는데 이 운동이 새로운 형태의 위력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선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나온 대중운동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단체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졌으며 당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지고 혁명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이 전당을 지배하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55페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그 조직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옳바른 대중지도방법을 세우는 조건에서만 해결될수 있다.

옳은 대중지도방법을 세워야 광범한 군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세기적인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으며 혁신자와 영웅이 도처에서 나오게 할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교양자들이다.

대중의 기세가 앙양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높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한다면 광범한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일군들이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운동에 발벗고나서야 광범한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적

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대중운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급속히 확대발전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고 있다.

이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체현하고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보고 판단하며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도와주는 훌륭한 일군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과 위훈이 창조될수 있는 중요한 담보였으며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발전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이처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대중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합법칙적현상이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사회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사상정신적기초와 사회경제적조건이 갖추어지야 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커다란 정치사상적 및 문화경제적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 창조되고 본보기가 설정되여도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새로운 본보기와 전형이 발견되고 당의 령도에 의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일반화되기 위한 투쟁이 조직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이 공산주의적대중운동으로 확대발전할수 없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수 있은것은 숨은 영웅들을 발견하고 내세워주며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도록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 모든 혁신운동은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244～245페지)

당이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전개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혁명적령도는 대중운동을 발생발전시키고 그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합리적인 형태의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고 그들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을 받기하고 그것을 전사회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킬 때 혁명과 건설은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대중운동도 일정한 사회력사적조건이 마련되고 성숙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발생발전할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당의 령도를 떠나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대중운동의 경우에는 더우기 그것이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할수 있다.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일으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옳바른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성과적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시여 전국에 일반화하시는 세련된 령도방법과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대중적혁신운동의 새싹들을 몸소 키우시고 내세워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킨 천리마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발기되고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을 생각할수 없으며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숨은 영웅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시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시기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의하여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발견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이 령도되고있는 여기에 또한 이 운동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엄한 전진운동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언제나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

위 찬 길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커다란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넓은 폭과 깊이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일어난 운동이며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대발전하고있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상개조사업에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사상혁명의 목적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는 현단계에서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현시기 우리 당이 사상혁명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 그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숨은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높이에로 끌어올림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되기때문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벌려나가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사상개조사업의 높이는 그 운동이 내세우는 목표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혁명이 심화되는 과정에 배출된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이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따라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해내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집행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 이것이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이러한 높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였기때문에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것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 바쳤으며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왔던것이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지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도 바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뜨거운 충성심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구감으로 된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그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것은 바로 그들이 지닌 이와 같은 충실성의 높이에 있는것이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당적,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숨은 영웅들이 지닌 정신세계의 높이에로 확고히 끌어올릴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꾸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여기에 이 운동이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이 운동이 사회주의하에서의 대중교양방법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우와 같은 문헌, 429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바로 여기에 이 운동의 본질이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여 대중을 교양하는 위력한 사상개조방법이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지있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공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적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는 아름답고 착한 행동, 공정적모범이 끊임없이 창조된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지향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정적모범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것으로 보편화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이와 같은 본질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공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의 인간개조사업의 합법칙성에도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한다는것은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사업방법에서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지도록 하는것을 의미한다.

낡은 사상잔재가 뿌리깊고 집요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성격, 심리상태, 사회적위치와 맡고있는 임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상개조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강요나 행정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다. 강압에 못이겨 움직이는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것이며 결코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오직 심리적으로 공감하고 자각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정치적방법에 의해서만이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공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바로 사람들의 자각심에 기초하여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공정을 지향할뿐아니라 부정을 극복하면서 공정을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공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에서 공정적모범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정적모범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공정적모범을 놓고 대비적으로 자신을 검토하며 자신의 부족점을 고쳐나가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공정적모범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행동에 대한 강한 의욕과 충동을 주며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다. 공정적모범을 거울로 삼고 그것을 따라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상정신적풍모를 끊임없이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것으로 개조하여나가게 된다.

공정적모범의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민족적 및 심리적 특성에 전적으로 맞는 훌륭한 대중교양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여온 우리 인민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관념이 강

한 민족에게는 긍정적인 모범으로 감화하는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고상한 도덕관념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 정서와 뛰여난 재능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근면한 민족이며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이다.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한결같이 지향하고 도덕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은 긍정적인 모범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는 유리한 사상정신적바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긍정적모범의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의 일관한 방침으로 틀어쥐고 대중속에서 긍정감화교양을 꾸준히 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긍정적인 모범을 내세워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상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우리 당은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고 식민지사회에서 부식된 낡은 사상잔재와 노예적근성을 뿌리빼며 사람들을 열렬한 애국심과 민주주의적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이 행정에서 배출된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내세우고 조장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어나가도록 교양하였다.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시기에는 천리마운동과 그 심화발전된 형태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되는 행정에 배출된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풍모를 가지도록 사상개조사업을 벌렸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진 력사적조건에 맞게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의 심화발전으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한 인간개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적극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

게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오늘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혁명적대중운동의 위력과 생활력은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어떻게 힘있게 추동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대중운동이 비록 좋은 구호와 목표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전사회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종래의 대중운동에서는 대체로 한 단위에서 창조된 모범이 널리 일반화되여 점차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짧은 기간에 온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급속히 확대되여 전사회적인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다. 이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과 일본새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르는곳마다에 충성의 열정이 차 넘치고 온 나라가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긍정이 긍정을 낳고 영웅이 영웅을 낳으면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이며 바로 여기에 긍정적모범의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기술개조운동

김 창 익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한몸 단단히 하려는 굳센 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이 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 사람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집단적으로 하면 일이 더 흥겹고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은 집단적혁신운동을 널리 전개할것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239~240페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광범한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대중에 의거하여 기술을 혁신하는 이러한 방법은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끊임없이 바꾸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기술혁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대 기술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자질을 가지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현대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이 운동이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기술혁명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라는데 있다.

기술개조운동의 형태와 그 발전정도는 기술혁명이 어떤 과업을 내세우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개조운동만이 대중을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이미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기술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서 힘있게 전진하여왔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기술개건의 실현, 3대기술혁명수행에서의 커다란 전진은 그모두가 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의하여 확고히 안받침되였다.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다.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나서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이 일정에 오른 경제발전의 높은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된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이러한 기술혁명과업은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그것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의 확고한 주체적 립장과 방법,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뜨거운 애국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의 높은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가지고 정력적인 탐구와 헌신적투쟁으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영웅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왕성한 의욕과 투지를 가지고 기술혁명수행에서 한몫 단단히 해나간다면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이 운동은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위력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과학기술적자질이 전례없이 높아진 토대우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이라는데 있다.

기술혁명은 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의 힘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창조적인 사업이다. 생산자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이에 적극 참가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써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술혁명의 선구자, 전초병들이다. 그러므로 기술개조운동의 발전단계와 그 성과는 무엇보다도 기술혁명을 담당수행하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자질, 그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과학기술적자질은 기술개조운동의 심화발전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힘의 원천이며 그들이 지니고있는 과학기술적자질은 창조적능력을 높

여준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개조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나서는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100만의 주체형의 인테리대군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기능도 훨씬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지향과 열망으로 불타고있다.

우리 나라의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에 의하여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새 세대들이 빨리 자라나 나라의 기술자대렬은 끊임없이 대량적으로 보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현대과학의 요새를 점령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을뿐아니라 기술력량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더우기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의 높은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새세대들로 하여금 정력적인 탐구와 헌신적인 투쟁으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왕성한 의욕과 투지에 불타게 하고있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기술혁신운동의 심도와 폭은 더욱 깊고 넓어지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일대 기술개조운동이라는데 있다.

기술개조운동의 발전단계를 구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운동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기술발전의 내용과 방법이다.

온갖 새로운 기술개조운동은 지난날의 기술개조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에 기초하여 일어나며 그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발전한다. 이것은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기술개조운동의 발전과정이다.

숨은 영웅들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연구목표를 세우고 주체적인 방법으로 종자혁명, 주물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과학의 요새를 점령해나가는 일대 공격전으로 된다. 이 운동은 과학기술의 기성성과와 이미 나온 기술수단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세계 그 어느 나라 기술발전사에도 없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련속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전군중적힘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고있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

우는 운동은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는 오늘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위력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기술혁명수행에서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철저히 짓부시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없애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33페지)

기술혁명은 낡은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기술혁명과정은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교체하는 단순한 기술혁신과정이 아니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지 않으며 기성의 경험과 기술을 절대화하면서 새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제동기를 거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다.

숨은 영웅들의 사업과 투쟁은 기술혁명수행을 저애하는 온갖 그릇된 사상적병집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신이 일어날수 없으며 기술혁명의 성과를 바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숨은 영웅들의 투쟁과정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적극과 소극사이의 투쟁과정이였으며 그들이 발휘한 위훈은 온갖 낡고 보수적이며 소극적인것을 철저히 불사르고 새롭고 진보적이며 혁신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따라서 기술발전에 제동기를 거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짓부시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기술혁명수행에서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또한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과학기술은 리론과 실천, 경험과 과학의 결합이 옳바로 보장되고 생산자대중의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그들의 새로운 기술적창안들이 과학적으로 립증되여 널리 일반화될 때 더욱 빨리 발전한다.

오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지고있는 구체적현실은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의 종합적이고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새롭게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

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돕고 배워주면서 실천적경험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요구를 가장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이 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오직 한마음으로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사이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하며 대중의 창발성과 집체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록 대중의 집체적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기술혁명수행에서 노는 커다란 의의는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생산장성의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경제를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전진도상에 제기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60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여 인민경제의 부문사이, 생산공정사이의 련계가 고도로 째여지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오늘 생산장성의 주되는 예비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현대적기술을 널리 도입하여 생산능력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또한 기술수단을 더욱 개선하고 생산공정을 단축하며 로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오늘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문제는 결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혁명적인 립장과 방법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며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이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말없이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이 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억척같이 싸워나가도록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명확한 결의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해나가도록 옳바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누구나 다 발전시킬수 있다.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저애하는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이며 그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들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직접 맡고있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력량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자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생산일면에만 치중하면서 기술혁신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그들에게 분공을 똑바로 주고 총화사업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발양된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옳게 평가하며 제때에 일반화함으로써 모두가 다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발전의 실제적성과로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

근 로 자 1980년 제2호(루계 454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2월 1일 발 행•1980년 2월 5일
ㄱ—0512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 호(455)

차 례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영광스러운 당

우리 당과 인민은 지금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기에 처하여있다.

주체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새로운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게 될 1980년대의 첫해에 들어선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당 제6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보다 큰 승리와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간고한 시련과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은 오늘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백전백승의 위력과 높은 권위,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력이며 권위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 *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은 그 당의 성격과 위력을 규정하는 근본징표이다. 정확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이끌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형태의 정치적조직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 그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수령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인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벌써 우리 당 건설위업을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이룩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제시해줌으로써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참다운 앞길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되게 한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시대의 앞장에서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높은 영예와 긍지가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 건설과 당 사업, 당 활동의 초석을 이루는 근본사상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 건설과 당 활동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인민대중의 참다운 향도력으로서의 당의 위대성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 건설의 사상적기초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62~263폐지)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한다. 그래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당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이다.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만일 당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허용된다면 당의 생명인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할수 없으며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전당에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확고히 지배할 때만이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질서가 확립될수 있으며 전당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중요한 징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며 그와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있을 자리가 없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 조직사상적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항일의 그날부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온 로혁명가들과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오랜 당원들 그리고 새로 자라난 젊은 세대들모두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전진하는 전일적인 대오로 굳게 결속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총진군운동을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과 의지에 기초하여 한사람같이 숨쉬고 행동하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되였으며 당안에는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질서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백전백승의 위력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우리 당 활동에서 확고히 의거하고있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심오히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함에 있어서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당의 배려가 구현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결정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이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심장을 그처럼 튼튼히 틀어잡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며 현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기초를 이루고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사업체계이며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을 대중령도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당에 확고히 수립하였다. 언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 건설과 당 사업, 당 활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본사상이며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위력과 생활력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사업,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온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0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언제나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갔다.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며 혁명실천이 요구하고 대중이 지향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제기하고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정세, 우리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옳바른 방향과 수행방도를 밝혀주는 라침판으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명확한 전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할수 있었으며 경제문화건설과 인간개조, 계급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 등은 다 그 어디에서 본따온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풀어나감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성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의 기치따라 진진함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하고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다.

우리 당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빛나는 승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주체적인 대중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갔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조를 가지고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언제나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에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경제를 다시 일떠세우고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한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힘있게 동원하는 당의 주체적인 령도예술의 위대한 결실이다.

생활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이 없이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참된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적극성을 마비시키는 사상적장애물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한 투쟁을 벌려왔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혁명적진군이며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의하여 일찌기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전투력과 위력을 지닌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실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을 멀리 앞으로 전진시켰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7페지)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또한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대오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당안에 조그마한 불건전한 사상도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대중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광범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의하여 지도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보다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불타는 열정과 투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그대로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한다.

*　　　*

온 사회에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장기적인 투쟁과정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수많은 난관과 애로가 제기되며 준엄한 시련이 전진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창조적사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에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 사업은 혁명이 전진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설수록 더욱 심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고 생활이 유족해지는데 따라 사람들속에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때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침체를 면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혁명의 전취물마저 옳게 지켜낼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자면 옳은 본보기와 구호를 내놓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에 전투적기상과 혁명적열정이 차넘

치게 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이며 생활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래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80페지)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천적모범을 보이시고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은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참다운 구감이며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오로지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싸운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들속에서 발휘된 혁명가적기풍이라는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그리고 자기 운명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 차넘치고있다.

오로지 수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는 혁명의 수령을 높이 내세우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구감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은 또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엄혹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구현된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위력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장기적인 혁명전쟁이였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넘는 간고한 환경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높은 혁명정신, 만난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지와 강의한 의지, 왕성한 기백과 불타는 정열,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요구하였으며 오직 그러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에 의해서만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높이 발휘된 고귀한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기풍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따라서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되였던 고상한 혁명정신,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대로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되며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

계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위업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가며 그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고 생활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숭고한 사상과 의도가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다. 때문에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력사적시기에 창시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였으며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 마련된 력사적투쟁이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력사적시기에 마련된 귀중한 재부들을 이어받아 실천투쟁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는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업하고 생활할 때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더욱더 굳게 자리를 잡고 그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더욱 억세게 이어져나가게 될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생활력있는 방침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며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는 혁명적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당의 이 혁명적요구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울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지지성원 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것이 없었고 걸음마다 사선을 헤쳐나가야 하였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비하여 오늘 우리는 비할바없이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하고있다. 그때에 비해볼 때 우리에게는 사실상 사업에서 난관이나 애로라고 할만한것이 별로 없다. 오늘의 유리한 조건에서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발휘되였던 투쟁기풍으로 사업한다면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도 얼마든지 훌륭히 해낼수 있으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또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그 전투적기풍이 온 사회에 튼튼히 지배하게 할때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변함없는 혁명적신념과 충성의 열정을 지니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는 바로 여기에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 인민은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

된 고귀한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으로 살고 싸워나감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당의 기치따라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력사를 빛내일수 있었다.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이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그 엄혹한 나날에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도 그리고 천리마대진군의 우람찬 진군속에서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대담하게 불사르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극히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은것도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받아안은 그 숭고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항일의 전투적기풍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특히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으로 왕성한 투지와 정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에 우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1980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전으로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한 올해계획을 훨씬 앞당겨 당대회전으로 끝내는것은 매우 높은 투쟁목표이며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다.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그 준엄한 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으로 살며 일할 때 온 나라에는 혁명적기운이 끊임없이 약동하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이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될것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보다 힘있게 다그쳐질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의 요구대로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며 생활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체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모든것을 주체사상이 요구하는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된 혁명전쟁이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승리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일본새, 투쟁기풍과 생활태도는 철저히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으로 일관되여있었다.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이 없이 남의 정신, 남의 풍에 따라 움직이거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혁명을 하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그릇된 립장과 태도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추호도 허용될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대로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하나의 신조로, 중요한 특징으로 되여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백두밀림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발휘한 그 투쟁 정신과 기풍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이룩하며 올해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겨끝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는 간고하였던 항일의 그날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위력한 경제토대와 현대적기술을 가지고 모든것을 생산해내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헌신적으로 일해나간다면 이미 마련된 밑천을 가지고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것을 만들어낼수 있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그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살며 일해나가야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히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항일유격대식 투쟁 정신과 기풍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결정에 충실해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245페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가리지 않고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언제나 가장 숭고한 의무로, 지상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였으며 걸음마다 사선을 뚫고 혈로를 헤쳐야 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다.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강의한 의지와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살며 싸운 그들의 견결한 투쟁정신과 전투적기풍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시며 당의 결정지시를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구감으로,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높이 발휘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내는 혁명적 기풍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질질 끌거나 중도반단함이 없이 완강하고 근기있게 내밀어 끝장을 보아야 한다.

당의 결정지시 집행에서의 강철같은 규률은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의 중요한 표현이였다. 우리는 당의 방침과 결정

을 순간의 지체도 없이 제때에 관철하여야 하며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오직 당의 지시와 결론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집행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의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과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력사적인 당대회전으로 올해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계획수행에서 온갖 창발성과 헌신성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으로 떨쳐나서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앙양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우리가 올해 내세운 높은 투쟁목표는 빛나게 수행될것이다.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것은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의 힘을 믿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79페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응당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일본새이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태도이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6차당대회전으로 앞당겨끝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일군들로 하여금 무슨 사업이든지 잡도리를 크게 하고 혁명적으로 내밀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하여야 하며 오물쪼물 앞뒤를 재거나 소소하게 수공업적으로 일하지 말고 일단 공격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자면 일군들이 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 관철을 위한 사업에 몸을 푹 적시고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대담하게 달라붙어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성과를 거두고 끝장을 보기마련이다. 그러자면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청춘의 패기와 정열로 들끓어야 한다.

늘크데해서 일을 크게 축내지 못하고 우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되받아넘기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로 될수 없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해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써 일해야 하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안타까와하고 보채야 한다. 이와 함께 항상 사업전반을 틀어쥐고 어느 한가지 과업이라도 지체되거나 중도반단되는 일이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자면 또한 모든 일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낡은 틀과 격식에 매워하거나 겉치레를 하지 말고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고 알속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일군들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한다.

사무실에 파묻혀 책상머리에서만 맴돌게 되면 주관과 독단밖에 나올것이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활동한것처럼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당정

채관철을 위한 방도도 같이 의논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서도 앞장서나가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생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이다.

아끼고 절약하면서 모든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는것은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의 요구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다.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되는대로 거두거나 귀중한 원료와 자재를 마구 랑비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없고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일수도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도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쓰고있는 모든것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것이 다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것이며 곧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한그람의 석탄, 한와트의 전력, 한방울의 휘발유, 한알의 쌀이라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보다 더 절약하고 아껴써야 하며 검박하게 생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이 보건말건 또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묵묵히 일해나가는 숨은 영웅들의 참다운 일본새와 생활기풍을 본받아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데서 지도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설비와 자재를 맡고 그것을 직접 관리할 책임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나라살림살이가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지도일군들이 얼마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막대한 로력과 자재를 랑비하게 되고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 보다 적은 로력과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재산이 랑비되는데 대하여 가슴아파하고 온갖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자신의 생활을 검박하고 수수하게 하는데서도 실천적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혁명가적품성을 더 높이 지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중과 같이 먹고 같이 입으면서 생활하는 기풍과 태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욱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력사적인 6차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

정 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통일전선사상과 그 풍부한 경험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통일전선문제는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력량을 잘 편성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문제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97페지)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따라서 그 승패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의하여 좌우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칠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통일전선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로 혁명투쟁의 승리를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운동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광범한 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통일전선운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는 군중의 계급적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또한 그들의 정치적동향이 각이하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 계층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의 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된후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강도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적관계는 매우 복잡해졌으며 우리 인민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천대 속에서 허덕이였다.

특히 1920년대말~1930년대초 일제의 식민지적략탈과 파쑈적폭압이 강화됨에 따라 일제와 우리 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은 급격히 앙양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강도 일제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여 일떠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실천으로부터 극소수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반일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광범한 군중을 항일혁명전쟁승리에로 힘차게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편성에서 나서는 통일전선문제해결의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여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될 때 통일전선운동이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근로인민대중이 침략자와 억압자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의 수행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먼리앞을 내다보면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간다. 탁월한 수령은 계급의 선각자이며 혁명의 뇌수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 인민대중은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요구는 일제의 조선강점후 절실한 문제로 나섰으나 혁명의 중심, 탁월한 수령이 없은탓으로 하여 오래도록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0년대초부터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01폐지)

온 겨레가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겨 몸부림치던 민족수난의 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념원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하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아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시대와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반일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여 여러가지 형태의 합법적조직과 비합법적조직들을 내오시고 여기에서 혁명운동의 핵심들을 키우시였으며 민족의 비참한 현

실을 두고 통탄하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된 때로부터 시작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마침내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또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그 두리에 보조적력량을 묶어세워야만 통일전선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92페지)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적력량을 정확히 구별하며 주력군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보조적력량을 묶어세우는것은 혁명력량편성에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들과 그속에 뿌리박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며 따라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로농동맹을 강화해야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수 있는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보조적력량을 혁명의 편에 굳게 통일단결시킬 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결정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조직사상적단결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시면서 여기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워나가시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힘을 굳게 믿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깊이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것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오, 이것은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구성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순결한 결정체였다. 항일유격대오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로농동맹을 튼튼히 하여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기본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오를 강철의 전투부대로 꾸리시는것과 함께 항일유격대와 혁명적군중들 속에서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그것을 확대해나가시면서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키워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계급적차이 그리고 정치사상적견해와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통일전선에 망라할 대상을 규정하시고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광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면 모두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하나로 결속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의 넓은 지역들에 반제동맹, 반일회, 농민협회, 농민위원회,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로동자, 농민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청년학생, 지식

인, 도시소자산계급,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종교인 등 광범한 반일력량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보조적력량을 꾸려나가는데서 특히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조건에서 하층통일을 강화하고 상층통일과 하층통일을 옳게 결합시키며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상층통일을 결합시키는것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전술적원칙의 하나이다. 그것은 여기에 망라되는 각 당, 각파의 상층과 하층의 계급적구성이 다르고 혁명에 대한 그들의 립장과 태도가 같지 않기때문이다.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군중을 쟁취하는데 있는것만큼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해야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고 상층과의 통일전선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또한 상층통일전선을 강화해야 하층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지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을 방해하는 온갖 좌우경적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시면서 민족주의자들과 독립군상층들의 반제적립장과 민족자주의식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며 부정적측면은 설득력있는 교양으로 극복하게 하고 그들을 널리 포섭하시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리고 투쟁이 간고해질수록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준렬히 폭로배격하시고 혁명적군중들과의 단결을 강화해나가심으로써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그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우리 혁명의 주력군은 물론 보조적력량까지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또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통일전선조직체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121페지)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상설적통일전선조직을 내와야 한다.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다같이 망라시킬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지 않고서는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고 혁명력량을 옳게 꾸려나갈수 없다.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함에 있어서도 각계각층 군중의 성격에 맞는 조직형태를 규정해야만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광범한 군중의 사상의식수준이 각이하며 합법적인 정당이 없었던 당시의 조건에서 그리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통일전선조직체가 창건됨으로써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망은 빛나게 실현되고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 파견된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시련에 찬 간고한 투쟁을 벌리면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급속히 확대해나갔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그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나갔다.

조국광복회 창건과 10대강령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차있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쳐싸워나갔다.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이룩된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결성, 실로 이것은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성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또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이 운동을 옳게 발전시켜나가자면 반드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결합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만약 조국광복회조직에 로동자, 농민만을 인입하고 다른 반일애국력량을 배제한다면 수많은 반일군중을 잃게 될것이며 그와 반면에 정치적고려가 없이 아무 사람이나 되는대로 조국광복회에 망라시킨다면 온갖 이색분자들이 잠입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일적요소를 가진 애국적민주력량을 최대한으로 전취하는 동시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각종 이색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173페지)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계급로선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통일전선운동에서 계급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이며 또한 군중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계급적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광범한 군중이 원칙적인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혁명성을 잃게 되며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쟁취할수 있는 군중도 잃게 된다.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애국력량을 최대한으로 전취하는것이 통일전선운동의 근본목적인것만큼 계급적편견에 사로잡혀 로동자, 농민만을 대상하려고 하거나 통일전선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혁명력량을 건전하게 꾸려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동력과 대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면서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같이 단결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간고하고도 준엄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헌신적인 투쟁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혁명을 해치려는 적대분자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광범한 군중을 투쟁의 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갔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 행정에 각 계급, 계층들에 대한 인내성있는 교양,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의 능숙한 결합 및 통일전선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군중공작방법도 창조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이렇듯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전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을 빛나게 실현하는 력사적인 행정에서 풍부하고도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렸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통일전선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 ＊

우리 당은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전행정에서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각이한 혁명단계의 요구에 맞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해나갔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을 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로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일전선운동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가장 억세고도 순결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의연히 갈라져있으며 민족분렬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력사적숙원이며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는 길은 북과 남이 서로 합작하고 단결하고 나라를 통일하는데 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본담보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민족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싸워서 이긴것처럼 북과 남이 반목과 대결을 피하고 단결과 합작의 길로 나가야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상과 리념을 론하기에 앞서 조국의 통일위업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제도의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조국의 운명을 먼저 걱정하여야 한다.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과 그 고귀한 경험이 있다. 오늘 북과 남의 모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

항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적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성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

김 창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초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폐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 다시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를 이루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파악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상, 리론, 방법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근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은 이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다. 이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가장 옳바른 세계관과 혁명리론, 령도방법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바로 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과 혁명리론과 혁명의 방법론을 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과 주체의 방법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폐지)

사람들이 옳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관이란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세계에 대한 견해, 립장, 방법의 체계이다.

세계의 개별적령역에 대한 지식을 주

는 개별과학과는 달리 세계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주는것은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이다.

세계에 대한 견해를 주는데서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있다는것을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현실세계에 대한 견해를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줄수 없다.

현실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외부세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세계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강화되며 세계는 사람을 위한것으로 더욱더 개조되고 변모된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세계에 대한 전일적견해를 주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보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세계관을 확립하자면 또한 세계에 대한 견해를 주는것과 함께 세계 인식과 개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옳은 립장과 방법을 밝혀주어야 한다. 세계관의 사명은 세계를 설명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실세계를 옳게 보고 그의 발전법칙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세계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는 옳은 지침을 주는데 있다.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을 밝히는것은 세계관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런데 세계 인식과 개조에서 사람이 견지하여야 할 옳은 립장과 방법을 밝히자면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인식과 실천의 주체이며 인식과 실천 활동의 성과가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이다.

인식과 실천 활동은 사람이 주위세계와 맺는 주동적인 관계의 두 측면이다. 주위환경에 순응하여 살아나가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로부터 세계의 본질과 법칙을 인식하고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인식과 실천 활동을 끊임없이 벌리게 되는 원인과 함께 인식개조활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자신에게 있다. 인식개조활동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표현인것만큼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되고 사람들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는가에 따라 인식개조활동의 폭과 심도가 규정된다.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은 오직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풀 때만이 가장 정확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것이 세계관의 본질적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을 옳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이처럼 옳은 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일뿐아니라 사람의 운명문제를 원리적으로, 세계관적으로 밝히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고있으며 사람의 운명은 사람과 세계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다시말하면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된다.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얼마만큼 개조하여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높은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사람의 운명문제를 세계관적으로 옳게 밝히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운명이 그자신에게 달려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적힘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질수 있다. 만일 사람이 그 어떤 외적힘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볼 때에는 사람의 운명이 자기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게 된다. 력사상에 존재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숙명론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견해들은 바로 사람을 그 어떤 외적힘의 지배를 받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는데로부터 나온것이였다. 오직 세계에서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논다고 볼 때에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현실세계에 대한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또한 선행한 력사적 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는 억압받고 착취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강하며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특징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한 철학,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사상관점, 립장과 방법을 주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러한 요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창시함으로써 해결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이다.

현실세계는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물질적존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외부세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살아나가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가장 발전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하며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사람이 끝없이 넓은 세계를 다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에는 사람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령역이 남아있다.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실지로 끝없이 넓은 세계를 다 지배하고있는가 지배하고있지 못한가 하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세계에 전적으로 얽매여사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이 외부세계에 얽매여사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나가는 존재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고 말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주위세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도 포함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변화발전한다. 그런데 사람은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운동발전하는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과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은 세계개조의 담당자이며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결코 사람이 세계의 수없이 다양한 운동발전을 다 좌지우지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에는 아직도 사람이 조절통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운동변화가 있다.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가 놀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실지로 끝없이 넓은 세계를 완전히 개조하고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사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발전하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이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외부세계의 발전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며 외부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변시킨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말하는것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떼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담보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은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그의 지위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임으로 하여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며 한편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고수하게 된다.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은 세계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서 언제나 통일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려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은 그 어떤 구속에서도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이 되여 살며 활동하려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창조성은 외부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며 그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동물과 같이 외부세계에 순응해서 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살아나간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 자연과 사회의 특성, 그 전반적면모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세계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물질적존재로 볼뿐아니라 가장 발전된 존재인 사람과 그에 의하여 개조되고 지배되는 물질적존재로 보게 한다. 세계는 주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조되여나가는 물질적존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의 힘이 커지고 외부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연과 사회는 더욱더 사람의 지배와 통제밑에 들어오게 되며 사람을 위한것으로 전변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가 더욱더 사람을 위한것으로 되여가며 세계의 모든것이 사람의 지배밑에 들어가게 되는것이 현실세계의 진면모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또한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을 둘러싼 외부세계, 자연과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볼뿐아니라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의 관계에서 세계발전의 근본특징을 가장 정확히 리해할수 있게 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과 사회는 더욱더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되고 변혁되여나간다는것이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현실세계발전의 근본특징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이처럼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옳바른 지침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고찰하며 그것들이 사람의 리익에 복무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세계를 고찰하여야 그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밝혀낼수 있으며 그것을 사람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인식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며 세계개조의 옳바른 방법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풀어나가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의 운명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

하고있다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외부세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면서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에 세계에는 사람밖에 그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수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논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은 곧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세계에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운명을 개척해주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이렇듯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하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창시하신것은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확립을 위한 초석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계관의 다른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리론적전제가 확고히 마련되고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기초우에 정연하게 세워질수 있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의 사명, 전반 체계와 내용이 새롭게 완성되게 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밝힘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주체의 세계관을 안겨주게 되였다.

또한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 세계 인식과 개조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완벽한 체계와 내용을 갖추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철학을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으로 전환시키고 인류의 철학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주체의 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과 초급당조직의 역할

박 봉 주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전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세포인 초급당단체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앞에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초급당단체는 매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면서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전투단위입니다.

오직 초급당단체를 강화하여야만 전당을 강화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한결같이 발동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8~16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전투력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초급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초급당위원회가 매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라는데 있다.

당생활이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당사상생활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은 당생활을 통하여 유지되며 빛나게 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수령님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더 잘 키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생활은 바로 초급당조직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다.

당원들은 초급당조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임무를 받을뿐아니라 초급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정형에 대하여 당조직앞에서 검열받는다. 당원들은 초급당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조직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늘 총화하고 동지들의 원칙적인 방조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간다.

이처럼 당원들은 초급당조직을 거점으로 하여 당생활과 혁명투쟁에 참가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간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여 혁명투쟁과·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인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당정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초급당조직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직접 집행하는 말단전투단위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조직적의사를 반영하고있는것만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응당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초급당조직이다. 초급당조직은 행정 및 생산의 기본단위에 조직된 당조직으로서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 조직집행하는 큰 세포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기층조직이며 말단집행단위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초급당조직이 실정에 맞게 바로세울수 있다. 초급당조직은 생산단위에 조직되여있으므로 구체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을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와 기술실무적인 준비정도를 손금처럼 꿰들고있다. 특히 초급당조직은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당위원회, 당세포를 직접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초급당조직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초급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도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도 어느 하나 바로 해나갈수 없다.

이로부터 당정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당정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초급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참모부라는데 있다.

행정 및 생산의 기본단위에 조직된 초급당조직은 해당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반사업을 다 틀어쥐고 그 집행을 조직하며 지도통제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다시말하여 초급당위원회는 당내부사업이거나 행정경제사업이거나 군사사업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단위앞에 나서는 모든 정책적문제들을 다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해결방도를 내세우며 그 실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한다. 또한 초급당위원회는 해당단위의 아래당조직들뿐아니라 행정경제부문 및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한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도 구경은 초급당조직을 통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초급당조직을 통하여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초급당조직의 전투력과 역할이 미약할 때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당내부사업은 물론 행정경제사업을 비롯한 어느 한 부분의 사업도 훌륭히 진행될수 없다.

실천적경험은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건전해야 사람이 건강할수 있는 것처럼 당의 기층조직인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건전해야 전당이 강유력해질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들이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초급당조직이 당의 요구대로 옳게 움직이는데서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제때에 타격을 받고 당정책관철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지만 초급당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곳에서는 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지 못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숨은 영웅들의 사업경험은 그 어느때보다도 초급당비서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초급당조직을 책임진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옳은 방침과 대책을 세워야 하며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고 생산에서 당정책이 잘 관철되도록 늘 지도감독해야 하며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하는 조직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3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현시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재는 기본척도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싸움을 잘하며 규률있는 부대당조직이 전투력이 강한 당조직으로 평가되였다면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당조직이 바로 전투적기능이 높고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당조직으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기본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이며 당사업은 곧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사업, 당조직정치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당조직을 책임진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한다.

숨은 영웅인 장재산동무의 사업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선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면 네일내일 가리는 본위주의가 나올수 없으며 당정책을 놓고 외면하거나 난관앞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올수 없다.

초급당비서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질뿐아니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초급당비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자신이 깊이 연구한 기초우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 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잘하여야 한다.

아무러한 방법론도 없이 덮어놓고 내밀기만 하는것은 당일군의 일본새가 아니다. 아직 우리 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 형식주의, 요령주의, 경험주의 등 그릇된 사업방법들이 극복되지 않고있는 중요한 원인은 일부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덮어놓고 내밀기만 하는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초급당비서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여기에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초급당비서들은 또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정형을 늘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하는것을 늘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야 당사업에서 주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제기된 모든 사업이 당정책적선에서 리탈되지 않고 옳바로 집행되여나가게 할수 있으며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담보가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16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이 사람을 위한것인것만큼 그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깊이있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첫째가는 요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진짜속을 알고 그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는것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성격, 심리적특성은 사람마다 서로 같지 않다. 또한 매개 사람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가 다르고 그것을 수행하는 환경과 조건도 서로 같지 않다. 이로부터 당일군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그 어떤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진짜속을 볼줄 아는것이다.

사람들의 진짜속을 본다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사람을 정확히 평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실천활동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해보아야 한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사람과의 사업에서 편협하거나 겉울 보고 경솔하게 사람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당사업은 산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들의 진짜속을 알자면 사람을 먼저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여야만 잘 알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의 사상관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사람을 우선 믿고 일을 시키면서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충실성을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리당비서 장재산동무가 숨은 영웅 백설희동무의 연구사업을 그처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은것도 구경은 그가 백설희동무의 실천행동을 통하여 그의 높은 충실성을 남먼저 찾아보았기때문이다.

실천적경험은 사람들의 진짜속을 정확히 보는것이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당조직을 책임진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것을 알아내고 그에 맞게 사업하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군중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모범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때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혁신과 위훈에

로 고무해주고 온 사회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 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백번의 강조나 지시보다 더 큰 힘을 나타낸다. 대중은 지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을 보았을 때 그들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그의 모범을 본받게 된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대중은 지도일군들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것만큼 지도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서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매우 큰 감화력을 가진다.

장재산동무의 모범이 사람들속에서 그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도 중요하게는 여기에 있다.

장재산동무는 면밀한 조직정치사업과 함께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힘있게 이끌어가면서 숨은 영웅 백설희동무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그처럼 애써 가꾸고있는 백설희동무의 시험포전이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농장원들을 이끌고나가 횃불을 들고 자신이 앞장서 가마니를 메나르며 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리고도 그는 뒤늦게 평양에서 급히 달려온 백설희동무에게 우리가 있는데 이밤에 왜 왔는가, 중대한 사업을 하는 연구사가 이렇게 찬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나무람하였다. 이런 당일군들과 혁명동지들이 있기에 백설희동무의 시험포전은 언제나 굳건히 고수되고 알뜰히 가꾸어졌던것이다.

아침에는 바지가랭이가 늘 젖어있고 낮에는 몸에 늘 흙이 묻어있는것이 바로 당일군인 장재산동무에게서 언제나 찾아볼수 있는 모습이였다.

참으로 장재산동무와 같이 이신작칙하는것이야말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며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귀한 품성의 하나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 하는데서 또한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당은 말 그대로 어머니당이며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부대이다.

당은 결코 세도를 쓰는 기관이 아니다.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로 손잡아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다. 그러기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할뿐아니라 그들을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초급당비서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특히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초급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옳게 운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644페지)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활동의 중요한 요구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원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일이 잘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가 제구실을 똑똑히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앞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원대중의 힘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 전횡을 미리 막고 당원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초급당위원회를 잘 꾸려야 한다. 집체적지도기관인 당위원회를 잘 꾸려야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적원칙을 지킬수 있으며 당원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집체적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를 옳게 운영하고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만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위원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제기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채택된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당조직을 책임진 일군들은 마치도 자기가 당위원회를 대표하고있는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초급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적극 높이는것이다.

초급당조직은 해당단위의 모든 생산활동과 행정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하며 위원들은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하여 당위원회앞에서 책임지는 립장에 섬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초급당조직들은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초급당비서가 지닌 위치와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하다.

초급당조직을 책임진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박 충 배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하여 나가야 할 사상교양의 중요한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폐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됨에 따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더욱더 중요하게 나서는 혁명과업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근로자들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진다.

물론 이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소홀히 한다면 근로자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에 도취하여 억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점차 안일해지며 계급의식이 마비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철저히 지켜낼수 없다.

오직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을 가진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적관점,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리익,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판단하며 처리해나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선차적이고도 중심적인 문제이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을 가진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사

람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들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만드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이러한 본질과 사명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을 가진 혁명투사로 키우려면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계급적관점은 본래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출발점이다. 계급적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이 규정되게 된다.

자본가계급의 관점에 선 사람은 멸망하여가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 오직 로동계급의 관점에 선 사람만이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증오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원칙을 지켜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을 세우는것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물론 사람들은 착취사회에서 계급적압박과 착취를 받아오는 과정에 착취자, 압박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질수 있으며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할수 있다. 그러나 착취자, 압박자들에 대한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증오심과 반항심이 철저한 계급적관점에 기초하지 못할때에는 그것이 확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소유하여야 자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사상관점,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사상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적관점이 계급의식에서 기본을 이루며 로동계급적관점을 세우는 사업을 떠나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만들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사람들이 올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05페지)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움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여야 할 성스럽고도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성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굳은 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싸우며 그 어떤 어려운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 길에서 영원히 싸워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온갖 적대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 계급투쟁 과정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온갖 비계급적, 반혁명적 사상들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이 행정에서는 낡은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온갖 적대적 사상요소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그 어떠한 잡사상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게 되는 거창한 위업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로동계급적관점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근로자들이 오늘의 생활에 만족해하면서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지 않게 된다. 더우기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편안하게만 살것을 바라면서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가려는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지 않는것과 같은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할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면서 혁명력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반제투쟁정신과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과 양풍에 물젖을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을수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옹호보위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적관점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이렇듯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선차적이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

행하여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적인 사상관점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22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때라야만 사람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와 그 본질을 똑똑히 알게 하며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르조아사상, 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게 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사업은 결코 쉽게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우리는 생동한 사실과 자료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똑똑히 인식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가장 반동적인 사회이며 썩고 병든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과 사회의 재부가 다 극소수의 특권계급의 손에 장악되여있고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권리와 재부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한다.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과 부패상을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조선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똑똑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다. 오늘 남조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암흑천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에서 한줌도 못되는 반동관료배들과 지주, 매판자본가들은 호화롭게 살지마는 인민대중은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압박,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남조선사회의 이러한 반동성과 부패상을 똑똑히 알게 할 때 그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완성되여나가며 사람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의지가 강해진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확고한 로동계급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상교양사업의 내용들이 한갖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혁명실천에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리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문학예술은 일반적인 정치사상교양이나 교육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19페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큰 교양자적역할을 한다. 착취사회의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한 문학예술작품들과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전형을 훌륭히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부패상을 똑똑히 깨닫고 그것을 증오하게 하며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한다.

지난 시기 많은 애국청년들이 처음에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읽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의 길에 나섰으며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의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에 공명하고 불평등한 사회현상과 접촉하는 과정에 점차 각성되여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의 악랄한 착취적본성과 착취행위를 폭로하는 혁명적인 영화와 가극, 혁명소설도 많이 만들어내여 그것을 통하여 대중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과 민주혁명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주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에게 혁명투쟁로정은 비록 간고하지만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사상교양방침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책임성과 창발성은 주인다운 태도의 중요한 요구

고　　진　　영

오늘 우리앞에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현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이 어떤 투쟁기풍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정책관철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일군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온갖 창조적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과업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옳게 지도할줄 알며 자기가 맡은 사업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책임성과 열성을 다하는 새로운 형의 일군들이 요구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22페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믿으시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맡겨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 중대한 임무를 안겨주시였다. 일군들이 서있는 위치는 실로 중요하며 맡고있는 사업은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책임적인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혁명초소에서 한몫을 맡아 훌륭히 수행해나가겠다는 굳은 각오와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스스로 혁명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의 단순한 전달자나 기계적인 집행자가 아니다. 일군들은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당정책이 제시되면 전달이나 하는것으로 그치고 그것을 아래에 되받아넘기는 방법으로 일한다면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그 어떤 창발성도 낼수 없다. 일군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하여야 하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당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일을 찾아하는 품성을 가지지 않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독촉과 통제에 못이겨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군만이 모든 문제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여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이 준 혁명임무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내여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일군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혁명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말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창발적으로 일해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일군들이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혁명과 건설은 계속 전진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32～233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방대하고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인민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며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혁명의 전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앞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며 사업 환경과 조건도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또한 매개 단위와 매 부문의 구체적실정도 서로 같지 않으며 임의의 경우에 다 들어맞는 공통적인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해당부문의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잘되여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부문 일군들의 일본새에 달려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여도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전개하지 못하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그것을 옳게 리용할수 없으며 당정책을 제때에 훌륭히 관철할수 없다.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사업이나를 물론하고 모든 사업을 기존공식이나 틀에 맞추어 하려고 하여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오직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발적으로 사업하여야 새것을 창조할수 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창발성을 내여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는 바

로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는 비결이 있다.

혁명과업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되며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책임성은 모든 일을 자신이 주인이 되여 끝까지 수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의 발현이며 창발성은 모든 문제를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창조적립장의 발현이다.

책임성과 창발성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의 힘과 지혜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려는 굳은 각오와 확고한 결심에 기초하고있다. 주인다운 태도를 떠나서 책임성과 창발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책임성이 있어야 창발성이 나오고 창발성이 발휘되여야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높은 책임성은 사람들을 창조적활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되며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신의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는 책임성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새롭고 방대한 혁명임무가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높은 책임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는것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8페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강의한 의지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이 바로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숨은 영웅들처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보충하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3페지)

일군들이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하자면 남보다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높은 정치적자각에 실무적자질이 안받침되여야 충실한 일군이 될수 있고 유능한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출수 있다.

우리 당의 간부는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뿐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일군들이 머리가 비고 아는것이 적으며 실력이 딸리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창발성을 낼수 없다. 아는것이 힘이며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높은 정책적안목과 풍부한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오직 끊임없는 자체수양과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서만 능력있고 실력있는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신임에 비해볼 때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져있으며 자신들이 지닌 혁명임무와 수준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숨은 영웅들이 보여준 불타는 탐구적열정을 본받아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사업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책임성과 창발성은 맡은 혁명과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70~371페지)

한번 시작한 일을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가적기풍의 하나이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악하게 끝까지 관철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정책은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업에서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에 맞게 일을 조직하고 그것을 한가지라도 똑똑히 완성해나가는것이 실속있는 사업태도이다. 일군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씩 하나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가 나게 해제껴야 한다.

사업을 벌려만 놓거나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줴버리는것과 같은 현상은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무슨 과업이 제기되면 이것이 없소, 저것이 결렸소 하면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것은 혁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며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오직 고상한 혁명정신과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완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은 무슨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든지 맺고 끊고 하는 맛이 있어야 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고야마는 강의하고 근기있는 투쟁정신이 있어야 한다. 일군들이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

책의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야 제기된 과업을 어느 하나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어 당과 혁명에 더 크게 이바지하려는 오직 하나의 지향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싸워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오직 한마음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근기있게 관철하여야 한다.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형식주의는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겉치레만 하며 일을 헐하게 되는대로 하려는 낡은 사업태도의 표현이며 요령주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발라맞추기를 좋아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릇된 사업태도의 표현이다.

형식주의를 하고 요령주의를 하면 당의 방침을 실속있게 관철할수 없다. 아무리 좋은 당정책이 나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관철을 조직지도하는 일군들이 무책임하게 일하면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형식주의, 요령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고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책임성과 창발성이 있어야 높은 혁신적안목으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하고 포치할수 있으며 그것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과업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사업태도이고 투쟁기풍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우리 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법규범을 잘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

림 광 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더욱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법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8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규범들은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전들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법적으로 구체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사회생활의 주인인 우리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그들의 생활규범, 행동준칙들이 집약적으로 규범화되여있다.

법의 정확한 집행을 떠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철저한 관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킬 때 국가사회생활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혁명적인 법무생활을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법규범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 방향과 요구, 구체적방도들을 규범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어떻게 철저히 집행하며 그것을 관철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당정책과 어긋나는 현상과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르쳐준다. 사회주의법규의 이러한 내용들은 그자체가 커다란 인식교양적작용을 할뿐아니라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규범생활을 통하여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생활력을 더 잘 체득하며 자신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더

옥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한다.

근로자들은 또한 법무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법규에 반영된 공산주의도덕규범의 기본요구를 실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법규의 규제적 및 제재적 작용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날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확립을 힘있게 촉진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관습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깊이 뿌리박힌것으로서 사상교양사업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없앨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낡은 생활관습은 법적통제가 약하고 질서와 규률이 서지 않은곳에서 되살아나는 매우 질요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질서와 규률을 문란시키고 사회의 리익을 좀먹는 이러한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관습들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법규의 규제적 및 제재적 작용을 강화하여야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과 법질서를 세움으로써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양식이 발을 붙이거나 움틀수 있는 틈을 없애며 온갖 위법현상들이 생겨날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게 한다.

이렇듯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생활양식을 없애고 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게 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147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있는 법규범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켜야 할 명확한 행위준칙을 밝혀준다.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은 전반적인민경제부문뿐아니라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호상간의 생산과 소비, 분배와 류통관계를 규제하고있으며 개별적기업소의 경제관리운영질서로부터 시작하여 자재와 원료를 다루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개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고있다. 국가의 법규범들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법칙과 당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과제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의무적인 요구를 제시하며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옳게 운영되도록 국가의 조직적 및 통제적 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런데 우리의 법규들의 이러한 역할은 결코 저절로 실현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계획규률, 로동규률과 같은 국가의 규률과 질서가 확고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째인 규률과 정연한 질서가 서있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에서만이 언제나 훌륭한 사업성과가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무생활은

바로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생산활동, 관리활동을 정연한 규률과 질서속에서 벌려나갈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이 경제계획수행에 대한 높은 법적 의무감을 가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으며 나라살림살이도 매우 커지고 경제관리사업도 날로 복잡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정된 법규범과 행동준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만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우리가 경제관리사업과 로동생활, 재산관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지킨다면 지금 있는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인민경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도 능히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6페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 부문과 단위를 책임진 지휘성원들이며 근로자들속에서 법무생활을 직접 조직운영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법질서를 어기고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속에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엄격히 지키고 집행하기 위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행동준칙에 따라 활동하게 하며 월권행위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현상과 결함들이 제때에 로출되고 극복될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업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서고 일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임도 두터워지게 한다.

이처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관료주의적현상을 극복하고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 일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진행된다.

계급적원쑤들은 제도와 질서가 째이지 못한 틈을 노리고있다. 따라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막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때 철저히 수립되고 유지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울 때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정된 규범과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6페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법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성실히 지키려는 준법정신은 법에 대한 옳은 인식과 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법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똑바로 가지지 않고서는 법규범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려는 자각성이 나올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법이 우리 인민의 의사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다는것, 법을 신성한것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집행하는것이 공민의 응당한 도리이고 의무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깊이 연구체득해야 한다. 법규범을 모르고서는 무엇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없으며 법무생활을 성실하게 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들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법규범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무생활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당면하게는 당 제6차대회전으로 올해 계획을 완수하여야 할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거운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와 생산활동에서 제정된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지키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관리사업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기업관리사업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계획규률을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생산계획은 그 누구도 변경시키거나 어길 권리가 없으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 개별적일군들이나 근로자들은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높은 법적의무감을 자각하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이 요구하는대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제정된 규정대로 알뜰하고 깐지게 다루며 그것이 조금이라도 허실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질서를 옳바르게 세워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

과 규정이다. 법무생활의 방향과 성격은 법규범과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법규범과 규정을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개선완성하는것은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자각적으로 잘해나가도록 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그리고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개선완성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법규범과 규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는데따라 그것도 끊임없이 개선완성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범과 규정들은 제때에 없애고 현실에 맞는 규범과 규정들을 다시 만들어 사업과 생활을 제도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는것은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7페지)

지도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공민의 한 성원일뿐아니라 자기 맡은 부문과 초소들에서 법무생활을 조직운영할 무거운 책임을 맡고있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이 법무생활에서 모범이 되는것은 그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그것은 군중을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영향을 준다.

대중의 준법열의가 높고 법무생활체계와 제반 조건들도 다 갖추어져있는 조건에서 해당부문, 해당단위의 법무생활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도일군들이 법무생활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법앞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지도일군이건 일반군중이건 할것없이 똑같은 의무를 지닌다. 지도일군들은 남에게 요구하고 시키기만 하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국가의 법규범을 지키는데서 자신이 처한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법규범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법무생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인것만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과 준법정신은 그들이 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집행하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법규범과 행동준칙들을 일상적으로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거기에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법적통제를 옳게 배합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9페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온 사회적범위에서 정연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것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국가권력기관들의 법적통제를 안받침하여야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사상교양사업과 법적통제를 옳게 배합하는것은 사회주의법규의 정확한 준수집행을 보장하는데서 정치사업방법과 국가권력적방법을 결합시키는것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정신을 키우고 그들이 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법적통제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통하여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법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뿐아니라 부정적요소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즉시에 적발폭로할수 있게 하며 그러한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적통제의 기능을 높이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자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준법교양사업과 함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기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위법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법규범을 어기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며 그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이 철저히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법의 주인이며 법집행의 직접적담당자인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법규범과 규정들을 책임적으로 준수집행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

김 재 은

지금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숨은 영웅들처럼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실제적사업성과로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굳센 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기술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기술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드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기술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들로 더욱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 *

기술혁명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1페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이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낡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결국 모든것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쥠으로써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게 된다. 이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하나의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과 기술경제적 및 문화적락후성이 남아있는 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누린다고 말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는것은 아직 그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한다.

경제기술적락후성이 남아있다는것은 근로자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 상응한 경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전면적으로 갖추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다 없애지 못하고있다는것은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에 맞게 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릴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철저히 개조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경제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담보는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현대적인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세움으로써만이 마련된다.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는 기술혁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축성된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을 없애고 현대적인 최신기술로 장비된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 튼튼한 경제토대를 쌓아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근로대중의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2페지)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으로 근로자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만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적락후성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진행하는 로동은 착취사회에서처럼 착취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하는 강제로동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하는 자각적로동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일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로동들사이에 본질적차이가 아직 있으며 힘든 로동이 의연히 남아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 그리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이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는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 때까지 남아있게 된다.

로동조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힘든 로동이 남아있다는것은 근로자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적으로 모두가 꼭같은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근로자들이 기술수준이 서로 다른 로동조건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완전한 자주적인 로동생활

을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조건에서 본질적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강력한 기술수단들을 다같이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인민경제부문별, 생산단위별로 기술장비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없앨수 있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게 하는 힘있는 기술장비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갖추게 함으로써 로동조건에서 근로자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은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성도 더욱 높이게 한다.

기술혁명은 기술수단들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함으로써 자연과의 투쟁에서 사람이 리용할수 있는 힘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킨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이 리용하는 힘에는 생산자들자신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뿐아니라 로동수단, 기술수단의 형태로 있는 물질적힘도 포함된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사람이 얼마만큼 큰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주로는 생산자들자신이 가지고있는 육체적, 정신적 힘이 얼마만큼 성능이 높은 기술수단의 힘과 결합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을 최신기술로 장비하여 로동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의 힘이 커지며 자연을 생산의 주인인 사람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더욱 빠른 속도로 늘여나갈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경험을 더욱 풍부히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힘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기술수단들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생산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완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근로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생산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간다.

이것은 생산의 주인으로서 근로자들이 가지고있는 창조적힘을 체계적으로 늘이게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또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사회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발전되고 문명한 사회이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분야에서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강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되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적락후성이 현저히 없어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로는 될수 없다.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쌓아진다.

이러한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면서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나서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일정에 오른 경제발전의 높은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이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이 이룩된 오늘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여 생산력을 비상히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을 전면적으로 자동화하고 나라의 전기화와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도 없애나갈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낡은 기술은 사람들의 낡은 사상, 낡은 생활인습과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연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없을뿐아니라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근로자들이 완전히 벗어날수 없게 된다. 이것은 낡은 기술과 생산방법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가 세워짐으로써 낡은 사상의식이 새로이 생겨날수 있는 근원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는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의 개조는 사상교양, 사상투쟁과 함께 기술개조가 안받침됨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기술의 개조와 혁신은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대담하게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적극적인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뿐만아니라 현대적기계로동은 근로자들을 규률있는 인간으로 개조하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로동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술혁명수행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기술혁명 리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기술혁명의 단계와 매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중심과업을 뚜렷이 밝히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수많은 민족기술간부들을 키워내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모두가 다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면서 대담하게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힘있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으며 모두가 다 흥겹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그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서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당면하여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과업이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입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단행본, 7페지)

오늘 기술혁명의 봉화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제2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점령할수 없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생산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사업,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 등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선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전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예비는 기술을 혁신하는데 있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고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며 이미 마련한 경제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할수 없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없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

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한것처럼 기술혁명수행에서 성과의 열쇠는 사람들이 어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자기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난관에 굴하지 않고 완강히 투쟁한다면 그 어떤 과학기술의 요새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르는것은 배우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제기된 기술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한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거나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혁명가의 기풍과는 인연이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연구하여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기술혁명도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낡은 사상과의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제힘을 믿지 않고 남의것만 바라보거나 낡은 경험에 매여달려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현상, 기술을 신비하게 여기거나 기술을 대담하게 혁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현상, 대중의 창발적의견과 혁신적발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자기 주견만을 내세우려는것과 같은 온갖 낡은 사상의 표현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도일군들로부터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기술혁명수행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기계혁명을 일으키는것이다.

기계혁명을 일으켜야 공업생산과정의 기계화, 자동화도 다그칠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기계공장들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형단조화와 프레스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공작기계새끼치기를 많이 하여 기계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특히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장비를 개선하고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리는데 필요한 대형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우리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더 잘 관철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누구나 다 기술혁명수행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숨은 영웅들처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식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그 어떤 과학의 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기술혁명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로동지옥

문 춘 길

오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참혹한 로동지옥으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인 로동의 권리를 빼앗기고 외국자본가놈들과 매판재벌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수탈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으며 놈들이 강요하는 죽음의 고역장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겪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세계최악의 로동지옥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늘 실업의 위협속에서 희망없이 살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자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고있으며 절대다수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41페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로동의 참다운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희망과 요구대로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것은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은 고사하고 일할수 있는 초보적인 권리조차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유신헌법》에 기초하여 로동악법들을 조작해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생존의 기본문제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있다. 놈들이 조작한 악법들에는 근로자들에게 일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한다는 사회적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있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처없이 헤매이는것은 바로 놈들의 이러한 반인민적책동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남조선근로자들은 온갖 악법에 의하여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을뿐아니라 전례없는 남조선경제의 파산, 몰락으로 하여 일자리에서 쫓겨나고있다.

지금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심화되고있다. 외래독점체들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석유위기에 휘말려들어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의 진통을 겪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중소기업체는 물론 대기업체들까지 무리로 파산당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공장문을 닫고 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내쫓고있다. 공장에서 쫓겨난 방대한 로동대중은 결국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는 실업자 및 반실업자수가 무려 850만명이 넘는다. 여기에 매해 평균 30만~40여만명씩이나 배출되는 리농민들, 하루 1~2시간 정도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도시의 령세상인 그리고 관광호텔의 《안내양》들과 미제침략군을 상대로 하는 《잡부》와 《위안부》들을 합치면 안정된 직업이 없이 방황하는 실업자 및 반실업자수는 훨씬 더 많다.

남조선에서의 실업문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기는 실업문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은 주로 새 기술과 새 기계의 도입 그리고 불경기로 하여 생기지만 남조선에서의 실업은 이것과는 달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인한 민족경제의 전면적인 파산몰락과 남조선괴뢰들의 외세의존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의 실업은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실로 남조선은 실업의 대중적이며 만성적인 성격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20세기 《실업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환경도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리윤추구에만 눈이 어두운 남조선의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의 로동환경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로동환경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로동안전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은 기계설비와 구축물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있으며 최소한의 조명, 통풍, 환기시설, 소음, 제진 장치는 물론 온습도마저 보장되지 않고있다.

특히 채취공업부문의 로동환경은 더욱 한심하다. 남조선의 모든 탄광, 광산들에 있는 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제시기부터 써오던 낡은 굴인데다가 그것마저 갱건설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형편에 있다. 동발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1메터도 못되는 《오소리굴》이 그 대부분이다. 로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오소리굴》로 간신히 기여다니며 원시적인 방법으로 석탄을 캐고 쇠돌을 져나르고있다. 게다가 통풍, 배수 장치 등 로동보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로동자들은 참기 어려운 악취와 유해가스, 더위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생명까지 바쳐가며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로동자들은 탄광을 가리켜 《인간막장》, 《죽음의 입구》라고 부르고있으며 그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저들의 운명을 두고 《두더지인생》, 《1초전인생》이라고 한탄하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그래도 로동환경이 낫다는 경공업부문의 실정을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여러 시장들에 자리잡고있는 중소피복공장들은 생산공장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실상 《집단수용소》와 같은 형편에 있다. 로동자들은 기계설비들이 밀집배치된 비좁은 방에서 드나드는 길도 없이 빼곡이 들어앉아 해빛구경은 고사하고 허리도 펴지 못하며 먼지와 소음속에서 시달리고있다.

섬유공업부문도 이와 다를바 없다. 섬유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가마속과 같이 뜨거운 증기로 가득찬 작업장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고 로동조건이 나쁘기때문에 로동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1978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13만 8천여건의 로동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하여 14만명의 로동자들이 죽거나 불구자로 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로동재해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그 전해에 비하여 무려 18%나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은성탄광에서 대규모적인 갱내사고가 일어나 지하막장에서 일하던 130여명의 로동자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로동재해가 일어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보다앞서 남강원도의 장성탄광에서는 400여명의 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 갇혀 집단적으로 죽는 류례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었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로동재해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늘어나고있다. 탄광, 광산들에서 일어나는 로동재해는 남조선산업부문에서 일어난 로동재해의 68.1%를 차지하고있으며 매해 8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로동재해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을뿐아니라 심히 유해로

운 작업환경으로 하여 여러가지 불치의 질병과 직업병에 걸려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여러가지 가스와 악취, 먼지, 소음으로 가득차있으며 낡고 뒤떨어진 기계, 설비들로 꾸려져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들은 청각마비, 호흡기계통질환, 피부병, 크롬중독 등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피복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의 75%가 관절염과 근육계통질환을 앓고있으며 69%가 신경계통질환, 68%가 소화기계통질환 그리고 54%가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조선로동자들은 무서운 병마에 걸려 시들어가고 로동재해로 인하여 죽어가고있다. 남조선출판물까지도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는 외국의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이고 《기업가들이 리익에만 눈이 어두워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로동안전보호시설에 투자를 꺼려》한데로부터 생긴것이라고 폭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시간과 로동강도는 절정에 이르고있다.

로동시간을 연장하고 로동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더 많은 리윤을 추구하는것은 자본가들의 근본생리이다.

남조선에서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시간을 무한정 늘이고 로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로동자들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른바 《근대화》와 《고도성장》이라는 명목밑에 로동자들을 매일 평균 16시간이상 혹사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리화하고있으며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이러한 《법적담보》밑에 생산조직과 《로무관리》, 임금체계 할것없이 기업경영의 매개 고리들에 야만적인 식민지고한제도와 교활한 착취방법을 적용하고있다.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는데 이골이난 놈들은 지어 로동자 매 개인의 최대한계능력과 기계회전수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피티에스제》를 비롯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악랄한 착취방법과 중세기적착취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로동자들은 인간기계로서 설비보다 더 혹사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시간과 로동강도는 가장 길고 높은것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이 하루에 일하는 로동시간은 평균 12～18시간에 달하고있으며 특히 자동차려객운수부문의 로동자들과 수출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보통 20시간이상의 고된 로동에 시달리고있다.

서울동일방직회사 로동자들은 정기휴가는 고사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있으며 《한국베아링공장》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놈과 감독놈들의 발길에 채우고 송곳에 손등을 찔려가며 류례없는 로동강도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다. 특히 마산과 구미공단의 외국인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로동시간과 로동강도는 더욱 놀라운 지경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유독성물질과 유해가스로 가득찬 지옥같은 작업장에서 밤낮이 따로없이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현실이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국제로동기구》는 주당 로동시간과 로동강도가 제일 길고 높은곳이 남조선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던것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긴 로동시간과 높은 로동강도에 의하여 혹사당하면서도 극도로 낮은 식민지임금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되며 그것마저 수개월 내지 반년이상씩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9～210페지)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강요하는 식민지 저임금정책에 의하여 최저생계조차 이어나갈수 없는 기아

임금을 받고있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절대다수는 월 5만원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는 22만원이 있어야 한세대가 한달동안 겨우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최저생계비의 4분의 1도 안되는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세계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의 임금수준보다도 낮은 형편에 있다.

성별, 년령별에 따라 심한 임금차이를 두고있는 남조선에서 녀성로동자들과 소년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더욱 한심하다. 녀자들의 임금은 남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43.9%에 불과하며 보조공, 견습공으로 혹사당하는 소년로동자들의 임금은 월 1만 5천원을 넘지 못하고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임금마저 기업체들의 휴업, 폐업으로 수개월씩 받지 못하고있다. 어쩌다 타게 되는 임금은 각종 조세와 악질모리배들의 중간착취로 말미암아 대부분을 빼앗기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그 무슨 《회사운영비》요, 《보험금》이요, 《방위성금》이요 하는 수십가지 수탈조항들을 만들어놓고 로동자들의 호주머니를 깡그리 털어내고있다. 그러니 실지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차례지는 임금은 50%가 되나마나 한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절대다수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넝마주이, 행상, 구두닦이 등 갖가지 보충적인 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중세기적암흑속에서 혹사당하면서도 로동의 참다운 권리를 위하여 투쟁할 합법적권리를 빼앗기고있다.

억압과 착취, 탄압의 란무장으로 화한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되고있는 로동3권마저 허용되지 않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놓고 로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빼앗고있다. 놈들이 꾸며낸 극악한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참다운 로동자조직을 합법적으로 가질수 없으며 취업의 보장, 로동시간의 단축과 작업환경의 개선, 임금인상과 피해보상의 요구 등 삶의 권리를 위한 초보적인 요구도 모두 억제당하고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은 파업을 비법으로 선포하고 탄압하고있으며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인기업체내에서의 로동자들의 사회적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아부하고 더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로동자들을 탐욕스러운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임금노예로 팔아섬기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로동자들의 자그마한 투쟁에 대하여서도 총칼로 마구 탄압하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싸우고있는 로동자들을 집단해고, 휴업 등으로 위협하고있으며 나중에는 감옥과 교수대로 끌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에게 가해지고있는 경제적위협과 정치적폭행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의 남조선이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로동지옥, 죽음의 땅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이 최악의 로동지옥으로 전변되고 근로자들이 인간이하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식민지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괴뢰들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은 갖가지 로동악법들을 조작하여놓고 근로자들의 기본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를 박탈하고있다.

놈들이 조작해낸 모든 로동악법들은 한줌도 못되는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들을 위한것이지 결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은 아니다.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해낸 《근로기준법》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해낸 《근로기준법》이란 남조선로동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기 위한 《법》적도구에 불과하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에서도 마치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재해 등 로동조건의 《기준》이 있는것처럼 기만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남조선의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법》적담보밑에 로동시간과 로동강도를 제 마음대로 높이 정하고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로동자들을 무리로 공장에서 내쫓고있다.

남조선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들의 로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착취와 략탈은 괴뢰도당의 총칼의 뒤받침을 받고있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경찰관》과 《명예경찰관》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배치되여있다. 남조선에서 가장 악랄한 폭압력량으로 되고있는 《청원경찰》은 로동자들에 대한 사찰활동과 폭동진압을 그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이외에도 놈들은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을 로동자들속에 박아넣고 그들을 감시통제케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비호밑에 남조선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을 부려먹을수 있는 마지막한계까지 혹사하고있으며 그들의 고혈을 짜낼수 있는 최후의 한방울까지 악착스럽게 빨아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불평불만을 더욱 야기시키고있으며 그들을 강력한 반항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착취와 억압, 탄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반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 누구도 남에게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히고 억눌려 살기를 원치 않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바로 자기들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지난해 7월 서울와이에취무역회사 로동자들과 동일방직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옥같은 작업장에서 부려먹을대로 부려먹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단적으로 공장에서 내쫓는 악질기업주놈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격분을 참을수 없어 대중적으로 투쟁에 떨쳐나섰던것이다. 뒤이어 10월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이 일어났다.

최근년간에 와서 남조선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은 더는 극악한 《유신》파쑈체제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인민들의 항거와 분노의 폭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기세를 더욱 세차게 올려 《유신》파쑈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남조선근로자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 로동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리 종 목

오늘 조선의 통일문제는 세계정세의 초점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하루빨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더욱더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요구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조국통일문제를 오직 그 주인인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지혜로 온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 없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조선인민자신에게 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을 결코 허용할수 없으며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를 바라지 않고있다.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은 통일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조선문제로 하여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킬수 있는 근원을 없애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오늘 조선문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으로 말미암아 복잡성을 띠고있으며 세계정세발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저

들의 전략적거점으로 틀어쥐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들이 가로놓여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만일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될수 있으며 그것은 핵전쟁까지 빚어낼수 있다. 조선의 평화는 우리 나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근원을 없애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주체적인 방침이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것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19폐지)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은 하나이다.》, 《조선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자주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선이 통일되는 날까지 세계인민들은 미국을 규탄할것이며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약속할것이다.》, 《조선이 평화로와야 아세아가 평화롭고 조선이 통일되여야 구라파와 미주에 안전이 깃들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울려가고 울려오는 이 웨침소리는 제도와 신앙, 정견과 당파의 한계를 넘어 인류가 사는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높이 울리고있다.

실로 오늘처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의 목소리가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그토록 힘차게 울려나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통일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

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그이의 고귀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지지를 확언한다.》, 《미국이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이 하나의 조선을 위한 대화의 마당에 성실히 나올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지금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성원은 세계적규모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 적극화되고 있으며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은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광범히 무어지고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들이 이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대륙의 50여개 나라들에서 조직되였으며 그 수는 무려 190여개에 달하고있다. 이 조직들은 상설적인 중앙조직과 함께 그 산하에 여러개의 지방조직들까지 내오고 해당나라의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과 청년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회적운동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은 세계적규모에서 날이 갈수록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있으며 여기에는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합세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상설서기국 비상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확대회의,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국제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회의들이 진행되였다.

이 회의들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정의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할데 대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지난해 1월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회의가 진행되였고 3월에는 서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지난해 6.25~7.27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한층 더 고조되였다.

이 기간에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 집회와 시위, 강연회, 토론회,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등 여러가지 형태의 행사들이 광범히 조직진행되였다.

특히 지난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벌어졌다.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 국제적서명운동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의 인사들과 군인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들도 이 국제적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는 세계 128개 나라와 31개의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들이 참가하였으며 서명자수는 무려 10억 8천만명에 이르렀다.

서명운동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은 결코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조선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서 함께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이 확증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은 자본주의나라 정계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이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딸리아의 103명의 국회의원들, 프랑스와 뽀르뚜갈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프랑스의 시장들과 이딸리아, 뽀르뚜갈의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이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에 떨쳐나섰다.

이딸리아의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철저히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이룩할것을 바란다고 강조하고 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대화의 실현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지난해 미국 워싱톤에서는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12만 5천명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미군과 핵무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리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을 따라 더욱더 늘어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는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서도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된 제6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는 최종선언에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유엔총회 제34차회의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리를 지지하여 연설하면서 유엔총회 제30차회의결의대로 미군이 남조선으로부터 하루빨리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국제회의들에서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는것처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미제침략군을 철거시켜야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다.

모든 사실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이 당파와 제도를 초월하여 광범한 국제적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로 간주하고 적극 투쟁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국제적련대성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온갖 술책을 다하고있으나 놈들의 어떠한 책동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미제는 그 어떤 음흉한 책동으로써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할수 없으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영구화할수 없는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배격당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세계인민들의 요구와 유엔의 결의대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즉시 철수시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하루빨리 응해나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분렬의 길로가 아니라 합작하고 단결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분렬된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것은 외세가 추구하는 침략야망에 민족의 념원과 지향을 롱락하는 행동이며 묵과할수 없는 반역적행위이다.

온 민족이 통일의 기치아래 합작하고 단결한다면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가장 정당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0년 제3호(루계 455호)

편 집 위 원 회

번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3월 1일 발 행•1980년 3월 5일

ㄱ—054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제 4 호(45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우리는 오늘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온 민족의 대경사로 가장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전체 해외동포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오랜 세월 오직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한없이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영광스러운 로정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신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년대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인류해방투쟁사를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투쟁로정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1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와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은 자기 나라 당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우월감에서 우러나오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려는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다. 그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지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루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위업에 대한 인민들의 참다운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들에게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탁월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탁월한 령도로 거창한 혁명적 개조와 변혁을 이룩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간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따라서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인민만이 민족적존엄과 삶의 참다운 보람을 누리게 되며 가장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무엇보다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불멸의 향도적기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1페지)

혁명위업의 위대성은 지도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지도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혁명위업만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제시해줌으로써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과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해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따라 인민대중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오늘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승리적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이 창시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은 주체사상이 승리해온 영광의 력사이며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 혁명은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적기치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승리의 한길만을 따라 전진하며 인류해방의 길을 열어나가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고있다.

주체위업의 위대성과 숭고성은 또한 그것이 력사발전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해나가는 위업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8페지)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존

엄과 삶의 보람을 누리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주권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될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도덕,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렇게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체의 사상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될 때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바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하게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보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하며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위대한 위업이다.

주체위업의 위대성과 숭고성은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비상히 고귀한 혁명적재부들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업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하며 완성된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투쟁행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하여 귀중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업적과 경험들을 창조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가 제기하는 력사적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를 찬란히 수놓은 수많은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이룩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남달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온 위대한 혁명이였다.

최근 수십년간의 세계사발전행정에서 조선은 민주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대결이 가장 첨예한 세계정치투쟁의 결전장으로 되여왔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출발하여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을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식민지예속국가들의 해방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는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는 혁명으로 되였다.

주체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끝없이 발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주체위업을 개척해나가는 첫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

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될뿐 아니라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혁명적재부로,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끝없이 고무하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위하여 한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여기에 우리 혁명위업이 주체의 영광스러운 혁통을 순결하게 고수하면서 힘있게 전진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가장 곧바른 길을 거쳐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온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인민정권, 인민무력을 주체적립장에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킨 모범을 창조한 위대한 위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 그리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창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지름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재부들을 마련할수 있었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업적들과 경험들을 창조하여온 력사적위업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공헌을 하여온 위대한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반세기가 넘는 장기간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불패의 창조적위력도, 그 거대한 혁명적역할도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시고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0폐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장엄한 력사적진군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 의하여 그 전면적완성을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들이 굳건히 옹호고수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주체형의 피,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더욱 세차게 뿜어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전위부대로, 우리 인민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되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움직이는 정치적생명체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체 당원들이 당의 사상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튼튼히 수립되였다. 우리 당이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행복이며 긍지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교양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당의 기치따라 드팀없이 싸워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는 오직 자기 당과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전진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지향과 열망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누구나 다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로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묵묵히 일하여온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과 고상한 미풍은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반영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밀착되고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

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참으로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주체위업의 휘황한 설계도는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오늘 우리 나라는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확고한 증시로 된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와 영원한 행복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위업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이 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는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과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의탁하고 밝은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은 없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며 이 땅에서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킬 때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맞이한 그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혁명적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고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총화이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 여기에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과 영예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태여나 주체의 조국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여

야 한다.

우리는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는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이 위업은 오직 우리 당의 향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전당에 당의 로선과 방침을 사소한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하며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로 하여금 자기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영원히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이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꽃피워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주체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야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대회를 맞이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긍지드높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세기에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우리 인민은 이 영광, 이 행복을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소리높이 자랑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성을 지니시고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로정을 불멸의 영웅서사시로 찬란히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가장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시면서 우리 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사상과 거창한 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인 창조와 투쟁의 력사로, 탁월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인류해방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적복무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된 력사로 빛나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혁명력사를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아켜보게 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심오하고도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의 새시대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인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력사이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고 빛내이는 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을 깊이 통찰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전풍부화시키시여 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주체적인 립장에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의 발전추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그것을 리론적탐구와 사색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 어

면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시였다.

남의 경험에 대한 사대주의적태도와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주체적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리론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신 철칙이였다.

모든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세계관과 방법론에 기초하시여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시였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물현상과 과정들을 설명하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은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와 방법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는 참다운 지도 사상과 리론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실천투쟁속에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시였다.

혁명 사상과 리론은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나오며 혁명실천은 혁명 사상과 리론의 진리성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성이 검증된 사상과 리론만이 참다운 생활력을 가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천과 동떨어진 고요한 서재속에서가 아니라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 복잡한 새 사회 건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과 어려운 전후복구건설, 들끓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엄한 실천투쟁속에서 고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고 대중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모든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정당성을 대중의 실천투쟁속에서 검증하시고 그것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혁명리론들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은 혁명실천의 요구와 경험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그것은 제시되자 곧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모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시였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철저히 반영하는것은 사상과 리론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는 언제나 시대와 혁명 발전의 객관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것을 요구하며 새것을 지향하고 선진적인것의 승리를 열망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속에서 혁명의 객관적요구를 예리하게 포착하시였으며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하고도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로 창시된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8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심원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하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그들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을 밝혀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모든 혁명단계의 리론들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들이 폭넓고 풍부히 담겨져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들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교육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리고 당, 국가 및 근로단체 건설, 주권을 잡기전의 투쟁과 주권을 잡은 다음의 혁명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유격전과 현대전을 비롯하여 온갖 형태의 혁명투쟁에 관한 리론들과 전략전술들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세계혁명과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혁명에 관한 리론들을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의 전모와 거기에로 가는 로정,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근본 방향과 요구,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재부들로 풍부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밝혀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력사의 새시대인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창시는 실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새로운 시기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자주성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혁명의 새 력사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쓰라린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하는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에 들어설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투쟁과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굽임없이 달리올수 있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사소한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비상한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력사의 새시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으신 가장 큰 공적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처럼 자랑스러운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로 빛나고있는것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대한 령도예술가의 력사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지)

혁명은 간고하고 힘난하며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것이다. 때문에 혁명은 위대한 지도사상에 의하여 나아갈 앞길이 밝혀진 다음에도 세련된 령도예술이 보장되여야만 사나운 풍랑을 성과적으로 헤치고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혁명투쟁은 목적의식성과 통일성을 기할수 없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는 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좌우하는 근본조건으로,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우리 인민은 두 제국주의강적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하였고 나라가 분렬되고 뒤떨어진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중중첩첩한 난관들과 시련의 고비들은 승리적으로 타개되고 이 땅에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력사가 찬란히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민족해방의 새로운 길, 자주성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치렬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시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마련하시였다.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강도,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고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한것은 참으로 세기적인 기적이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독창적으로 령도하시여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거창한 변혁과 민족

적번영을 가져오시였으며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낳게 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곧바른 길을 펼쳐주시였으며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로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하시였으며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력사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와 민족의 지위를 그렇게도 높은곳으로 끌어올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여 세계정치에 그렇듯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친 그러한 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와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이 가져온 빛나는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언제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이라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제기하시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에서 시종일관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심으로써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고수하시였으며 부닥친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히 이겨내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겹쌓인 난관들과 시련들을 박차고 우리 인민이 쟁취한 모든 승리와 업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투쟁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상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예견성으로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먼 장래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뚜렷한 투쟁목표와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여 인민대중을 계속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천리혜안으로 언제나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을 옳게 반영한 가장 정확한 투쟁목표와 투쟁구호를 제때에 내놓으시여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투쟁목표와 투쟁구호들은 우리 혁명앞에 휘황찬란한 전망과 새로운 앙양의 길을 열어놓은 혁명의 홰불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로,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앞당기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되성벽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조직력과 혁명적인 전개력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으시고 부닥친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여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고수하시는 혁명적원칙성, 모든 사업에서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공격전을 들이대시며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시여 모든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 대담하게 생각하시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시며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는 세련된 령도,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대중을 련이어 새로운 고지점령에로 이끄시는 정력적인 령도, 위대한 수령님의 이와 같은 독창적인 령도예술에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한 중요한 비결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각성시키시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방대한 모든 과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혁명은 계속 전진하며 승리하는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달리올수 있었다.

군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세련된 령도는 인민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현지지도력사에서 력력히 찾아볼수 있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비와 험한 길을 가리지 않으시고 낮에 밤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의 크고작은 공장들과 농장들, 교육기관들과 문화기관들을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온 나라를 창조와 혁신,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였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의 체현자이시다.

이렇듯 반세기가 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혁명의 위대한 령도예술가의 력사로,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적복무와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온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혁명활동로정을 오직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3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그 어느 한순간도 민족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활동에서 떠나신적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혁

명을 위하여 바치시는 그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그 길에서 겪으신 로고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혁명의 길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정치적생명, 이것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값높고 귀중한 혁명가의 생명이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우리 인민모두를 굳게 믿으시고 넓은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대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자녀들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유능한 일군으로,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가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은 따라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시며 언제나 그들에게 투쟁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끝없는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으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자신의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시고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인민적품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시책들을 실시해나가시는데서 무엇보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하나하나에 인민의 행복이 구현되도록 하시였다.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의 폐지,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일할 나이까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새세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 11년제의무교육제, 누구나 병나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무상치료제와 정휴양제 등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적시책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성이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하여 돌려주시는 배려에도 력력히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높은 은덕으로 하여 지난날 지하막장과 고열로앞에서 힘들게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오늘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도입하여 힘하고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고된 로동에서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는 끝없는 행복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금없는 나라, 교육의 나라, 무병장수의 나라에서 사는 자랑도 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기나긴 로정에서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고결한 은정을 돌려주고계신다.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의 고비를 넘으시며 혁명동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계급의 눈을 틔워주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가르쳐주시여 그들을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골간으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육친적인 보살피심 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은 적후에 홀로 있을 때에도 결코 외로움을 모르고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였으며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기에 혁명전사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 그것은 착취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준 깊고 뜨거운 사랑의 력사이며 모든 인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온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 *

조선혁명의 준엄한 폭풍을 헤치시면서 세기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영광과 행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충성다하는것, 이것은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에 자리잡은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혁명적자부심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

조 세 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과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주체의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세기적인 변혁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발전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참된 길이 있다.

1

혁명과 건설에 대한 과학적이며 세련된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며 그 승리적전진을 위한 근본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수행해야 할 어렵고 방대한 창조적사업이다.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높여 그들을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자면 대중령도가 옳게 보장되여야 한다.

심각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를 동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투쟁방침에 의하여 나아갈 앞길이 밝혀지고 전략전술이 규정된 다음에도 수백만 근로대중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예술이 있어야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중대한 문제로 나서는 대중 령도리론과 령도예술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빛나게 창조되고 훌륭히 구현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해오시는 반세기이상의 오랜 투쟁과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령도예술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

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1페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해야 할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에 의거하여야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행정에서 대중령도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을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실현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령도예술에 일관되여있는 근본사상이며 그 모든 내용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에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해결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하자면 그 주인인 사람을 움직이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결국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로 되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발동하고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로, 결정적력량으로 되게 하는 령도방법이며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령도방법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주체의 령도예술이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중지도방법이다.

혁명은 결코 혼자서 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을 불러일으켜야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

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혁명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다하자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력량으로 조직하고 동원하여야 한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목적과 활동원칙, 그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령도예술안것으로 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공산주의적령도예술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은 또한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에는 모든 혁명단계의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것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이상의 오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대중지도의 풍부하고 심오한 경험을 쌓으신 빛나는 투쟁로정은 곧 새롭고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 주체의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발전풍부화시켜오신 과정이였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온갖 형태, 여러 분야와 부문에 걸치는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실천적경험들을 일반화하시고 집대성한 령도예술이다.

모든 혁명단계와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정확히 이끌어나가며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예술이라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령도예술의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서 발전풍부화하여오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이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인 령도예술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에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동원방법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들이 포괄되여있다.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투쟁구호를 제시하는것은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0폐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투쟁방침,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구호를 제시하는것은 수백만 대중의 창조적힘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때에 정확히 제시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과학

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류형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전후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제도를 세우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활이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는 능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할수 있으며 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이 있고 대중이 그것을 열렬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개조와 같은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이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는 밍철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으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점령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인테리화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에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방향뿐아니라 모든 부문의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뚜렷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떤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은 적극성과 헌신성을 내여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다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옳게 반영하고 과학적예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그것은 제시되자마자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으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단 정책을 세운 다음에는 그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은 이로부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불굴의 강의성을 가지고 내세운 정책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포치하시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굽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목표를 높이 세우시고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시여 방대한 혁명과업을 비상한 담력과 강의한 의지로 철저히 관철해나가심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신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 수행

한 공업화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한 작전적구상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남들이 몇년, 몇십년 걸려서 한 일들을 단 몇달, 며칠사이에 해제끼는 놀라운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전략이다.

혁명이 간고하고 복잡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와 조건이 조성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방침을 세우고 난관을 맞받아나가 견결히 싸우지 않는다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대적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투쟁에서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혁명정세를 옳게 판단하며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탁월한 군사전략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으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여 적을 때려부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언제나 난국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과 반동공세가 강화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으며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전후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난관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심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는 전당적, 전인민적 정치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는 한편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경제건설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섰던 모든 난관이 극복되고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전쟁전야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시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여 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혁명적인 전략으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승리를 이룩하신 자랑찬 력사이며 난관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시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예술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다음단계의 사업을 준비하시며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로 넘어가시는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적골간을 키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으며 해방직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련이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시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섬멸전을 벌려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추켜세우는 령도방법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예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의 령도예술의 본질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근로인민대중을 어떤 방법으로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것으로 되여야 위력하고 현실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오시였으며 낡은 사업방법을 없애기 위한 꾸준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규정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이 대중령도에서 철저히 관철될수 있게 하시였다.

대중운동을 벌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령도예술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동원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백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대중운동을 벌려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신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적중하고 동원적인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성과적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자랑찬 로정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적실현에로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게 한 전국사상총동원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킨 위대한 천리마운동,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그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충성심과 고상한 혁명정신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중운동의 독창성이 있으며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시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는것이다.

현지지도를 통하여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는것은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현지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 고리를 뚫고 그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2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현지지도방법은 인민대중이 일하며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벅찬 현실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통적인 현지지도방법을 통하여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일반화하시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세련된 령도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범한 한 농촌마을인 청산리에 나가시여 무려 15일간이나 머무르시면서 참다운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대중지도의 원칙과 방법들을 집대성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청산리에서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시여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과 청산리, 대안과 숙천, 희천과 룡성을 비롯한 전형적인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시고 현지에서 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가 미치는 모든곳에서는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이 이룩되였으며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거룩하신 자욱마다에서는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령도방법과 풍모가 집대성되여있는 독창적인 령도예술,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령도예술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참다운 령도예술의 귀중한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이 있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

김 시 학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된 이 경사로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수령님께서 조국청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없이 가슴설레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닌 모든 영예와 자랑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출발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떨어진 혁명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투쟁이란 다름아닌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가들의 한생은 바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길에서만 빛나는것이다.

혁명가들이 지닌 사상정신적높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참다운 혁명가들과 기회주의자들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이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으로, 혁명적의리로 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0페지)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그들이 걷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고 준엄하여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

를 받을 때 혁명가들은 겁쌓이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고 언제나 승리해나가는것이다.

그것은 탁월한 수령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과 과학적인 리론을 창시하고 혁명투쟁의 목표와 임무,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며 혁명의 전반적행정과 매 력사적단계를 직접 틀어쥐고 대중을 승리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한다.

한세기를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과정은 로동계급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할 때 혁명투쟁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험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데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실성을 안고 수령을 끝까지 받드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숭고한 의무로 여기는것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간직하는 수령에 대한 티없이 깨끗한 충실성은 또한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로부터 나오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이며 은인이다.

정치적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정치적생명을 가질 때만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릴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육체적생명은 버릴수 있어도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고수하고 간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며 그것을 빛내이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고 이끌어준다.

사람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에서 혁명의 눈을 뜨고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며 수령의 손길아래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간다.

이로부터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정치적생명의 영원한 은인이며 보호자인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으로 수령의 높은 은덕에 보답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공산주의자들이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혁명가들의 실천활동에서 발현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뜻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념원이고 의지이다.

수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가 반영되여있으며 수령의 의도에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일치한 지향이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진실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할수 없다.

이처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으로 되며 그것은 수령을 모시고 수령에게 충성다하는데서 높이 발양되는것이다.

참으로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제일생명이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혁명적 신념이며 의지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을 무한히 흠모하고 끝까지 따라야 하며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모든 사색과 행동을 전적으로 수령에 대한 이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하며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으로써 혁명전사의 본분과 의리를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영광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렬한 흠모,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고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려는 고결한 혁명정신이 심장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력사적으로 뿌리깊이 내려지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철석같이 다져진 혁명적 의지이며 신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유린하려는 온갖 반혁명세력과 낡은것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며 따라서 혁명의 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끊임없이 가로놓이게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의 모든 운명을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나가는 행정에서 스스로 우러나오고 뜨겁게 자리잡은 확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한후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헛된 희생과 가슴아픈 실패만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 강산이 피바다에 잠겨 몸부림치고 망국의 검은구름이 짙어갈수록 우리 인민은 나라와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해줄 위대한 수령이 나서기를 더욱더 애타게 기다렸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숙원과 피타는

갈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추이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기에 걸쳐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굳게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과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나라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고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비할데 없었으며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은 그대로 뜨거운 충성심이 되여 심장마다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주체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노래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자기의 청춘을 바친 자랑찬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고결한것이였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은 그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심장으로 체득한데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사상감정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시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지름길을 독창적으로 헤치시면서 어렵고 복잡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 우리 인민의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이고계신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력사이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은정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우리 혁명의 찬란한 승리와 우리 인민의 모든 영광이 있으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 다 바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혁명가의 본분으로 여기고 오직 충성의 한길로만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또한 력사상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다져진것으로 하여 더없이 굳세고 고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시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훌륭히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8~529페지)

사람들의 혁명적신념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준엄

하고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단련된 혁명적신념만이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혁명은 형언할수 없이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뚫고넘어야 했으며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희생도 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앞에 시련이 겹쌓일수록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시여 모든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오직 혁명의 한길을 따라 굳세게 싸워왔다.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시기, 좌경기회주의자들과 그를 추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조선혁명과 우리 혁명가들의 신상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난국을 바로잡으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우러러 억세게 싸워나갔다. 일제의 수십만 대군이 백두의 산발들을 누렇게 뒤덮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노리던 엄혹한 고난의 행군때에도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부대가 그대로 담벽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성전에서 굴함없이 싸워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말았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립경제의 터전을 다지던 전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복잡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것을 기화로 하여 혁명의 배신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를 철석같은 신념으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준엄하고 간고한 력사의 나날, 온갖 풍파와 시련 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 충실성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철석같은 신념으로, 의지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고 끝까지 완성하자는데 그 숭고한 목적이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하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67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위업에 대를 이어 충성다해야 한다. 세대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될 때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마련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공산주의자의 기본품성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를 이어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

의 본분으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훌륭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한 숨은 영웅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백설희, 김상련, 장재산, 박영철동무들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에 청춘도, 개인의 행복도 다 바치며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빛나게 실현하려는 충성의 열정이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가 되고 지향이 되여 온 사회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도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만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하늘 땅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면 할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고 깊어만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이렇듯 웅심깊은 충성심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날을 따라 더욱더 굳세여지고 우리의 혁명위업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안고 더욱 빨리 전진해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일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지고 시대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위업의 첫 진군길에서 높이 울린 충성의 노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대하여—

리 면 상

우리 인민은 오늘의 찬란한 현실과 광명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행복과 긍지를 심장속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작된 노래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의 려명을 맞이해간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반영한 불멸의 혁명송가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한없이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찌기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시련과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풍파사납던 그 시기에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위업의 첫 진군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충성심을 이어받아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 *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주체위업의 첫 진군길에서 높이 울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노래이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장엄한 주체위업의 진군길에서 우리 혁명의 첫 대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주체위업의 첫 진군길에서 새로 자라난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어제날까지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에 가슴을 치면서도 옳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열혈청년들이였다.

그들은 짓밟힌 겨레가 나아갈 길을 찾아헤매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자기들을 옳은 투쟁의 길로 이끌어줄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비로소

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참된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진군길에 들어선 이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령님을 우러러 최대의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심장으로 부른 충성의 노래이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오랜 세월 참다운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된 크나큰 감격과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 끝없는 충성심이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투쟁에서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다. 그러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을 때에는 혁명투쟁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것보다 더 큰 행복, 더 높은 영예는 없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따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혁명의 진두에 모시기전까지 온갖 시련과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강도 일제의 칼부림밑에 삼천리강산은 피바다에 잠기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걸음마다 실패와 곡절만을 겪었다. 살아서 설곳 없고 죽어서 묻힐곳 없는 땅을 부둥켜안고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원한서린 밤하늘은 지샐줄 모르고 짙어갔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였던 당시 우리 인민의 피타는 갈망은 자기들을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해주고 행복한 미래에로 이끌어줄 민족의 영웅,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주체의 휘황한 빛발로 3천리강산을 비쳐주시였으니 정녕 이는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는 장엄한 력사의 새 출발로 되였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모든 걸출한 성품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체현하심으로써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였다. 항로를 잃고 헤매던 배가 밤하늘에 높이 솟은 향도성을 바라보듯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께로만 향하였으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듯 수많은 애국청년들과 혁명가들이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비로소 혁명의 참다운 길에 들어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께서 조선의 앞길을 밝히시는 새별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한일자와 별성자를 붙여 김일성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암흑속에서 헤매는 우리 인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고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그후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처럼 위대한 령도자를 어찌 하나의 새별에만 비하겠는가 하면서 조선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다시 날일자와 이룰성자를 써서 김일성동지로 고쳐 부르게 되였다.

조선의 새별, 민족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이 절절한 소망은 공산주의자들의 념원만인것이 아니라 당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절절한 소망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충성의 마음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게 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 뿌리깊이 자리잡은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불면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이처럼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절절하게 바라던 우리 인민이 위대하고 영명하신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됨으로써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온 가장 열렬한 충성의 노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반영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은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우며 주체위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려는 혁명적신념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따라걸어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 순간부터 수령님의 걸출한 풍모를 온몸으로 느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헤쳐나가면서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가슴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그러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길에 조선혁명의 자랑찬 현재와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조국광복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라고 긍지높이 노래불렀던것이다.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혁명의 길에서 그것을 더욱 빛내이게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였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받들고 따랐으며 수령님께서 맡기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다. 그들은 때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켜 싸웠다.

참으로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화된 충성심이였으며 철석같은 신조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숭고한 충성심을 반영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언제나 신심에 넘쳐 싸워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소유자들이

다.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에 넘쳐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혁명가로서의 영광을 누릴수 있다.

우리 인민과 혁명가들의 혁명적락관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주체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간직하게 되는 고상한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락관주의의 근원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혁명의 진리를 깨달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께서 주체의 빛발로 앞길을 밝혀주시고 몸소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겨가는 첫 대오인 자기들은 비록 청소하지만 앞으로 수백만 근로대중이 이 길을 따라나설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걸어간 조선혁명의 초행길은 엄혹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철석같은 확신을 가지고있었기에 그들은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구현되어 자유와 해방, 독립과 번영이 이룩될 그날을 그려보며 신심에 넘쳐 싸워나갔던것이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앞날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반영하고있다.

참으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열렬하고 순결하며 숭고한 충성심을 가장 폭넓고 심오하게 반영한 충성의 송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함께 20살전의 젊으신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에 대한 첫 송가를 지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이 깃들어있다. 혁명송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의 높이와 열도, 그 깊고 억센 뿌리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송가의 시원으로 되며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기념비적송가인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및 예술적 재부로 된다.

혁명송가는 소박하고 친근한 감정을 담은 선률을 씀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인민적풍모와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끝없이 걷고 또 걸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낮에는 밭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그들의 소박한 념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시였고 밤에는 수수한 농가의 웃방에서 그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주시기를 언제나 목마르게 기다렸으며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모든것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슬하에서 혁명활

동을 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이렇듯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풍모를 뜨겁고도 절절한 감정이 담긴 유순한 선률로 경건하고 숭엄하게 노래불렀다.

실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심의 력사적뿌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재부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흠모하는 혁명송가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한 불멸의 노래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깃든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을 어떠한 립장과 자세로 모셔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충성심의 거울로 된다.

조선혁명이 아직 려명기에 처해있던 당시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의 탈을 쓴 배신자들은 파벌싸움만을 일삼음으로써 혁명의 앞길에 더욱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바로 그러한 간고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끄심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참신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령도자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지어 보급하였던것이다.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지은것은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였고 자기들의 공적을 빛내이기 위해서도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켰으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았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 청년공산주의자이며 혁명시인이였던 김혁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목숨을 바쳐 혁명전사의 지조를 지킨것은 그러한 실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발휘한 이러한 숭고한 충성심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을 어떠한 립장과 자세로 모셔야 하는가를 뚜렷이 가르쳐주는 충성심의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에 찬 한길을 따라 멀리 전진하여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살리고 그 전통을 꽃피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를 이어 충성다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선렬들이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통하여 우리 세대에 물려준 숭고한 혁명정신을 뜨겁게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김 량 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일찌기 없었던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빨리 전진하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에는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힌 혁명의 지도사상이 담겨져있으며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고귀한 혁명업적들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러한 재부들을 담고있는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는 유일한 혈맥으로 된다.

따라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그 력사적뿌리로 하여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 필요한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들이 담겨져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1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서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매우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해나가는데 필요한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는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사업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로동계급의 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 때 그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며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본받아 자신의 혁명화, 공산주의화 과정을 촉진하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적풍모들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자기를 혁명가로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며 그의 권위를 절대화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수령을 어떻게 높이 모시고 수령에게 어떻게 충실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준다. 그뿐아니라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떤 기풍과 풍모를 가지고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사람들을 풍부한 투쟁경험과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진 준비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풍부한 투쟁 경험과 방법을 소유하는것은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가들은 열렬한 혁명사상, 혁명정신을 소유할뿐아니라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소유하여야만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것은 또한 단순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 앞에 나선 모든

파업들을 통일적으로 해결해나간 가장 폭넓은 형태의 혁명투쟁이였다. 이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모든 업적들과 경험들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과 풍부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영원히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필요한 이러한 다방면적인 경험과 지식을 줌으로써 그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듯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풍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는 위대한 감화력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이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자면 그것이 풍부한 혁명적내용을 담고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는 감화력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이룩되게 되는것으로서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의 혁명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게 된다. 이것은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자체의 특성과 본질적우월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비길데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전통이다.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이긴 그러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항일혁명투쟁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넘는 그렇듯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끝없이 고무해준다. 오래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은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는 산모범으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그들처럼 싸우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헌신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렇듯 혁명전통교양은 풍부한 사상정신적내용과 커다란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　　　*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이 정확한 방향과 정연한 체계,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부문의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령도밑에 온 나라 곳곳에 정중히 꾸려져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상연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위력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와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모든 당원들은 피로써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한 항일빨찌산들의 사상과 작풍과 도덕적풍모를 거울삼아 자기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10～511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헤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결의로 가슴불타게 하였다.

또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을 좀먹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이 강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수행해나가며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겨나가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특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실생활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로정을 헤쳐나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으며 그 길에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을 찾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남김없이 표현되고있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떤 역경과 난관도 뚫고 10년, 20년, 30년을 하루와 같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이라면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았으며 누가 보건말건 오직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자기의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참으로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이 강화된 결과 또한 우리의 새세대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들을 튼튼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계승자들을 튼튼히 키워야만 수령이 마련한 혁명의 피줄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계승자들을 잘 키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혁명의 새세대들은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경험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이 실로 커다란 작용을 논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우리의 새세대들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고 그것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라는 높은 긍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오늘 조국의 방선과 불꽃튀는 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전야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새세대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수행하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렇듯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이 얼마나 커다란 작용을 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옳게 벌려나갈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세월이 흐르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폐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고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오신 빛나는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찬란히 수놓아오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

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오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똑똑히 파악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전통교양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우리 혁명의 가장 간고한 시기에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혁명가로 자라난 오중흡동지의 생애와 활동은 혁명의 수령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오중흡동지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언제나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 있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더 정중히 꾸리고 그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실속있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력사를 찬란한 승리로 수놓아온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공산주의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해나가는것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

홍 시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방침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웅대한 설계도이며 국토와 자원을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조국의 강토를 아름답게 변모시켰으며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조국땅우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자연개조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땅우에 대자연개조의 보람찬 투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국토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자연개조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부원을 리용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쓰면서 생활한다. 자연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환경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자연환경을 인간생활에 유리하게 변혁해나가야 한다.

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벌려 자연환경을 사람들의 경제문화생활에 유리하게 변혁하여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빨리 해방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또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국토와 자원을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여야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후대들에게 유리한 생활환경과 풍족한 생활밑천을 마련해줄수 있다. 실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로 되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만년대계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대자연개조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4～4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제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며 온 나라의 강하천들과 산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후대들에게 풍요한 국토를 물려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는 산과 강하천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 나라 국토의 거의 80%는 산으로 되여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 크고작은 강하천들이 있다. 그러므로 산과 강하천들을 잘 다스리는것은 가장 중요한 국토관리사업으로 되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자연개조사업으로 된다. 산을 잘 다스려 경제림과 용재림, 땔나무림과 보호림, 과수원을 조성하고 모든 산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면 공업원료와 부재를 계속 얻어내고 과수업과 축산업, 잠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강하천들을 잘 다스리면 큰물과 가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관개용수와 공업용수,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수력발전과 강하천운수, 담수양어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적극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대로 치산치수사업을 잘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국토를 풍요한 대지로 전변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자연개조구상을 제시하시면서 또한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인 토지를 적극 보호하고 개량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토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잘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고서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으며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수 없다. 알곡생산을 늘이려면 이미 있는 땅을 철저히 보호하고 개량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새땅을 더 얻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를 보호하고 잘 관리하며 새땅을 적극 얻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대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자연의 피해를 이겨내며 자연부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여기에서 근본문제로 나선것은 자원개발을 누구를 위하여 진행하며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숙망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이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투쟁

하여오면서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날 그 날을 애타게 갈망하여왔다.

국토와 자원의 개발리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 근본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는 자연개조문제를 단순한 자원개발문제나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는 기술실무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정책적인 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그것은 또한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대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데 대한 혁명적립장으로 일관되여있다. 이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며 조국강토를 인민이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켜나갈수 있는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은 후대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설계도이다.

우리 인민은 삼천리강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도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개조사업을 잘하여 조국강산을 알뜰히 가꾸면 그것은 후대들에게 커다란 생활밑천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된다. 자연개조사업은 원래 방대한 로력과 자재, 시일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지만 한번 잘해놓기만 하면 대를 두고 은을 낼수 있는 보람찬 사업이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개조문제를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며 유족하게 살아나갈수 있는 풍요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전략적문제로 내세우시였으며 우리 세대뿐아니라 대대손손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와 자원을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갈 때 우리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국토와 자연의 거치른 흔적들을 말끔히 가시고 후대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국토와 자원을 전망성있게 개발리용하여 후대들에게 보다 풍요한 새부를 넘겨줄수 있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강령은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혹한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압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다. 초보적인 수리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하루만 비가 내려도 큰물에 귀중한 생명을 잃고 피눈물을 뿌려야 했으며 가물이 조금만 계속되여도 한해농사를 망치고 살길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다. 실로 나라 없고 주권이 없는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광복된 조국땅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몸소 진두에서 헤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이러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에 대자연개조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의 구상은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가진 국토건설의 강령적지침이며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웅대한 설계도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의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국토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이 나섰다. 우리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인민정권을 강화해야 했으며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철저히 실시하고 번터우에서 경제를 새로 건설해야 하였다. 실로 해야 할 일은 많았고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연개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에 나가시여 대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대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강개수공사를 단숨에 해제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권, 228페지)

우리 나라에는 강하천이 많지만 지난날에는 그것들이 인민을 위한데 옳게 리용되지 못하였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풍요한 재부를 략탈하는데만 눈이 어두웠으며 아무러한 치산치수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물이 범람하여 농경지를 삼키고 인민의 생명을 앗아가는것이 하나의 숙명적인것으로 되여왔다. 크지 않은 보통강류역에서만도 1942년 한해에 큰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천정보의 경지와 수천여호의 가옥이 류실되였으며 수만여명의 주민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하였다.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5월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그 첫삽을 뜨심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을 대자연개조를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첫봉화로 된 보통강개수공사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강하천건설과 수력자원개발을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보람찬 력사가 찬란히 수놓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모든 강하천들을 잘 다스려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심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강하천들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으며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여 자립적인 동력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산을 잘 다스리며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우리 나라의 산들을 잘 다스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산림

자원을 강도적으로 략탈해감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들은 말그대로 황폐화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만드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1947년 4월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면서 전체 인민을 산림조성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봉화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해마다 대자연개조를 위한 나무심기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림으로써 조국의 산천을 록음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을 끼고있는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몸소 산간지대의 농민들을 찾으시여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온 나라에 활짝 꽃피여 지난날의 벌거숭이산들이 오늘은 인민들에게 풍요한 재부를 안겨주는 황금산으로 전변되였으며 산간지대농민들도 벌방지대농민들 부럽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산을 잘 다스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경제림과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전원회의에서 경제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1961년 4월에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야산들을 일구어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황금산, 과일동산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산들은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치산치수에 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강하천들과 산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혹심한 자연재해로부터 영원히 벗어날수 있었으며 백과주령지고 생명수 흘러넘치는 조국강토에서 풍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연을 개조하여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보다도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서는 생산과정이 곧 자연과의 투쟁과정으로 되며 따라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는것은 농업생산토대를 강화하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가물이 들고 큰물이 지는 우리 나라 농업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수리화에 커다란 힘을 넣어 튼튼한 알곡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있는 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대기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는 앞으로 70만정보의 관개면적을 늘이고 30여만정보의 수리안전답을 더 만들어 심한 경사지를 내놓고는 모든 경지면적에 전면적으로 관개체계를 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을 두고 꿈꾸어오던 절실한 념원을 우리 세대에 와서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자연개조계획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08폐지)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현

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이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부담으로 대규모관개공사들을 벌리는 한편 중소규모관개공사를 지방과 협동농장 자체의 힘으로 적극 진행하며 관개공사를 밀고나가면서 고이는물빼기공사를 다그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더욱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다락발건설과 토지정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낼수 있는 위력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튼튼한 농업생산토대에 의거하여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알곡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의 벗들은 연풍호, 만풍호, 은파호를 비롯한 수천개의 저수지들과 온 나라를 그물처럼 뒤덮고있는 관개수로를 보고 한결같이 부러워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관개의 나라》라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자연개조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도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서해안의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고 공업의 원료기지를 강화할데 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짐에 따라 간석지개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난날 갈대만 무성하던 간석지들이 비단평으로, 풍년낟알이 쏟아지는 옥답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저수지자리도 잡아주시고 건설 방향과 방도들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손잡아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는 위대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아름답고 풍요한 환경에서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한 우리 인민앞에는 오늘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자연개조방침을 높이 받들고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실현해나가는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치산치수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자연개조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떨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에 의하여 조국강토는 보다 아름답게 변모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력사적경험

김 철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스물다섯돐이 된다.

전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이룩되던 력사적시기에 발표된 위대한 수령님의 4월테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전망, 혁명의 기본임무와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히시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로의 력사적인 진군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4월테제는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전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4월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은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고무적기치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고있다.

1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내용이며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48페지)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야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없애고 사회주의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이 낡은 경제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반동들의 근거지와 낡은 사상의 온상을 없애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것과 함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개인상공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경제형태이다. 개인상공업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발전에서의 자연생장성과 착취현상을 없앨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자면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혁명력량관계, 개인상공업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적개조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한 때만이 개인상공업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경리형태로 개조하는것이다.

종전까지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자본주의적경리를 수탈의 방법으로 청산하는것을 유일한것으로 알고있었다.

자본주의적소유를 수탈하는것은 주로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경험이였다.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혁명에 들어선 우리 시대에 와서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데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규정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데서 수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3페지)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민족자본가들은 불철저하지만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민족자본가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 그들과 함

께 민족해방투쟁도 하였고 민주주의혁명도 하였다.

민족자본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뿐아니라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어나가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여 기업가, 상인들을 수탈할수는 없었다. 기업가, 상인들이 자기들의 사회경제적처지로부터 우리 당의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지지하여나선 조건에서 더구나 그들을 수탈할 필요는 없었다.

한편 우리 나라 민족자본가들의 경제적토대는 매우 미약하고 령세하였다.

지난날 일제의 민족경제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은 수적으로도 적었고 그 규모나 기술장비수준에서도 보잘것이 없었다.

해방후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모든 소유를 국유화한 결과에 국영경리가 창설되였으며 그것은 과도기 첫시기부터 인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나라의 경제생활에서 지도적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소규모의 민족자본은 인민경제발전에서 극히 부차적인 역할밖에 놀지 못하였다.

원래부터 령세하고 보잘것이 없었던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파산몰락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고말았다. 사실상 그들로부터는 수탈하려고 하여도 수탈할것이 별로 없었다.

전후에 농업협동화가 추진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경리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조건에서 수공업자들은 물론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경리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으며 생활을 개선할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었으며 또한 몰락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되살려가지고 리용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십으로써 자본주의적경리를 사회주의적경리로 변혁하는데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간 결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가장 순조롭게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었다. 이것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의 하나이다.

2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여러가지 고귀한 경험을 쌓았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적당한 시기와 유리한 조건을 옳게 포착하고 그것을 잘 리용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수행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적당한 시기와 유리한 조건을 옳게 포착하고 그것을 잘 리용하였기때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58페지)

모든 사회경제적변혁과 마찬가지로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도 주객관적조건과 시기를 옳게 타산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전후시기에 성숙된 요구로 나섰다.

전후 개인상공업자들의 경제형태는 심히 파괴된 상태에 있었으며 더우기 농촌경리의 협동화과정이 다그쳐지고 국영공업과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기업활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자들의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전후시기를 가장 적당한 시기로 규정하고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만일 우리 당이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개인상공업자들이 일정한 밑천을 마련하여놓은 다음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고 하였더라면 그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장애에 부닥칠수 있었을것이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들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 그들이 제멋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더라면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지장을 받을수 있었을것이다.

우리 당은 모든 조건이 성숙된 전후시기에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끝이날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적당한 시기와 유리한 조건을 옳게 포착하고 리용하는것이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시기와 조건을 옳게 타산하는것과 함께 그 형태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가장 적합한 형태는 협동경리형태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지금까지 협동경리형태는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개인농민경리와 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왔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으로부터 수공업뿐아니라 자본주의적상공업도 협동경리의 형태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협동경리형태는 조합원의 개인적리익과 협동조합의 공동의 리익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경리형태로서 중소규모의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것이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경리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그 어떤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는다.

이전까지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는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한 경험이 알려지였었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경리형태가 국가자본주의기업으로 전환되였다가 다시 사회주의경리에로의 발전과정을 거치는 과도적인 경리형태인것이다.

경리형태의 변혁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확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앞으로 사회주의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정한 준비,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 불과한것이다.

이와는 달리 협동경리형태를 통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자본주의적소유가 직접 사회주의적소유로 전환되며 남의 로력을 착취하면서 살아온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직접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게 된다. 이것은 협동경리형태를 리용하는것이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

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과도적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었다.

우리 당이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은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도록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60페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개인경리를 사회주의적경리로 개조하며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 심각한 변혁과정이다. 이것은 개인상공업자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일대 혁명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그 어떤 강제적방법으로는 할수 없었으며 또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는 사업은 오직 설복과 교양을 통하여 그들자신이 이 변혁의 주인으로서 그에 스스로 참가하도록 할 때만이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개인상공업자들을 순조롭게 협동경리에 망라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자원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상공업자들의 각이한 처지와 요구에 맞게 협동조합의 형태를 여러가지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구성이 복잡한 개인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은 먼저 기업가들과 수공업자들로 여러가지 형태의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근로정신이 없는 개인기업가들은 생산로동에 참가시켜 로동계급화해나가도록 하였다.

여러가지 형태의 생산협동조합은 내온것은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 및 경영 관습에 오래동안 물젖어있었으며 생산수단과 자금의 소유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개인기업가들을 협동경리에 쉽게 망라시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우리 당은 개인상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리해관계와 처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는 협동경리의 형태를 내오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오래동안 시장에서 모리와 투기를 일삼아왔고 생산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상인들은 협동화하여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는 사업은 조급하게 일률적으로 할수는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판매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가 그것을 점차 자기 손으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생산판매협동조합형태로 발전시켰으며 나중에는 생산만 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생산판매협동조합을 생산협동조합으로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국영공업과 사회주의상업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국영경리에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영상업망을 대대적으로 늘임으로써 개인상인들로 조직된 생산판매협동조합에서 판매의 기능은 줄이고 생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결국 생산판매협동조합은 점차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만 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이렇듯 자원성의 원칙을 지키며 개인상공업자들을 여러가지 형

태의 협동경리에 망라시킬데 대한 방침은 협동화운동에서 주관주의와 자연생장성의 두가지 편향을 다같이 극복하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로 사회주의적개조를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게 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옳게 결합시킨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있어서 당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71페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리형태와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은 서로 떼수 없는 련관속에 있다. 그것은 경리형태가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현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경리형태와 그 담당자인 사람이 밀접히 련결되여있는만큼 경리형태의 개조과정과 인간개조과정도 떼수 없는 통일적과정을 이루게 된다.

수탈의 방법으로 낡은 경리형태를 없애는 경우에는 수탈의 대상인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개조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낡은 경리형태를 평화적방법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자들인 개인상공업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주인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옳게 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날의 기업가, 상인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리는 한편 그들을 직접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협동조합안에 독자적인 교양망을 내오고 개인상공업자들속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와 집단주의정신을 길러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밀이대였다.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지난날의 기업가, 상인들을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이 공동로동과 생산실천을 통하여 착취행위가 얼마나 나쁘며 로동이 얼마나 영예롭고 보람찬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을 함께 밀고나감으로써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혁명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에는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이 담겨지있다.

경험은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을 처음부터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이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가

있을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매우 빨리 진척되여 1958년에 농업협동화와 함께 거의 동시에 완성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자랑찬 승리,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시여 가장 옳바른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농업협동화와 함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되게 되였다. 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넓은 길을 따라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진척되게 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하고 그 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념원하였으며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바로 그러한 사회제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우리 나라 북반부에 확고히 건설하여놓았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미제침략군의 강점과 독점자본의 압세 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기여한 고귀한 재부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커다란 영광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위대한 기치

한 웅 식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동포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큰 경사로 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지금 전체 조선인민들과 해외의동포들은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실 절절한 념원과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끊어진 겨레의 혈맥을 잇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하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계신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모든 애국력량을 이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신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투쟁과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그처럼 복잡하고 간고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그 국제적환경이 날을 따라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기치이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옳바른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을 밝혀준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립장과 방법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

더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그 무엇도 인민대중을 대신하여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해결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으며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에 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을 떠밀어나가는 기본추동력도 조선인민자신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기본력량도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을 자체로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있는 지혜로운 인민이며 슬기로운 민족이다.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이며 그 기본추동력인것만큼 마땅히 여기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이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하며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91페지)

자주적립장은 우리 인민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며 또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조선인민이 자체의 신념에 따라 자기 민족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벌리는 자주적인 투쟁인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산생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맡아지고 풀어나가는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는 당당한 권리로, 응당한 의무로

된다.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체의 힘을 믿으며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조국통일위업에서의 자주적립장은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이며 그들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있으며 통일된 강토우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먹고 잘입고 잘사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세울것을 념원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창조적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나라마다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환경이 서로 다르며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수천년을 살아왔으며 예로부터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한 인민이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했던 나라가 아니며 전패국도 아니다.

조선인민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바라고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은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나라의 통일위업을 가장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올바른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기치이다.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통일과 관련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9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자주적원칙과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서 근본초석을 이루는것은 자주적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고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힘도 조선인민에게 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에 의하여 산생된 민족분렬의 비극적사태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자결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조국통일에서의 자주적원칙은 바로 민족자결의 원칙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는 민주주의적원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광범히 참가시키고 통일문제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민족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밑에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되여야 하는것이다.

그래야만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발동시킬수 있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조국통일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할수 있다.

조국통일에서의 평화적방법은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반대하고 무력행사가 아니라 협상의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평화적방법에 의한 조국통일은 자주적원칙과 민주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에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일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 원칙적립장에 따라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주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74페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본내용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기본방침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여기에는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외세의존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원칙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그밖의 다른 외부세력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원칙은 북과 남이 통일문제해결에서 무력에 의거하지 않으며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하지 않을것을 요구한다.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현실적조건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성격 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이미 7.4남북공동

성명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행동강령으로 확정되였고 유엔총회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등에서 일치한 찬동을 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되였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한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며 통일위업실현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한 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그리고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방침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체의 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구국강령으로서 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준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만일 이 정당한 방침이 실현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위업이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북과 남이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조국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해결할것을 주장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고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서있고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민족이며 다같이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결하고 합작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거족적으로 협의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론의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내외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앞당기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인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북과 남의 대결과 반목을 가시며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합작, 단결로 민족의 출로를 개척해나갈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으며 남조선의 당국자뿐아니라 각 정당, 단체, 민주인사들과의 폭넓은 접촉과 협상을 가질데 대한 적극적인 발기를 하였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해결하자면 어떤 당파나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터놓고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민족적단결과 합작을 이룩하는 거족적인 사업이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며 민족적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야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의무를 다할수 있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이룩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

김 총 인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자주의 세찬 흐름속에서 세계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서 오늘처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위한 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쇠퇴몰락하고 지구상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혁명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페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자주성이 없으면 식민지예속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띤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남에게 예속되여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것은 그들이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자주성을 빼앗겼기때문이였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려면 마땅히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우월한 민족이 따로 있고 렬등한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자주성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확고히 가질것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을 촉진하는 중요

한 담보로 된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불가분리의 한 구성부분이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에 의하여 전반적인 세계혁명위업이 완성되어나가는것은 객관적합법칙성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는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면 그만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진정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세계혁명을 빨리 진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남에게 예속되는것도 반대하며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남을 예속시키는 민족은 자기자신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자신의 자주성을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할 때에만 나라들사이에는 진실로 전진하고 공고한 단결이 이룩될수 있다.

참으로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 더욱더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4페지)

오늘 시대와 력사의 흐름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더욱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으며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지난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의 민족자주권이 강대국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들사이에 억압과 예속의 관계가 지배하였었다. 특히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식민지예속의 철쇄에 얽매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전횡의 희생물로 되였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의 면모는 크게 달라졌다.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치부의 원천으로, 생명선으로 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오늘은 자주의 새생활이 약동하는 혁명의 대륙으로 전변되고있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오랜 념원이 우리 시대에 와서 현실로 되고있다는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인민들의 전진운동은 더욱 넓은 지역에서 심도있게 벌어지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시대의 요구를 옳게 반영한 쁠럭불가담운동이 력사무대에 출현한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와 신구식

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민족적 독립과 평등, 령토완정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매개 인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과 리념으로 삼고있다.

블럭불가담운동에는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망라되고있으며 이 운동은 자기의 원칙과 리념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금 블럭불가담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억압과 략탈을 단호히 반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식민주의의 마지막보루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 외국의 군사기지를 철페하기 위한 투쟁, 제국주의의 내정간섭과 파괴활동을 반대하는 투쟁,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기 위한 투쟁, 자연부원과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모든 혁명적인 투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심화발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내정간섭행위와 파괴암해책동은 이르는곳마다에서 파탄되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의 손에 틀어쥐고 자주의 길로 나갈 때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은 국제관계분야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블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막고 놈들의 모험적인 군비경쟁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블럭불가담나라들은 또한 지난날 제국주의의 독점과 략탈,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복무하여온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블럭불가담나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게 설정되였던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들이 무너지고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가 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준다.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 기운은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지난날 미제의 동맹자로 있던 자본주의나라들도 미제의 모험적인 침략정책에 더는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성을 발휘하려 하고있다.

실로 자주의 거세찬 물결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강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에게 오만하게 지시하고 호령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것이 아니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있으며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해나가고 있다.

실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인

민들의 투쟁은 력사의 전진운동을 강력히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사상이야말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계적판도에서 자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의 시대인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28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이 방침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이룩하는것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함으로써 매개 나라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유와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전쟁정책과 략탈 등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시고계시는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의 거의 100개에 달하는 대소국가들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160여개의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세계 5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벗들과 지지자, 동정자들을 가지고있으며 세계혁명과 국제관계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사상리론가》,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으로,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지금 세계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부르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수많은 벗들이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세계인민들속에서 그처럼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되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속에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그 기치밑에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근로자 1980년 제4호(루계456호)

편집위원회

편 집• 근로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4월 1일　　발 행• 1980년 4월 5일
ㄱ—0597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1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제 5 호(45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우리 당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당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나가는것은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근본징표이며 바로 여기에 그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항일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주체의 혈맥을 순결하게 고수하면서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백전백승의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준동을 걸음마다 물리치면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은것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발전시켜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이것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함께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항일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1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 그것은 바로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당으로서의 본래의 면모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가장 원칙적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오랜 력사적경험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지 않을 때에는 당이 변질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 때만이 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이어나갈수 있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혁명승리의 옳은 길이 개척되는 력사적행정에서 형성된다.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 혁명의 최고뇌수로서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려나가며 그 과정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전통을 창조한다.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최종목적, 혁명수행의 근본 방향과 방도들이 담겨져있으며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사상정신적재부들과 풍부한 투쟁경험 등이 집대성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이러한 모든 혁명적재부들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02～103페지)

혁명전통이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된다는것은 그것이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행정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면서 그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전통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지도사상과 투쟁원칙, 투쟁방도들을 밝혀준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은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되며 혁명전통의 기본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전통을 이룩한 수령이 제시한 지도사상과 투쟁원칙 및 투쟁방도에 기초하여 활동을 벌리며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간다. 이처럼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당활동과 혁명투쟁의 깊은 뿌리로 된다.

혁명전통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 영원한 본보기와 원형을 제시해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분야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수된다.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투쟁은 서로 동떨어진것이 아니라 련관된 투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총적목적에 복종하며 그것은 통일적인 과정을 이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이러한 혁명투쟁의 전진과정이 옳게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그 투쟁이 의거하여야 할 일정한 본보기와 원형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본보기와 원형들은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에 집중적으로 담겨져있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력사적뿌리로, 혁명적재부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마련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며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강화발전된다.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과정에 당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로선과 혁명적강령을 작성하며 당건설, 당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상리론적재부들

을 마련한다. 수령은 또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여 당을 창건할수 있는 조직적골간을 준비하며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이러한 사상리론적재부들과 업적들은 당의 창건뿐아니라 당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가게 하고 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당으로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그 어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고수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이와 함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299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하여야 한다.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선으로 되며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밑천으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바로 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의 활동에서의 자주성은 오직 자기 나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옳게 살려나가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자기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할수 없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다.

이처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 위대한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공산주의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개척하시던 력사적시기에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로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만년초석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전설적영웅이

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것으로 하여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를 튼튼히 담보하는 가장 위대한 혁명전통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원칙성 등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또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우기 완전한 식민지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가장 폭넓고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가지며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다. 이처럼 위대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끝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마련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력사적뿌리로, 만년초석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오늘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혈맥을 영원히 순결하게 이어가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 오직 하나의 전통,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오가잡탕을 다 계승할수는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72페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승하는 혁명전통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따라서 혁명전통의 내용은 수령의 혁명활동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적재부들로 이루어지야 한다.

수령의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이어받아야 할 혁명전통으로 될수 없다. 만일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력사와 관계없는 이색적인것이 조금이라도 끼여든다면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흐려지고 그 성격이 변질되여 나중에는 혁명전통이 말살되는 결과를 가지오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재부들만을 혁명전통으로 계승하여야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그것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혁명전통은 저절로 옹호고수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혁명을 말아먹기 위하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하는 당은 수령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잃게 되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과 불패의 위력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어떻게 고수해나가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과 영예는 바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튼튼히 옹호고수해나가고있는데 있다.

우리 당은 당안에 오직 하나의 전통밖에는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것이 티끌만치도 섞여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받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전통을 바로 찾고 원작과 원곡에 충실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할데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훌륭히 보존되고있으며 항일의 혁명전통은 날을 따라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굳굳이 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폐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을 부단히 진행하여야만 그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할수 있다.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혁명의 대가 바뀌여지고 지난날 간고한 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람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결국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혁명의 대를 계속 굳굳이 이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게 함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거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폭넓게 체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이와 함께 간고한 항일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정신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더욱 튼튼히 간직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들도 오늘의 찬란한 현실과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깨닫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게 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불패의 혁명대오가 있는 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영원히 계승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시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혁명전통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는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목적은 그것을 하나의 유산이나 력사적사실로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이 이룩한 모든 혁명적재부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는데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거기에 담겨진 혁명정신, 혁명적재부들을 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혁명전통을 실천에 구현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이 혁명적구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업과 학습, 생활을 혁명적으로 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이룩된 모든 혁명적재부들이 오늘 찬란한 빛을 뿌리며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 문학예술부문에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훌륭히 재현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장구한 행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항일혁명투쟁에서 마련된 위대한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중중첩첩한 난관들과 시련의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행정에서 강철로 다지진 전투적인 당으로,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쌓은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우리 당이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의 강화발전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의 담보가 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

김 창 원

(3호에서 계속)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주체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의 출발적전제로서 그 체계와 내용, 특징을 규제하는 근본원리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0페지)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그 혁명리론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푸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다하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그것은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는가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 혁명리론전개의 원칙이 달라지며 따라서 혁명리론의 특징, 체계와 내용, 폭과 심도가 달라지기때문이다. 가장 올바른 철학적원리에 의거할 때만이 혁명리론은 완성된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전개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장 올바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에 의거하여 전개하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게 하는 출발적기초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푸는것은 올바른 혁명리론을 전개하는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옳은 방도를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구현하여 혁명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며 혁명과 건설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정확한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원리이기때문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

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가 옳게 구현되여있다. 따라서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함으로써 혁명의 본질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고 혁명의 목적과 과업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며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현실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기초로 된다.

혁명리론이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에 기초하여 전개될뿐아니라 현실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는 혁명의 주인이며 동력인 인민대중과 객관적물질적조건, 물질경제적요인들이 작용하며 그것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본요인과 함께 그에 종속되여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해명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하여 현실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준다. 그리하여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힐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운동의 담당자가 누구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혀준다.

혁명투쟁은 사회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와 사회발전의 동력을 옳게 밝히는 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지향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로, 동력으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세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주체와 추동력에 관한 문제를 옳게 풀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

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한것이다. 혁명의 이 원리는 혁명리론전개의 출발점으로 되는 혁명의 주체와 추동력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고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다시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혁명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리론이 전개될수 있다. 근로대중의 역할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략전술을 세워야 혁명의 목표와 주공방향, 투쟁형태를 옳게 규정하고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결속하여 혁명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움으로써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며 근로대중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사람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혁명리론을 전개할 때에는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힐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다 포괄할수 없다.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떠나서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면 혁명의 본질과 목적을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밝힐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없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하여야 혁명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근로대중의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 모든 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힐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혁명의 원리에 철저히 의거함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과 근원, 혁명의 동력과 대상, 혁명투쟁승리의 합법칙성, 혁명의수행방도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주체의 령도방법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페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과학적인 령도방법을 세우고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옳바르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리이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과학적인 령도방법을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과학적인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근로인민대

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리론체계로 되기때문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구실을 잘하게 하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정확히 밝히고 대중령도의 옳은 원칙과 방법을 세우자면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가지고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과학적인 령도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세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옳바르게 밝힐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는 력사발전,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일반화되여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력사발전,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력사발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발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옳게 해명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출발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령도방법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해명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하려면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확고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령도방법문제는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된 립장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문제로 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동력,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령도방법문제를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근로인민대중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령도방법문제는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하는 문제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동력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의 기초와 본질이 뚜렷이 해명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령도방법의 본질적내용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인다운 태도의 본질적내용을 밝히는것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철학적원리, 혁명의 근본원리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자

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이 주인구실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자주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을 구현하는 립장으로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할수 있고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갈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창조성을 구현하는 립장으로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근본방법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창조적립장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모든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철학적원리, 혁명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대중령도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게 할수 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할수 있으며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주체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이 혁명적령도를 보장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구체적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활동방식, 대중을 대하는 수완과 대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정신도덕적풍모로서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옳게 확립하는것은 대중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해명함으로 하여 대중을 대하는 옳바른 태도와 대중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행동방향을 가르쳐준다.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한 주체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서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것이 대중령도에서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 혁명의 근본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이고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이지만 그들이 저절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것은 아니며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옳은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밝혀준다.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대중이 주인구실을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는 문제도 결국 인민대중은 탁월

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해결되며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수립도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철저한 확립을 통해서만 원만히 해결된다.

이 모든것은 주체의 령도방법이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자기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함으로 하여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과학적세계관확립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확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위대하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창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령도방법확립을 위한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가장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전면적으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령도방법이 새롭게 창시되고 대중령도의 원칙과 방법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대중령도의 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세우고 인민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옳은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전환시키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의 세계관, 주체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참다운 혁명사상

박 태 준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높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다.

지난날 망국노의 쓰라린 처지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이처럼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다. 이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륭성번영할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주며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은 다같이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으로서 자주적인 민족들,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표징이며 사상정신적특질이다.

민족자주의식이 다른 민족에게 얽매이거나 의존하려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애국애족적인 사상의식이라면 민족적자부심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우수하고 훌륭한 모든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이며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다. 민족자주의식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것이라면 민족적자부심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려는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으로 된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다같이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서로 떨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민족적자부심은 민족자주의식에 기초하고있으며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적자부심에 의하여 담보된다. 따라서 민족자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민족적자부심을 지닐수 있으며 또한 민족적자부심을 간직한 사람만이 현실적으로 민족자주의식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에서 이러한 민족적자존심과 자신심은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마는 민족적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진 민족은 불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48페지)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살아나가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비롯하여 모든 아름답고 우수한것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자주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져야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할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매개 민족의 지위를 고수하게 하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정신적원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 간직한 인민은 불패의 힘을 가진 억센 민족으로 될수 있지만 그

랑지 못한 민족은 무기력하여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없으면 자기를 깐보고 남을 떠받드는 사대주의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무시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결국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길로 나가는 망국의 사상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제정신을 잃고 머저리가 되는것처럼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의 넋이 없어지고 민족문화와 민족어, 민족적풍습 등 민족의 고유한 특질을 잃어버리게 되며 구경은 남에게 동화되거나 예속되고말며 민족적독립을 유지할수 없게 된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게 되면 또한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며 민족적모욕을 당하여도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배족의 길로 굴러떨어지고만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져야 온갖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민족들사이의 계선이 없어졌다면 몰라도 아직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단행본, 12페지)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인민들은 자기 조국땅우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게 된다. 인민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는 혁명을 할수도 없으며 살수도 없다.

매개 나라 인민들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성스러운 공동위업에 이바지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인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인민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져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잃고 독자적인 주견을 세울수 없으며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는 드높은 민족적자부심과 자신심, 남에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살아가려는 민족자주의식을 가질 때에만 매개 나라 인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적극 벌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인민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

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그것이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중요한 사상적도구의 하나인 인종주의와 배타주의와 같은 반동사상은 무원칙한 우월감과 거만성,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의 감정을 동반함으로써 민족들사이에 불신임을 조성하고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다. 따라서 인종주의, 배타주의와 같은 반동적인 사상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적대되는것이다.

이러한 부르죠아반동사상으로부터는 인민들이 가지야 할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나올수 없다.

오직 주체사상만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인민들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게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줄뿐아니라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끝없이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온갖 형태의 민족적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는 철저한 민족자주사상으로서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좀먹는 온갖 노예적굴종사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면 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지게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근로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27~128페지)

주체사상은 온갖 민족적 억압과 예속을 반대하고 대소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옹호하는 철저한 민족자주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이 밝혀지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이 환히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민족의 자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매개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신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민족자체에 있다는것을 가르친다. 다시말하여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여기로부터 주체사상은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높이 보며 제정신이 없이 남의 장단에 춤추거나 남에게 빌붙어 살아가려는 온갖 노예적굴종사상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민족의 내부문제에 외부사람이 간섭하거나 그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견결히 옹호하는 철저한 민족자주사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민족자주사상인것으로 하여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비할바없이 높여준다.

주체사상이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것을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끝없이 사랑하는 사상감정을 북돋아주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살려면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아야하며 조선의 땅과 바다를 알며 조선의 풍토와 자연부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잘 알아야만 모든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해나갈수 있으며 또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과 자기 나라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245페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은 저절로 생길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관점을 반대하는 것과 함께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 자기 조국의 력사와 문화, 지리를 비롯한 자기의것을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할 때 더욱 높이 배양되게 된다.

사람들이 남의것은 알고있지만 자기의것을 모를 때에는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수 없고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질수 없으며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우수하고 훌륭한 것들을 잘 알아야만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착심, 자기 나라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할수 있으며 모든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가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다.

자기의것을 잘 알도록 하려면 자기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교육교양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의것으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며 그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한 옳은 교육을 할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인민들에게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우수하고 훌륭한 모든것에 대하여 잘 알게 하고 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준다.

주체사상이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으로서 나라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고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0페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자기 나라를 빨리 발전시켜 남보다 앞서나가는것은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 사회적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것만큼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는 사업은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물질적조건이 그에 안받침되어야 한다.

만일 나라가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남보다 뒤떨어져있거나 나라의 위력이 약할 때에는 사람들속에서 자연히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높이 보는 락후한 사상이 생겨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질수 없게 한다. 모든 면에 걸쳐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가야 자기 인민의 힘과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족적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할수 있으며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높이 보는 그릇된 사상을 뿌리뽑을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고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세계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책임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지도사상으로,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해나가는 길을 가르쳐줌으로써 자기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사회를 일떠세울수 있게 하여준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더우기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새롭게 수많이 제기된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 인민들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고 모든 면에서 자기 나라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자부심을 더욱 높여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부닥친 온갖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켰다. 이리하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해놓은 위대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특히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길에서만 높이 간직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인민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그 인민이 가지고있는 우수한 특질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되지만 거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민족의 지위와 영예와 관련한 근본문제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

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적권위는 곧 그 민족의 위대성과 권위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것보다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은 없다.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를 헤치면서 승리의 한길을 달려온 조선인민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으며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이게 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세기에 길이 빛날 기적과 변혁의 자랑찬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창조된 위대한 변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가는 행복과 영예가 얼마나 큰것인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국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계속혁명과 청년사업

지 재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청년사업은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청년사업, 그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3페지)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조국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대를 이어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위업이며 이 행정에서 세대가 바뀌여지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세대에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라나는 새세대들, 청년들을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선진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세대들이다.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것은 청년들의 특징이며 자질이다.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혁명과 새 사회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자신을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울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으며 끝없는 민족적 번영과 륭성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청년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특히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에서 세대가 끊임없이 바뀌여지고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나 새 제도하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생활이 높아졌다고 하여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안락한 생활에 물젖어 투쟁하기 싫어하고 혁명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마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혁명의 전도는 결국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육성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청소년교양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으며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이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에 나선 첫날부터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86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청년교양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새세대들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시였다. 이 행정에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청년사업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청년조직을 무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새세대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키워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공산주의혁명가들의 첫 대오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새세대들이 주체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찬연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반일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서 조국해방의 길을 헤쳐나갔다.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피로써 지키냈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더미우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공장을 일떠세우고 철도를 복구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대진군의 앞길을 개척해나간것도 청년

들이였으며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거창한 건설투쟁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참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과 이 땅에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들에는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땀방울이 력력히 스며있으며 그들의 불멸의 위훈이 자랑스럽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혁명의 대를 줄기차게 이어온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기쁨이다.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로청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한결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투쟁하기 좋아하며 정치조직생활에 충실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풍모이며 영웅적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이다. 이러한 훌륭한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은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청년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자만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도 투쟁을 멈추지말고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는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인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키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청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 우리 혁명의 앞길은 더욱 밝아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46페지)

청년시절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서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옳은 사상교양을 받아야 청년들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기본품성이며 제일생명이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소년시절에 지니시였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풍모를 그대로 본받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또한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이 다같이 일하고 공부하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기념비적 창조물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이 나라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의 남쪽땅에는 아직도 간악한 원쑤 미제가 도사리고있으며 지주, 자본가들이 활개치고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청년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억압받고 착취받던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표징의 하나이다.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청년들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청년들이 오늘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고결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언제나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이 밝으며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이다.

청년들이 비록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였다고 하더라도 응당 가져야 할 지식과 기술을 가지지 못하거나 문화적수준이 높지 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없으며 자기의 열정과 재능을 다 발휘할수 없게 된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청년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현대적인 과학 지식과 기술을 깊이 소유할것을 요구한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이 언제나 책을 즐겨읽는 습관을 붙이고 혁명적인 책들과 과학기술서적을 더 많이 읽게 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글 한자를 배우고 책 한페지를 읽어도 우리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산지식을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사로청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

상교양사업을 절대로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6폐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바로 그들에게 공산주의자의 품격과 자질을 키워주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청년들은 년령심리적으로도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지식수준과 준비정도도 서로 각이하다. 뿐만아니라 청년들이 서있는 초소도 다르며 그들이 맡고있는 임무도 서로 같지 않는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결코 일률적이며 도식적인 방법으로 할수 없다. 도식주의로써는 청년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벌려야 광범한 청년대중을 더 잘 교양할수 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각계각층 청년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발표회, 감상모임, 노래 및 군중무용 보급, 토론회, 강연회, 학습회, 웅변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널리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여러가지 소조활동과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로청 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사로청조직들앞에는 모든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맡겨져있다.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그들을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그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근위대, 선봉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사로청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로청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가며 한번 계획하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다그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앞당겨건설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

박 순 재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3대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8페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다. 그것은 낡은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이루어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을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생활양식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도덕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담고있다.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향락과 사치, 허례허식 등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조아적생활양식과는 달리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진취적으로, 문화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나갈때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하루빨리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을 창조하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더 잘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선진적이며 문명한 생활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력사상 가장 선진적이며 문명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 상응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나가려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근로자들을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향유자로 만들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마

편하여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에는 아직 착취사회가 남기놓은 낡은 사회의 유물, 문화적락후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문화적락후성은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 말과 행동, 례의도덕, 생활 관습과 풍속 등 생활양식에 많이 남아있다.

사람들이 검박하게 살지 못하고 되는대로 생활하거나 허례허식을 차리면서 잔치와 제사를 요란스럽게 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뒤떨어진 생활양식의 잔재이다. 사회주의건설을 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 쓸데없는 허례허식과 낡은 생활관습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이것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며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과 풍조를 되살리고 끌어들이는 중요한 바탕으로 된다.

낡은 사회가 남기놓은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선진적이며 문명한 생활문화를 창조해나갈수 없다. 경험은 낡은 생활양식을 그대로 두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되살아나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자면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관습과 풍습으로 굳어진 낡은 생활양식은 매우 뿌리깊고 집요하다. 그것은 결코 하루이틀에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낡은 생활양식은 오직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꾸준하고도 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행동준칙들을 창조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할 때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생활양식을 확립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속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살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으며 혁명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열정,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생활이 날을 따라 좋아진다고 하여 편안하게만 지내려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혁명가는 혁명이 전진할수록 그리고 생활이 넉넉해질수록 더욱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다. 우리에게는 결코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있을수 없다. 현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건전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철저히 갖추도록 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참다운 주인인 근로자들이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지는것과 함께 고상한 문화도덕적풍모를 갖추는것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근로자들이 모든 사업과 생활을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하는 습성을 키워야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도 더 잘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집과 마을도 깨끗하게 꾸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적근로자로서의 풍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기대와 직장 그리고 자기 공장을 알뜰하게 거둘수 없고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낼수 없으며 자기 맡은 혁명과업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야 사람들이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흥겹게 일할수 있다. 제도와 질서가 서있지 않고 일터가 어지러운곳에서는 좋은 제품이 나올수 없는것이다. 제정된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공장안과 공장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둘 때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명하게 문화적으로 생활한다는것은 결코 사치하게 산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생활은 착취사회의 안일하고 사치한 생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허례허식도 없이 옷차림도 시대적미감에 맞고 로동과 생활에 편리하게 하며 가정살림도 깨끗하고 검박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자들이 부르죠아적생활양식과 퇴폐적인 풍조에 물들지 않고 생활을 언제나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또한 온 사회에 집단주의적인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사람들이 개인의 리익과 안락을 위하여 서로 반목질시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확고하게 지배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겠다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량립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나가도록 하자면 집단주의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이 개인의 리익보다도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고상한 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다. 또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나쁜 생활습성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누구나 다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게 할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은 사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 혁명적기풍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고히 세울 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이 세워지있다. 여기에는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등록실사하고 보관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재산을 리용처리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전반적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규정, 극장과 영화관, 뻐스정류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집단주의적질서와 문화도덕생활규범들이 다 밝혀지있다. 이러한 공동규범들과 행동

준칙들은 근로자들의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주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우리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킬 때 낡은 사상잔재와 뒤떨어진 생활양식이 되살아날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없앨수 있으며 집단과 사회에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을 습성화,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사람들이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 살수도 혁명할수도 없다. 근로자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의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 높은 조직관념을 가져야만 참다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준비될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주의적행동준칙과 집단주의적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게 되고 조직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고상한 혁명가적기풍을 키워나가게 된다.

참으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활동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력사적으로 내리오면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흐리게 하고 좀먹던 낡은 사회의 생활 풍습과 관습이 점차 없어져가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개인생활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철저히 서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 자기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알뜰하고 깐진 일본새, 사소한 안일과 해이, 자만도 없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끈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 경제 사업에서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고 사회주의적질서를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국가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국가, 경제 사업에 참가하고있다.

국가,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만들고 완성하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정연하게 세워야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행동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할수 있다.

국가, 경제 사업에서 새로운 관리법과 규정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국가, 사회 사업에 참가할뿐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참가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지키야 할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와 례의도덕, 생활풍습 등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적생활규범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낡은 생활양식을 뿌리빼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규범들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며 점차 공산주의적도덕규범들을 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0～471페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뿌리빼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단꺼번에 수행될수 없으며 강제적방법이나 행정적조치로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 낡은 생활양식의 본질과 그것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잘 알려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 또한 낡은 관습과 건전치 못한 생활유습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관습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할수 있다.

또한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군중적운동으로 널리 벌리며 새로운 생활양식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낡은 생활양식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 사업은 일반적인 교양과 해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본보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교양할 때 이 사업은 더욱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데서도 힘있는 방도로 된다.

우리는 예술영화 《잔치날》과 같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는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앞장서 낡은 생활습성을 하나하나 없애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세워나가는데서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은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생활에서 조그마한 안일과 해이, 허례허식을 없애고 혁명하는 사람답게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고 긴장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누구보다도 자각적으로 지키며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긴장하고 검박하게 전투적으로 조직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는 중요한 담보

차 철 원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는 당생활을 정규화하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당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다그쳐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고있으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당사업발전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현실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당을 더욱 강화하며 당원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을 정규화하며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4페지)

당생활을 정규화한다는것은 조직사상생활을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진행한다는것을 말하며 당생활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일상적으로 자각적으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을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전위부대로,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는 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모든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당원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에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이다.

당생활이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당사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건설과 당사업 발전에서 나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요구는 당생활을 정규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히 실현되게 된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모든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대로 당생활을 진행하는것을 원칙적인 요구로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당안의 모든 규률과 질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서 제정된것으로서 그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집체적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움직여야만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불패의 혁명대오로 반석같이 통일단결될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다리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당은 벌써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오직 그 어떤 자유주의적행동이나 무규률성을 허용하지 않고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모든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당의 전투력이 강화된다.

당생활은 강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진행할뿐아니라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일상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이란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이며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혁명활동이다. 당원들은 조직에서 분공을 받고 그 실행정형을 조직앞에 김열받으며 다시 새 과업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늘 움직이게 된다. 당조직의 끊임없는 교양과 지도 밑에 조직사상생활을 심화해나가야만 당원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조직생활을 떠난 당원은 로쇠한 당원이며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당원이나 다름없다.

당원들은 일상적인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해나가야만 당원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당원의 고상한 영예를 참말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당생활,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성실하고도 꾸준한 당생활을 전제로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우리 혁명이 나아갈 방향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사상정신적량식은 하루이틀사이에 다 습득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랜 기간의 실천투쟁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만 소유할수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록 모든 당원들이 학습을 하나의 혁명사업으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집체학습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자체학습을 실속있게 해나가게 된다. 당원들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여 학습을 꾸준히 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은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당원들이 정규화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고 학습을 게을리하면 사상정신적으로 빨리 로쇠하고 시대발전에 뒤떨어지며 당정책을 옳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인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모두가 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해

준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또한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여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조직관념을 높인다는것은 당원들이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립장과 관점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옳은 조직관념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믿고 당에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는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당조직관념은 당생활을 정규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확고히 세워지게 된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당생활규범에 의하여 사업하고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당조직사상생활에서 제외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 당생활원칙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소한 자유주의적행동이나 무규률적인 현상, 당조직사상생활에서의 자그마한 이중규률도 허용하지 않는 매우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을 정규화할수록,조직생활과 정치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며 제정된 제도와 질서, 조직규률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조직관념이 부족한것을 비롯한 모든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게 된다.

당생활을 정규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은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높은 조직관념과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또한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당회의에도 참가하지 않고 당생활도 하지 않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아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으며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찌 당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5페지)

사람들은 저절로 혁명화되거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준비된 혁명가가 되는것이 아니다. 당원들은 실천투쟁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혁명가로 단련된다. 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이 유지되고 빛날수 있다.

당원들은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당조직의 분공과 위임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게 된다.

사람들이 비록 혁명조직의 성원이 되였다 하더라도 조직생활을 빈틈없이 짜고들지 않고 그것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하여서는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칠수 없으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없다.

당생활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그것이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는 참다운 용광로로 되게 하는 문제는 당생활을 정규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당생활을 정규화해나가야만이 당원들은 조직으로부터 혁명의 량식을 끊임없이 보장받을수 있으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한순간도 탈선됨이 없이 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과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현상을 제때에 극복하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잡귀신들의 침습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생활을 정규화하여 당생활규범과 당적규률의 요구대로 생활하면 집단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고 강철같은 규률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력있는 부대로 자라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이 내놓은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방침은 당사업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당조직사상생활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 혁명적단련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과 심화되는 당사업발전과 혁명실천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그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로 내세워주려는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다 당의 로선에서 리탈하거나 당생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당생활규범을 지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43페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정규화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생활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생활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해야 할 조직생활이며 정치생활이다. 더구나 당생활의 정규화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당생활을 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생명체를 유지할수 있는것처럼 당원은 마땅히 당원의 높은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며 당의 정규화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정규화생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은 다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이 서있지 않는데서 나온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여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규화생활에 잘 참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당조직이 정규화생활의 요구와 방도를 당원들속에 깊이 해설침투하여 그들자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자체의 당생활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당생활을 정규화해나가는데서 나타나고있는 모범적인 사실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부족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감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며 그들의 당생활은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활동이다.

당원은 그 어떤 지시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당생활에 참가한다.

당생활의 정규화도 바로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과 규률성을 전제로 한다.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의 정규화는 오직 모든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당생활에 참가할 때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며 당원들의 당생활이 참다운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정규화생활의 기본요구와 당생활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존중하고 당조직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는것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책임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의 앞장에 서서 당원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간다면 그것은 당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경험은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내려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당원들과 대중들을 힘있게 깨우쳐주며 구체적인 실태를 직접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업을 정상화해나가는것이 당의 정규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위력한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한번의 회의나 학습을 조직해도 인식교양적의의가 크게 조직하고 정규화생활의 정치사상적내용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원들이 자신의 수양을 위하여 스스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정규화생활에 대한 자각적기풍은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정규화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이 옳게 결합될 때 더욱 훌륭히 발양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6페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 문제는 당원들의 자각성에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통제가 안받침될 때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

당조직이 당생활지도를 옳게 해나가야만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을 더욱 짜고들며 조직관념을 높이고 혁명적당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과 일군들이 당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어떤 조건에서도 당생활을 정규화하도록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쇠붙이를 밖에 내버려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되듯이 사람들이 조직의 요구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당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만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없이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요구대로 당생활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서는 그들의 정규화생활정형을 옳바로 료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아래의 실태를 료해한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일관한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태를 모르고서는 옳바른 처방을 내릴수 없듯이 당원들의 정규화생활정형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지 못하고서는 당생활지도를 잘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아래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정규화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

당원들의 정규화생활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간부들의 당생활을 옳바로 지도하는것이다.

간부들이 처한 위치와 그들의 행동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은 참으로 큰것이다.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직위가 높은 사람이건 직위가 낮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누구를 물론하고 하나의 당생활규범에 따라 정규화생활에 참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책임적인 지위에 있을수록 당생활에 솔선 참가하여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모든 일군들이 정규화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잘 이끌어주며 그들이 실천행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도록 당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언제나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과업수행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생활의 정규화는 기본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야 한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당원들이 기본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조직들은 정규생활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주고 수행방도를 가르쳐주며 그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릇된 현상들을 바로잡아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해준다. 정규생활과정이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며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이 정규화되면 될수록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정규화생활이 혁명과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도록 적극 이끌어주며 혁명실천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규화생활 일면만 강조하고 혁명과업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혁명과업수행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정규화생활을 게을리하는 두가지 편향을 다같이 없애고 당조직사상생활을 잘하면서 그것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복종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경험은 당의 정규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조직성도 높고 혁명성도 높을뿐아니라 맡겨진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당생활과 경제과업수행을 옳게 결합시켜야 당생활도 잘하며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고 그것을 혁명과업수행과 결합시키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과업수행에서 나타나도록 옳바로 이끌어나갈 때 경제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빛나는 예술적화폭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에 대하여—

리 종 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다부작으로 창작되고있는 이 영화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높은 예술적일반화,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특색있는 영화적형상, 커다란 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뚜렷이 확증하는 또하나의 빛나는 성과작으로 된다.

1

예술영화《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실지 있었던 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에 기초하고있다.

영화는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저들의 침략목적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정전담판을 파탄시키고 새로운 모험적인 《신공세》를 벌리려 하다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자 다시 정전담판장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던 1952년말부터 1953년초까지의 시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영화는 《신공세》를 성사시켜보려고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는 미제의 죄악상을 실재한 력사적 사건과 사실들에 기초하여 폭로하면서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군 정찰병들의 대담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적후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면서 싸운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용감성과 의지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밝혀주고있다.

영화는 유림과 순희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며 싸울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영화는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애국심을 체현하고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이 세상에서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85페지)

조국이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집

과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정든 산천이고 다정한 이웃들이기도 하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주인공 유림의 성격과 운명 발전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사람들의 감정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 나라 강토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여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유림은 조국이 없는탓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꿈이 깃들었던 정든 고향산천과 피눈물을 뿌리며 헤여져야 했고 《학도병》으로 남방의 외진섬에 끌려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으며 기나긴 세월 이국의 하늘밑에서 가슴아픈 생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유림은 이처럼 파란많은 생활의 소용돌이속에서 조국이 없이는 사람다운 삶이 있을수 없고 청춘도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유림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름있는 기자가 되였지만 언제나 가슴속에 사무치게 그린것은 조국의 땅과 맑은 하늘이였으며 낯익은 고향집에서 자기를 기쁨의 눈물로 맞아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몸은 비록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있어도 가슴속에는 언제나 조국이 간직되여있는 유림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임무를 받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적후에로 흔연히 떠나가는것이다.

적후의 조건은 위험하고도 간고하였다. 원쑤들은 교활하였으며 조국이 준 임무는 아름차고도 어려운것이였다.

그러나 유림이가 본부에서 받은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은것은 그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절절하고 미제의 《신공세》를 짓부시고 조국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굳세고 강렬했기때문이다.

적후에서 6년만에 다시 만난 홍식이가 권하는 한잔의 약주에서도 조국의 향취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유림이, 홍콩에서 마음놓고 휴식할수 있는 짧은 그 시각에도 잠들지 못하고 조국의 담배를 다시 피워물고져 먼리 북쪽에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잠기는 유림이…

영화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어지러운 적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심장 한복판에는 세상이 변하고 절해고도에 홀로 남게 된다 하여도 변함없을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이 뜨겁게 불타고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불타는 마음이야말로 유림이가 적들의 음흉한 군사적기도와 흉계를 짓부시고 싸워이길수 있게 한 정신적바탕이며 가장 믿음직한 담보인것이다.

유림은 그 조국이 바로 이국땅에서 버림받던 자기에게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어버이사랑으로 손잡아이끌어주고있기에 괴뢰륙군보도처장 박무의 저격을 받아 사경에 처했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본부에 보내지 못한 정보자료를 먼저 생각한다.

조국에 대한 이러한 사랑으로 하여 그는 준엄한 투쟁의 길을 걷다가 부상당한 자기를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이 부를 때 감격과 기쁨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그러나 유림은 기록영화를 통하여 사랑하는 고향땅 평양에 대한 놈들의 야수적폭격만행을 목격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후에 남아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진다.

이러한 유림이기에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입원실에 기여든 박무가 조국이란 한갖 력사책에 나오는 개념에 불과한데 그 추상적인 개념때문에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떠벌이며 목숨을 건지려거든 어서 서울을 떠나라고 위협할 때에도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들때문에 수많은 겨레들이 피흘리고있는 그 조국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목숨도 바칠것이라고 단호히 맞서는것이다. 바

로 이런 결의대로 유림은 총구가 앞을 막아나서는 위험한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며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 림기응변의 지혜와 대담성으로 놈들의 《신공세》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영화는 또한 적후의 험난한 싸움길을 헤쳐나가는 혁명전사들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주인공들의 열렬한 사랑을 더욱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영화가 보여주는것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후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들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유림과 순희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의 혁명적동지애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예술적으로 해답하고있다.

정체가 드러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온 순간 본부로부터 피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나 자신보다 유림이에게 다닥칠 위험을 먼저 생각하며 영웅적회생으로 동지의 안전을 보장하는 홍식,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사경에 처한 유림을 구원할것을 본부에 제기하는 순희, 실로 이 모든것은 조국을 위한 투쟁의 한길우에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장면들이다. 하기에 적후의 위험한 싸움길을 걷는 유림은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언제나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조국의 품을 몸가까이에 느끼며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은 어떤 사상감정이며 그러한 사상감정을 변함없이 지니고 빛내이려면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은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한 여기에 이 영화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이 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이 거둔 또하나의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영화예술을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무기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훌륭히 구현한데 있다.

영화는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잘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창작적요구를 빛나게 실현하고 있다.

영화는 실재한 력사적 사건과 사실들의 폭넓은 일반화를 통하여 조선정전담판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수많은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끌어들여 《신공세》를 벌려나가려는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면서 미제야말로 침략의 원흉이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전쟁광신자들이며 세계반동의 우두머리라는것을 까밝히고있다.

그뿐아니라 영화는 괴뢰륙군 참모총장 신재선과 괴뢰륙군 첩보대장 김창룡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물고 뜯으며 상전을 등에 업고 정권을 쥐려고 날뛰는 괴뢰들의 추악한 몰골을 보여주고있으며 그 알륵을 더 조장시키면서 그자들을 틀어쥐고 저들에게 《충성》다하도록 꾀하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고있다. 이러하여 영화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의 본질과 괴뢰들의 더러운 매국적행위를 발가놓고있다.

영화는 또한 모략의 소굴인 미군첩보대안의 불신임으로 뒤엉킨 인간관계, 쟌네트와 그의 삼촌 오벨, 유엔기자단성원들의 호상관계들에서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고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뒤생활도 잘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특히 박무의 저격을 받아 생명이 위험에 처한 유림이의 수술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미쳐날뛰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깊이있게 해부하여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

부)은 적들의 이러한 더러운 몰골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잘 그림으로써 적들에 비한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우월성,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있다.

이처럼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숭고한 애국심을 지닌 참다운 애국자,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이며 근로자들의 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낸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영화예술의 특출한 성과작이다.

2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높은 예술적형상과 훌륭히 결합시켜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를 개척하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67페지)

문학예술작품의 고상한 사상적내용은 언제나 세련된 예술적형상과 조화롭게 통일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도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속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이 커다란 극적견인력과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은것은 사상적내용이 심오할뿐아니라 종래의 정탐물영화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높은 예술적형상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정탐물영화들은 많은 경우에 사건선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하여 영화는 아슬아슬하게 엮어지는 이야기줄거리를 타고 인간들의 기발한 행동을 통하여 활극적인것을 보여주는데 기본을 두게 되였다. 이것은 어차피 사람들의 실생활을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수 없게 하였다.

또한 사건의 발전과 해결과정도 기이하고 돌발적인 계기들에 의한 극적긴장감을 조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엮어지다보니 이야기를 충분한 믿음성이 가게 진실하게 그려나가지도 못하였다.

우리 당은 정탐물영화창작에서도 정탐내용을 밝히는데 기본을 둘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하며 이야기를 믿음성이 가도록 형상할데 대한 방침을 밝혀주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을 옳게 구현함으로써 정탐물영화창작에서 새로운 높은 예술적경지에 올라설수 있었다.

이 영화가 거둔 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성격형상에서 지성세계를 심오히 파고들면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여주는데 성공한것이다.

인간성격형상에서 내면세계를 잘 그리는것은 산인간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근본열쇠로 된다. 그것은 인간성격형상에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 감정과 의지 등을 풍부하게 그려낼수 있기때문이다. 영화는 사건선을 타고 정탐내용을 밝히는데 기본을 둔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심리를 파고드는데 초점을 두고 극을 엮었다.

영화에는 적들의 《신공세》기도에 대한 비밀탐지, 정형고지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이 그려지있으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계기와 바탕으로 되여

있을뿐이다. 영화는 이 사건들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 사건들을 두고 얽혀지는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움직임, 심리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유림이의 지성세계와 사색과정, 정신생활을 펼쳐나갔다.

영화가 유림과 순희를 비롯한 긍정적 주인공들의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세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펼쳐보여줄수 있은것은 인간성격형상에서 이러한 형상원칙을 확고히 견지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야기를 력사적진실로 믿음이 가도록 꾸려나감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도 충분히 보장한것은 이 영화가 거둔 중요한 예술적성과의 하나이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으로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영화창작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이야기를 믿음성있게 꾸려나가는것이다.

영화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실지 있었던 일이라는 력사적진실로 충분한 믿음이 가게끔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영화는 실재한 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영화필림과 사진자료들을 리용하고 작품에 그려진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을 그것들과 직접적인 련관속에 하나로 이어놓으면서 작품의 이야기가 꾸려지도록 하였다.

영화는 또한 설화를 통하여서도 풍부한 력사적자료들을 주면서 때로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는 방법으로 작품에 그려진 사건과 인간들의 행동이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에 뿌리박고 그 흐름속에서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영화는 작품의 기본줄거리가 력사적진실로 충분히 믿어지게끔 이야기를 엮고 그것이 인간들의 성격과 운명발전의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형상되도록 함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전개와 생활묘사방법에서 종래 정탐물영화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대형식의 다부작으로 창작되고있는 특색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영화예술발전에서 혁신적의의를 가진다.

영화는 작품에 설정된 생활의 폭과 규모에서 보기 드문 대형식의 작품이다.

영화는 서울과 전연을 기본으로 하고 홍콩, 런던, 빠리, 도꾜 등 세계적인 판도를 생활무대로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영화는 유림, 순희, 박무의 관계를 주선에 놓고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고위급의 인간들로부터 각이한 계급과 계층,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수많은 인물들을 설정하고 하나로 얽히게 하면서 생활을 그려나가고있다.

영화는 이러한 방대한 폭과 규모를 가지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력사적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힘있게 확증하고있으며 비제의 죄악상과 취약성을 고발하는 론고장으로 되고있다.

이 영화가 대형식의 다부작으로 될수 있은것은 생활의 폭과 규모가 방대할뿐아니라 실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담고있기때문이다.

영화는 다양한 인간들의 성격과 운명, 발전을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속에서 서로 교차시켜 끌고나가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시대상과 생활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영화는 정탐내용과 관계된 사건선을 깔고있으면서도 인간관계를 단순히 그 사건에만 귀착시키지 않고 그들의 과거와 오늘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사회적인것과 인정선을 하나로 통일시켜 끌고나감으로써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담았다. 그리하여 영화에는 적후의 간고한 투쟁과 함께 망국노의 쓰라림을 겪던 《학도병》생활도 그려져있다.

영화에는 또한 10여년전에 헤여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혁명의 한길우에서 다시 만났으나 적후활동상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말도 제대로 나눌수 없는 유림과 순희의 사랑선도 있고 삶과 죽음의 계선을 함께 넘나들던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게 되는 가슴아픈 슬픔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영화에는 어지러운 자본주의사회의 진흙탕속에서 인간의 깨끗한 량심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싸움의 길에 나선 중산층녀성의 생활도 있고 미제가 저지른 전쟁의 희생물로 되였던 한 량심적인 영국장교가 재생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곡절많은 운명도 있다.

영화에는 이밖에도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회의 뒤생활, 향락과 출세를 위해 서로 물고뜯는 인간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생활도 있다.

이처럼 영화는 투쟁속에서 생활을, 생활속에서 투쟁을 그려나가면서 행복과 기쁨, 시련과 고통, 슬픔과 눈물을 섬세하게 펼쳐보여주었다.

이 영화가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나갈수 있은것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잡고 인상깊게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설날아침 잊을수 없는 진우의 무덤가를 찾아 홍식이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눈길을 헤치는 유림, 마돈나다방에서 숙영이가 부어주는 술잔을 들고 성터에서 홍식이와 만나던 때를 회고하는 유림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적후공작경험이 없는 숙영이가 마팅이 보낸 특무에게 걸려들어 위급하게 되였다는 련락을 받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갔다가 극도로 격분한 숙영이한테 뺨을 얻어맞은 순희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조용히 자리를 뜨는 장면들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영화는 이러한 의의있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로 하여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작품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고있다.

영화는 규모에서 방대한 대형식의 다부작이라는 의미에서뿐아니라 특색있는 영화적형상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더욱 더 커다란 감명을 주고있다.

이 작품의 영화적형상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양상이 뚜렷하고 독특한것이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은 심리적이며 철학적인 영화이다.

영화의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양상적특성은 설화의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잘 씀으로써 더욱 돋구어지고있다.

작품의 설화는 깊은 뜻을 담고있어 관중들로 하여금 영화를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뿐아니라 그들을 깊은 극세계에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영화에서 설화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들의 립장에서 마음속깊이에 자리잡은 속생각까지를 펼쳐보여주기도 하면서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영화의 제7부 《정적속에서의 전투》에서 조국의 따뜻한 부름을 받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설레이는 유림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설화자의 시랑송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로 된다.

영화는 또한 생활속에서 극을 찾고 생활을 극적으로 엮어 극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작품의 양상적특성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영화는 유림과 순희, 순희와 숙영이의 관계에서처럼 서로 다른 사상감정의 마찰, 일상생활과 심장속깊이에 고이 간직된 진실한 마음과의 대비, 겉행동과 마음속행동의 충돌 등으로 극을 심화시켜 작품이 극을 안은 사건, 극을 안은 인간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이 영화예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만들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영화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되며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영화예술이 날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

박 명 빈

지난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다.

인민보건법의 채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일대 경사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온갖 질병의 구속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인민보건법은 그 성격과 규제내용으로 보나 그것이 담보하고있는 보건의료혜택의 높이와 폭으로 보나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보건헌장이며 보건법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법전이다. 인민보건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건사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여있으며 인민보건시책들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 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동의학과 신의학을 배합하여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보건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보건법이 현시기 인민보건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일뿐아니라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을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보건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들이 누구나 다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보건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로 높이 발휘되고있다.

보건제도의 성격과 우월성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의료봉사혜택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보장하여주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상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의료상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가혹한 착

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으며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여 무참한 죽음을 강요당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온갖 압박과 착취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며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워질 때에라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상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장받게 된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할 의술이 치부의 대상으로 되고 생명까지도 돈에 의하여 롱락당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근로인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이 보건사업의 기본사명으로 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전국가적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여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보건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보건제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보건강령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서 인민적인 보건시책들을 실시하시여 우리 나라 인민보건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직후에는 보건의 민주화방침을 내놓으시고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적인 보건제도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시여 민주보건제도를 사회주의보건제도에로 반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에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우시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수립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온갖 착취와 영리행위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다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것을 한결같이 갈망하여왔다. 근로인민대중의 이 세기적숙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보건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사업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인민보건사업의 사명에 맞게 깊은 산간마을과 외진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며 일하는 모든곳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병원과 진료소들이 설치되여있으며 어린이의료봉사망과 녀성의료봉사망, 동의의료봉사망과 구강의료봉사망, 구급의료봉사망과 료양의료봉사망 등 4중5중으로 대상에 따르는 전문의료봉사망들이 늘여져있다. 실로 우리 나라는 조밀한 의료봉사망으로 뒤덮여있으며 어느때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할것없이 필요한 의료봉사를 제공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모든 의료봉사를 철저히 무료로 보장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무료로 료양과 휴양을 보장받고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3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고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부터 무상치료제가 시작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더욱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본질적특징과 거대한 우월성을 실증하여주는 기본징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인민들에게 성별과 년령, 거주와 직업,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차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약값은 물론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비와 해산방조비, 예방의료봉사비와 료양의료봉사비, 불구자들에게 주는 교정기구의 값과 이발올해넣는 보철비도 다 무료이며 지어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까지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무상치료제를 통해서만도 해마다 매 사람이 근로자 한명의 두달분 생활비에 맞먹는 추가적인 국가혜택을 받고있으며 이밖에 병치료로 일에서 떨어지는 기간의 식량과 생활보조금까지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무상치료제가 개인의 경제적지불능력에 따라 의료상 권리가 실현되는 보건제도나 일부 사회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듯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우월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것은 결코 돈이 많거나 기술이 특별히 높아서가 아닌것이다. 사실상 돈만 아는 사회에서는 경제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결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없는것이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의 무상치료제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마련될수 있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만을 믿고 억세게 전진하여옴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또한 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사람의 민족적체질의 특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인민보건사업은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의학과학기술과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켜 자기 나라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나가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진행하며 의학과학기술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구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 동의학과 신의학을 결합시켜 의학과학기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있으며 인민들의 건강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함이 없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는 치료예방사업에서 하나의 기준치나 약용량을 정해도 우리 인민의 체질과 생활풍습에 맞게 규정하고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도 우리 나라의 자립

적인 공업과 제약원천에 철저히 의거하여 인민들의 수요와 질병동태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의료봉사사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건강지표들이 더욱더 개선되고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야말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 발전전망이 휘황찬란한 우월한 보건제도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또한 예방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페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기본을 두는가 아니면 병이 난 다음 치료에 중심을 두는가 하는것은 보건제도의 성격과 우월성을 가늠하는 기본척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의학은 예방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사업이 벌어질수 없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약을 팔아먹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것을 바라며 도리어 병을 장려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는 예방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국가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인민보건사업의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보건분야에 남아있던 치료본위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해방직후부터 시종일관 예방의학적방침을 보건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는 정식화를 내리시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본성에 맞게 예방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자신이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있으며 생활과 로동환경을 위생적으로 꾸리고 위생방역사업을 일상적으로 벌려 모든 병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국가적인 위생방역체계가 철저히 세워지있으며 예방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예방의학적방침의 요구대로 공장을 하나 배치하고 도시와 거리를 하나 형성해도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일차적인 관심이 돌려진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해가 없이 공업화를 실현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으로 되고있는 예방의학적시책은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서도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가장 우월한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동안 어대서 일하고 생활하든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받고있으며 여러가지 예방의학적봉사의 질이 날로 높아져 온갖 질병

을 미리 막아내고있다.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사람들의 건강보호에 일차적인 관심이 돌려지고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그 누구의 건강이나 국가가 빈틈없이 돌보아주고있는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보건제도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보건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다.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다름아닌 보건일군들이며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은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람의 생명은 약과 기술만으로써는 구원할수 없으며 인간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산주의적인간애가 의술의 근본에 놓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형의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의 보건일군들은 있는 지식과 재능, 기술을 다하여 치료예방사업을 헌신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필요하다면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 환자에게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 우리 보건일군들의 끝없는 헌신성과 정성에 의하여 주체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천연두, 콜레라, 재귀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홍역과 같은 전염병들이 없어졌으며 모든 질병의 리병률이 훨씬 낮아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말현재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23.3명, 병원침대수는 120대에 이르렀으며 인구 1천명당 사망률은 해방전의 5분의 1인 4.4로 줄어들었다. 사망률이 줄어든 결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35살이나 늘어나 1976년에 73살에 이르렀다. 이것은 해방전에 이른바 《죽음의 지대》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무병장수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하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실천을 통하여 그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는 인민보건법의 요구대로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동의학을 빨리 발전시키고 보건일군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기관들과 보건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

전 성 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며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고있는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그것을 빨리 완성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2페지)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다.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농촌기술혁명이 완전히 수행되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농민들은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게 되며 농업생산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가 빛나게 수행되고 기계화와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알곡 정보당 수확고도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로동은 공업로동보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농업에서는 공업에서보다 로동생산능률이 낮고 로동시간도 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면 농민들은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농촌경리부문에는 일정한 기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기본장애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농업부문에 힘든 로동이 남아있게 되는것은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업 생산력과 기술의 락후성과 관련되며 따라서 농업로동을 보다 쉽고 능률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을 개조하여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 결정적수단은 기계이다. 손로동을 발전된 기계로동으로 전환시켜야 농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로 하게 함으로써 농업로동을 공업로동과 같이 기계의 시중이나 드는 헐하고 홍겨운 일로 바꿀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농촌에서 로동시간도 훨씬 줄일수 있게 한다.

이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

시켜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자와 농민간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에서 8시간로동제가 실시되면 농민들이 충분히 쉴수 있을뿐아니라 지금보다 학습도 더 많이 하고 문화생활도 더 잘할수 있으며 로동생활을 정규화해나갈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변에 적극 작용하여 그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려면 사상혁명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더 빨리 개변되기때문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로동을 기계화된 쉬운 로동으로 전변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로동계급의 선진수준에로 빨리 올라설수 있게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준다. 이리하여 농업근로자들은 로동계급과 같이 집단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사회주의적협동화가 끝난 조건에서 농업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협동경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19페지)

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은 주로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거나 이미 있던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는것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적생산은 발전된 기계기술에 토대하고있으며 생산도구인 기계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장성한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하고있는 농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농업에서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려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하며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것을 요구한다. 주체농법의 이러한 요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때 원만히 실현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 모내기와 농작물가꾸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등 모든 영농작업들을 기계로 짧은 시일안에 와닥닥 해제낄수 있으며 농작물의 특성에 따르는 기술지표들을 엄격히 지킬수 있다. 이렇게 모든 영농공정들에서 시기성과 과학성을 정확히 보장하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면 농업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을뿐아니라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길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식량과 농

산물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되며 그것을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식량과 농산물원료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농업생산이 늘어날 때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식량문제를 계속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현대적인 설비로 튼튼히 갖추어진 경공업공장들에 농산물원료를 더 많이 보장해줄수 있다. 이리하여 인민들에게 더 맛좋은 식료품과 농산물가공품들을 보다 넉넉히 대주어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전반적인민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실현은 특히 긴장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사일의 어느 한공정만 아니라 모든 공정의 작업을 다 기계로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면 단위면적당 로력투하공수를 결정적으로 줄여 협동농장들에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 이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많은 로력을 절약하여 인민경제 다른 부문을 발전시키는데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 이것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며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빠른 기간에 능히 해낼수 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위력한 주체공업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 특히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5페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에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와 종합탈곡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여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으며 이르는곳마다에 수리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그 어디에 가나 농기계들이 농업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해주고있으며 알곡과 남새,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작물을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모든 작업을 거의다 기계로 하고있다. 실로 우리 농촌에 있는 농기계들의 종류와 수량은 대단하며 그 생산잠재력도 매우 크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만 잘 리용하여도 우리는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훨씬 덜어줄수 있으며 협동농장자체의 힘으로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평가하여주신 황해남도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의 경험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난해에 이 협동농장에서는 지원로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농장자체의 로력으로 농사를 지어 벼를 정보당 9.7톤씩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협동농장의 기계화조건이 다른 협동농장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좋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종합

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이 농장에서는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고 자체로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해제낄수 있었으며 알곡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오늘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러한 모범들이 계속 수많이 창조되고있다.

이미 있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기계운전공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촌기계화초병된 긍지와 책임성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할 때 농촌기계화초병들은 농기계를 알뜰하게 관리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창의창발성을 더욱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다같이 농기계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속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일을 실속있게 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자면 수리정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농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기계운전공들은 매 영농공정에 쓰는 농기계들을 영농시기에 앞세워 제때에 수리정비하여야 하며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사소한 고장도 없이 항상 만가동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농장원들의 손로동을 줄이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

농촌경리에 쓰는 련결농기계들은 어느 한 계절과 한 영농공정에만 쓰는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농기계들을 정상적으로 수리정비하여 잘 리용할뿐아니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을 잘하여 다음해에도 원만히 쓸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토지정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농기계는 대부분이 다 동력기계와 작업기계로 되여있으며 포전을 따라 움직이면서 동력기능과 작업기능을 수행한다.

농기계의 이러한 특성은 기계가 마음대로 기동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 포전을 크게 하고 규격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업대상인 토지가 잘 정리되지 않고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능률높은 농기계라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농장원들의 힘든 로동을 없애는데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하게 된다.

토지정리는 농기계의 작업조건을 지어주는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영농공정과 같이 계절성과 시기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당면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토지정리를 해나가자면 가을과 이른봄철을 리용하여 불이 번쩍나게 해제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구체적인 토지정리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계수단과 로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짧은 기간에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정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포전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기계가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토지와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자체로 필요한 기계수단들을 다 만들어낼수 없다. 공업의 지도와 방조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힘있게 도와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보내주어야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인 기계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다.

농기계생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 종합수확기와 종합탈곡기 등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농기계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닌 임무는 매우 무겁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농기계들을 많이 연구해내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할수 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농기계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약동하는 현실속에 들어가야 하며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농작물의 특성과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고 다루기 편리하고 질좋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해내야 한다. 특히 농산작업의 기계화에서 이빠진 부분과 약한 고리에 대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기계화 종류와 범위를 끊임없이 늘여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기계화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악하게 집행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59페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오늘 우리 당이 농촌경리부문앞에 내세우고있는 절실한 혁명과업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 사업이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는 옳은 인식과 높은 혁명적인정을 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농기계생산을 늘이고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꾸리는 사업, 토지정리사업, 운전수, 운전공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 새로운 농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근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일군들은 협동농장별로 기술장비수준과 토지정리정형, 매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기계들의 리용정형을 손금보듯이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종합적기계화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우리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것이다.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조 신 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들을 수많이 쌓아올렸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빈터우에서 자체의 튼튼한 지방공업을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인것이다.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오늘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1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위력한 자체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꾸리고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체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꾸려야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전반적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더우기 오랜 기간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에서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 기술의 세기적락후성으로 하여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자기 나라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는 튼튼한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꾸리지 않고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했다고 말할수 없으며 자기자신의 결심대로 인민생활도 빨리 향상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인 경공업기지축성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은 합법칙적인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42페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건설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이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킨다는것은 전국적인 의의를 가지는 큰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국가투자를 집중하면서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그마한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세우고 지방의 원료와 로력으로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이 방침은 경공업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면서 전반적사회

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대규모의 중앙경공업을 발전시키자면 투자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만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산업공장들은 지방의 유휴로력, 유휴자재, 유휴설비로 짧은 기간에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과거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건설하고 운영하면 대규모의 중앙공업 특히 중공업건설에 국가투자를 집중하여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업과 농업사이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폐단을 막을수 있으며 녀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꾸리시기 위하여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지방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특히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매개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업종과 규모로부터 공장의 시설과 로력, 원료 문제의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지방공업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외진 산간지대의 군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시여 지방공업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 경험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공업의 토대가 일정하게 마련된 다음에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를 소집하시고 지방공업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업이 새롭게 창설되고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천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 모든 도와 매개 시, 군에 골고루 배치되여있다.

처음에는 살림집 웃방이나 헛간에 몇명의 가정부인들이 모여서 물레와 베틀, 가마와 손절구 같은 수공업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생산을 시작한 지방공업이 오늘은 생산공정이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되고 수많은 고급기능공과 기술자들을 가진 현대적인 공장들로 꾸려지게 되었다. 우리의 지방산업공장들은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량과 가지수도 비할바없이 늘어나고 생산물의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말 그대로 령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지방공업은 오늘 자립적경공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방공업의 창설은 도시와 로동자지구들에서 세대당 로력자수를 늘이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부산물을 제때에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주민들의 화페수입을 훨씬 높이였다. 이와 함께 소비품생산이 늘어나 누구나 다 그것을 다음대로 살수 있게 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쑥 올라가게 되였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재정수입을 늘이고 지방예산제를 강화하는데서

도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모든 군들이 지난 시기에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썼지만 지방공업이 발전한 오늘에 와서는 자기가 번 돈으로 지방자체의 재정적지출을 충당하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돈을 국가에 들여놓고있다. 지방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도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조국땅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당은 지방공업건설의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을 벌리면 아무런 토대가 없는데서도 위력한 지방공업을 창설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토대도 없는데서 군중적운동을 벌려 오늘과 같은 위력한 지방공업을 창설한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94페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공업을 건설하는데서도 성과의 중요한 비결은 그것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건설한다는것은 국가에 의존함이 없이 지방자체의 힘, 인민대중의 힘을 널리 발동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지방공업건설분야에 구현한 독창적인 방법이며 자기의 사명에 맞게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전국가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경공업과는 달리 지방공업은 어디까지나 지방원료를 가공하여 자기 지방주민들의 소비품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방산업공장건설은 마땅히 그 지방의 군중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매개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지방공업을 꾸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상교양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을 창설하는데서 나타나고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우만 쳐다보는 그릇된 경향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실물교양을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가 있은지 불과 몇달사이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새로 일떠서게 되였다.

지방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은 전국가적인 관심과 진사회적인 지원밑에서만 힘있게 벌어질수 있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

원래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앞선 부문이 뒤떨어진 부문을 도와주는것은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고

유한 특징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더우기 지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는것만큼 모든 부문에서, 전사회적으로 그것을 도와주는것이 마땅한 의무로 된다.

우리 당은 처음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로 지을 때에도 전체 인민들을 동원하였고 매 군마다 지방산업공장들을 위한 원료기지를 조성할 때에도 전체 인민의 힘에 의거하였다. 특히 이미 마련된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단계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달라붙어서 지방공업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지금 도마다 가지고있는 지방공업을 위한 기계생산기지와 금속소재생산기지, 화학원료생산기지와 건재생산기지들도 다 이렇게 하여 꾸려진것들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중앙기관 기술자들과 과학연구부문의 연구사들, 대학교원들, 큰 공장, 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일정한 기간 지방산업공장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나가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기술적문제들도 풀어주며 기술공정을 완비하고 원료조건을 개선하는것과 같은 기술적방조를 주었다.

이처럼 거국가적인 관심과 전사회적인 지원밑에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린 길과 우리는 온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오늘과 같은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지방공업을 건설할수 있었다.

현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로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위력한 지방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내밀면서 인민생활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방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하여 먼저 생산을 시작하고 생산을 하면서 점차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 현대적인 공장으로 반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것이였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단 생산을 시작하여 한해, 두해 지나는 과정에 점차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하여지고 생산도 늘어났으며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다 현대적인 공장으로 발전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3페지)

전후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지방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현대적인 공장들로 꾸릴수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하여 지방공업건설을 뒤로 미룰수는 더욱 없었다. 여기르부터 우리 당은 지방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처음에는 수공업적기술과 재래식방법도 다 리용하도록 하였다.

지방공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려면 공장건물과 설비, 로력, 원료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 모든것을 처음에는 지방자체의 예비를 동원하여 풀도록 하였다. 공장건물은 될수록 이미 있는 건물을 조절하여 쓰면서 꼭 새로 지어야 할 경우에는 나무와 돌, 석비레를 비롯하여 자기 지방에 흔한 건재를 가지고 짓도록 하였으며 설비도 비록 수공업적인것이라 할지라도 가지고있는것을 다 찾아내여쓰면서 간단히 만들수 있는것은 자체로 만들어쓰도록 하였다. 로력문제도 집에서 놀고있는 가정부인들을 널리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공업을 창설하는 초기에 어떤데서는 가정부인들이 모여서 살림집웃방에다 베틀 몇대를 차려놓고 천을

짜기도 하였고 어떤데서는 녀성들이 독을 서너개 놓고 문창호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원료도 처음에는 그 지방에 흔한 자연원료를 그대로 모아서 썼다.

이 모든것은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지방공업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였으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으며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지방공업을 창설하는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리용하지 않을수 없었던 수공업적기술과 재래식방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는 문제도, 그 질을 높이는 문제도 원만히 풀수 없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이미 마련된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나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손로동은 반기계화하고 반기계화된것은 기계화하며 기계화된것은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식으로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어디까지나 매개 지방공장들이 주인이 되여 대중적인 운동으로 밀고나가도록 하면서 중앙공업기업소들이 가까이에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몇개씩 맡아서 도와주도록 하였다.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우리 당은 로동자들속에서 자기가 맡은 기대와 생산공정에 정통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렸다. 여기에서 기술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로동자들을 한공장, 한직종에 오래 고착시키는것은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였다.

우리 당은 지방공업의 원료기지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갔다. 처음에는 자연원료를 그대로 채집하여 썼으나 점차 자연 및 농산 원료기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방공업의 업종구성이 다양해지고 현대화되는데 맞게 도별로 강철공장, 기초화학공장을 비롯한 가공원료와 소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현대적기술과 오랜 기능로력,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경험은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하여 먼저 공장을 꾸리고 생산을 하면서 점차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이 과거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으며 수공업적기술과 재래식방법으로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조만간에는 그것이 현대적기술로 교체되여야 하는 사회주의적지방공업의 본성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은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지역적단위를 옳게 설정하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도 중요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지방공업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설되고 운영되는것만큼 그 지역적단위를 어느 범위로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과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군을 지방공업발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은

농촌에 보급하고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 거점이다. 군은 또한 원료와 로력의 원천으로 보나 소비품수요의 규모로 보아 지방공업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이다.

군을 기본단위로 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원료원천과 로력조건, 수요의 규모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군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면서 공장의 규모를 알맞춤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원료원천이 제한되여있거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제품, 생산기술공정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 소재로 쓰일 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도 또는 몇개의 군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생산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매개 시, 군들에서 구색에 맞게 지방산업공장들을 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데서 효과가 대단히 컸다.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공업이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원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접근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지방공업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서는 지역적단위를 옳게 선정하는것과 함께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공업이 한꺼번에 많이 건설되고 지방의 일군들이 공장을 관리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지방공업을 창설하는 초기부터 그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에서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의 경험은 지방공업을 지도하는 지방의 기구는 지방정권기관안에 두며 중앙의 기구는 단일화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지방공업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하고 이 부문에서 계획화사업, 물자보장사업, 생산조직 같은것을 바로하도록 옳게 지도, 통제할수 있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의 관리운영사업은 관리일군들을 키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성과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중앙의 관리기구를 개편하여 우수한 관리기술간부들을 지방에 보내주기도 하면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 및 야간 교육체계와 단기간부양성기관들을 통하여 지방산업공장의 간부들을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키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공장들에는 관리일군들은 많이 두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나가도록 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새로 일떠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 이르기까지 지방공업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렇듯 풍부하고 독창적인 경험이 있음으로 하여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는 더욱 빛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는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의 견인력은 날로 커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이룩한 경험을 살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남조선 경제위기의 특징

박 동 근

오늘 남조선경제는 전례없는 심각한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다.

밖으로부터 들이닥친 제2차석유파동과 안에서 터진 《고도성장정책》이 빚어낸 막대한 후과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파탄과 혼란 속에 휘말려들어가 경제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파국적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남조선경제를 수습해보려고 이미 세운 1980년도 《경제운영계획》을 거듭 《조정》하고 환률, 금리, 물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안고있는 현 남조선경제위기를 결코 해소시킬수 없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경제의 대외의존은 현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다.

*　　　　*

현 남조선경제위기의 특징은 우선 그 심도에 있어서 전례없는 깊이에 이르고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경제는 그 본성과 운동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서로 다른 4개의 국면을 가진 경기순환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황이라는 사회적재생산과정의 특수한 국면을 피할수 없이 거치게 된다. 자본주의경기순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결점으로 되고있는 공황은 사회적재생산과정의 끊임없는 파탄과 중단, 경제생활전반에서의 심한 동요와 혼란으로 특징지어지며 따라서 그것은 식민지예속국들의 파국적경제위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4페지)

남조선경제는 외래독점체에 명줄을 건 예속경제로서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경제는 크게 4차례의 경기침체국면을 겪었다. 첫번째는 1959～1960년, 두번째는 1963～1964년에 있었으며 세번째는 1971～1972년 그리고 네번째는 1974～1975년에 있었다. 지난해초에 시작된 현 남조선경제위기는 전후 다섯번째의것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주기적으로 들이닥치는 경제위기는 어느것이나 다 심각하지 않은것이 없었지만 특히 현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한것이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경기상태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한다는 이른바 《경기예고지표》와 《경제성장속도》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통화와 생산, 투자와 소비 그리고 무역 등 5개 경제부문의 18개 지표상태를 반영하고있다고 하는 《경기예고지수》는 1978년 12월에 1.9이던것이 1979년에는 0.6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현 파국적경제위기의 심도가 전례없이 깊다는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경기예고지수》가 1.0이하로 떨어질 때 그것은 경제의 공황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번처럼 《경기예고지수》가 0.6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남조선경제가 이미 공황상태에 깊이 빠져들어갔을뿐아니라 가장 첨예한 파국적위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경기예고지표》가 급격히 떨어지고있는것은 생산동태를 지수적으

로 반영한다고 하는 《경제성장률》이 전례없이 떨어지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흔히 쓰고있는 《경제성장률》이란 《국민총생산액》의 증가률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업과 농업 등 물질생산의 전반적동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지난해 4.4분기에만도 《경제성장률》이 그전해 같은 분기에 비하여 10%나 더 떨어졌다. 특히 공업부문에서 더욱 엄청나게 떨어졌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로동력의 자연증가와 기업의 파산몰락으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해마다 수십만명씩이나 늘어나는 조건에서 경제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만도 일정한 크기의 《경제성장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경제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경제성장률》은 고사하고 지난해에 그것은 두자리수자에 이르기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과국적위기에 직면한 남조선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경제위기의 이러한 심각성은 자본주의나라들과 다른 식민지예속국들의 경제형편과 비해볼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만성화된 전면적경제위기속에서 허덕이고있다. 특히 제2차석유위기의 폭발과 함께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심각한 불경기와 경기침체, 경기후퇴를 면치 못하고있다.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적지 않는 나라들의 경제형편도 제국주의적다국적기업들의 악랄한 착취와 수탈로 말미암아 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지있다.

오늘 남조선의 경제형편은 어느 자본주의나라 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겪고있는 경제위기보다 그 심도가 더 깊은것이다. 자본주의세계의 그 어디에도 남조선에서와 같이 《경기예고지표》와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있는데는 없다.

이와 같이 지금 남조선경제는 전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속에 빠져 전면적파산에 직면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경제위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현 남조선경제위기의 특징은 또한 경제의 혼란과 파탄이 경제생활의 전반에 걸쳐 매우 날카롭게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밑에 있는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상태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00페지)

경제파국과 공황국면은 그 깊이와 함께 포괄범위, 매개 부문에서의 경기순환의 중단과 혼란정도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지금 계속되고있는 남조선경제위기는 생산과 투자, 상품수출과 대외수지, 물가와 근로자들의 생활처지 등 사회적재생산의 모든 환절, 경제생활의 모든 면에서 파탄과 혼란을 빚어내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면서 전체로서의 위기국면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

남조선경제의 전면적인 파국적위기는 무엇보다먼저 생산과 류통의 전과정이 극도로 혼란상태에 빠져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공업생산지수는 떨어지고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줄어들고있다. 전반적인 경제형편을 특징짓는 가장 기초적이며 대표적인 요소로서의 공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심한 불안정상태에 놓이게 되고 2.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드디여 그것이 장기화되여 매달 그 지수가 떨어졌다. 그리하여 지난 한해사이에 남조선공업생산지수는 12%이상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산업의 고도화》요, 《방위산업의 육성》이요 하면서 투자를 집중시켜온 기간공업부문과 수출산업부문들에서 더욱 심하

계 나타나고있다. 이 부문들에서의 공업생산지수가 얼마나 크게 떨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은 극도로 낮은 설비가동률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기계공업, 목재가공공업, 신발공업, 방직공업 등 주요설비들의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30～50%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공업생산과 상품수출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괴뢰정부의 투융자규모와 민간투자가 줄어들며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보다 급속히 떨어진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남조선에서는 생산이 줄어들뿐아니라 물가가 전례없이 뛰여오르고있다.

지난해 남조선당국자들은 인플레억제를 《당면최대과업》이라고 떠들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러나 상품가격은 전반적으로 더욱 크게 올랐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는 도매물가가 23.8%, 소비자물가가 21.2%나 올랐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자신이 세웠던 《물가억제선》인 10～12%보다 2배가 넘는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물가등귀률인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자신이 줄여서 내놓은 수자가 이러하니 실제적으로는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것이라는것은 더욱 명백하다.

물가가 뛰여오르는 가운데 가격체계전반이 크게 뒤흔들리고있다.

판매난이 조성되고 류통분야가 한층 복잡하게 뒤엉킴에 따라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사이의 배리는 보통 1.5～2배로 벌어졌고 수출입상품가격과 국내상품가격, 농산물가격과 공업상품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같은 상품에 대해서도 계절별, 지역별 차이가 매우 심하다.

환률과 금리가 대폭인상되고 원유값이 종전보다 50%이상 올라간 조건에서 올해 남조선에서의 물가는 지난해보다 더 높이 뛰여오를것이 예견되고있다.

물가의 급속한 폭등과 가격체계전반의 이러한 혼란은 주민들의 구매능력과 자본의 순환을 다같이 파괴하고 기업들사이,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를 마비시키며 생산과 소비, 분배와 교환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사이의 정상적인 순환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전면적인 파국과 혼란은 또한 상품수출이 줄어들고 국제수지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경제의 대외적인 파산위기, 이것은 파국적위기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비할바없이 높으며 미일독점자본을 위한 상품수출에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경제에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것으로 된다.

남조선에서는 상품수출이 계통적으로 줄어들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의 상품수출은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물량적으로 1.4분기에는 2.8%, 2.4분기에는 3.8% 그리고 3.4분기에는 다시 5%나 줄어들었다. 금액상으로도 그 전해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남조선괴뢰들의 《상품수출액계획》은 20억딸라나 미달되였다. 이것은 파국에 직면한 남조선경제를 더욱 막다른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상품수출이 줄어들고 《상품수출액계획》이 미달됨으로써 수출산업부문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은 파괴되고 생산이 줄어드는 후과를 빚어내고있으며 설비와 로동력의 과잉상태를 조성하고 상품단위당 생산비와 그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무역적자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자신이 지난해 43억딸라에 이른 무역적자가 올해에는 55억딸라에 이를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60억～70억딸라에 달할것이라고 보고있다. 무역적자의 이러한 증대는 지금 200억딸라이상의 빚을 걸머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경상수지전반을 급속히 악화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남조선괴뢰들은 40억딸라라는 엄청난 경상수지적자를 내였으며 그것이 올해에는 47억딸라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의 증대는 놈들의 《순외화자산보유고》를 심히 고갈시키고 그들의 국제신용도를 보잘것 없는것으로 만들고있다.

남조선경제의 대외적파국은 자본거래면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유일한 활력소로 작용하고있는 외자도입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 도입조건이 훨씬 악화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남조선에 들어온 외자총액은 예견한 외자총액의 41.6%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차관원리금부담액은 늘어나고있다. 1979년에 차관원리금부담액이 27억딸라이던것이 올해에 들어와서는 32억딸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이미 남조선에 투자하고있던 외국자본의 철수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 남조선은 무역 및 자본 거래면에서 매우 엄중한 파산단계에 들어섰다.

남조선경제위기의 파국적특징은 또한 그것이 지구성을 띠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경제위기가 미치는 파괴적작용의 크기는 그 심각성과 포괄성에 의해서뿐아니라 지구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비록 심도와 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파국적위기가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큰것이다.

오늘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파국적위기는 전례없는 심도와 폭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전후 남조선에서 겪은 경기침체들보다 훨씬 오래 계속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있었던 4차례의 경기침체국면은 대체로 10～15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계속되고있는 경제위기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자신도 지금의 경기침체가 1981년까지 계속될수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가소롭게도 오늘의 경제파국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기회복을 이룩하며 이른바 《1980년대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기를 쓰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현파국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경제위기의 파국적지속성은 더욱 심화될것이며 사회경제적진통은 더욱 커질것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에 휘말려들어가 전례없는 동요와 혼란이 일어나고 대내외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괴뢰들이 추구해온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필연적산물이며 그의 총파산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이다.

지난 기간 남조선괴뢰들은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외세의존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 무엇을 이룩해보려고 책동하여왔다.

남조선경제구조를 외세의존적인 《수출주도형경제구조》로 개편한것은 그 실례로 된다.

외세의존적인 《수출주도형경제구조》는 전독재자 박정희역도가 《유신》체제의 뒤받침밑에 강행적으로 추진시켜온 《고도성장》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수출의존도는 1960년에 3.4%이던것이 1977년에는 35.8%에 이르렀으며 《경제성장률》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높아졌다. 이리하여 상품수출은 투자, 금융, 재정등에서 《경제시책》의 첫째대상으로 되였으며 모든 물적, 인적, 화폐적 자원의 동원과 분배는 상품수출에 복종되여 추진되였다.

그러나 《수출주도형경제구조》의 형성과정은 식민지경제체계가 가지고있는

경제적모순을 심화확대시키는 과정이였다.

《수출주도형경제》는 무엇보다도 수출산업의 생산능력과 수출가능성사이의 배리를 우심하게 만들었다.

놈들은 이른바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일독점자본을 무제한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계속해왔다. 특히 최근시기에 와서 《방위산업육성》과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란 명목밑에 공업투자액의 80%이상을 중화학공업에 편중하여왔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력사가 없을뿐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일떠세우는데 필요한 기술경제적조건도 못가지고있는 남조선에서 이 부문을 도저히 추켜세울수는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중화학공업의 극히 낮은 설비가동률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설비가동률이 선철생산에서는 75%, 비철금속생산에서는 76.4%, 산업기계와 선박 생산에서는 각각 60.4%, 21.5%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기계공업의 《얼굴》이라고 하는 창원공업단지의 가동률도 30%미만이였다.

이와 같은 심각한 모순이 지금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실시하고있는 식민지경제정책은 또한 통화공급규모와 《내수산업》생산능력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빚어냈다.

놈들은 《고도성장》을 꾀하면서 외자를 마구 끌어들이는 한편 이른바 《내자조달》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로부터 남조선괴뢰들은 주민들로부터 조세수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화페를 마구 찍어내고 통화를 무제한 팽창시켜왔다. 그리하여 1960～1979년사이에 화페발행고는 80배, 통화량은 100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화페발행고와 통화량이 놈들이 과장하여 발표한 《국민총생산》의 증가보다 각각 20배, 25배나 더 크게 늘어난것으로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내수산업》은 놈들이 일관하게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과 로동자들의 임금은 낮게 정하고 모든 힘을 수출산업에 쏟아붓고있던 관계로 늘어날수 없었다.

《내수산업》에서 생산능력과 수요사이의 모순은 그 생산능력이 줄어든 반면에 필수품에 대한 명목적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수출주도형경제구조》라는 남조선경제의 대외의존성, 취약성과 뒤엉켜 현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바로 이러한 첨예한 모순과 요인에 제2차석유위기까지 겹쳐 오늘의 남조선경제의 위기를 빚어내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전면적인 파국과 혼란은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으며 그들을 류례없는 민생고에 몰아넣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실업자들이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다. 파국적경제위기에 견디여내지 못하고 파산, 몰락하는 기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라 거기서 일하던 많은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떼우고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특히 마산과 창원, 부산과 울산, 서울과 인천, 구미와 리리 등 도시들과 수출기업체들이 집중되여있는 《공업단지》들에서의 《해고선풍》은 더욱 크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줄여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한해동안에 실업자수는 그 전해에 비하여 35%이상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그것이 다시 2배로 늘어날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떼운 수많은 근로대중은 일자리와 집이 없고 먹을것이 없어 혹심한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류랑걸식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도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지난해에 하늘을 모르고 뛰여오르는 물가고로 하여 도시로동자들의 생계비는 평균 30%나 올랐으나 그들의 명목임금지수는 20%정도에 머물렀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놈들이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경제적파국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하여 로동자들의 명목임금을 동결시키고있는 반면에 물가는 30%이상 올리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어려워질것이다. 사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생활처지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폭동은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농민들의 실질소득도 역시 줄어들고있다. 농산물가격이 생산비의 60%수준에 계속 얽매여있는 반면에 영농비를 비롯한 농가지출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지난해에만도 20%나 떨어졌다.

도시중산층과 중소기업가들의 경제적처지도 악화의 길을 걷고있다.

지난해에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동률은 77.1%에 지나지 않았으며 조업단축, 휴업, 페업한 기업체수는 각각 2,848개, 463개, 106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파국적위기에 직면한 남조선경제가 사회경제생활전반에 미치는 파괴적영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남조선경제가 오늘의 파국적위기에서 벗어나자면 현 남조선경제위기를 낳고있는 근원을 청산하고 경제구조를 자립의 원칙에서 개편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운영에서 외세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경제를 파국에서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공화국북반부는 남조선경제를 힘껏 도와줄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힘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세워져있다. 오직 북과 남의 다방면적인 경제합작과 교류를 통해서만 파국적위기에 직면한 남조선경제를 구원하고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의존적인 경제정책으로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는 경제를 외세에 빌붙어 수습하려 할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열망과 기대속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성사시키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대화가 성공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 교류와 합작을 실현할수 있는 올바른 방도들이 설수 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통일대화가 성사되기를 한결같이 기대하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여야 할 지금에 와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는데로 나간다면 력사에 치욕만을 남길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더욱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0년 제5호(루계 457호)

편 집 위 원 회

편 집•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5월 1일 발 행• 1980년 5월 5일

ㄱ—0511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근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458)

차 례

—력사적인 카륜회의 50돐에 즈음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준 력사적인 카륜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진행된 력사적인 카륜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새롭게 밝히신 강령적문헌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은 조국강산에 검은 구름이 질게 드리우고 온 겨레가 일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민족수난의 시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밝혀준 조선혁명의 대강이였다.

카륜회의는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회의였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온 반세기의 보람찬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민의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카륜회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카륜회의는 조선혁명이 우여곡절과 진통만을 겪던 지난 시기의 쓰라린 력사와 영영 결별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방침에 따라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데서 하나의 리정표였다.

돌이켜보면 카륜회의가 소집되던 당시의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을 따라 앙양되고있는데 질겁하여 그것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더우기 세계를 휩쓴 파국적인 경제공황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길로 더욱더 줄달음치게 하였다.

세계재패를 꿈꾸던 일본제국주의는 경제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대륙침략에서 찾으려고 발광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정치적억압과 경제적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인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에 떨쳐나섰다. 인민들의 대중투쟁은 점차 폭력적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과학적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일제의 날로 혹심해지는 탄압에 못이겨 주저앉고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혁명을 《령도》한

다고 자처하던 종파분자들은 그 대부분이 혁명운동을 포기하고 일신의 안일만 추구하는 시정배로 전락되였며. 그런가하면 어떤 종파분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야욕과 탐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아 헛된 피를 흘리게 하였다. 폭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드러나 파괴되고 혁명력량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

피로 물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는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과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선혁명의 대강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대헌장이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으로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6페지)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다.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만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빚어진 엄중한 후과를 가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옳게 개척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밝히시여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모든 활동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의 특성과 계급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당면과업과 종국적목적을 집대성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여야 혁명력량편성을 바로하고 주타격방향을 정확히 설정할수 있으며 투쟁

목표를 옳게 규정하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정상적인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된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이것은 사회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대상, 동력을 명철하게 해명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계급적관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조선혁명을 《부르죠아혁명》이니, 《사회주의혁명》이니 하고 떠드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성격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할 혁명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새형의 인민정권으로 되여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고 이 정권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에 관한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폭력적진출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시킨데 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중요한 전략적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반제투쟁에서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쟁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고 발톱까지 무장한 적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폭력적형태를 띠고 전개되는 대중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점차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절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에 매여달린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의 결정적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기전에는 자기의 지배권을 내놓지 않는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결정적투쟁에 일떠설 때만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투쟁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의 기치밑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종전의 심중한 약점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줄기차게 조직전개되게 되였다.

실로 카륜회의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폭력적진출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전환시키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사변이였다.

카륜회의는 또한 반일의 기치밑에 광

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원래 혁명은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타승하자면 반일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략전술적원칙들을 독창적으로 내놓으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주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킴으로써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위대한 전략적방침이다.

카륜회의는 이와 함께 주체적립장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밝히였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안에 기여들었던 형형색색의 종파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은 제각기 《당재건》간판을 내걸고 자파세력확장과 령도권쟁탈에 몰두하였다. 이자들은 자주적인 립장이 전혀 없이 남의 풍에 놀면서 어리석게 당을 재건해보겠다고 돌아쳤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서 아무런 지반도, 준비도 없이 《당중앙》이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저마다 국제당의 비준을 받으려고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혼란된 상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전진한 토대우에서 실속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조선공산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간고한 조건에서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에 따라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이 튼튼히 준비되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이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으며 대중적지반이 반석같이 꾸려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참다운 투쟁강령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주체의 혁명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카륜회의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혁명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는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투쟁에 인입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의 주력군으로,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새력사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7페지)

탁월한 수령은 당과 계급과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중심이며 그 총체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최고뇌수이다. 수령의 통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에서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수령의 령도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그때마다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온 강토가 피바다에 잠기고 인민들이 재생의 길을 찾아 모대기던 그때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는 《운동자》들과 《지도자》들은 빈말공부만 하면서 대중을 우롱하고 혁명투쟁에 혼란만을 조성하였다.

혁명을 《지도》한다고 떠돌아다니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형형색색의 행세군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행동에 인민들은 환멸을 느끼였으며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것이 없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수난이 겹쌓인 그 암담한 나날에 《지도자》로, 《운동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아온 우리 인민의 갈망은 민족을 생사기로에서 건져주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진정한 인민의 수령,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갈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하는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지난 시기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고 주체의 기치밑에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워 위대한 투쟁에로 거세차게 불러일으킨 힘의 근본원천이였으며 혁명의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끈 결정적담보였다.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하여온 자랑찬 투쟁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조직을 내오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육성하시여 조선혁명의 핵심대오를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이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승리의 길은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방침이 제시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조직들이 결성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만 빛나게 개척되여나간다.

탁월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조직을 무으며 그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카륜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적방침이 전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의 제시, 이것은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올바른 지도사상이 제시되고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확립됨으로써만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승리의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적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된 조선혁명군과 그의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진출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정치 및 군사 활동을 힘있게 벌려 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통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굳게 다져졌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진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밝히심으로써 오랜 기간 파란곡절과 쓰라린 진통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은 가장 옳은 혁명로선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나가게 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려는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였으며 드놀지 않는 혁명적의지였다.

그러기에 항일의 성전에 떨쳐나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조선혁명이 준엄한 난관과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승리의 한길을 개척하여온 근본요인이였으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언제나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킨 힘의 원천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이 땅우에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념원하였고 또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으며 우리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로 이름떨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면서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으며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대강은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 이 땅우에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불멸의 기치였다. 카룬회의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앞길을 변함없이 밝게 비쳐주고있으며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력사적인 카룬회의 50돐을 뜻깊게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완수해나가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느끼고있으며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높은 열정과 기백, 혁명적투지를 가지고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인민의 락원을 세울데 대한 카룬회의의 위대한 사상이 더욱 빛나게 실현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크나큰 영예와 자랑을 안고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시되고 그 정당성이 확증된 위대한 지도사상

림 춘 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치며 힘차게 전진해왔다.

카륜회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력사적인 회의로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조선혁명은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계기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반세기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갈때 백전백승한다는것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지금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지도사상은 주체사상밖에 더는 없다는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부동한 결의에 넘쳐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시대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가져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국제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는 로동계급이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투쟁할 때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과 리론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지침으로 되려면 그것이 시대와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상과 리론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와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무기를 안겨주

시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세계의 정치경제적위기는 날로 더욱 심화되여갔으며 그에 따라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화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사이의 민족적모순과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지배계급과 피착취근로인민대중 사이의 계급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압흑의 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였다. 예속과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지구의 모든 대륙을 휩쓸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혁명적전환의 길에 들어선 새 시대는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혁명사상,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 문제는 이 시기 우리 나라 혁명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당시 조선은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된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중요한 무대였다. 조선혁명은 첫걸음부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걷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는 어떤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겠는가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 문제는 특히 1920년대중엽에 이르러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태로 하여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지도사상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와 조선혁명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사상은 력사적 시대가 달라지고 혁명실천이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고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향도하는 주체사상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창시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험난한 혁명의 진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58～5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도 복잡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하시는 사상리론적탐구와 혁명활동과정에 가장 심각한 두가지 문제에 부닥치시게 되였으며 이 문제해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

고 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와 말싸움질만 하며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쓰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대중과 떨어져 저들끼리 권력다툼과 《리론》싸움에만 몰두하였는데 그 《리론》이란 실지 혁명투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궤변들이였다.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로 자칭하는 자들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할 대신 《교육와 진흥》, 《자아수양》을 설교하였으며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사회계급적관계를 보지 않고 개별적명제들에만 매달려 프로레타리아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부르죠아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공리공담만을 늘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 조선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이 본질적결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시였으며 그를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근본문제를 해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투쟁경험에 대한 창조적탐구와 혁명활동의 실천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이 근본문제에 천재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심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혁명은 그 나라 내부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고 발전하므로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따라서 그 나라 인민대중을 내놓고는 누구도 그 나라 혁명을 대신해줄수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질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혁명투쟁은 또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여야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사상은 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밝혀준 위대한 지도원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각히 비판하시고 총화하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심한 파벌싸움과 사대주의적경향이였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여러 파로 갈라져서 가는곳마다에서 파벌싸움에 미쳐 날뛰였으며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마구 배척하면서 테로행위까지 서슴지않았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조선독립을 실현해보려는 외세의존의 립장을 버리지 못하였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은 하

지 않고 저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라고 하면서 제가끔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니는데만 급급하였다. 이자들에게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주인답게 하려는 립장과 태도는 조금도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초시기에 부닥치신 조선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파벌싸움과 사대주의적경향을 신랄히 분석총화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또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운동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것이라는것 그리고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또 자기가 투쟁을 잘하게 되면 남들이 자연히 인정하게 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은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여곡절없이 혁명투쟁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에 대한 사대주의적립장과 교조주의적태도를 극복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때만이 혁명리론과 혁명투쟁경험을 더욱 발전풍부화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은 물론 세계혁명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부닥치신 심각한 두가지 문제를 시대와 혁명 발전의 근본요구와 결부시켜 깊이 고찰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끌어내시였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과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아늑한 서재나 연구실에서가 아니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을 반대하는 치렬한 사상리론투쟁속에서 창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시였다.

선행력사와 혁명투쟁의 실천적총화에 기초하여 그리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실천속에서 혁명투쟁을 위한 사상적무기로 창시된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영생불멸하는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발전과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인

민의 혁명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매 시기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할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로 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의 탄생을 알린 장엄한 선언이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하는 새로운 철학, 인류사상사를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운 필승불패의 위대한 지도사상이 출현하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그 혁명적기치밑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투쟁을 벌리게 됨으로써 인류해방투쟁력사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고 추동력이 되여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혁명의 새시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투쟁에 일떠서서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청산하는 가장 심각한 변혁을 수행하는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그리고 인류사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2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그 진리성과 위대성이 힘있게 검증된 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을 창시하게 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을 벌려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실천적으로 검증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혁명투쟁실천에 구현되고 그 위대한 승리가 이룩된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항일혁명투쟁의 주류였던 무장투쟁은 본질상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였으며 광범한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던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온 민족의 력량을 총동원한 항일혁명투쟁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있던 지난날의 민족주의운동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결함을 완전히 극복하였을뿐아니라 반일투쟁을 좁은 민족적 및 계급적 울타리안에 얽어놓으려던 좌경기회주의와 온갖 배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때로부터 억압받고 천대받던 조선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확고한 령도계급으로 나서게 되였으며 농민은 그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의 혁명투쟁에는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량심있는 민족자본가와 종교인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반제력량이 참가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일떠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열어놓은 투쟁의 넓은 길을 따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앞을 다투어 무장대오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계급과 계층이 떨쳐나섬으로써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확대강화되였다. 반일회, 반제동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단체들이 이르는곳마다에 결성되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은 일제의 파쑈폭압밑에서도 합법적 및 비합법적 대중단체에 망라되여 로동운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기치,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력량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또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따라서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9페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수백만의 정규침략무력을 가지고 아세아제패를 꿈꾸는 군사봉건적제국주의였으며 국제파시즘의 포악한 아세아돌격대였다. 일제와 결탁한 국제파시즘은 전세계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발악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고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식민지예속국에 독립을 《선사》해줄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었으며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 인민을 《구원》해주겠다는 그 어떤 외부적힘도 없었다.

온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가뜩차고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남을 쳐다보지 않고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벌려나갔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민족군대의 기초도, 어느 누구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매우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숭고한 정신으로 혈로를 개척하였으며 주체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지로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숭고한 책임을 안고 준엄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갔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국은 반드시 광복되고야만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거세찬 불씨로, 민족재생의 홰불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의 본질적특징은 바로 그것이 주체적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진행되였다는데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는 비록 맨주먹밖에 없는 인민이라 하더라도 영명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힘을 믿고 용감히 일떠나서 싸운다면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치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전쟁은 식민지인민들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결국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확증한 최초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였다.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있던 우리 인민은 종주국프로레타리아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섰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잡고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세계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돌파구를 뚫어놓았다.

이리하여 항일혁명투쟁은 자주의 기치밑에 승리하고 전진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으며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자신이라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또한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확증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 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9폐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 인민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을 철저히 지키고 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세계혁명에도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것, 이것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신조였다.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투쟁의 필연적요구였다.

피어린 싸움으로 원쑤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은 그 어떤 기존 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관계와 계급관계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시고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규정하는것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쟁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오직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맞게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 투쟁방침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산발적인 폭력적진출을 제때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키시였기에 그리고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활동하던 무장대오를 보다 광활한 지역과 국내에로 진출시키시였고 1940년대에 들어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조국광복의 대사변에로 주동적으로 준비시키시였기에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은 오직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힘있게 실증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20여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따라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 *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위대한 기치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치며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 따라 투쟁함으로써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짧은 기간내에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었다. 뒤떨어졌던 식민지반봉건국가로부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전변,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승리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을 가진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과 전진, 창조와 변혁의 서사시이다.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부강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사회주의조선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 있으며 우리 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오늘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찬란한 현실로 구현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백전백승한다는것은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총화이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고 주체사상이 앞길을 환히 밝혀줌으로 하여 그 어떤 생소한 혁명의 길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발을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는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오 백 룡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신 력사적인 카륜회의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고난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확한 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성스러운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이 힘차게 전진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수행하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올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내세웠을 때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며 반면에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경험의 총화이며 주되는 교훈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수많은 파란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의병투쟁도 하였고 독립군운동도 벌리였으며 애국문화계몽운동과 시위투쟁도 전개하였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벌어졌으나 정확한 투쟁로선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원쑤들의 탄압앞에서 그때마다 무참히 짓밟히고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인민들은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아 헤매이는데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는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자들은 확고한 주견과 정견도 없이 제가끔 딴소리를 하면서 혁명투쟁에 혼란만을 가져왔다.

조선혁명을 《지도》한다고 자처하는 그들은 대중을 떠나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쓸데없는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였으며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파벌싸움에만 몰두하고있었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우리 인민은 더욱 부대끼고 혁명의 앞길은 더 막막하여졌다.

수난이 겹쌓이는 그 암담한 나날에 우리 인민은 남달리 위대한 수령을 그리였으며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기울어진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것은 온 겨레의 피타는 갈망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였다.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인 숙망과 념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비로소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혁명실천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념으로,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로 되고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이 혁명의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데 있다.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정확한 지도사상이 없으면 라침판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처럼 갈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게 되며 결국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이 있어야 력사발전의 앞날을 정확히 내다볼수 있고 투쟁의 옳바른 길을 찾을수 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 력사적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을 창시함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옳바른 혁명적세계관과 과학적인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된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수령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혁명실천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가야만 사소한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수령이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

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혁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력량으로 될 때 낡은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의 참다운 주력군으로 될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으며 새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다.

어떤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단합시켜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대중에게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혁명의 원리와 방법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한다.

수령은 투쟁속에서 혁명의 지도핵심을 키워내고 혁명조직을 내오며 그것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분렬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여나간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단결은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가장 위력한것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가장 간고하고 험난하며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이다. 때문에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고도의 과학성과 원숙성을 가진 전략전술적지도와 능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략전술적지도와 령도예술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보장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국내외정세와 계급력량관계를 정확히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옳은 투쟁방향과 투쟁방도를 제시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실현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부닥칠수 있는 난관과 시련을 미리 타산하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피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언제나 구체적정황에 맞는 정확한 투쟁형태를 제시하고 능숙한 령도방법과 세련된 지도작풍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간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실로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주는 향도자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오직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완성되여나갈

수 있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좌우하는 근본조건으로, 결정적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실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자랑찬 행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여주시였으며 조선혁명이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깊이 분석총화하시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30년 6월 카륜에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길은 온갖 기성 리론과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투쟁의 길이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주체의 길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혁명의 진로가 밝혀짐으로써 오랜 기간 쓰라린 진통을 겪어오던 우리 혁명은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고 올바른 궤도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수난의 가시덤불을 헤쳐오던 우리 인민앞에는 조국광복을 위한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여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우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ㅌ.ㄷ》의 성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반제청년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무으시였으며 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혁명력량은 민족주의의 온갖 악페와 종파사대주의의 오물에 물들지 않은 생신한 혁명전위들이였으며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견실한 공산주의핵심력량이였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어나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골간으로 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애국청년들을 묶어세우시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

적인 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하였으며 투쟁 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자체로 세워야 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지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수 없었던 처지에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쳐날뛰는 강도 일제와 무장대결을 선포하고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은 그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오직 위대한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그처럼 어려운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선포하실수 있었으며 그것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실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날부터 수많은 난관들과 애로들을 극복하여야 하였으며 엄혹한 시련들을 겪어야 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중중첩첩한 난관들과 시련들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극복타개되고 우리 인민의 항일대전은 줄기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시고 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안도로부터 로흑산에 이르는 고난에 찬 투쟁도 승리적으로 이겨낼수 있었고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위사령과 오의성과의 담판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벌린 반《민생단》투쟁의 광란적인 소동도 제때에 바로잡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검의 숲을 헤치고 조국에로 진군한 《고난의 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앙양시켰으며 1940년대 전반기의 숨막히는 세계동란속에서도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리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으며 결정적요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행정에서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이 깊은 뿌리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끎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6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여주심으로써 오랜 세월 망국의 치욕속에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광복된 조국땅에 륭성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는 넓은 길이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새 민주조선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에 세기적변혁과 민족적번영을 가져오시였다.

해방을 맞이한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터진 화산과도 같이 높았으나 혁명의 배신자들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기여나와 저마다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자기 류의 《로선》을 떠벌임으로써 정세는 매우 혼란되고 인민들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시지 않으시고 비범한 예지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 거창한 사업을 훌륭히 해결하시고 매우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빛나게 완수되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력사적인 변혁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는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더욱 튼튼히 전변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이였다.

원쑤들은 《승리는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였고 수억만의 선량한 사람들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우려하였으며 세계의 이목은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로 집중되였다.

우리 인민은 전쟁의 엄혹한 시련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작은 나라 인민이 그것도 해방된지 5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 인민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미제를 타승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치렬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이 계속 준동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짧은 기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훌륭히 복구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시면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조직동원하시여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거

대한 사업을 불과 4~5년밖에 안되는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시였으며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독창적으로 수행해나가심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었으며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당당한 자주권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현대력사의 가장 험난한 길을 헤치면서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 어떤 기성경험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그것을 대담하게 제기하시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예견성으로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 장래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 정확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 뚜렷한 투쟁목표와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여 인민대중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뢰성벽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부닥친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시였으며 어렵고 방대한 모든 과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도 언제나 전진하며 승리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예, 행복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펼쳐진 찬란한 현실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예술가》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전 문 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였던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강도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온갖 반동들을 쳐부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의 제시, 그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준 혁명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광복의 새날을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으며 마침내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어오던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우리 인민의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오늘 력사적인 카륜회의 50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반제민족해방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　　*

과학적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옳은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것은 혁명투쟁의 필수적요구이며 그 승리적전진을 보장하는 근본조건이다. 그것은 사회적변혁과정이 심각해지고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더 많이 참가하면 할수록 더욱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을 곧바로 이끌어나가자면 무엇보다 혁명의 성격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할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이 일어나는 매개 나라의 사회력사적 조건과 환경이 서로 다른만큼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하여 확정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조선혁명을 《부르죠아혁명》이니 《사회주의혁명》이니 하면서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왔다.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는 혁명의 성격을 옳바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워야 할 무겁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일찌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 농촌에 중세기적인 봉건관계가 지배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과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혁명의 과업과 일제와 결탁된 봉건지주를 반대하는 반봉건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 두 혁명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 현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7~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제관계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성격이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무엇보다 일제침략자들의 압제밑에서 수난당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옳바로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사회혁명의 류형을 밝혀주는 혁명로선이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침략과 략탈로 말미암아 사회제도면에서 봉건사회나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일련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나라는 극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있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우리 나라에서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사이의 모순이 매우 첨예하였다.

일제는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기 위해 우리 나라 민족공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제하는 한편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예속자본을 비호육성하였으며 농촌에 봉건적인 착취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방법으로 식민지통치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닦았다.

일제는 경제의 기본명맥을 거머쥐고 무제한한 식민지적략탈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우리 인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일제식민지통치야말로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온갖 사회적질곡의 근원이였다.

우리 인민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 부강하고 발전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일제침략세력을 때려부셔야 했다.

일제와 함께 놈들에게 아부굴종하면서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고있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도 조선혁명의 대상이였다. 이자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도와주면서 그들과 한짝이 되여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고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을 가장 악랄하게 막아나섰다. 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을수 없었다.

한편 로동자, 농민들은 일제와 국내반동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 야수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노예의 운

명을 강요당하였으며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들도 날을 따라 파산몰락되고 그밖의 광범한 사회계층들도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제력량이 참가할수 있었다.

이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총동원되여 일제와 그와 결탁된 지주, 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야만 민족적독립과 근로자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당면한 혁명의 기본임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이 두가지 혁명임무는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해결될 때만이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할수 없었다. 한편 봉건적인 제관계를 없애지 않고서는 농민들을 중세기적인 봉건적구속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다.

이것은 종래의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과 구별되는 혁명과업이였다.

사회계급적제관계의 특성의 견지에서 보나 혁명의 기본임무의 견지에서 보나 우리 나라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은 부르죠아혁명도, 사회주의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여야 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은 대다수가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걷지 못함으로써 봉건사회도, 자본주의사회도 아닌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되였으며 이 나라들에서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다같이 수행해야 하였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보편적인 혁명의 류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이며 그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인민은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굳게 결속하여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침들은 또한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자주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할수 있는 투쟁로정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계단을 뛰여넘을수 없으며 혁명의 현계단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35페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인것만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도 새롭게 밝혀져야 한다. 혁명의 성격과 함께 혁명의 기본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옳은 전략과 전술이 밝혀져야 그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사회경제구조와 계급관계, 각이한 계급의 처지와 혁명에 대한 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로정과 과학적인 방도들을 명

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해야 하며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하자면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광범한 반제애국력량을 혁명대오에 굳게 결속하여 거족적인 투쟁으로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때려없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전략적방침, 인민혁명정부로선, 민주개혁방침을 비롯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사회력사적조건으로부터 산생되는 복잡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들이였다. 이 로선과 방침들은 혁명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책임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에서 중요한것은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전략적방침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그 성격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반제적,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혁명이다.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적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는 원칙에서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여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동시에 혁명의 보조적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로동자와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고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주체적인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혁명투쟁을 진행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반제애국력량을 단합하여 모든 혁명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만드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력량편성에서 견지해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압박받고 착취받던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참가하는만큼 혁명의 리익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정권형태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이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정권형태는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이였다.

이 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혁명과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정권형태이다. 이 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며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정권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이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사회계급적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고 그들에게 쉽게 접수될수 있는 혁명투쟁의 옳은 전략과 전술이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명시됨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과

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또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충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곧바로 사회주의에로 넘어갈수 있게 하는 혁명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반제반봉건적혁명과업이 수행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면 혁명을 계속하여 압박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에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반제혁명과업과 반봉건적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이다. 로동계급만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립장으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할수 있으며 모든 계급과 계층을 하나로 묶어세워 반제반봉건적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유리한 사회적전제를 마련하게 된다. 식민지통치의 페허우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이 서고 그 정치적기초가 강화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에로 발전할수 있는 전제가 마련된다.

경제건설분야에서는 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경제제도대신에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되면 일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이 청산되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이 이룩되며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가 보장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마련해놓은 이러한 사회적전제들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나아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거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의 진통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혁명에로 순조롭게 넘어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력사밖에서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우리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개척한 혁명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였다.

이 로선은 무엇보다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줌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투쟁로선으로서 모든 근로대중이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

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지난날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한다고 자처하던 종파분자들은 사대주의에 물젖어 혁명앞에 나섰던 그 어느 한 문제도 똑똑히 해결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도리여 혁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심각한 교훈은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에 대한 종래의 온갖 그릇된 관점과 태도가 극복되고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밝혀짐으로써 조선혁명은 정확한 혁명로선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뚜렷한 투쟁로정과 과학적인 투쟁방도를 알고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사회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을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이 혁명의 임무와 과업, 대상과 동력,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체계화하고 새롭게 발전풍부화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룬회의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식민지피압박인민들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자기 힘으로 실현할수 있는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혁명실천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세련된 령도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9페지)

외래침략세력과 온갖 반동들은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며 멸망의 시각이 다가올수록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운동을 더욱더 악랄하게 탄압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착취계급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수 없다. 대중운동이 폭력적형태를 띨수록 그것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점차 발전시켜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기구와 반혁명적폭력을 결정적으로 때려없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과 우리 인민의 피어린 투쟁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을 민족해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주되는 투쟁형태로 내세우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준비시기에 있었던 온갖 난관과 시련을 몸소 진두에서 헤치시면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는 사업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몸소 조직진행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1932년 4월 25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민족해방혁명의 결정적력량인 항일무장대오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참으로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민족수난의 시기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이 적극화됨에 따라 두만강연안일대의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넓은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으며 거기에 인민정권을 세우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정권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시는 한편 몸소 유격구역의 여러 지역에 나가시여 이 사업을 곧바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구의 여러 지역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정권형태로서 대중을 반일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이였다.

두만강연안유격구에 수립되였던 인민혁명정부는 장차 해방된 조국에 수립될 국가주권의 원형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신후 곧 유격구들에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혁명적원칙을 제시하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일제와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유격구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게 되였으며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반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신데 이어 산업분야에서도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유격구안에 있던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목재소와 금점들이 인민혁명정부의 수중에 장악되고 로동자들은 정부정강에 의하여 8시간로동제의 혜택을 보장받게 되였으며 낡은 세금제도가 철폐되고 인민적인 세금제도가 실시되였다. 그리고 남녀평등권과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제반 민주주의적인 개혁과 시책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착취와 억압에 시달릴대

로 시달려오던 유격구인민들은 일제놈도, 지주, 자본가도 없는 새 세상에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희망찬 새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 유격구역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과 시책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개혁의 요구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모범이였으며 장차 해방된 조국에서 실시하게 될 민주개혁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였다.

이렇듯 두만강연안 유격구들에 진정한 인민정권인 인민혁명정부가 서고 제반 민주개혁들이 실시됨으로써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보다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확대하시면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원래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의 통일전선운동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항일혈전의 간고한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들을 몸소 작성하시였으며 모든 준비사업이 빈틈없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1936년 5월 5일에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이 더욱 굳게 뭉칠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적력량을 옳게 편성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서 준엄한 시련과 온갖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승리적으로 실시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과 그것이 가져온 빛나는 성과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된 결과 공화국북반부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때 백전백승한다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무장투쟁로선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혁명적기치

최 인 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면서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혁명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일제의 멸망을 선고한 혁명전쟁의 선포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혁명적진군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잡고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그 최고형태인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당창건방침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이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빛나게 확증되였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혁명적기치였으며 조국광복의 새로운 길을 밝혀준 불멸의 전투적강령이였다.

1

민족해방투쟁의 형태와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식민지인민들이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참다운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민족해방투쟁은 옳바른 투쟁 형태와 방법에 의거하여 조직전개될 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하는 혁명투쟁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투쟁형태와 방도를 똑바로 규정하는것은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투쟁에서 무장투쟁이 노는 위치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8페지)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

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옳게 실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가장 빨리 이룩할수 있게 한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반일운동의 력사적교훈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적로선으로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당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넘어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적대적계급사회에서 계급투쟁이 발전하면 불가피하게 폭력투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발전하고 강화되면 될수록 침략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나선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이것을 잘 실증하여주었다.

포악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비길데 없는 일제침략자들은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폭압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우리 나라를 군대와 헌병, 경찰과 밀정들로 뒤덮인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시켰으며 각종 악법과 총검의 힘으로 조선인민의 모든 합법적 활동을 완전히 말살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평화적시위나 파업투쟁으로써는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칠수 없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막다른 처지에 이른 조선인민은 앉아서 죽느냐,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여 결연히 일어나 이르는곳마다에서 싸웠으며 일제의 파쑈적폭압에 폭력적진출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청년학생 등 애국적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인 폭력을 쓰지 않고서는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초보적인 삶의 권리조차 가질수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적폭압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의 대중적반일투쟁은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일어났으며 그 투쟁은 점차 폭력적형태를 띠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폭력적형태로 벌어지고있는 대중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이끌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로선이였다.

대중투쟁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무장투쟁은 민족해방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쟁형태이다.

식민지인민들이 무장투쟁을 벌리게 되는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려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억누르기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례외없이 야수적인 폭력에 매여달린다. 력사는 아직 그 어느 제국주의도 제놈들의 식민지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모르며 피압박민족의 혁명적진출을 반혁명적폭력으로 진압하지 않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폭력으로 혁명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는 조건에서 식민지인민들은 결코 앉아서

희생만을 당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 법이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한 피압박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는것은 불가피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합법적권리이다.

식민지인민들의 폭력투쟁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여야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할수 있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결정적인 투쟁으로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오직 조직적인 무장투쟁만이 강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무력을 소멸하고 혁명력량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으며 식민지통치를 무너뜨리고 민족해방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식민지인민들의 모든 형태의 비폭력적인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혁명운동을 강성발전시키기는 하나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종국적으로 격파하지는 못한다. 식민지인민들은 오직 자체의 혁명무력에 의한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수 있으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혁명로선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밝혀주는 반제혁명로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에는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철저히 완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따라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하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는 타협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밝혀주고있다.

피압박민족이 반제투쟁에서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제국주의에 대한 조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다.

지난 시기의 력사적경험은 피압박인민들이 《청원》이나 시위와 같은 평화적방법으로써는 절대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스스로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할수 없으며 침략과 략탈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

피압박인민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떠서 적극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만 제국주의를 타승할수 있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견결한 반제투쟁의 길을 밝혀줌으로써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식민지통치체제를 철저히 쳐부실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또한 민족해방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폐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착취근로인민대중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어떤 힘에 의거하여 침략자와 맞서 싸우며 어떠한

원칙을 견지하는가 하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은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직진행되여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조직전개되는 민족해방투쟁만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인민대중자체의 힘에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을 벌릴데 대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무장투쟁로선의 혁명적본질과 불패의 생활력은 자주성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마련하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적인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 싸운다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고귀한 혁명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서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범죄적책동이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던 온갖 그릇된 사상조류들을 짓부시고 무장투쟁을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무장투쟁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자주적인 혁명로선으로 되였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우리 인민이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다그치게 한 불멸의 혁명적 기치였으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 위대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필승불패의 무기를 안겨주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인 길을 휘황히 밝혀준 력사적사변이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무장투쟁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되려면 정확한 투쟁로선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방도가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 아무리 옳은 투쟁로선이 있어도 그것을 정확히 실현할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방도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은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사업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조선혁명군을 조직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육성하며 대중적지반을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쌓는 등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군이 조직되고 그 정치군사활동이 강화됨으로써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고귀한 투쟁경험이 축적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전략적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리는것은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전략적방침이였다.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 군사적 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무력을 능히 소멸할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며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침략무력을 도처에서 격파하고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장투쟁형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고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대에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인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투쟁경험들은 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으며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3페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한 혁명사상은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는 출발적기초이다.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무장투쟁은 옳바른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만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은 정확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며 따라서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걸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으나 옳은 지도사상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무장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략전술을 세우며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나갔다.

모든것을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할뿐아니라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류례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신념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투쟁방침과 전략전술을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해방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조직적인 투쟁으로 일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확고히 성취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굳게 단합시키는것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민족해방운동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이며 피압박인민대중의 모든 대중투쟁은 무장투쟁과 결합됨으로써만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이전시기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은 옳바른 령도가 없었고 분산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일제에게 그때마다 각개격파당하고말았다. 항일무장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으로서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켜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갔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확고한 주류를 이루었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무장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된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사변이였으며 조국광복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분산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반일혁명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워 무장투쟁을 적극 확대해나갈수 있게 하

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은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각계각층의 인민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으로 무장투쟁에 적극 호응해나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공산당창건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었다.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해야 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지난 시기 종파분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창건과 통일전선 사업에는 커다란 장애와 혼란이 조성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 많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운동이 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항일혁명전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대중투쟁과 완전히 분리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결함이 철저히 극복되고 무장투쟁의 준엄한 실천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새형의 공산주의핵심대렬이 늘어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반일인민유격대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되고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편성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기치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으며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였으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맞이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령군술과 군사전법,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감회깊이 회고하게 되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운 혁명전사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더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은 없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 따라 주체위업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대를 이어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항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굳게 결속시킨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김 중 린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대강을 밝혀주신 카륜회의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밝히시면서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밝히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시초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반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로선으로서 그것은 오늘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의 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성스러운 반일투쟁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9페지)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을 광복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한 로선으로서 이것은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적제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반일민족해방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이였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당시 조선혁명의 최대의 당면과업이였다. 일제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봉건적질곡을 청산할수도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은 일제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힌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였다.

이 민족적요구는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으며 또한 어느 한 계급, 계층의 단독적인 힘에 의해서도 실현될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족적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바로 전민족의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전략적로선으로서 그것은 광범한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그들이 민족해방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다운 주체적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전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것만큼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9~10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조선인민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민족으로 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인간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힌 우리 인민은 결코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지향하였으며 모두가 반일감정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정권을 가진 자주민족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는 전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지닌 슬기로운 민족이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외래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왔고 세계에 자랑하는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해온 용감하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이 민족적으로 각성되고 계급적으로 눈을 뜨기만 하면 그 어떤 외래침략자도 능히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창조적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제시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키고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워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하여 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하는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가장 폭넓은 통일전선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은 물론,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반일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세력을 반일의 기치하에 굳게 결속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매우 넓었으며 그것은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식민지적략탈이 강화됨에 따라 날로 더욱 확대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광범한 소자산계급도 참가하였으며 종교인들, 지어 일부 민족자본가들까지도 일제를 미워하며 반대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앞잡이들인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등 극소수 반동분자들을 내놓고는 가장 광범한 계급, 계층의 군중을 반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현실적조건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

족통일전선로선은 이러한 현실적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계급적처지와 정치사상적견해, 신앙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반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다 하나로 묶어세우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데 대한 이 로선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가 조국광복의 성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처럼 폭넓은 통일전선로선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또한 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추진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옳은 길을 명시한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혁명적당창건방침 등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과정으로 실현되는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당창건준비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창건방침과 통일전선로선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도였다. 그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당창건준비사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추진시켜야만 이 운동을 진정한 반제혁명운동으로, 참다운 민족자주운동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결속하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전반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도였다.

그것은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하여 반일군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전선운동을 무장으로 보위하면서 튼튼한 토대우에서 확대발전시킬수 있으며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의 광범한 군중적지반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었기때문이다.

이처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당창건준비사업,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데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동원함으로써 민족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 혁명력량편성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한 전략적로선으로서 그것은 자기 운명을 확고히 틀어쥔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통일전선사상과 현명한 령도, 높으신 권위와 만사람을 한품에 안으시는 포용력으로 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광범한 반일군중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 빛나게 구현되여나갔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력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의 창건

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과 통일전선운동의 발전과정에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데 대한 성숙된 요구에 기초하시여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상설적인 전국적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민족적애국력량을 하나로 단합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일찌기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오직 하나의 기치,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과쑈적폭압이 극심한 조건에서도 창건된지 불과 수개월동안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종교인 등 수십만의 각계각층 반일력량을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자기의 하부조직을 이르는곳마다에 급속히 확대하여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강력한 대중적혁명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민족의 반일애국력량을 망라하는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단계에로 확대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의 통일전선사상과 그 빛나는 실현은 우리 시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여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었으며 통일전선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에서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몸소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로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2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오늘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전국적판도에서 완수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민족통일전선리론을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국적민족통일전선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국적민족통일전선방침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묶고 반일투쟁에서 함께 싸운것처럼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1페지)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된 통일전선이라면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진행되는 통일전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인것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조국의 통일을 바라며 그것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기치야말로 전민족의 절박한 사활적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고 가장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폭넓게 안을수 있는 민족적기치인것이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은 북과 남의 두 지역의 모든 애국력량의 련합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전선이다. 이것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전민족적단합의 형태로 된다.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하여 산생된 문제인것만큼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련합하는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분렬세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압도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담보로 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전국적민족통일전선형성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국적민족통일전선방침을 실현하는데서 력사적사변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소집하신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였다.

미제의 범죄적인 《단독선거》음모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렬될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바라는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이 한자리에 모여 구국대책을 강구할 남북련석회의의 소집방안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총단합으로 국난을 타개할 길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남조선의 애국적 정당, 단체,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 상기업가들과 종교인들, 지어 일생을 《반공》에 바쳐온 완고한 민족주의거두들까지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과 방해책동을 박차고 38선을 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달려왔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미제의 《단선》음모를 파탄시키고 통일적민주주의중앙정부수립을 위한 구국대책을 열렬히 지지

찬동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서로 진지하게 의사를 소통하고 국난을 타개하려 한다면 그 어떤 대립이나 장벽도 허물고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실로 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의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민족의 슬기를 과시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였으며 그것은 우리 당의 반제민족통일전선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민족적대단결의 리념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남북련석회의를 통하여 남북의 애국력량이 하나로 단합됨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도, 북과 남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언제나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격폐상태에 놓여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것은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이룩된 하나의 중요한 사변이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국적민족통일전선형성에서 가장 본질적문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상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80페지)

원래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사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는것은 통일전선의 기본전제로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자면 마땅히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민주인사들이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인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 될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인것만큼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민주인사들사이에 통일문제해결에서는 모순이 있을수 없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 민주인사들에게는 자기들을 압박하고 짓밟는 매판세력, 파쑈세력,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사이에 모순이 있지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통일문제를 놓고 대결할 하등의 리유도 없는것이다. 어차피 나라가 통일되면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사람들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상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련합하는데로 나가는것이 응당한것이다.

《반공》은 케케묵은 낡은 사고방식이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오늘 분렬된 우리 민족의 처지를 놓고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남조선만을 위한 그 무슨 민족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온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절름발이 민족주의이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나라의 분렬을 위한 민족주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만약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데로 나간다면 그것은 《반공》의 구실하에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파쑈로 통하는 허울좋은 민주주의로 될것이며 결국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분렬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로 될것이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이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념원하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우려한다면 《반공》으로 나갈것이 아니라 련공합작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지난날에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나선다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과 단결할뿐아니라 영원히 함께 나갈수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죽은 독재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것이 아니라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대결과 경쟁, 분렬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단결과 합작,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성실한 태도로 림해야 한다.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애타게 바라는 북과 남의 애국적인민들은 우리 당의 전국적민족통일전선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열망하고있으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목소리는 멀리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절절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날 항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굳게 결속시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처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결속시켜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반제민족통일전선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은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반일반미애국투쟁에서 뚜렷이 확증되었으며 그 불패의 사상은 오늘 남북인민의 전민족적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민족분렬의 불행한 사태를 끝없이 지속시킬수 없으며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씻을수 없는 민족적수치를 력사에 남길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강령적지침

안 동 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밝혀주신 당창건방침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창건의 새로운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는 참다운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 지도밑에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강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될수 있었으며 그에 토대하여 해방후 제때에 당을 창건할수 있었고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이 있어야 합니다. 혁명적당이 있어야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건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0페지)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알아야 한다.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지 못한 투쟁은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띠게 되며 결국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수령이 내놓은 혁명로선과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당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은 또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당을 가지여야만 계급적원쑤들과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제때에 짓부시고 자기 수령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계급적원쑤들과 혁명대렬안에 끼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불가피하게 동반하게 된다. 그것은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과 기회주의자들의 분렬과괴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수령의 혁명로선을 지켜나갈수 없으며 혁명력량도 튼튼히 꾸려나갈수 없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계급적원쑤들과 혁명대렬안에 끼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로동계급의 당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렇듯 로동계급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의 무기인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로동계급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은 선행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관련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공산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건전한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로동계급이 자라나 점차 투쟁무대에 나섬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반일운동이 광범히 벌어지는 가운데 1925년에는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봉건적압박에서 신음하여오던 우리 나라 근로대중은 조선공산당의 창건을 환영하였으며 이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나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자체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었다.

1925년에 창건되었던 조선공산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주로 계급적립장이 철저하지 못한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로 구성되여있었다. 당은 상층부에 잠입한 종파분자들의 《헤게모니》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4분5렬되고말았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창건된지 3년만에 해산되지 않을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이러한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앞에는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할 과업이 절실히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된 조선공산주의운동앞에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문제가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참다운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회의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선행한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구상하여오신 새로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하며 그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매개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 사업도 그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이 사업을 대신해줄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목적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창건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당시 공산주의운동안에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하였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당을 창건할 대신에 저마다 자기 파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자》라고 하면서 《당재건》간판을 내들고 국제당에 찾아다니며 그의 승인을 받으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또한 《국제로선》이요 뭐요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건 안맞건 덮어놓고 추종하여나섰다.

이러한 형편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지 않는다면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기성판에나 틀에 구애됨이 없이 당창건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이와 같이 철저히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실속있게 하는것은 혁명적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실속있게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이 전투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창건된 당은 비록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투쟁이 간고하여도 자기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튼튼한 기초가 없이 창건된 당은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뿐아니라 지어 자체의 존재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의 중요한 약점의 하나가 바로 당대렬이 주로 소부르죠아인테리들로 구성되고 당의 조직적골간이 꾸려지지 못한것이였다. 아무러한 조직사상적준비도, 대중적지반도 없이 빈터우에서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공중누각의 당이였다. 이

떠한 본질적인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당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었으며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종파분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해산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에 앞서 조직사상적준비를 실속있게 할데 대한 방침은 바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약점과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게 함으로써 종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형의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침을 명백히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와야 합니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는것은 당창건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업을 더 실속있게 할뿐아니라 당이 창건된 그날부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어떤 방법으로 창건하는가 하는것은 창건될 당의 공고성과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기층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도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앉아 먼저 《당중앙》을 내오고 당창건을 선포하던 종래의 방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당창건준비사업에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는것은 무엇보다 당대렬을 질적으로 꾸리고 그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게 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토대우에서 당창건의 과업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의 공고성여부는 그를 구성하고있는 당원대중이 얼마나 견실한 혁명가들로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로동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고수하며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선진투사들로 구성될 때만이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날로 강화되고있던 조건에서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투쟁속에서 단련된 선진분자들로 공산주의대렬을 확대하는것은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키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였다.

당창건에 앞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는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의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당조직생활을 통해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하며 당조직을 부단히 확대하고 그를 공고화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당창건에 앞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또한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확고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창건준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요구이다. 광범한 군중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믿음직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함으로써만 당창건의 골간인 공산주의핵심을 더 잘 키울수 있으며 장차 창건될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빨리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당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혁명운동을 옳게 령도할수 없고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사업은 모든 단위와 지역들에 당의 기층조직이 꾸려지고 그것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창건에 앞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이렇듯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끊임없이 확대하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게 함으로써 공고한 토대우에서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게 하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페지)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선행한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남긴 력사적교훈과 함께 여러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항일혁명투쟁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끼여들어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것은 공산주의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혁명의 실천투쟁과 동떨어져 진행한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 상층부를 이루고있던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의 밖에 서있었거나 로동운동대렬안에 끼여든 우연분자들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올바른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강의한 혁명의 전위투사,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었다.

참된 공산주의혁명투사는 혁명의 준엄한 실[illegible]쟁속에서 자라나며 그러한 투쟁속에서 공산주의대렬의 질적구성과 그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준비사업도 가장 적극적인 투쟁인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들을 제때에 식별하고 그들이 혁명대오안에 끼여드는것을 미리 막아낼수 있었으며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공산주의대렬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 날로 강화되고 있던 조건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당창건사업과 혁명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무장투쟁과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은 당창건준비사업이 추진될수록 더욱 빨리 발전하게 되며 당창건준비사업은 무장투쟁, 대중투쟁과 밀접히 결합될 때 일제의 탄압만행으로부터 그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다. 그리고 당창건준비사업을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과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화하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꾸려나갈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립장에서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실속있게 할데 대한 방침은 가장 견고한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

창건방침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에 관한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적당건설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주체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새형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이 해산된후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고있던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비로소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강령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창건방침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그 어떤 리론이나 방침을 막론하고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자면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포악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벌리는 간고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창건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심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음모책동과 파괴행위를 물리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믿음직하게 닦아놓았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1~25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닦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육성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로동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들을 혁명조직과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조직생활과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되고 단련육성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핵심들은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밑천으로, 조직적골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함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공산주의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으며 대오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야수적인 탄압 속에서도 굴함없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함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지반도 확고히 축성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리익의 옹호자이며 대표자인 우리 당이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속에서 전진하게 발전할수 있는 튼튼한 담

보로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는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드놀지 않는 반석같은 지반우에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억센 뿌리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할수 있었던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전개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마침내 고귀한 결실을 맺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 이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억센 뿌리에 기초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면서 승리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왔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세련되고 단련된 필승불패의 강유력한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기초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이 보람찬 사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며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려는 충직한 인민과 견실한 당원들이 있는 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조선혁명군

지 창 익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카륜회의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이 회의방침에 따라 결성된 조선혁명군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이였던 조선혁명군은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빛나게 장식되여있다.

조선혁명군은 민족수난이 절정에 이르고 우리 혁명이 쓰라린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고있던 시련의 시기에 항일무장투쟁의 시원을 열어놓음으로써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결성으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혁명적무장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려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고 포악한 일제와 맞서 싸울 만단의 준비밑에 항일대전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바로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였다.

혁명적무력으로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시는것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제국주의는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예속국에서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에 매달린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 제놈들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폭력수단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반항한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의 이러한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며 반혁명세력을 혁명적무력으로써 때려부셔야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맞서 싸운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수백만의 병력을 가지고 《무적》을 자랑하던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이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조국과 민족을 보위할수 있는 자기의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고있지 못한탓으로 하여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반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끊임없이 벌렸으나 그때마다 놈들은 무력으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마구 탄압하였다. 우국지사들은 망국을 통탄하여 나라의 독립을 열렬히 호소하였고 이른바 민족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으나 일제는 류혈적인 탄압으로 이에 대답하였다. 의병투쟁이나 독립군운동과 같은 무장활동 역시 옳은 투쟁구호와 전략전술이 없이 분산적으로 진행된 결과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력사적경험은 정확한 지도사상에 기초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진 자기의 강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침략무력을 때려부실수 없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워서 재생의 길을 찾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열망한것은 수령의 령도를 받는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고 조국땅에 기여든 강도 일제를 내쫓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가 강요되고 있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기 위한 항일혁명전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단계를 설정하고 주체적힘을 튼튼히 키워나가야 하였다. 더우기 1930년대초 강도 일제의 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우리 인민의 대중투쟁이 폭력적형태에로 발전하고있던 당시의 정세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넘어갈수 있는 준비를 빨리 다그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1930년 7월 6일 고유수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핵심들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그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1930년 7월에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적무장조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51페지)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그날로부터 4～5년 세월 청년학생들의 심장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싸워오신 정력적인 활동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사업의 첫결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면서 조선혁명군의 성격과 사명, 임무를 명백히 천명하시고 그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무력의 성격과 임무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조선혁명군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이였으며 앞으로 창건될 혁명무력의 기초로 될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들어가 인민들을 교양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는 한편 군사적경험을 쌓으면서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조선혁명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제의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가 강요되고 있던 조선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엎을 혁명전쟁을 주동적으로 준비해나가는데 있었다.

조선혁명군은 국가주권도,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는 조건에서 장차 우리 나라에 필승불패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창건하며 그것이 처음부터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위한 단기군정학습과 군사훈련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여 그들을 무장대오결성의 튼튼한 골간으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

을 배려속에서 대원들은 군정학습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대강을 깊이 체득하고 대중정치사업방법을 열심히 배워나갔다. 그들은 또한 맹렬한 군사훈련과정에서 무기를 다루는 방법과 군사전법을 습득해나감으로써 정치군사일군으로서의 자질을 훌륭히 갖출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조직된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장차 창건될 혁명무력의 핵심으로 키우시는 한편 그들을 여러개의 소조로 편성하시여 북부조선과 중부만주일대, 동만과 남북만 일대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여 정치군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진출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정치 및 군사 활동을 힘있게 벌려 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은 본격적인 정치군사활동을 벌려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조선혁명군은 무엇보다먼저 정치군사활동행정에서 항일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핵심적골간부대를 키워나가는데 큰 힘을 넣었다.

핵심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였던 간고한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혁명적인 무장력건설과 같은 어려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담보였다. 핵심이 없이는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를 확대해나가는 사업도 잘할수 없었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핵심대렬을 늘이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대중을 반일대중단체들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각지에 파견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은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등 혁명조직을 확대하며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조직진행하여나가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수많은 혁명가들을 키워나갔다. 이와 함께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운영되고있던 학교들과 야학들을 거점으로 혁명의 후비대렬을 전망성있게 준비하여나갔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투쟁의 앞길을 찾게 된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손에 무장을 잡을것을 결의해나섰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대오에서 영원히 수령님께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될것을 굳게 맹세다지었다.

이리하여 조선혁명군 대오는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따라서 그 어떤 종파적오물이나 낡은 민족주의사상에도 물들지 않은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 혁명무력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또한 령활한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군사적경험을 쌓아나갔다.

혁명무력의 핵심적골간을 육성하는 사업과 함께 무장을 마련하며 군사적경험을 쌓는것은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제반 군사적준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무장력의 중요한 요소인 사람과 함께 무장을 갖추고 그 활동경험을 쌓는것은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담보의 하나이다.

바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은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타산하여 무기를 구입하거나 적들로부터 빼앗는 방법으로 무장을 갖출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신

이 들어가 간악한 원쑤들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서는 독립군과 같이 몇몇 선발된 사람만이 총을 들고 분산적으로 싸울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꾸준히 해설선전하였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무기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깨닫게 된 인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기를 구하여 혁명조직들에 보내여왔다.

특히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일제침략군과 국민당반동경찰들, 적의 밀정과 말단통치기관, 가병들을 가지고 있는 악질지주들을 대담하게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내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무장을 갖추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군사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혁명화된 농촌지역들에서 적의 밀정들과 주구들을 적발숙청하며 넓은 지역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 과정에서 군사활동경험을 축적하는것이였다.

적들이 혁명력량을 교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무장경찰대를 출동시키는 한편 밀정과 주구들을 은밀한 방법으로 혁명화된 지역들에 끊임없이 잠입시키는 조건에서 광범한 군중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력량을 보위하는것은 당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나섰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은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탐험대 등 혁명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빈틈없는 경계 및 통보 체계를 세움으로써 기여드는 적의 밀정과 간첩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제때에 적발숙청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무장소조가 국내에 진출하여 이룩한 성과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1930년 여름 장백일대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벌린데 이어 국내에 진출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는 풍산, 리원, 북청, 홍원 등 북부조선일대의 넓은 지역에서 인민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깊이 해설선전하였으며 도처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이끄신 무장소조는 파발리일제경찰관주재소습격전투, 북청군 대덕산전투, 홍원군 철부암전투와 전진동전투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대담무쌍한 무장습격전투들을 벌려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귀중한 군사활동경험을 이룩하였다.

장춘의 금강관전투, 할빈 도리사건을 비롯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이렇듯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넓은 지역을 무대로 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림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고귀한 군사활동경험을 축적하고 군사적준비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간것은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때려부시자면 광범한 대중적지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자기 사업의 중대성을 깊이 느끼고 우선 자신부터 선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중교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빛나게 구현한

것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이 처음부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힘있게 조직전개되게 할뿐아니라 그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각지에 파견된 조선혁명군 소조들은 기본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한편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전취하며 특히는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과 오가자, 고유수 등지에서 몸소 보여주신 대중혁명화의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귀감으로 삼고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구두선전, 각종 모임을 통한 선전, 혁명적출판물을 통한 선전, 혁명적예술활동을 통한 선전 등 모든 선전선동 수단들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농촌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교양하고 지방《유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계몽각성시켜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혁명적실천속에서 사람들을 단련하고 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일본새이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인민대중을 전투적으로 단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과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단련시켜나갔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통하여 점차 조직의 힘, 단결의 위력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으며 한결같이 굳게 뭉쳐 싸운다면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군은 광활한 지역에서 정치군사활동을 힘있게 벌려 항일유격대의 골간을 육성하고 군사활동의 경험을 축적하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준비단계에서 나선 전략적과업들을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빛나는 정치군사활동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항일무장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68페지)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그 활동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항일무장투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출수 있게 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그 활동과정에 무장조직의 대오가 확대강화되였고 혁명무력창건의 핵심골간으로 될 정치 및 군사 간부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혁명무력건설과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무장을 해결하고 군사활동경험을 축적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광범한 반일군중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축성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쌓고 나아가서 항일무장투쟁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전개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함으로써 무장투쟁의 준비시기에 나섰던 전략적과업을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참다운 혁명군대를 창건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사실상 항일무장투쟁의 첫 출발이였다.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기반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일제침략자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우리 인민은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운동을 벌렸으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죄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정한 혁명적무장조직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결성하신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에서 보다 튼튼히 다져질 우리 혁명무력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한편 조선혁명군은 대담무쌍한 군사활동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빛나는 정치군사활동은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제시된 조선혁명의 대강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였다.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그마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도 허용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지하투쟁이 또한 간고하였던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무장에 의거하여 혁명력량을 보호함이 없이는 반일민족해방운동앞에 나선 그 어떠한 과업도 성과있게 실현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이 적극화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반혁명적책동이 강화된 조건에서도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면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 조선혁명앞에 나선 전반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그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모성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적대강을 따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힘찬 진군이였다.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활동으로 하여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제시된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갖출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차게 전개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의 결성과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자랑이며 영예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없으며 우리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혁명전위

류 화 경

조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로 된 카륜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뜻깊은 력사적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참다운 전위투사들인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올바른 승리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받아안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계기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들의 숭고한 사명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조국의 광복과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갔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카륜회의를 전후하여 우리 혁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은 일찌기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전위대오를 꾸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순결하고 생신한 혁명가들이며 조선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논 참다운 혁명전위들이였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 *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전진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영광스러운 첫 대오에 속하였던 혁명전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손길아래 자라나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체득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생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여 혁명의 전위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을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선차적인 조건으로 인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혁명전위들을 길러내는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조직력있는 전위투사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혁명전위들은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봉투사들이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핵심들이다.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주체적력량은 혁명의 전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혁명전위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혁명력량은 더욱더 장성강화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전위투사들을 길러내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할수 없다.

혁명전위들을 육성하는것은 우리 혁명수행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과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의연히 대중을 떠나서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종파행위만 일삼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주의운동이 널리 벌어졌다. 민족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의병들과 독립군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피흘리며 싸웠으며 애국문화계몽운동이 전개되고 3.1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투쟁도 벌어졌다.

한편 3.1운동후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나섰으며 공산주의운동도 시작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자체의 본질적약점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만 겪고있었다.

당시 조선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혁명투쟁을 벌려나갈 대신 대중을 떠나서 말공부만 하고 파벌싸움에만 몰두하고있었다. 사대주의에 깊이 물젖은 그들은 제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이른바 《령도권》을 쥐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었다.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교훈은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었으며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여 혁명의 전위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는것과 함께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할수 있었으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참으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여 혁명의 전위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나섰으며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시켜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무르익히시는 한편 몸소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심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절박한 과업을 빛나게 해결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혁명의 전위대오를 꾸리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청년학생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청년학생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의 전위투사들을 키워낼수 없었으며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부닥친 암초를 없앨수 없었다. 그것은 혁명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의 청년학생들의 특성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청년학생들은 원래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의 추세에 민감할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질곡을 없애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성이 매우 강하다. 더우기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나라의 청년학생들은 혹심한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고있었으므로 반일사상과 민족적각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은 중요한 혁명력량으로 되고있었으며 그들을 옳게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한다면 능히 공산주의적

핵심으로 키울수 있었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온갖 권모술수와 감언리설로 조선사람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대중을 우롱하며 특히 청년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저마다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던 당시 청년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파벌싸움에 미쳐날뛰던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으로 청년학생들의 사상동향은 각양각색이였으며 지어 일부 청년학생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학생들을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단련시켜 혁명의 전위투사로 키워내는 사업은 오직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빛나게 수행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던 첫시기부터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청년학생들에게 주체의 혁명원리를 깨우쳐주시는 한편 여러 학교들과 주변농촌들에 비밀리에 독서조를 광범히 뭇고 운영하여나가시였으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토론회, 강연회, 웅변대회, 연예공연도 자주 조직하시였다. 이리하여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반일의식과 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년학생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조직적으로 단련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을 통하여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함으로써 혁명무력을 꾸릴수 있는 골간을 준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2페지)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이다.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조직에 참가하여 조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형성되고 더욱더 강하여진다. 그러므로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조직들을 뭇고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청소년학생들을 묶어세우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하여 조선인길림소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합법적조직들을 무으시였으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또한 합법적인 조직들의 활동과 비합법적인 조직들의 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합법적조직들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비합법적혁명조직들에 받아들여 혁명적핵심으로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조직들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면서 대중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여러곳에 야학들이 조직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정치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였으며 바로 이 과정에 혁명조직에 망라된 청년학생들은 능숙한 수완과 조직자적능력을 소유한 혁명의 전위투사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떠메고나갈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로 빨리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청년들,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그들을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단련시키시였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을 단련하고 혁명가로 키우는 힘있는 수단이다. 낡은 사

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혁명적인 핵심들이 자라나며 혁명력량이 전투적으로 단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혁명적실천이 노는 역할을 밝히시고 낮은 형태의 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년학생들과 군중들을 끊임없이 각성시키시면서 점차 높은 형태의 투쟁, 대규모적인 투쟁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에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당국과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1928년 10～11월에는 일제의 침략적인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며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보다 큰 규모의 투쟁에로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시여 그들속에서 반일사상을 높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중적투쟁의 위력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파분자들과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벌싸움에 미쳐날뛰는 종파분자들의 기회주의적리론을 폭로비판하시는 한편 청년학생들이 종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깨우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청년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종파분자들이 례외없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이고 행세군들이며 정치적협잡군들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종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혁명적립장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3부통합》이라는 명목밑에 서로 자리다툼만을 일삼던 민족주의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폭로비판하시고 자라나는 공산주의력량을 막아보려고 테로행위까지 감행하는 민족주의우두머리들의 범죄적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시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민족개량주의리론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정력적으로 활동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청년학생들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는 실천을 통하여 단련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투사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였으며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 참다운 혁명전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골간적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직후에 결성된 조선혁명군에 참가하여 정치군사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 무으신 혁명적무장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신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에 참가하여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으며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 군사적경험을 쌓고 무장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책임자로 하여 국내에 파견하신 조선혁명군무장소조는 풍산군 파발리와 리원, 북청, 홍원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적들을 족치고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여 일제놈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인민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이 벌린 정치군사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육성하

신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기개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력사적인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시기에도 항일유격대의 골간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그 대오는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참으로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듯 우리 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수 있은것은 그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벽하게 지니고 철저히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육성하신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참신한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생신한 혁명가들이였으며 어떠한 파벌에도 참가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자라난 순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서 핵을 이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겹쌓이는 난관도 시련도 용감하게 이겨낼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실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기초하고있었다. 지난날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에 가슴을 치면서도 옳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열혈청년들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비로소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였으며 짓밟힌 겨레를 구원하기 위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보람찬 투쟁에 참가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였으며 수령님께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충성심은 수령님의 존함을 더 빛나게 모시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운 그들은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는 새별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한일자와 별성자를 붙여 김일성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불렀으며 그후 그처럼 위대한 령도자를 어찌 하나의 새별에만 비하겠는가 하면서 조선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다시 날일자와 이룰성자를 써서 김일성동지로 고쳐 불렀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높이 모시였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혁명시인 김혁동지가 지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였으며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갔다.

참으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모셔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빛나는 귀감들이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주체사상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견결히 배격하고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있었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갔으며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나갔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하여나감으로써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또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들이였다.

그들은 난관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그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전진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으며 혁명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켜나갔다.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불굴의 혁명정신과 무한한 희생성은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항일혁명대오의 고상한 풍모로 이어졌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신하고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으며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단련되고 세련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였다.

오늘 력사적인 카륜회의 50돐을 맞으면서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싸운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빛나는 위훈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와 주체위업에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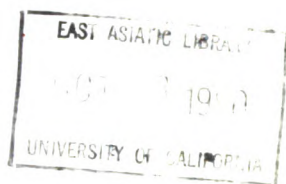
근 로 자　1980년　제6호(루계458호)

편 집 위 원 회

번 곳•근 로 사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6월 1일　발 행•1980년 6월 5일

ㄱ—0515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 호(459)

차 례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이한다.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 당이 걸어온 35년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온 빛나는 력사이며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열정으로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진일적인 전투대오로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고난에 찬 조선혁명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다.

우리 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은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당대렬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 *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우리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660페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렬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의 참모부이며 전위부대인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굳게 통일단결되지 못할 때에는 당안에 언제나 분파가 생기

며 그러한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지 못할뿐아니라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앞에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혁명이 심화발전되면 될수록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나가야 한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의 통일단결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옹호고수되여야 하며 끝까지 공고화되여야 한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이러한 통일단결만이 참다운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그러한 통일단결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될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적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혁명을 교살하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였으며 당안에 기여든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당을 반대하여 분렬과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나섰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해독행위로 말미암아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한두번만 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혁명적원칙성과 비상한 전개력,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중중첩첩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언제나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정세가 복잡하고 투쟁이 간고할수록 통일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의 단결된 힘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참으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실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오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비상히 강화되고 전당이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흐르는 순결한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참다운 통일단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자랑높은 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당의 구령에 따라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당, 이런 위대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5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순결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을 창건하고 이끄는 수령에 대한 당원대중의 높은 존경과 신뢰, 끝없는 충성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도의 의식성과 자각성에 기초할 때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된다.

당원대중이 자기 수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것은 그 어떤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지 투쟁을 통하여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존경은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허물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은 수령님을 맞이한 그 첫날부터 절대적인것이였으며 풍파사나운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심장깊이 뿌리내리고 자라온 티없이 순결한 자각성의 발현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끝장내시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륭성번영하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자랑떨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인민모두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당원들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와 자신들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언제나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다 이겨내고 우리 혁명의 명맥이 굿굿이 이어져왔으며 우리 인민이 재더미우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거연히 일떠서 영웅적위훈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고 인민대중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기치따라 억세게 싸워왔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나가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은 또한 그것이 하나의 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

504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이 진실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려면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전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참다운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인 단합에 있다. 당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단합이여야만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은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과 분파적인 행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단합은 공고하지 못하며 오래가지도 못한다.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여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그러한 통일단결만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통일단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사람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꽉 들어차고있다.

우리 당은 말 그대로 주체사상만이 맥박치는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단합을 확고히 이룩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이룩한 통일단결은 전당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통일단결이며 이러한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간의 진정한 사랑으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4～505페지)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의 참다운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동지들사이에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굳게 뭉쳐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결백한 혁명적지조와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혁명동지들을 굳게 단결시킨다.

혁명동지들의 사랑은 사상을 공고히하고 서로 고무격려하며 호상투쟁하여

혁명적단결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것이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참다운 사랑으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마슬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동지들간의 참다운 사랑으로 굳게 뭉쳐져 있다.

우리 당대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충직하게 싸워온 혁명동지들간의 참다운 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또한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튼튼히 다져진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2페지)

당의 통일단결은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만 그 위력이 강화되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진다. 바로 이러한 통일단결만이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능히 이겨낼수 있는 진짜 통일단결로 된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쳐부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온갖 시련이 겹치는 복잡한 투쟁속에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자신의 힘으로 빛나게 수행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혁명전쟁과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배신자들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드놀지 않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전투적참모부,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원들은 당창건이후 지난 35년동안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싸워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깊이 확신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록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치였다.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시였으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은 오직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면서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왔다.

원쑤들의 그 어떤 분렬파괴책동도, 우리앞을 막아나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결코 깨뜨릴수 없었으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은 조금도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이루어

지고 온갖 풍랑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 세련되고 강철같이 다지진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마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고난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안팎의 원쑤들이 준동하고 모든것이 모자랐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대고조의 혁명적폭풍을 일으켜 천리마진군의 새 력사를 펼칠수 있었으며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통일단결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며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간의 참다운 사랑으로 결합된 진정한 통일단결이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다 이겨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철통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굳건히 다져나가는 여기에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위대한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 우리앞에 보다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는 지금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이 제시한 전투적구호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혁명의 사령부를 견결히 사수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어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우더 필승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통일단결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온 세상에 자랑떨쳐야 할것이다.

주체사상과 군중로선

리 성 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함께 그것을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대중지도원칙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옳바른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을 내세워야만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아무리 옳바른 지도사상이 제시된다 하여도 그것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대중지도원칙과 령도예술이 안받침되지 못한다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함께 옳바른 대중지도원칙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군중로선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며 당활동의 모든 원칙과 당의 로선, 정책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이다.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인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은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4폐지)

주체사상이 군중로선의 기초라고 하는것은 군중로선이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왔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대중령도원칙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군중로선의 원리적기초를 이룬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 자연과 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기때문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에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떠나서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리고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자체로 수행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창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손으로 수행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들이 흘러나온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또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는만큼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발휘하는 힘은 그들이 계급적으로 단합되고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조직화될 때 높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에서 관철하여야 할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들이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은 군중로선의 원리적기초로 될뿐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사상관점을 확립함으로써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할수 있게 한다.

대중령도에서 어떤 원칙을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대중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는 관점,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그 힘에 확고히 의거하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는 관점, 자기 나라 혁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군중로선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게 한다.

자기 나라 혁명을 사고의 중심에 놓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문제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해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광범한 군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옳게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군중로선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불멸의 주체사상은 군중로선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군중로선의 사상리론적기초를 이룬다면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를 이룬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데 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지향하는 가장 인민적인 사상이며 그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철두철미 인민적인 숭고한 사명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온갖 구속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성을 지닌 주체사상을 구현하려면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삼고 대중의 힘에 적극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63페지)

군중로선은 인민의 리익과 그의 권리를 옹호하는것을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로 삼으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원칙이다. 군중로선은 인민대중을 무한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충실성, 인민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위업,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때문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47페지)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근로인민대중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군중로선은 바로 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대중지도원칙이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군중로선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은 특히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위력한 령도예술을 가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령도예술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방법과 묘술, 수완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져야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군중로선은 무엇보다도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지도방법을 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건설사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5페지)

대중운동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접수하고 일떠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일대 혁명운동이며 전당, 전국, 전민이 발동되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전진운동이다. 특히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상개조사업과 경제와 문화 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운동이다.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고 수령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게 하는 대중적진군운동이다.

그렇기때문에 대중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군중로선을 대중령도에 구현한 방법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지도방법으로, 탁월한 령도예술로 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킬뿐아니라 혁명발전과 더불어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필수적조건을 이룬다.

대중운동이 심화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혁명적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그들의 지향과 요구 그리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운동의 목표와 과업, 형태와 발전단계를 옳게 규정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중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오직 당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러일으키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그 심화발전된 형태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바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군중로선은 대중운동의 조직지도방법뿐아니라 일군들에게 혁명적사업방법을 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

혁명적사업방법은 일군들이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활동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중령도원칙인 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방법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

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청산리방법은 바로 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그 훌륭한 전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98페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들에는 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청산리방법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것이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라면 군중로선은 대중령도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대중지도원칙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령도원칙이다.

군중로선은 무엇보다도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세우고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령도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과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여나가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3페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의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을 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는 사업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이고 대중자신에게 접수되여야 하는만큼 어디까지나 대중의 요구와 지향이 반영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각오정도, 준비정도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지침이므로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푸는 방도를 밝혀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수립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은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실현될수 있다.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대중의 요구와 지향, 각오정도를 알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도 찾을수 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광범한 대중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하고 체계화한다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인민성과 과학성, 혁명성을 보장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군중로선에 의거하지 않고 로선과 정책을 세운다면 필연적으로 주관주의를 범하고 좌우경적편향을 면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

과 리탈되여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군중로선에 의거하여 세운 로선과 정책만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과 지향에 맞으며 생활이 제기한 성숙된 문제의 옳바른 해결방도를 밝혀주는 참으로 인민적이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비결도 주체사상을 구현한 대중지도원칙,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 있다.

아무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현될수 없다. 군중과 리탈하고 군중을 동원할줄 모르는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속에서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여기에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세우고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군중로선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쥐기전이건 쥔 다음이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또한 그것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뚫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 간고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에서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면 적들과의 대결에서나 경제문화건설에서나 승리할수 있으며 군중을 쟁취하지 못하면 승리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령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일관하게 군중로선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집권당의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당이 정권을 쥐면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기때문이다.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의 경우에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할 임무가 나서는것과 관련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이 있는 조건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돌려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질수 있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독창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군중로선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

의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또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어렵고 복잡한 모든 혁명과업들을 대중적운동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조그마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당과 국가 사업의 모든 분야에 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의 밑바닥에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군중로선이 놓여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군중로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적령도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특히 새로운 력사적시대인 주체시대에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령도원칙의 창시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에 관한 사상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주체의 령도리론이 새롭게 개척되고 체계화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혁명적세계관과 혁명리론뿐아니라 대중령도방법까지도 밝혀주는 혁명사상으로 완성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 위대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혁명의 기본

리 성 린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 속에서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숭고한 모범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으며 온 나라에는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차넘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 혁명적풍모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온 우리 당의 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　　　*

사상혁명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낡은 유물을 쓸어버리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사상의식령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사상정신분야에서 자본주의사상과 그 잔재를 쓸어버리고 근로자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의 과업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을 청산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물론 사상의식이 물질적생활조건의 영향을 받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물질적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혁명적으로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잔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특히 그것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더 빨리 전진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낡고 뒤떨어진 자본주의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사상의식령역에서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만일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낡은 사상의 영향이 커지고 혁명의식이 마비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더우기 현시기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

가 계속되며 아직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낡은 유물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위업을 더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없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페지)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들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그들의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은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반드시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도록 함으로써 그들모두를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모든 문제를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람들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기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자각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중요한 요구를 밝혀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질수 있게 하며 참다운 사회적인간이 지녀야 할 고상한 공산주의적인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닐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성과 창조성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엇에도 구애되거나 예속되지 않으려는 확고한 지향과 의지를 가질수 있게 하며 남에 대한 의존심과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언제나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줄 아는 인간으로 되게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남의 풍에 노는 사람은 결국 머저리가 되고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되고만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다. 주체사상에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와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체득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사람들이 그 어떤 낡은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혁명가로 준비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그 어떤 오가잡탕의 반동적인 사상에도 물들지 않고 오직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모두를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참된 붉은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페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수행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본분으로 하는 새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투쟁의 목적, 모든 영예와 행복, 기쁨과 희망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 의지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기본품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떠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 때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할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을수 있으며 그 어떠한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

하고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해나가는 혁명가적기풍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높이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사상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다음으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8페지)

사상혁명을 진행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빨리 추진시켜나가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의 모든 운동과 자연개조사업은 모두가 다 인간활동을 통하여 진행되며 세상의 모든 훌륭하고 귀중한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다.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성은 그들이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질 때 높이 발양된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한한 열정과 지혜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킨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될 때 불패의 힘이 나오게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시키는 튼튼한 기초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대표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 어떤 사소한 경향과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로동계급의 사상이다.

뿐만아니라 주체사상은 자주성의 시대를 반영하여나온 과학적인 사상이며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종시키는 인민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안일과 해이를 모르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요구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가장 빨리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저한 계급적성격과 인민성, 위대성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로 굳게 통일단결되게 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치자면 또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사고와 혁명실천을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나가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조건에서 자기나라의 혁명에 충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의 합법칙성에도 전적으로 맞는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가질것을 요구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창조성을 혁명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규정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립장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규정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승리의 결정적힘을 언제나 주체적요인, 내적요인의 역할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모든 사고와 혁명실천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해나가는 관점을 가질수 있으며 언제나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

* *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주체사상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리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 잘 준비시키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

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투쟁의 근본리치와 합법칙성으로 교양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을 잘하는곳에서 참된 공산주의자가 나오고 착실한 살림군, 진정한 애국자가 나오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초, 기본요구를 비롯한 주체사상의 제반 원리들을 깊이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혁명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투지와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혁명위업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나가야만 승리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1페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빛나는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주체사상교양의 귀중한 혁명적교과서이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략과 전술, 투쟁의 방법론이 다 밝혀져있으며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풍부한 경험과 업적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언제나 드높은 열정과 강의한 의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과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비로동계급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우리 내부에서 싹트거나 밖으로부터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은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며 혁명과 건설을 잘하기 위한 혁명적변혁의 위력한 무기이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위대한 사상개조사업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떨어져 진행될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생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가지고 교양하는 사업을 잘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이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주체사상교양을 실천과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한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그들의 모범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녀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답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실제적인 사업성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하며 당면하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워나가는것은 우리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남 학 수

지금 온 나라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영광스러운 당대회를 맞는 우리 당 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부단히 개선완성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일군들속에서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여야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특히 대중속에서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야 한다.

*　　　*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5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대중령도방법,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으며 정치사상적통일단결에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문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울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은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이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우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갈수도 없으며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할수도 없게

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나중에는 당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한다.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워야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신뢰를 날로 높이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을수 있으며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부단히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61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의 근본목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려는데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군중에 의하여 집행되고 관철된다. 근로대중은 당정책관철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따라서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게 된다.

군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은 일군들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또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워야만 일군들이 직접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렇듯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이 더욱 높아지고 조직관념이 서갈수록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6페지)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년, 그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오는 이 장엄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장성강화되여왔다. 오늘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비할바없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밑에 우리 혁명위업 수행에서는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는 행정에서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그 어떤 풍파도 뚫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면 질수록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만일 일군들속에서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전횡이 나올수 있고 세도를 쓰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도 발양시킬수 없다.

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당을 더욱 신뢰하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업방법은 원래 객관적현실이 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며 혁명적실천활동이 심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사업방법은 발전하는 현실과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때에만 참으로 혁명적이고 적극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일군들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일해나가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힘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심화발전하는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 *

간부들과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

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64페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상과 관점,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어떻게 가지며 사회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고찰하는가에 따라 그들속에서 각이한 사업태도와 사업방법이 나오게 된다.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주체적립장에서 고찰하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이 나오게 되며 반대로 군중을 무시하며 사회현상을 관념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관점, 립장과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상관점과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관점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태도, 방법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내용, 기본요구로 하고있는 사상이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완전무결하게 구현되여있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또한 주체사상은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인식과 개조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때에만 혁명적인 군중관점, 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질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은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업 방법과 작풍의 최고전형이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에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한 공산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의 모든 내용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그것은 오랜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위대성이 빛나게 확증되였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 령도예술, 령도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몽땅 받아안을 때에라야만 일군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대중지도를 가장 원만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령도방법과 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일군

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방도로 된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65페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그것이 낡은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에 근원을 두고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는 과정은 곧 새로운 사업 방법과 작풍을 옳게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이며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정이다.

우리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선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관료주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충복인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는 당과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며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는 근원은 의연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관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용화묵과함이 없이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거충다짐이나 하며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일을 주인답게 하지 않는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고용자적근성으로부터 나오는 낡은 사업태도이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이 아니다. 일군들은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직업적인 혁명가들인것만큼 누가 보건말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려면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 일군들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깊이 연구하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방법론을 세운 다음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실은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떠밀어주는데서뿐아니라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숨은 영웅들처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및 국가기관 지도일군들의 정치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이는 문제는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74페지)

대중의 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소유하여야만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더라도 당적수양이 부족하고 실무능력이 어리면 소심성과 기성경험에 매달리게 되며 명령과 지시로 사업을 대치하게 된다.

일군들속에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남아있고 그것이 좀처럼 뿌리뽑아지지 않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정치실무수준이 낮은데 있다.

우리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자신의 능력과 수준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자질이 높을뿐아니라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군중이 진실로 따르고 존경하는 참된 일군이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며 당과 혁명,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로동을 사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온갖 낡은 도덕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뿌리빼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생활을 더욱 건전하게 꾸려나가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의 임무는 참으로 무거우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일군들은 당적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오늘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조직자, 전위투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

최 동 석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다.

우리 혁명이 매우 빨리 전진하고 우리앞에 더욱 무겁고 보람찬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자신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당원들이 자신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성을 단련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59페지)

당성, 이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은 당원들,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력사적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당원은 당과 운명을 같이할것을 맹세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이다. 그러므로 당원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며 혁명가의 고귀한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당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성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다.

당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수령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려는 숭고한 계급적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정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가는 혁명가의 강의한 품성이다.

당성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숨쉬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혁명적신념, 확고한 세계관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높은 원칙성과 전투성, 혁명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당성을 단련하는 과정은 곧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과정으로 된다. 당원들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언제나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당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세계관이 투철하고 투쟁력이 강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성은 또한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이며 높은 로동계급적자각이다. 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신과 자각성은 바로 높은 계급적자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적 및 조직적 부대이다. 당의 리익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바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당의 리익과 로동계급의 리익은 일치한다. 따라서 당에 대한 충실성, 높은 당성은 동시에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발현으로 된다.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의 최고표현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당성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수령의 령도를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거기에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근본리익, 그들의 조직적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원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당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에 대한 충실성,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당에 충실하고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원인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성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이며 그것은 곧 고상한 당성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시대와 혁명의 요구,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으시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 주체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지난날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

리 조국은 오늘 자주, 자립, 자위로 이름떨치는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온 세상에 그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은 이처럼 오랜 기간 험난한 투쟁속에서 심장속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세여진것이며 실생활과 귀중한 체험을 통하여 신념화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그것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신념이며 억년 드놀지 않는 혁명적의지이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당의 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당원으로서의 영예도 빛내일수 없고 혁명가의 본분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이처럼 높은 당성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결코 분리될수 없으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되는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떠나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당성이 높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이며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예술영화《조행길》의 주인공의 형상과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통하여 똑똑히 보게 된다.

특히 예술영화《조행길》의 주인공은 자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높은 당성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준다.

그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혁명가이다. 당과 혁명의 리익에 끝없이 충실한 주인공의 높은 당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현해나가는 그의 고결한 충성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더 잘 받들고 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겠는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며 굴함없이 싸워나간다.

우리는 주인공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숭고한 충성심에서 그가 얼마나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높은 당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인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공산주의혁명가의 당성은 이와 함께 높은 조직관념에서 표현된다.

조직관념은 자기 당조직을 끝없이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이 주는 혁명임무를 불과 물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당원의 견결한 립장과 관점이다.

당원들이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끝없이 빛내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값있게 살며 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한다. 당조직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혁명가의 보람과 영예를 빛내일수 없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높은 당성을 지닌 혁명가는 언제나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당조직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철저히 당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

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제때에 끝까지 완수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 투쟁한다.

당성이 강한 당원은 당조직을 자기의 정치적생명의 참다운 보호자로,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며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은 특히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당원들의 당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혁명정신, 혁명적기풍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우리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결정지시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당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당원의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당원들의 높은 당성의 발현이며 그들이 지닌 숭고한 당적의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과 혁명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전진하게 된다. 당원들이 얼마나 높은 당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에 충실한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하는가 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전통적인 기풍이다.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하여왔으며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지난날 그처럼 뒤떨어졌던 우리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의 한길을 따라 그처럼 멀리 달려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힘있게 관철하여왔기때문이다.

당원들의 당성은 이와 함께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온갖 부정적현상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철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위하기 위하여 늘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

선집》 제2권, 제2판, 267폐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될 때에만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으며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향도적력량인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의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당원의 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당원들은 당의 리익을 침해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당의 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킴으로써만 당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 *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의 당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그리하여 당원들의 당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교양사업이 심화되고 당생활이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고있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은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본분으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게 할수 있다.

당원들의 높은 당성은 스스로 단련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을 통하여 그리고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된다.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당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일군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그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끊임

없이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울수 있고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갈수 있다.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과 규률성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 당성이 강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이러한 강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자신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은 모든 사업과 생활, 일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며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은 곧 자신을 혁명화하며 당성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당원들과 일군들은 당조직의 결정과 맡겨진 위임분공을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어김없이 제때에 집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69페지)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제때에 일깨워주어 누구나 다 당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모든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기마련이다. 당원들의 당생활과정에서도 긍정적인것이 있는 반면에 부족점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생활에서는 긍정적인것을 끊임없이 살리면서 부족점을 제때에 고쳐나가야 한다.

당원들은 매일 세수하는것과 같이 항상 솔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며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야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뿌리뽑고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갈수 있다.

비판은 결함을 범한 당원의 과오를 고쳐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원칙적이면서도 동지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은 다 낡은 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있으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비판은 예리하여야 한다. 당원들 특히 일군들속에서 진행되는 비판은 칼로 두부모를 짜르듯이 맵짜고 예리하여야 한다. 그래야 결함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빨리 고쳐나갈수 있다.

비판을 원칙적으로 날카롭게 한다고해서 누구를 몰아주거나 내리누르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결함을 고치고 동지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적실천이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적으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사업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거창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될 때만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혁명가의 강의한 의지를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생산실천과 떨어져있는 일군들은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속에 들어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심장으로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고유한 전투성,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따라배워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결코 자만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대회진으로 올해계획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는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벅찬 전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드높은 혁명적 기백과 열정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다가오는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

조 성 모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굽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집단주의, 이것은 로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공산주의사상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당과 혁명과 인민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은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정신을 확고히 지닐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에게서 떼여낼수 없는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공산주의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전사회적위업에 몸바쳐나선 혁명투사이다. 로동계급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떠나서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한생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위업수행에 고스란히 바칠것을 결심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것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 집단과 사회의 리익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이며 그 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지닐수 없다.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고 본분을 다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적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며 혁명적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8페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람들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은 로동계급적관점이 신념화된것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혁명적의지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움이 없이는 사람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없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질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정신을 가질 때라야 사람들은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리익을 끝까지 고수하는 혁명적 절개, 백절불굴의 투지, 비록 자기 세대에는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공산주의적신념과 의지를 견지할수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며 집단과 사회의 리익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킬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질수 없고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려면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한 혁명가에게 있어서는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결심이 단순한 사상관점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때문에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혁명가들만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고 그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게 되는것이다.

혁명투쟁의 오랜 경험은 조직과 집단,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혁명투쟁에 나설수 없으며 설사 나선다고 해도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며 공산주의운동력사가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는것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한 제일생명이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정치적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 혁명하는 사람의 더없는 삶의 보람과 가치, 크나큰 영예와 행복은 바로 정치적생명을 지닌데 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그처럼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함으로써만 간직되고 빛내여나갈수 있는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은 자연적생명, 개인적생명으로서 혈연적뉴대와 련결되여있는것이지만 정치적생명은 사회적생명, 집단적생명으로서 계급적 및 전사회적 뉴대와 련결되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생명은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 사회정치활동을 통해서만 간직되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 때 정치적생명을 자기의 가장 고귀한 생명으로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위업, 혁명투쟁을 외면하고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적생명을 간직할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고만다. 이것은 결국 나라와 근로대중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자신의 리익

을 내세우는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썩어빠진 착취계급의 생활방식이며 활동방식이다.

오직 개인의 리익과 안락도, 자기의 생명도 모두 전사회적위업,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질곡을 청산하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서슴없이 바치는 여기에 사람들이 혁명가로서 값있게 사는 길, 사회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하기에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전사회적리익,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리익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것이며 자기의 개인적, 육체적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여 싸우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정신이며 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그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79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적단결에 기초한 집단의 투쟁위업이다. 그런것만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하나로 통일단결된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단결의 힘, 조직된 힘을 통해서만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위력한 무기인 혁명적단결은 그들사이의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 다시말하여 사상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부른다. 동지라는 말은 혁명가들사이에 불리우는 더없이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표시이다. 따라서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결합된 혁명가들의 단결이라야 참다운 혁명적단결로 될수 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력사적과정이 확증해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쟁과 해방후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도,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재더미우에서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움으로써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집단주의정신을 지니는것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누구든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주의정신을 자기의 고유한 풍모로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 *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현되고 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몸바치려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생활신조이며 활동방식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집

단주의정신을 지닌것으로 하여 혁명가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혁명적인민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실다하는것은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정신의 높이와 그 위력을 규정짓는 기본요인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이 내놓는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곧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헌신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이며 바로 여기에 집단주의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추호도 어길수 없는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하는 그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싸워온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우리 인민이 지닌 충성심의 가장 뚜렷한 시위로 된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최대의 의무로 여기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며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

숨은 영웅들의 그 숭고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그대로 옮겨져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싸워나갈 굳은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나깨나 오직 하나의 생각,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는가 하는 불타는 일념으로 일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이것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깊이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그처럼 견결히 싸워나가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양되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은 또한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는데서 과시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9페지)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집단주의정신의 중요한 요구이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정신을 떠나서 집단주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집단주의를 자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로 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특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집단이 집단을 돕고 온 집단이 힘을 합쳐 생산과 건설에

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들과 인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려는 한마음으로 온 집단이 떨쳐나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고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정주기관차대 기관사들은 교대가 교대를 돕고 집단적으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송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또한 평안남도 문덕군안의 농장원들은 분조가 분조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는 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950만톤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으며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기전에 집단의 명예를 생각하고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서로 돕고 이끌며 충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여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집단주의적소행들은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에 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혁명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중요한 집단주의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혁명동지를 위하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평양시 런전구역병원 의료집단이 사경에 처한 혁명전우를 위해 바친 아름다운 소행, 어머니 잃은 아이들을 자진하여 맡아 온갖 정성을 다 바쳐 훌륭히 키워낸 천진제강소 탁아소 보육원집단의 소행은 혁명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우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이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날마다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언제나 혁명적정열과 랑만으로 들끓고 생기에 넘치고있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집단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나는 아름다운 락원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더 높은 승리봉을 향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고상한 집단주의적미풍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다.

*　　　*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집단주의정신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여기에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혁명가로서의 삶을 빛내이는 참다운 길이 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6페지)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착취사회의 유물로서 집단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그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만 잘먹고 잘살려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며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리기주의사상이 커지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리기주의의 조그마한 표현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초를 두고있다.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자기 집단을 사랑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집단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비할바없이 크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크다는것을 깨닫게 될 때 집단을 믿고 집단에 의거하여 생활하게 되며 집단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집단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집단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해낼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걸음마다 승리해온 자랑찬 로정에 대하여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모두를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준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의 본질과 우월성

윤 기 정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재정관리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원칙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가장 정당한 재정관리원칙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재정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의 본질과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재정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 *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 재정관리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있으며 집단적으로 일하면서 생활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별적인 부문들과 단위들에서의 생산성과가 곧 그와 련관된 부문들과 생산단위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다같이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인민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중앙집권적원칙에서 경제를 지도관리할것을 필연적인 요구로 제기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고도로 조직화되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되면 경제의 규모가 늘어나고 나라의 생산잠재력이 대단히 커진다. 또한 인민경제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타산해야 할 요인들도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짜고들수 없게 되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생산잠재력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소비적련계가 복

잡혀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빈틈없이 맞물려 경제관리를 계속 합리화해나갈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더 큰 은을 낼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관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재정공간의 리용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의 과도적특성으로 하여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며 국가적, 전인민적소유의 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들이 상품적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생산물의 류통은 자금운동을 동반하게 된다.

자금운동은 생산요소들의 움직임을 반영하므로 재정 수입과 지출을 옳게 틀어쥐고나갈 때 생산과 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재정공간을 리용하여 자금운동을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여 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마련하고 경제, 문화 건설과 인민생활 등 여러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그것이 정확히 리용되도록 통제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재정이 이러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려면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 가정에서도 세간살이를 바로 꾸려나가자면 돈을 한사람이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것처럼 나라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돈을 유일적으로 써야 한다. 인민의 소유인 국가재정을 이사람저사람 제가끔 마음대로 낭탕 쓴다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국가를 바로 운영해나갈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에서 규정한외에 돈을 더 쓰는것이나 규정에 어긋나게 돈을 지출하는것은 다 국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예산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국가의 법인것만큼 누구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3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을 국가의 법으로 정하고 법에 규정된대로만 국가자금을 지출하며 그 누구도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철저히 일원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재정관리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최고주권기관에서 토의되고 국가의 법으로 선포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이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 법령으로 채택되며 그 집행에 대한 결산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 국가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재정은 법령에 규정된대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법을 어기고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반드시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들과 재정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규범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재정관리 사상과 방침을 구현하고있다. 따라서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의 법규범대로 재정을 관리하며 법에 규정된대로만 국가재정을 쓰는것은 곧 재정분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는것으로 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국가예산뿐아니라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재정체계의 다른 고리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민경제부문재정계획이나 공장, 기업소 재정계획, 지방예산이나 예산제기관의 경비예산은 다 국가예산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부문재정계획이나 공장, 기업소의 재정계획, 지방예산이나 예산제기관의 경비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동시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고치거나 그에 어긋나게 국가의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사회주의재정관리의 특성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리윤도 개별적자본가들의 소유물로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전사회적규모에서 재정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상상할수도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돈으로 국가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재정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자본가들과 지주들은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얻어낸 리윤뿐아니라 국가예산자금도 제놈들의 치부와 향락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정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국가예산은 진적으로 인민을 위한 사업에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유일적으로 관리하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재정관리의 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의 관철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한다.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이미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국가납부의무를 지닌 모든 단위들에서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성된 자금을 제때에 중앙집중적으로 동원하여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하며 동원된 자금을 철저히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국가의 법에 규정된대로만 공급하게 한다. 그리하여 자금이 필요없이 쌓이거나 류용, 랑비되는 현상을 없애고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재정관리의 이 원칙은 또한 경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데서도 큰 우월성을 나타낸다.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계획을 바로세우고 경제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만을 공급하며 그것도 계획수행정도에 따라 공급하므로 공장, 기업소들로 하여금 생산의 제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다지면서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이

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이 경험주의와 주먹구구식 사업태도를 배격하고 늘 아래에 내려가 자재와 로력, 설비의 보장상태와 리용정형을 따지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생산에 앞서 경제기술적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어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며 경영활동을 과학화해나가도록 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재정자원의 조성과 리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나라의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 재정관리에서의 이러한 원칙적요구는 그자체가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법질서대로 재정을 관리하도록 통제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은 자기 기관이나 자기 지방의 협소한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집단의 리익, 전사회적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하게 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특히 재정관리에서 《자유화》, 《분권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양식이 발을 붙이거나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없애며 온갖 위법행위들이 나타날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전취물을 공동으로 보위하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민주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그 우월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민주주의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사회주의재정관리에서의 민주주의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킬뿐아니라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하고 독립채산제와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그리하여 재정관리사업자체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모두다 재정관리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함으로써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하며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이야말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재정관리의 지도적지침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 *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는 규모가 대단히 커진 조건에서도 매우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전례없이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첫 2년간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한데 이어 지금은 세번째해과업을 당 제6차대회전으로 완수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도 비할바없이 커져 최근 10년동안에만도 국가예산수입은 해마다 평균 13%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국가예산규모는 3.4배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의 재정은 1949년 한해동안의 예산

수입을 단 5일동안에 보장하고있다.

경제와 재정의 이와 같은 급속한 장성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재정관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빨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는것과 함께 이미 조성된 재정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재정관리원칙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를 세워 재정을 관리하여야만 그것이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5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재정관리 사상과 방침에는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의 본질과 우월성,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필요성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재정관리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재정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며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법규범에 기초하여 재정을 정확히 관리하며 법을 어기고 귀중한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것과 같은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재정통제와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통제와 재정규률을 강화한다는것은 곧 국가의 법규범대로 나라의 재정을 관리운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정통제와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재정을 유일적으로 철저히 관리해나가는것으로 된다.

재정통제와 재정규률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소유인 사회주의재정을 공동으로 보위하고 혁명과 건설, 인민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도 관철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현시기 재정통제와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한푼의 자금이라도 극력 아껴서 국가의 법규범에 맞게 효과있게 써야 한다. 또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재정관리원칙과 재정규률을 어기고 국가자금을 망탕쓰거나 국가재정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규률을 강화하여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재정총화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재정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지어야 재정예산집행에 대한 대중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수 있으며 온갖 랑비현상과 그 요소들을 없애고 재정규률을 엄격히 세울수 있다.

모든 국가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는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잘하여 돈을 번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이며 국가에 리익을 준것은 얼마이라는것을 제때에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그것을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대중에게 의거하여 재정규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합리화해나갈수 있으며 대중의 힘을 발동시켜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더 잘 관철할수 있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재정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계산과 통계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계산업무를 적극 기계화하는것이다.

계산업무를 적극 기계화하면 계산의 시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산 및 통계 사업을 개선할수 있으며 필요한 로력도 절약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계산업무의 기계화를 다그쳐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에 대한 경제계산과 통계, 재정에 대한 부기계산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예산을 옳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은행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똑똑히 하여야 합니다.

재정은행기관들이 예산총화나 짓고 바란스나 맞추는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재정은행기관들은 마땅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이 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국가자금을 바로 쓰도록 끊임없이 통제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90페지)

사회주의재정을 관리하는 직접적담당자는 재정은행기관들이며 재정은행부문일군들이다. 재정은행기관들과 재정은행부문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재정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 때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은 철저히 관철된다.

모든 재정은행일군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부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신부터 재정관리원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며 법에 규정된대로만 국가자금을 내주며 나라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정관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늘 살피고 통제하며 재정규률을 위반하고 국가자금을 랑비할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재정관리원칙을 관철하는것은 나라의 재정토대를 굳건히 다져 우리자체의 재정자원으로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재정관리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기업관리에서 경제적공간의 합리적리용

리 근 환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데 마땅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43페지)

경제적공간은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 경제적수단이다.

경제적공간으로 리용되는것은 일정한 경제적관계를 반영하고있는 경제범주들이다. 경제범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관계 그자체라면 경제적공간은 사람들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리용되는 경제적관계이다. 가격이라는 같은 경제적관계를 놓고 가격범주와 가격공간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경제적공간으로 리용되는 경제적관계들은 경제법칙들의 작용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바로 경제적공간을 통하여 경제법칙들을 리용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간다.

물론 기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관리의 합리화는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바로하고 기준화사업을 개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기술경제적조직사업과 관련된것이며 그자체는 경제적공간의 리용으로 되지 않는다. 경제적공간은 경제법칙을 리용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사회에만 고유한 여러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며 상품화페관계가 남아있으므로 가치법칙도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는것만큼 그에 상응하게 계획화, 자재공급, 생활비, 원가, 리윤, 가격, 독립채산제 등과 같은 경제범주들이 있게 되며 그것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 특히는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경제적수단으로 리용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보다 짜고들기 위하여서는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경영활동의 어느 한 측면을 개선하는데서뿐아니라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전반을 더욱 개선하여나가도록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결부하여 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영활동이 철저히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업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현상들과 생산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 경제현상과 생산결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여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리용되는것이 바로 경제적공간이다.

이것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면 경영활동에서 나타난 긍정적인것은 적극 살리고 경영손실을 냈거나 잘못된것은 바로잡도록 자극하고 통제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제적공간은 개별적으로는 기업관리전반을 개선해나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지 못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밀접히 련결되여 작용한다. 또한 매개 경제적공간들도 경영활동의 일정한 측면의 경제적관계들을 반영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므로 어느 한 경제적공간만으로는 기업관리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정확히 밝혀낼수 없다.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다같이 충족시키고 기업관리전반을 개선해나가자면 반드시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결부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재공급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계획화사업을 짜고들고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되는 경제적공간들, 자재공급에서의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야 하는것이다.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결합하여 리용할 때 생산을 자극하고 지출을 통제하여 경제관리, 기업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생산자들의 창조적적극성도 더욱 높일수 있다.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부문들과 재생산의 고리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밀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는데서 타산해야 할 경제적요인들이 많아지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자극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어야 할 요구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경제적공간이 노는 역할에 맞게 그것들을 서로 결부시켜 리용하여야 대규모사회주의공업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더욱 짜고들수 있으며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개선할수 있다.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튼튼해지는 나라의 경제적밑천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계속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경제적공간의 합리적리용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있는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적공간들을 서로 결부시켜 리용하는 여기에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위력한 경제토대가 그 은을 충분히 내게 하여야 하며 사회적로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적공간의 리용을 홀시하거나 개별적인 경제적공간의 리용에만 치중하면 기업관리의 전반을 합리화해나갈수 없으며 국가계획을 구체적인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없게 된다.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도적인것과 보조적인것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것들을 배합하여 리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견지하여야 경영활동의 전과정에서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실현의 도구로서의 경제적공간의 사명을 다하게 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을 반영하고있는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경제는 자연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움직이지만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타산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균형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이르는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과 생산요소들이 계획화나 자재공급과 같은 일련의 경제적공간들을 통하여 타산되고 리용된다. 그러므로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는데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경제적공간들이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데 철저히 복무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제적공간들은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과도기에는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고 하여도 안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가치법칙의 의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서 가치법칙을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5페지)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경제법칙이며 따라서 그것은 상품생산이 지배할 때 전면적으로 작용한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진행되고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는만큼 가치법칙이 일정하게 작용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리용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치법칙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지 않으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올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절약하여 원가를 낮추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한다. 가치법칙은 특히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작용에 복종하면서 계획화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족점을 고치고 작성된 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가치법칙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을 계획적으로 잘 리용하여야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제품의 질도 더 높이게 자극할수 있다.

오늘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있는 자재, 있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계획화와 자재공급, 자금 공간들을 밀접히 결합시켜 타산을 잘하는것이다.

원료와 자재는 생산의 중요요소이다.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면 원료와 자재가 잘 보장되여야 하며 그것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여야 한다.

원료와 자재는 자재공급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재공급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한 경제범주이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리용되는 경제적공간이다. 자재공급의 중

요한 특징은 국영기업소에 대한 생산수단의 공급이 철저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계획적공급을 통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와 균형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생산발전을 적극 추동한다는데 있다.

자재공급은 또한 상업적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통제적기능도 수행한다.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에서 상업적형태는 국가가 정한 값에 따라 팔고사는 형식을 취하여 해당기업소에 류동자금이 있는 조건에서만 자재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서 자재와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을 주고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없는 자재와 필요이상의 자재를 가지고있거나 미성품과 반제품을 지나치게 보유하며 완제품을 오래동안 가지고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자재공급부문에서는 비록 계획에 맞물려있는 자재라 하더라도 철저히 류동자금이 마련된 조건에서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내리공급함으로써 원료와 자재를 계획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을 주고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생산수단만을 가지고 생산을 짜고들게 할수 있으며 랑비현상을 막고 자금리용의 효과성도 높이게 할수 있다.

자재공급과 자금 공간을 밀접히 결합시켜 원료와 자재,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공장, 기업소 일군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현물지표별 계획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원료와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반드시 필요한 량만큼 자재공급계획과 자재수공급계약에 맞물려야 하며 공급받은 생산수단으로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계획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생산 및 류통 분야에 류동자금이 잠겨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원료와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도록 해야 하며 물자운동과 자금운동을 다같이 빨리 하고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내도록 해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또한 생산을 늘이고 채산을 맞추도록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잘 결합시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생산이 선차적이라고 하여 채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56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활동의 주되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산을 더 많이 내는데 있다. 그러나 생산을 더 많이 내는것이 경영활동의 주되는 목적이라고 하여 채산을 맞추지 않고 무턱대고 생산만 늘이면 되는것이 아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조직하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며 결국은 전체 인민의 복리향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을 늘이면서도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고 국가축적을 늘여야 하며 독립채산제단위마다에서 채산을 잘 맞추어야 한다.

채산을 잘 맞추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을 늘이고 원가를 낮추며 비경제적인 지출을 극력 없애는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늘이면 총생산고가 높아지면서도 제품단위당 원가는 낮아지게 되며 생활비자금과 국가축적의 원천은 빨리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적은 지출로 많은 생산을 내는 경우에는 총생산고와 원가, 국가기업리익금, 생활비자금과 류동자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표시되게 되며 기업소의 재정상태도 좋아진다. 그러나

총생산고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로력과 생산수단을 계획이나 기준보다 초과하여 쓰거나 랑비하면 원가는 도리여 높아지고 국가축적은 줄어들며 류동자금의 부족으로 재정상태를 긴장시킴으로써 경영활동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것은 총생산고의 수행에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원가, 리윤, 류동자금, 국가기업리익금 등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생산을 늘이면서도 채산을 정확히 맞추어야 경영활동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채산을 잘 맞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원가계획을 정확히 수행하는것이다.

원가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질적지표이며 사회적로동의 지출을 조절통제하는데서 중요하게 리용되는 경제적공간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리용률을 높이지 못하고 로력을 랑비하며 물자소비기준과 관리비를 초과할 때에는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가계획은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가를 구성하는 단위제품당 로력비, 자재비, 고정재산상환비 등 비용을 극력 낮추어야 하며 품종지표, 등급별 지표를 비롯한 여러 지표와 련결시켜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기업관리전반사업을 개선하는데 원가공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생산도 늘이고 채산도 맞추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국가계획을 구체적인 지표별로 정확히 수행할수 있다.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로동정량과 로동보수공간들을 잘 결부시킴으로써 로동자들이 로동정량을 높이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정량을 높이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더 높일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18페지)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은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과 함께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경제적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된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여야 국가축적과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수입원천도 많아지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이 또한 끊임없이 올라간다. 따라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나 경제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1만 5,000원이상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고있다.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본생산부문의 로력, 그가운데서도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기술혁신을 다그쳐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배치한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적은 로동지출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도 더욱 높일수 있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들이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으면 그만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바로 실시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높아진 로동정량을 수행하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동시에 높여주어야 한다.

로동정량은 일정한 단위시간에 수행해야 할 작업기준량이며 그것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목적은 생산을 더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에 대한 분배를 옳게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데 있다. 로동정량을 높이 정하고 그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올려주어야 근로자들자신이 로동정량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혁신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생산량을 늘이고 질을 높여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로동정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높여야 하며 그에 맞게 로동보수도 올려주어야 한다.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이 일을 량적으로 많이 하게 할뿐아니라 질적으로 더 잘하도록 자극하고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평가한 조건에서만 근로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할수 있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이 수행한 로동의 량과 질을 생산계획수행정형과 자재리용정형, 제품의 질제고정형, 새기술을 받아들인 정형과 결부하여 바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소일군들은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확증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계산사업을 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재생산의 진행정, 기업관리전반을 살피면서 매개 경제적공간의 기능상 특성을 옳게 타산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높은 경제지식과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높은 경제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진 일군만이 경제적공간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풀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경제관리분야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제정책,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기업관리에서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해나감으로써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올해 국가계획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완수하며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억누를수록 반항은 커지는 법이다

서 치 렬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잔당을 쓸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극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96페지)

억누를수록 반항이 커지는것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본질적특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지닐수 없으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없다. 자주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의 자주성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주성을 짓밟는 온갖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남의 압박과 예속 밑에서 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압박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은 그 어떤 총칼의 힘으로도 결코 압살할수 없다. 억압이 가해질수록 거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이 더욱 커지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먼옛날 노예주들의 폭압을 반대하여 노예폭동을 일으킨 때로부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억압과 략탈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과정은 바로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인민대중의 반항이 더욱 세차게 일어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력사를 보아도 바로 그러하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악랄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이 일어났으며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3.1독립운동과 6.10만세투쟁, 광주학생운동,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 신흥탄광로동자들의 파업, 부라벌농민들의 투쟁 등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이 굴함없이 일어났다.

결국 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반동적인 통치계급은 인민들의 반항과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는것이다. 이것은 오랜 력사와 실천투쟁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극히 야만적인 파쑈탄압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놈들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될수록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일어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민족을 분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

든 분야를 틀어쥐고 가장 포악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을 비롯한 친미반동분자들을 그러모아가지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이다.

해방후 남조선인민들이 벌린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5.10단선반대투쟁 그리고 려수군인폭동 등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특히 1960년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이 더욱 커진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 대중적인 인민봉기였다.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터짐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온갖 전횡을 일삼아오던 리승만괴뢰도당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말았던것이다.

4월인민봉기이후 군사정변의 방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박정희괴뢰도당은 리승만통치를 훨씬 능가하는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면서 온 남녘땅을 파쑈의 도가니로 전변시키였다.

극악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체제》를 조작해놓고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으며 나라의 영구분렬을 위한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유신》파쑈독재의 폭압밑에서 남조선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린말살된 페허지대로 되었으며 인민들의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암흑천지로 전변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유신》파쑈독재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은 하늘땅에 사무쳤으며 인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불행과 고통, 무권리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유신》파쑈독재가 세워진 첫날부터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왔다.

《10월유신》이후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투쟁조건이 매우 어려워졌으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1973년의 10월투쟁과 1974년의 4.3투쟁을 비롯하여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었다. 이것은 1960년 4월인민봉기를 방불케 한 인민폭동이였다.

부산과 마산에서의 폭동은 근 20년동안이나 파쑈의 화신으로 군림하여 온갖 야수적탄압만행을 다 감행하여온 파쑈독재자 박정희역적놈의 종말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박정희놈이 죽은후 남조선인민들은 《유신》파쑈체제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전반적인 민심은 민주화에로 집중되고있었다.

그러나 《유신》잔당들은 인민들의 이와 같은 지향과 요구를 란폭하게 거역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로 나가면서 인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억눌렀다.

박정희역적놈의 품에서 파쑈광란을 체질적으로 물려받았고 첩보모략과 협잡에 이골이 난 전두환일당은 10월 26일사태이후 남조선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적혼란을 리용하여 극악한 《유신체제》를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고 악랄한 모략책동을 감행하여나섰다.

파쑈살인광 전두환놈은 음모적인 방

법으로 군부와 《중앙정보부》를 틀어쥐였으며 지난 5월 17일에는 《남침위협》과 《안보》의 구실밑에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전 독재자가 무력을 동원하여 괴뢰정권을 가로챈 5.16군사정변의 재판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억제하고 인민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저들의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전두환일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박정희통치때의 《긴급조치9호》보다 더 혹독한 《계엄포고10호》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였으며 모든 대학들이 폐쇄되고 집회와 시위, 언론 활동의 자유가 봉쇄되였다. 또한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여온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의 인사들이 체포구금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19년간의 박정희역적의 폭압시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간생지옥으로 질식당할 매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유신》잔당들의 지난 5월 17일폭거는 남조선에서 파쑈세력과 민주세력사이의 대립을 한층 더 첨예화시켰으며 파쑈적인 《유신체제》에 대하여 그처럼 환멸을 느끼고 그것을 반대하여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생적으로 싸워온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극도로 격분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유신》잔당들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남조선전역에서 높이 치솟았으며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급속히 확대되였다.

지난 5월 18일부터 광주의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온 남녘땅에 차넘치는 이와 같은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반영하여 마침내 영웅적항전에 일떠섰다. 그들은 《비상계엄령을 즉시 해제하라》, 《유신잔당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처형하라》는 등의 구호를 높이 웨치면서 대중적인 항쟁을 벌렸던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분노를 일격에 터뜨린 광주인민봉기는 억누를수록 반항이 커진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명확히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21페지)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기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광주에서 타오른 대중적항쟁은 인민들이 압제자들의 파쑈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였다.

광주인민봉기는 포악한 철권통치로 억누를 때 그에 반항하는 인민대중의 힘은 비할바없이 커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광주의 항쟁자들은 《유신》잔당의 삼엄한 《비상계엄》하에서 방대한 괴뢰군경들이 광주시를 겹겹이 포위한 조건에서도 《유신》파쑈체제를 반대하는 대규모군중집회를 련일 벌렸으며 비행기와 땅크까지 동원하여 덤벼드는 악질 《계엄군》을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봉기군중들은 놈들의 야수적인 살륙만행과 무차별적인 폭압이 가해지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기들의 투쟁기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결사대》를 무어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참으로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은 파쑈세력과의 격렬한 대결에서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파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비장한 각오밑에 희생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남기였다.

이번 광주인민봉기는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사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광주인민봉기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력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적폭동이라는데 있다.

아세아인민들의 근대력사는 봉건적압제와 식민지적폭압을 반대하는 수많은 피어린 투쟁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와 같이 그렇게 크고 격렬한 대중적인 무장항쟁은 일찌기 없었다.

평화적인 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된 광주인민봉기는 중무장한 2개 사단병력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맨주먹으로 싸우던 봉기자들은 투쟁과정에 괴뢰경찰서와 《예비군》무기고들을 습격하여 수천정의 무기와 수만발의 탄알, 여러대의 장갑차와 수백대의 각종 군용차량들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다.

봉기자들은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는것과 함께 자위적인 무장조직으로서 《시민군》과 《특별경계부대》 등을 조직하고 방대한 정규무력과 맞서 싸울 무장대오를 편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광주의 항쟁자들은 괴뢰군과의 대치선에 바리케트를 비롯한 구축물들을 쌓고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인민봉기는 전례없는 지속성과 완강성, 격렬성을 띠고 진행된 인민들의 대중적봉기이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도청》을 비롯한 괴뢰권력기관들을 점거하고 그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 자치조직으로서 《시민위원회》와 《민주투쟁위원회》 등을 내오고 온 광주시를 하나의 해방지구형태와 같이 만들었다.

이에 의거하여 봉기자들은 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한편 삐라와 지하신문까지 체계적으로 발행보급하면서 투쟁을 시주변으로 확대해나갔으며 괴뢰군의 공격과 파괴책동이 각방으로 강화된 속에서도 광주시를 10여일동안이나 완강하게 고수하였다.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은 놈들의 군사적위협과 교활한 회유기만 그리고 식량을 비롯한 경제적봉쇄가 강화되고 수천명이 죽고 1만여명이 부상을 입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놈들에게 굴하지 않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일떠서 견결하게 싸웠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참가범위와 투쟁규모에 있어서도 전례없이 큰 인민봉기이다.

광주인민봉기에는 광주시와 그 주변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인테리, 소상인, 수공업자,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였으며 지어 괴뢰기관의 《공무원》, 경찰 그리고 기업가들까지 이에 망라되였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청장년들과 전라남북도의 여러 지역 인민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처음에 5천명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광주인민봉기는 로동자들과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로인들과 부녀자들 지어 10대안팎의 어린이들까지 떨쳐나섬으로써 삽시에 10만, 20만, 30만으로 그 대렬이 급격히 확대되였다. 이것은 광주시 인구의 41%에 해당하며 1960년 4.19인민봉기때의 광주시투쟁규모보다 10배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투쟁의 지역적포괄범위를 보아도 전례없이 방대한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투쟁의 불길은 목포, 라주, 화순, 령광, 담양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대부분지역과 전라북도에까지 확대되였으며 17개의 시, 군이 봉기군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

실로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중적무장폭동이다.

그렇기때문에 외신들은 광주폭동을 《일종의 광주콤뮨형태》라고 전하였던것이다.

광주인민봉기는 또한 가혹한 파쑈폭압체제밑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자신의 투쟁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

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극악무도한 《유신》의 악정밑에서 모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 류례없이 가혹한 파쑈적횡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숨막히는 질식상태에서 살고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주인민봉기는 그처럼 혹독한 《유신체제》의 폭정밑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굿굿이 일떠서서 싸우고있으며 인민들이 결심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면 능히 파쑈잔여세력들을 꺼꾸러뜨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어마어마한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은 《비상계엄》하에서 대중적인 반《정부》폭동을 일으키고 중무장한 정규무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광주인민들의 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수 있으리만큼 투쟁정신과 계급적각성이 높아지고있으며 그 힘이 강대하여지고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

광주에서 타오른 대중적인민항쟁의 불길은 억누를수록 더 완강하게 항거해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뚜렷한 실례로 된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가 거저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유신》잔당들을 반대하는 모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거대한 투쟁잠재력과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광주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인 《유신》잔당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은 항쟁을 통하여 수백명의 괴뢰군경들을 죽이고 수백대의 군용차량들과 《도청》을 비롯한 수십개소의 괴뢰권력기관들 그리고 어용방송국을 파괴하거나 불태워버렸다.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전두환일당의 파쑈적정체는 세계의 면전에서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렇기때문에 전두환을 두목으로 하는 《유신》잔당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으며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은 광주시에서 감행한 전두환악당의 천인공노할 살륙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 《악질살인귀를 찢어죽이라》, 《전두환일당을 즉결 총살하라》고 한결같이 웨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사회계와 언론계에서도 온 광주땅을 인민들의 피바다로 만든 《유신》잔당의 류혈탄압만행을 폭로규탄하고있다. 특히 세이쉘정부는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한 《유신》잔당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남조선괴뢰들과의 외교관계를 단호히 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광주사태를 계기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남조선괴뢰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의 대외적고립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있으며 《유신》잔당들의 존망을 위협하고있다.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미제의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정책과 독재정권의 적극적인 비호자로서의 놈들의 진면모가 다시금 세계의 면전에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괴뢰들을 부추겨주는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인민탄압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의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을 인민탄압에로 내몰았으며 오늘도 역시 군사파쑈악당 전두환일당을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다.

남조선의 군사독재자 전두환일당이 지난 5월 17일 파쑈폭거를 감행하였을 때 미국당국자들은 겉으로는 《유감》이니 《우려》니 하고 말하였으나 실지로는 침략자의 본성 그대로 미군사령관의 통솔하에 있는 여러개 사단의 괴뢰군무력

을 인민탄압에 내몰도록 하였다. 지어 미국의 한 고위우두머리놈은 《무쇠주먹으로 광주의 반도들을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지껄이면서 남조선강점미군까지도 인민폭동진압에 동원할 흉계를 꾸미였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에서 빚어진 혼란상태를 《외부세력이 리용》할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를 날조하면서 남조선지역과 그 주변에 공중경보통제기와 항공모함을 긴급출동시키는 등 군사작전까지 감행하였다.

미제의 부추김과 지원 밑에 군사파쑈깡패 전두환일당은 인류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가장 잔인한 동족살륙을 감행하였으며 항쟁의 도시 광주시는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항쟁투사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모든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전두환일당을 반파쑈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광주시 인민들을 대량살륙에로 내몰고 그것을 뒤받침해준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제는 그 어떤 교활한 량면술책으로써도 류혈참극을 빚어낸 범죄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광주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남조선의 군사파쑈도당과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참으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위업에 남긴 빛나는 위훈은 불멸할것이다.

* *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이 흘린 피는 파쑈폭압자들의 야수적탄압에 의하여 비록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지향과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력사적경험은 반동통치배들의 탄압과 억압이 강화될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과 투쟁은 더욱 완강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깡패도당이 오늘은 비록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총칼로 일시 억누를수 있어도 결코 그것으로 제놈들의 잔명을 오래 유지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조만간에 제2, 제3의 광주가 되여 온 남녘땅에 더욱 세차게 타번질것이며 이 불길속에서 《유신》잔당들은 끝내 타죽고야 말것이다.

광주인민봉기의 경험은 파쑈통치에 대한 인민들의 울분과 불만이 일단 터지기만 하면 그것은 실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군사파쑈독재자로 군림한 전두환일당이 남조선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고 군사파쑈독재체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전두환일당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지어 괴뢰군부와 《구여당권》내에서조차 많은 반대파세력들의 저항에 부닥치고있다. 지금 전두환일당은 남조선인민들과 저들의 반대파세력들에 의하여 언제 죽을지 모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여기에다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겹치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통화와 생산, 투자와 소비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거리에는 기업의 파산몰락으로 쏟아져나오는 방대한 실업자들로 차넘치고있다.

지난해 1.4분기에 비하여 올해 1.4분기의 물가는 4배로, 생계비는 40%나 뛰여올랐다. 실업자들도 같은 기간에 40여만명이나 불어났다. 또한 50여억딸

타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적자가 남조선경제를 더욱 막다른골목에 몰아넣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경제의 전면적파탄과 사회적혼란을 가져오고 전두환일당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전두환놈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조선의 군사불한당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놈들이 멸망할 날은 더욱 다가오고있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거역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총칼로 억누르는 파쑈독재자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최근년간 이란의 파흐라비와 니까라과의 소모사 독재자들의 운명이 이것을 보여주었으며 남조선에서 리승만과 박정희역적의 말로가 또한 이것을 확증해주었다.

이 력사적흐름을 거역하면서 끝끝내 군사파쑈통치에 매달리는 전두환일당의 운명 역시 달리는 될수 없다.

현 남조선군사파쑈통치배들은 선행자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유신》군사파쑈잔당들은 《비상계엄령》을 즉시 해제하고 파쑈적인 군사통치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 각계각층 인민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이니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니 하는 반공모략책동을 걷어치우고 인민탄압을 그만두어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이 누구도 곧이 듣지 않는 허위적인 반공모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저들의 반동적인 폭압정책으로 인하여 빚어진 남조선사태의 진상을 가리우고 인민탄압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은 그 어떤 구실과 음모로써도 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파쑈독재를 합리화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폭압만행을 정당화할수 없다.

오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발전하고있다.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실업은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

김 정 호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자본주의나라의 반동지배층들은 저들의 정책을 공개할 때마다 《희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줄듯이 그 무슨 《대책》이요, 《계획》이요 하는것들을 들고나오고있으나 그것은 실업과 빈궁으로 하여 날로 커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만성적인 실업이 더욱 조장되고 완전 및 불완전 실업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 실업은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상을 더욱 드러내고있으며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만성적인 실업은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로동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요구이며 권리이지만 그러한 권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의 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에 대한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며 로동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면치 못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습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3～344페지)

자본주의사회는 지주, 자본가 등 소수의 특권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하는 가장 반동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은 기계, 설비, 원료 등 모든 생산수단들을 거머쥐고있으며 생산물도 다 독차지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지만 아무러한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하고있는탓으로 하여 오직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사실상 자기자신의 로동력밖에 가진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아야만 굶어죽지 않고 겨우 목숨을 이어갈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자본가놈들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착취하며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로동자들을 아무때나 일자리에서 마구 내쫓는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능력을 가진 인구의 일정한 부분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여 살아갈 길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는 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규정짓는 기초로 될뿐아니라 자본가들에 의한 근로대중의 경제적예속과 착취, 빈궁과 실업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자본의 집적과 함께 더욱 큰 규모로 급속히 늘어

나게 된다.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것은 결코 근로대중에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여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것이다.

자본가들은 돈만 많이 벌게 된다면 로동자들이야 어떤 불행과 고통을 당하건, 그들이 죽건살건 상관하지 않는다. 반대로 돈벌이가 잘 안된다면 그 물건이 아무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며 인간에게 리로운것이라 하여도 생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은 될수록 적은 자금으로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한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잉여가치중 일부는 저들의 사치와 향락에 탕진하고 나머지는 자본으로 전화시켜 생산을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늘인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장성은 자본의 축적을 늘이며 자본의 유기적구성을 끊임없이 높인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히 자본가들이 생산을 《합리화》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기계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자본의 유기적구성에서 불변자본의 몫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반대로 가변자본 즉 로동력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생산조직은 로동자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는것이 아니라 보다 적은 수의 로동자만을 고용하여 그들을 기계의 완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이 기계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합리화》하면 할수록 취업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이 악화되고 로동강도가 높아지며 더욱더 많은 로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례하면 지난해 일본의 《도요다》자동차공장에서는 조립공정의 《합리화》를 실시하여 조립콘베아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취업로동자들의 로동강도를 30%이상이나 높이고 이미 있던 많은 로동자들을 공장에서 내보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적실업은 더욱더 확대되며 많은 로동인구가 일자리와 살아갈 수단을 완전히 잃게 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은 또한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경제공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며 방대한 실업대중을 낳게 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이 격화되여 경제생활전반이 심한 혼란속에 빠지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원료난, 연료난, 자금난, 판매난이 겹쳐 경제생활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야금, 기계제작, 채취, 방직 등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들이 침체상태에 빠지고있으며 공업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미국경제를 놓고보더라도 미국공업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강철, 자동차, 건설부문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미국의 자동차공업은 심한 경영난으로 하여 자동차조립공장들을 무더기로 페쇄하고있으며 많은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고있다.

최근년간 경제발전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있다는 일본에서도 기업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다. 지금 일본에서 기업소들의 가동률은 70～80%수준에 머무르고있으며 선박건조부문 같은데서는 50%밖에 가동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에 있다. 프랑스, 서부독일 등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각종 경영난으로 파산되였으며

일본에서는 1만 6천여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프랑스, 서부독일, 벨지끄등 나라들에서도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는데 여기에는 대목점회사들까지 포함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점자본가놈들은 경제위기로부터 오는 손실을 어떻게 하나 모면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으며 모든 부담을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 들씌우고있다.

독점자본가놈들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 로동자들에게 보다 가혹한 로동조건과 로동강도를 강요하여 그들에 대한 착취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으며 이른바 《생산비》를 줄인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로동자들을 공장밖으로 내쫓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대독점체들인 다국적기업들이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벌리고있는 여러가지 책동과도 관련되여있다.

자국내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비대해진 독점자본가놈들은 더욱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진출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매점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소들에 융자하여 그것들을 매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까지 장악한다. 특히 제국주의독점체들인 다국적기업들은 《값싼로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자국내에서 생산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원료원천이 있고 상대적으로 로동력이 눅은 나라들에 진출함으로써 자국내에 많은 실업자들을 내고있다.

이처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손아귀에 장악되여있고 생산이 그들의 치부를 위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대중이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하여도 로동의 열매를 자본가들에게 깡그리 빼앗기며 결국에 가서는 일자리에서 쫓겨나 살길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것이 불가피한 사회적현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나와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넘치는 수백만명의 실업자로 하여 대혼란속에 빠지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5페지)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항시적인 사회적현상으로 되여왔지만 그것이 오늘과 같이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대렬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완전실업자수는 5천만명을 헤아리고있다. 거기에 불완전실업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무려 3억 5천만명이 넘는다. 이것은 《구라파공동시장》 나라들의 총인구수보다 거의 1억이나 더 많은 놀라운 수자인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이 갈수록 실업자대렬이 늘어나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에 393만명의 실업자를 가지고있었는데 올해에는 그것이 820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에만 하여도 미국에서는 새로 90만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대렬에 들어섰다.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에서의 실업자수는 1975년에 504만명이였는데 지난해말에는 그것이 62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수자에 불

파한것이고 실재에 있어서는 1천만명에 이르고있다. 영국의 실업자수도 올해 1월현재 147만명으로서 지난해말에 비하여 11만 5천명이상이나 더 늘어났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 1년동안에 실업자가 11%나 늘어나 199만명에 달하였다.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는 극소수의 착취계급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빠빠지게 일을 하여도 빈궁과 불행을 면할수 없으며 일자리에서 사정없이 내쫓기우는것이 바로 오늘의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또한 실업이 그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것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지난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은 자본주의경제의 경기순환에 따라 오르내리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왔다.

종래에는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는데 따라 실업자가 대량적으로 늘어났고 경제의 일시적인 호경기에 가서는 실업자도 어느 정도 줄어들군하였었다.

그러나 최근년간에 와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의 경기순환과는 관계없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이 더욱더 만성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974~1975년 경제공황을 겪은이후 1977년부터 일부 《경기회복》을 보였으나 실업률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졌다.

영국에서는 공황기인 1975년에 97만 8천명의 실업자가 있었다면 1978년에는 144만 6천명으로, 이딸리아에서는 같은 기간에 65만 4천명으로부터 157만명으로 늘어났다.

실업의 만성화는 가뜩이나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실업대중의 생활처지를 더욱더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고있다.

생존을 위한 아무러한 수단도 못가지고있는 자본주의나라의 수많은 실업자들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이 항시적인 불행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있다.

부르죠아출판물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늘어나는 실업사태》를 전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는 수많은 실업군중이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것이 《기적》이라고 쓰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완전실업자와 함께 불완전실업자들의 대렬이 또한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지금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주일 또는 한달에 겨우 며칠간씩밖에 일할수 없는 불완전실업자들의 수가 무려 3억명이 넘는다고 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못가진탓으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있는 그들은 사실상 완전실업자들의 처지와 다를것이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경제의 어느 한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이 주로 농업, 건설 등과 같은 계절적인 로동부문에서나 일시적으로 로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 일부 부차적인 생산부문에서 많이 생기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선풍은 그 어떤 개별적인 부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기계, 강철, 야금 등 경제의 기본부문들과 가공공업부문 등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일고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의 실업대군속에는 건장한 청장년들과 녀성들의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의 경우를 놓고보면 총실업자의 3분의 1이 25살미만의 청년실업자들이며 42%가 녀성실업자들이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미국, 카나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잃고있으며 이딸리아에서는 120만명의 청년실업자들중 3분의 1이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며 프랑스에서는 실업자의 60%가 녀성실업자들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장정들과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고있는 현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의 끊임없는 증대는 근로인민대중과 자본가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고있으며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살아갈 길이 막힌 수많은 실업군중은 《해고를 반대한다》, 《일자리를 달라》 등의 구호를 들고 독점자본가놈들과 반동지배층놈들에 항거해나서고있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있는 수많은 취업로동자들도 안정된 일자리와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을 반대하며 삶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점차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독점자본가놈들과 반동지배층놈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반동지배층놈들은 입만 벌리면 《만민복지》의 사회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대고있으나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부패상을 가리우며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착취와 압박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처방으로써도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실업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조건인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뒤집어엎을 때에만 해결할수 있다.

근로대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그들을 실업과 빈궁에로 몰아넣는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의 응당한 권리이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0년 제7호(루계459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근 로 자 사
인 쇄•1980년 7월 1일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발 행•1980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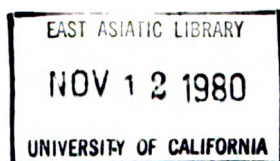
ㄱ—0518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460)

차 례

조선로동당은 준엄한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혁명적당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돐이 다가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서른다섯해동안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력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준엄한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6페지)

조선로동당은 창건첫날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해왔다.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사회적변혁의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나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심각성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준엄한 투쟁행로였다.

우리 당은 일찌기 력사가 체험하지 못한 가장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과정에 세련되고 단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투쟁로정을 통하여 당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1

조선로동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4～265페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지닌 숭고한 력사적사명이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 불평등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치렬한 계급투쟁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복잡한 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것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지구상에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이 남아있고 그들의 파괴암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더욱더 간고성과 복잡성, 장기성을 띤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부

닥치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가야만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백전백승하는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마자 새 사회, 새 생활을 일떠세우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령도해야 할 무거운 력사적사명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봉건적인 질곡과 일제식민지통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조국과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야 하였다.

우리 당은 이 모든 과업을 빈터우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랜 기간의 일제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것이란 파괴된 공장과 혼란된 운수기관, 령락된 농촌경리, 장부책만 남은 금고뿐이였다. 우리에게는 민족간부들도 부족하였다.

세상에 갓 태여난 우리 당이 자기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복잡한 사업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처럼 어려운 과업들을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풀어나간다는것은 참으로 상상할수 없이 힘든 일이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되였던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하였으며 복구건설과 병행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도 밀고나가야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 조선은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섰다.

온 나라에 재더미만 남고 안팎의 원쑤들이 혁명을 말살하려고 준동하던 전후의 그 준엄한 나날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들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갔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당앞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들은 기존공식과 명제, 이미 이룩된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뚫고나갈수 없는 복잡한것이였으며 그것은 오직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자주적인 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해방직후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할수 있은것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기때문이였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간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정권전취에 못지않는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였다.

우리 당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기술적개조에 앞세우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함으로써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채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나라에서 사회주의에로 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방침, 민족간부육성방침, 대중적혁신

운동, 인간개조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등은 언제나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강의한 혁명적 원칙성과 전개력으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혁명적당으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되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또한 모든 혁명단계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특수성으로부터 창건되자마자 인민정권과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단계의 사회혁명을 이끌어왔으며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문학과 예술,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을 령도해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당건설과 국가건설, 근로단체건설, 경제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과업도 수행해나갈수 있는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투쟁경험과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진진을 일으키는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도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투쟁행정에서 더욱 완성되였다.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모든것을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천백배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령도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로 근로인민대중을 곧바로 이끌어나가는 만능의 령도예술을 지님으로써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당은 또한 수많은 어려운 고비도 맞받아 뚫고나가며 고난앞에서 더욱더 견결해지는 강철의 당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전투적인 당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아가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며 강철의 의지와 불굴의 담력으로 모든 문제를 대담하게 풀어왔다. 투쟁이 간고하고 난관이 중첩되여도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왔으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그들을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한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벌써 다음단계의 사업을 예견성있게 설계하고 포치하며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그것을 풀어나감으로써 전반을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왔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그 어떤 난국도 주동적으로 뚫고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실로 우리 당은 력사상 류례없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행정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는 탁월한 령도예술과 만능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2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매어린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강화발전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인민들을 이끌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였습니다. 이 행로에는 헤아릴수 없는 엄중한 난관들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모든 난관과 장애를 성과있게 극복하면서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6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심각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해야 하는것과 함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길은 나라가 분렬되고 가장 포악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선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해야 하는 피어린 투쟁의 길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파괴암해행위와 새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1950년 6월에는 끝내 로골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다.

당이 창건된지 5년도, 공화국이 수립되여 2년도 안되던 요람기에 우리 인민이 벌린 조국해방전쟁은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어오던 미제와 그와 련합한 15개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을 반대하는 실로 힘겨운 투쟁이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으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미제를 쳐물리치는 성전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총포탄이 우박치는 가렬처절한 락동강의 전투장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중첩되는 간고한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우러러 새힘을 얻고 불사신처럼 싸웠으며 조국의 하나하나의 고지,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당으로 되였다.

전후에도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는 어려운 투쟁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남조선

에 침략무력을 더욱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군을 신형무기로 장비시키면서 전쟁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특히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 121》사건, 《판문점사건》을 계기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철저한 반제자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함으로써 놈들을 전률케 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과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자라났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원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속에서는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순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당조직이 강화되고 당원들이 단련된 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위력한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은 또한 그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도 능히 쳐부실수 있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언제나 동원된 태세에서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세련되었으며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는 위력한 전투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자라났다.

3

조선로동당은 일찌기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강철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가장 빛나는 총화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창건된 첫날부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자체발전의 특성과 안팎의 정세의 복잡성으로 하여 창건된 첫날부터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창건당시 우리 당 대렬에는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활동하던 사람들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연되지 못한채 망라되게 되고 당이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발전되게 됨으로 하여 당안에는 소부르조아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들어오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창건첫날부터 당원들을 혁명실천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검열하며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우리 나라의 안팎의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계속 강화하면서 간첩, 암해분자들을 끊임없이 우리 대렬안에 잠입시켜 우리의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책동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소동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은 해방직후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복구의 어려운 시기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우리 당을 반대하는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우리 당 창건초기에는 《엠엘파》, 《화요파》를 비롯한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 이색분자들이 당이 아직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기회를 리용하여 당의 정치로선, 조직로선 관철을 방해하여 나섰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는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도당과 취소주의자, 투항주의자들이 반당반혁명책동을 감행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후복구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어려운 시기에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을 도전하여 나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당안에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딴 사상을 퍼뜨리며 우리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책동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전당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여 고질화된 종파의 오물들을 제때에 극복청산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극소수의 악질적인 종파분자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대다수의 추종분자들을 건져내도록 조직령도하였다. 또한 반당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그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당내투쟁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나갔다

일찍부터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이 갖은 암해책동을 벌려왔으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숨쉬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적단합이 확고히 이루어졌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강철같은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가며 억세게 싸우고있다.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언제나 당을 믿고 따르며 통일단결된 힘으로 혁명의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사소한것이라도 제때에 타격을 주어 극복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통일단결은 세대와 세대를 내려오면서 더욱 순결하게 계승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할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당중앙의 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고히 지배하는 혁명적당으로 되였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결정과 지시가 철저히 집행되고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야말로 그 어떤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이룩된 진정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합된 가장 혁명적인 통일과 단결이다.

실로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 *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공산주의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공산주의의 미래에로 인민대중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아가는 자랑높은 인민으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도 시련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뚫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이 있어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길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영광의 길이며 공산주의의 광명한 래일을 앞당겨나아가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길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오늘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인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이 운동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 공산주의적인간개조운동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혁명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출발한 이 운동은 시작된지 얼마 안되지만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전당과 온 사회를 포괄하는 대중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고있다. 이 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심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충성의 열정을 안고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그들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이룩되고있는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확대발전되는데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도처에서 가치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한 숨은 영웅들의 헌

신성에서 크게 감동을 받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는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려는 자각이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그들은 하나를 생각하고 한가지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하여도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는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또한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가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새로운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안,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수많이 내놓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더욱더 개선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당에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을 제때에 발기하고 그것을 전당적,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4페지)

대중운동은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될수록 그에 맞게 대중운동을 어떻게 벌려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옳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바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시기에 맞게 우리 당이 발기하고 힘있게 이끌어주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우리 당이 키워내고 내세운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전형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요구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울 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현시기 혁명과 건설,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이 운동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이 운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커다란 전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된것은 언제나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판을 벌리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숨은 영웅들의 뒤를 이어 그들과 같은 새형의 인간들이 수많이 나오고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숨은 영웅들처럼 키우려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긍정적모범이 가지는 거대한 힘에 의거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것은 그들을 영웅적위훈과 집단적혁신에로 추동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우리 당은 긍정감화교양을 대중교양의 일관한 방침으로 견지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이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왔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사상개조운동이며 긍정적모범에 의한 대중교양사업의 새로운 높은 형태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교양사업에서 가장 위력한 긍정감화교양방법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첫 발단으로부터 비상한 전인력을 가지고 전사회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으며 전례없는 규모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이 운동이 벌어지고있는 행정은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이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할뿐아니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방법과 밀접히 결합될 때 비할바없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의 목표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일대 진군운동이다.

오늘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14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사

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이 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대로 따라배울 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본받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언제나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지켜나가는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서 더욱 큰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웠으며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특출한 과학기술적발명을 하여 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에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빨리 실현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당이 해결하려고 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현실적조건에 맞는 주체적방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많이 내놓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데서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당적립장,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 따라배워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우리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하며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철저히 확립하고 인민의 충복답게 대중과 한몸이 되여 그들을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올해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6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소집되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을 마련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승리자의 대회로 우리 당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로력적앙양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한달 앞당겨 완수하여야 한다.

《100일전투》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충성의 대전투이며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조국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치기 위한 영예로운 대돌격전투이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치던 그 혁명적투지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70일

결투》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그 영웅적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다진 결의목표를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하며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방침이며 전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성과여부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급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운 결의목표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지도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운동이 줄기차게 확대발전되여나가도록 일상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영웅과 혁신자들이 나오게 하고 온 사회가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정으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최 성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주는 탁월한 혁명사상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였으며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보다 힘있게 앞당겨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혁명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사람과의 사업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는 원리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자연과 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그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간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자주적존재로 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존재라는데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 기본동력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할 필수적요구가 제기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람의 힘을 키우고 사람을 발동하는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논다는것은 결코 그들이 저절로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발휘하는 힘은 그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화될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을 끊임없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꾸준한 교양개조사업을 통해서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을 적극 발동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76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로부터 모든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흘러나온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가 나서는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며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며 자연과 사회를 자신의 힘으로 개조변혁하고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어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의 활동을 떠나서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하는것이며 또 사람을 위한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사회적존재로 되기때문에 응당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며 모든것을 사람에게 복무시킬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제기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한다는것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원칙에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처리할 때에는 인민들의 리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들의 힘을 어떻게 발동하여 풀어나가겠는가 하는것을 늘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알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다.

물질기술적수단이나 객관적조건을 보기전에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먼저 보며 사람들의 창조적힘을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이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요구는 사람의 힘을 믿지 않고 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과 관점,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경제기술적인 실무에만 매여달리는 립장,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지 않고 물질적관심만을 내세우는 편향 등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의 위치를 새롭게 규정해주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가르치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을 벌릴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맞게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업은 주체사상의 기초원리와 근본요구로부터 나서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이나 경제사업이나 할것없이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이 언제나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대중을 발동하여 수행할것을 요구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초, 이 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상적요새점령에 힘을 넣을데 대한 리론,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리론,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에게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데 대한 방침 등 수많은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적극 발동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더우기 혁명의 간고한 시기일수록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굿굿이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왔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사상의식과 열의를 발동하여 혁명앞에 나선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이 땅우에 이룩된 모든 위대한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우리 당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 성스럽고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47페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실현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말한다.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들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며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미래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된 사회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주체사상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이 근본요구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실현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매 성원들의 사상의식상태와 준비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옳은 처방을 내릴수 있으며 사상의식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묶어세우고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추진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전인민적인 투쟁이며 낡고 반동적인것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따라서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전체 인민을 조직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 주체사상의 구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는 사업은 그자

체가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사업으로서 그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당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자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일수 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사람들속에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기풍을 세워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조직성을 키워주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을 세우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상하가 합심하여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혁명대오를 화목하고 단합된 혁명적집단으로 전변시킨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뿐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것을 잘해나가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조치, 행정실무적방법으로써는 결코 수행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혁명화하고 그들이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사업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혁명적열의를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이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이 하며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어떻게 참가하며 여기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떠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가운데서 기본을 이룬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적극성과 헌신성을 더 높이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정치적자각을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과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사회개조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듦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동원함으로써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새롭게 내놓으시고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리론이며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인 사람,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리론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며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으로서 인간개조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공산주의도덕교양

리 영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으며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이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온 자랑찬 결실이다.

원래 도덕이란 사회계급관계와 경제제도를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 그것은 계급사회에서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봉건도덕은 처음부터 봉건유교적교리에 기준하여 봉건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굴종을 강요하여왔다. 부르죠아도덕은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것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데 복무하고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덕은 낡은 사회의 모든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완전히 대립된다.

공산주의도덕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고상한 도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며 준칙이다.

공산주의도덕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략탈하는 착취계급의 리익에 복무하여온 반동적, 반인민적 도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온 새로운 로동계급의 도덕이다.

로동계급은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착취계급과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동지들과 사회성원들사이에 새로운 도덕륜리적관계를 맺게 되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간다.

공산주의도덕은 이처럼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모든 착취계급들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행정에서 온갖 반동적, 반인민적 도덕을 부정하고 형성발전된 새로운 류형의 도덕이며 력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인 도덕이다.

공산주의도덕은 또한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원칙에서도 부르죠아도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리익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며 긴밀하게

서로 도와주는 동지적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향락과 영예만을 바라는 리기주의가 용납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리기주의정신을 가지고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리기주의를 없애고 사람을 사랑할줄 알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4~45페지)

도덕의 진보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어느 사회,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떤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부르조아도덕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부패성과 허위성은 그것이 모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근본바탕으로, 근본원칙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이므로 여기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가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사람들의 도덕관계도 돈에 의하여 맺어지고 평가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추구하는것을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에 부합되는것으로 보며 개인의 공명출세와 자기의 자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며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것을 《도덕적인것》으로 인정한다. 돈을 긁어모으려는 탐욕이 사람의 행동을 추동하게 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날에날마다 위선과 협잡, 사기와 횡령, 살인과 강도가 성행하며 자본가계급과 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할뿐아니라 인류를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넣는 침략전쟁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죠아도덕과는 정반대로 공산주의도덕은 숭고한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집단주의는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집약화되여있는 집단주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공산주의도덕의 기본원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도덕적풍모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은 집단주의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개인의 향락과 안일보다도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혁명동지와 사회성원들에 대한 의리를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신성한 도덕적규범으로 삼는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도덕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그 규준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따라서 그들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철칙으로 내세울뿐아니라 숭고한 도덕적리념으로 여긴다. 이로부터 사람들, 근로인민대중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의식에서 기본을 이루며 이것이 또한 사람들의 도덕행위를 평가하는 가장 옳바른 규준으로 된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며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것은 다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들의 고상한 집단주의정신도 결국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참으로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형성발전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적인 도덕이며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숭고한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더없이 고상하고 우월한 도덕이다.

공산주의도덕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꾸준한 투쟁이 요구되며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교양이 필요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94페지)

공산주의도덕을 세운다는것은 근로자들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온갖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로동계급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도덕을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도덕과 사람들의 도덕적풍모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되며 사상의식이 구체적인 품성과 행동으로 발현된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상의식을 떠나서 그들의 도덕적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한편 사람의 도덕은 그의 사상의식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상하고 진보적인 도덕은 사람들에게 높은 정신세계와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하며 부패타락하고 반동적인 도덕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사상의식발전에 해독적인 영향을 준다.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은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온갖 낡은 사상잔재가 쉽게 되살아날수 있는 온상으로 되며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을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도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낡은 도덕관념을 뿌리빼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이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근로자들의 사회정치활동과 생산투쟁령역에서는 물론 가정생활에서까지 철저히 구현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상과 리념으로 접수될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으로, 생활적인 관습으로 전환될 때 온 사회에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고 혁명과 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게 된다.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임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다그쳐지고 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난 결과 우리 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소문없이

큰일을 해나가는 숨은 영웅들, 숨은 애국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우는 훌륭한 미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다.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이 심화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2차 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오늘의 이 변화된 현실과 우리 당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임무는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사상혁명,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할줄 모르는 혁명적량심과 숭고한 의리를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이 날을 따라 유족해지고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교대자로 등장하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도덕과 《서방식》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도덕생활령역에까지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온갖 낡은 사상과 인습이, 발붙일수 있는 마지막지탱점을 뿌리뽑을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없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실속있게 진행할데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6페지)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키워주는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며 고상한 도덕적풍모의 최고표현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자기 계급과 인민, 자기 조직과 집단에 대한 충실성의 집중적표현이며 가장 높은 발현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육친적사랑과 배려, 넓은 포용력과 한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신 품성을 비롯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풍모를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조직진행하여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공산주의적풍모가 그대로 그들의 뼈와 살이 되여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도덕의 기초를 이룬다.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그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인리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고통도 기쁨으로 여기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게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이 로동에 성실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것을 자신의 고결한 도덕적품성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착취사회에서 생겨난 낡은 생활인습과 풍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살아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기풍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이러한 기풍을 가지고 생활할 때 사회주의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어긋나는 온갖 낡은 생활인습과 봉건유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모든 근로자들이 례의범절을 잘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을 잘 지키며 인민들의 아름다운 풍습을 귀중히 여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례절이 바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며 일하여온 인민이다. 우리는 혁명하는 시대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훌륭한 도덕적미풍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동지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녀성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공산주의도덕을 잘 지키는 버릇을 붙이도록 옳게 교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례의범절을 지키는데서 누구보다도 일군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며 인사성이 밝고 언행을 고상하게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며 아래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은 또한 겸손하고 례절이 밝아야 하며 몸차림을 단정히 하며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람들이 가장 문명하게 사는 사회이다. 근로자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문화도덕적 수준과 수양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와 새로운 문화도덕규범들을 잘 지

키며 극장과 영화관, 기차와 뻐스를 비롯한 공중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늘 사회주의사회의 미감에 맞게 옷차림과 외모를 단정히 하며 교통질서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서로 일깨워주고 통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에 그치지 말고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적인 현상과 낡은 도덕의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패타락한 부르죠아도덕과 온갖 비과학적인 미신행위와 무지몽매한 현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에 비한 공산주의 도덕과 생활양식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잘 깨우쳐주어야 한다.

우리는 강연과 해설담화, 예술선전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도덕교양을 실속있게 하며 해당부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책과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세우는 사업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회적운동으로 공산주의적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사회교양과 가정교양, 학교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생산활동분야에서 기계설비를 잘 정비정돈하고 빈틈없는 작업준비를 갖추어놓고 인계하는것을 하나의 교대질서로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로 여기도록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중집합장소에서의 공중도덕과 예의범절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적도덕생활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며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숭고한 혁명정신과 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는 중요하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명곡과 명가사

리 창 구

오늘 우리 나라의 음악예술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성기를 맞이하여 찬란히 꽃피고있다.

륭성번영하는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이고있는 우리의 음악예술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으며 그들을 창조적인 로동과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를 가나 인민들의 고상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아름답고 힘있는 명곡들이 울려퍼지고있으며 거기에서 고무를 받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끝없는 희망과 열정, 혁명적랑만에 넘쳐 일하며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음악과 노래를 명곡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에는 명곡의 본질과 기본요구, 명곡과 명가사의 호상관계를 비롯하여 명곡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명곡과 명가사에 대한 인식을 더 잘함으로써 날을 따라 풍만하게 꽃피고있는 음악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 *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이것이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명곡의 본질이다.

음악과 노래는 사람들이 들을수록 좋아하고 누구나 부를수록 더 부르고싶어지는 참말로 사람들의 인상에 오래 남는것이라야 명곡으로 될수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 명곡의 본질에 대한 정식화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정과 인상에 어떤 작용을 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하고있는 독창적인 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 인민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70페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노래란 누가 불러도 좋고 아무리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음악을 말한다. 이러한 명곡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좋아하여서는 될수가 없고 전문가들의 주관적욕망만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노래와 음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들속에 널리 퍼져 오래 남아있는것이라야 참말로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명곡으로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가장 사랑하며 그들속에 널리 퍼지고 오래 남게 되는 음악은 무엇보다도 가요이다. 노래는 음악예술가운데서 가장 작은 형식이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서는 그 어느 음악예술도 따를수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명곡을 말할때 제일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은 가요명곡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명곡은 명가사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명가사에서만 명곡

이 나올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노래에서 가사는 사상적내용을 밝히고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노래가 잘되려면 가사부터가 명가사로 되여야 한다.

물론 가사가 잘되면 노래가 다 잘되는것은 아니다. 가사가 잘되였다는것은 노래가 훌륭한것으로 될수 있는 전제로 될뿐이다.

노래의 위력을 나타내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가사보다 곡이다.

가사가 노래의 사상을 밝히는데서 첫째가는 요소로, 노래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면 곡은 그 사상예술성을 빛내이는 결정적요인으로, 그것을 대중속에 보급시키는 기본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노래는 가사와 곡이 다같이 잘되고 서로 밀접히 결합되였을 때라야 참말로 훌륭한 노래, 명곡이라고 말할수 있다.

가사와 곡이 잘 결합된 명곡은 사상이 깊고 열정이 강렬하다.

음악형상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담겨진 사상에 있다. 사상이 없는 음악은 죽은 음악이다.

노래에서 음악의 사상성은 사상적내용이 뚜렷한 가사와의 유기적인 형상적통일에서 나타나며 가사에 담겨진 사상에 대한 열렬한 공감, 뜨거운 열정에서 나타난다. 노래의 음악형상은 가사가 밝히는 깊은 사상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상주제적가치가 크고 사상성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명곡의 사상적높이는 그와 결합된 가사의 사상성에 달려있으며 그 열정도 가사의 사상이 깊어야 의의가 있는것이다. 훌륭한 노래는 가사부터 사상이 깊고 열정이 강한 명가사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명가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혁명적내용을 담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높은 덕성을 칭송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를 비롯한 노래의 가사들과 《세금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를 비롯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리는 행복, 사회주의건설을 노래한 수많은 명곡들의 가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인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우리의 명가사들에서는 이러한 혁명적내용이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울리고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은 강렬한 열정으로 표현되였을 때만이 하나의 시로서 강한 호소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 준엄한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가》의 가사는 그 어떠한 힘도 범접할수 없는 불같은 열정으로 차넘치고있다.

이 노래에서는 전투적호소성이 높고 확신에 찬 지향적인 음악형상이 가사에 밝혀진 혁명적 사상과 열정에 열렬히 호응하고 그 사상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노래는 당시 수천수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오늘도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명곡의 특징은 바로 가사와 곡이 밀접히 결합되여 사상이 깊고 열정이 강렬하게 울리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와 곡이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고

통일된 훌륭한 명곡은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률로 되여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유순한 선률이란 가사에서 얻은 감정적충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한다.

노래의 선률은 가사의 감정적충격으로부터 우러나오면서도 가사의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밀접히 결합되여 음악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야 유순하고 아름답게 된다. 이것은 선률이 가사에 담겨진 고유한 민족적정서를 그 음악의 바탕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노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들리고 부르는데서도 편안하게 된다.

선률과 가사와의 이러한 감정정서적관계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오랜 세월 전해져내려온 민족음악의 우수한 특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름다운 민족적선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노래의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사랑하여온 《양산도》나 《도라지》 같은 노래를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잘 살려 부르고있는것은 좋은 실례로 된다. 그뿐아니라 고유한 우리 민요의 선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작하고 편곡하여 만든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와 같은 노래들은 그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민요풍의 노래가 아니고 오늘의 시대적감정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새형의 노래라 하더라도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그 노래는 민족적바탕이 확고하며 조선사람들의 감정에 잘 맞는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나 가요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가 세상에 나오자부터 사람들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것도 그것이 아름답고 유순한 민족적 선률에 확고히 바탕을 두고있어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부르기 헐하며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새로와지기때문이다.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구현한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률들에서는 가사와 곡의 예술적언어들도 잘 밀착되여있다. 가사의 시어와 선률이 잘 밀착될 때에는 가사와 곡의 사상정서적통일이 예술적언어로써 확고히 담보되며 선률도 유순하게 된다. 이것은 인민적절가의 우수한 형식에 의거할 때 가장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노래들은 그 가사의 시어들과 곡의 음악언어, 선률을 잘 밀착시켜 가사의 운률과 곡의 음률, 가사의 억양과 곡의 음조를 잘 조화시키고있다. 이리하여 가사와 곡의 사상정서적통일을 훌륭히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아름답고 유순한 명곡으로 되고있다.

가사와 곡이 사상정서적으로 통일된 훌륭한 명곡은 예술적형상이 높으며 창조적개성이 뚜렷하다.

노래의 음악형상은 무엇보다도 선률에서 나타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선률은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수단으로서 음악형상의 사상예술적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음악형상의 생명력은 선률에 있다. 잘된 노래의 선률은 사람들의 생활감정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형상이 아름답고 풍만하다. 선률의 아름다움과 풍부성은 참된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상감정의 아름다움과 풍부성의 표현이다.

노래의 선률은 구체적인 생활정황에 맞게 정서적색갈이 뚜렷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그 개성적특색이 명백히 살아날 때 생동하고 풍부해진다. 아무때 아무데나 맞는 선률이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률의 정서적색갈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사회주의대건

설과 3대혁명을 힘차게 노래한 《3대혁명행진곡》이 기백에 넘친 고무적인 행진곡이라면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형상한 가요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는 매우 사색적이면서도 굳센 의지를 반영한 서정가요이다. 같은 행진곡이라 하더라도 《평양의 노래》는 약동적이고 희망에 넘친 발걸음가벼운 행진곡이라면 《조선은 하나다》는 분노로 끓고 투지에 넘친 전투적인 행진곡이다.

선률의 새로운 정서적색갈과 특색있는 음악적형상은 새맛이 나는 개성적인 음악언어와 형상수법들에 의하여 창조되며 그 표현형식, 반주수단과 편곡수법 등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개성화된다.

노래의 높은 음악적형상은 훌륭한 가사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가사는 그것이 최대한으로 시화되였을 때 훌륭한 명가사로 된다.

가사에 시가 있다는것은 곧 정서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서가 없는 가사는 가사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의 수많은 명가사들에서처럼 가사에 아름답고 풍부한 시적정서가 흘러넘쳐야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며 그 가사가 음악과 결합되였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생동한 감흥을 느끼고 거기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한다.

명가사는 또한 그 형상이 고도로 세련되여있다. 형상이 잘된 가사는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다. 이런 가사는 사상감정의 핵을 잘 다듬어진 시어로써 간명하게 쓰고있으며 음악적인 운률을 잘 조성하여 곡에 맞추어 쉽게 부를수 있게 하고 있을뿐아니라 그 시어들 인민적인 표현과 형식들로써 세련시키고있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노래의 이 가사는 몇줄 안되는 극히 간결한 시형상으로 지난날 착취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직선적인 정치적표현이나 장황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며 하늘중천 밝은 달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정서가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적언어와 절가적인 구조의 간명한 형식으로써 생동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가사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생활의 본질을 심오하게 파들어가고있으며 시적운률이 잘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그 형상이 고도로 세련되여있다.

가사와 곡이 사상예술적으로 밀접히 결합된 훌륭한 명곡은 시인과 작곡가의 사상의 공통성, 동지적단합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과 창조적협조의 귀중한 열매이다. 주체의 사상체계와 당적령도에 의하여 긴밀하게 련결된 창작가들의 세계관의 공통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에서 개성적으로 탐구된 예술적형상세계를 하나의 예술작품인 노래들에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오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된 수많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 명곡들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 *

명곡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7페지)

음악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과정은 명

곡에 관한 새로운 리론의 정당성을 실증하는 눈부신 창조과정이였으며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명곡창작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힘있게 노래하는데 복종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형상화한 노래들을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창작하고 모든 노래들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덕을 높이 칭송하는데 음악적형상의 중심을 두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였다.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명곡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노래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칭송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이러한 고상한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명곡을 창작하는데서 우리 당은 그 음악적형상을 끝없이 친근하고 소박하게 창조할데 대한 미학적원칙을 밝혀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명곡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전혀 새로운 음악적서정의 세계, 독창적인 서정가요의 새로운 양상을 확립하게 하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서정가요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충성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명곡들이 개척한 가요음악에서의 새로운 서정의 세계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끝없이 친근하고 소박하게 창작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빛나게 구현된 위대한 결실이며 주체적음악예술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이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우리 식의 명곡을 창작하는데서 노래를 숭엄하고 경건하게 만들며 밝게 형상할데 대한 미학적원칙을 제시하였다. 당이 밝힌 이러한 미학적원칙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노래한 가요송가들로 하여금 뜨겁고 절절하면서도 밝은 서정이 어려있는 전혀 새로운 송가양상을 빛나게 개척하게 하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비롯한 수많은 노래들에서 훌륭한 결실을 보았으며 우리 시대, 우리 식 가요송가의 새길을 열어놓게 하였다.

이 모든 노래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을 더욱 불타게 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두터이하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피바다》식가극의 새 력사를 개척하는 가극혁명의 위업을 이룩하는 자랑찬 나날에 혁명가극의 모든 노래들이 다 명곡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지도하였다.

우리 당은 가극의 노래들을 절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히고 명곡이 없이는 가극이 될수 없다는 원칙적요구를 제시하였으며 절가화된 모든 노래들이 다 명곡으로 되도록 하여주었다.

당의 지도밑에 가극의 노래들을 절가화하고 그것을 명곡으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나날에 우리의 가극분야에서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대화창의 요소를 철저히 없애고 대사를 가사화하고 시화하여 거기에 아름답고 유순한 곡을 붙여 절가로 일관된 인민적이며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전혀 새로운 가극음악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참말로 즐기고 사랑하는 명곡으로 가득찬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피바다가》,

《꽃파는 처녀》의 《해마다 봄이 오면》, 《꽃파는 처녀》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원곡들을 포함하여 《혁명만이 살길이다》,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 생겼나》를 비롯한 모든 노래들은 들을수록 더 듣고싶으며 부르고불러도 또 부르고싶은 아름다운 명곡들이다. 이렇듯 우리의 혁명가극들이 명곡들로 창조되였기에 그것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상사람들을 그처럼 경탄시키고있는것이다.

명곡창작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명곡으로 창작하도록 한것이다.

당중앙은 당정책을 선전하는 통속가요창작에서 사상성일면에 치우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노래의 사상성과 함께 예술성을 다같이 높이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정책을 선전하는 우리의 노래들은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을뿐아니라 노래마다 형상적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양상의 명곡으로 되였다. 《3대혁명기치높이 전진 또 전진》,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 《사랑의 물소리 밭에 넘치네》,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 《대자연개조로 강산을 빛내자》, 《희망찬 청춘을 꽃피워가리》 등 가요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노래들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선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명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기악음악분야에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당은 기악음악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 되게 하자면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과 민요를 소재로 하여 기악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창작가들을 이끌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명곡과 민요를 소재로 하여 기악음악을 만드는데서 원곡을 외곡하지 말고 잘 살리며 선률의 각을 뜨지 말데 대한 문제 등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해명되고 창작실천에 구현됨으로써 훌륭한 기악작품들이 수많이 세상에 나왔다. 교향곡 《피바다》를 비롯하여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내 고향의 정든 집》, 《아리랑》, 《그네뛰는 처녀》,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바이올린협주곡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사향가》, 기악중주곡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등은 그 몇가지 실례이다. 이 기악곡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 하여 지난날 인민들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던 기악음악을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참다운 예술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한 빛나는 성과작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조국에서 왕성하게 창작된 수많은 명곡들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로 되고있다. 우리의 명곡들은 또한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노래의 나라》, 《명곡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아가는 우리의 음악예술인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명곡창작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를뿐아니라 먼 후대들도 자랑스럽게 부를수 있는 명곡을 더 많이 창작할것이다.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

리 종 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몸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마련하여주시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면서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예방의학적방침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보건사업발전의 기본방침이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인민들의 건강상태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은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에 관한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1

의학에서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보건사업발전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학에서 기본을 옳게 설정하여야 보건사업에서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견지할수 있으며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입니다.》(《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8페지)

치료사업이 일단 생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방사업은 질병이 생기기전에 그 원인을 찾아내여 그것을 없애버리고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사업이다. 예방은 치료에 비하여 결정적우위를 차지하며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으로 된다.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이 예방의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는데 있다.

의학의 원리는 해당사회에서 의학의 성격과 사명에 기초하여 의학의 방향과 목표 및 의학발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밝혀준다.

사회주의의학은 부르죠아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의학이다.

부르죠아의학은 자본가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기때문에 인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으며 따라서 부르죠아의학에서는 예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약을 팔아먹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것을 바라며 도리여 병을 장려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학은 근로대중을 위하여 전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의학이다. 사회주의의학은 인민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며 병없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사회주의의학은 이러한 성격과 사명으로 하여 그 발전의 방향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는 원리를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의학이 예방의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3폐지)

사회주의사회는 온갖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한 근심걱정이 없으며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이 끊임없이 올라가며 그럴수록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복리는 더욱더 높아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질병발생의 사회적근원이 없으며 인민들이 병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할수 있는 온갖 가능성과 조건이 마련되여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와 존엄도 돈에 의하여 물건처럼 취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사회제도자체가 질병발생의 주되는 근원으로, 인민대중에게 질병을 들씌우는 사회적병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병을 예방하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예방의학에 기본을 둔다.

사회주의의학이 예방의학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보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중요하게 관련된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이다.

보건부문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과정에 질병이 줄어들고 인민들의 건강이 증진되여 사람들이 질병의 구속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무병장수의 념원이 완전히 실현되여 사람마다 건강과 장수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보건문제해결의 합법칙적로정이다.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질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인민들을 질병의 구속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자면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에 관한 사상은 이처럼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보건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놓으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의학사상이다.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의학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학은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의학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그들을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예방의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은 예방문제를

개별적인 질병을 막아내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들을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사회정치적문제로 보는 독창적인 의학사상이다.

바로 여기에 선행한 시기의 예방의학에 관한 모든 리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의 혁명적본질이 있는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 인민대중의 역할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의 혁명리론에 기초하여 인민들을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진 여기에 또한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의 독창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주체적인 관점으로부터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들의 건강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질병을 막아내고 없애는데 온갖 물질기술적조건을 아낌없이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리론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도를 밝혀준 사상이다.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의하여 어떠한 질병이든지 능히 예방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근절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한다.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현상이 아니라 사회적현상이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서 결정적인것은 사회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질병발생의 사회적근원을 없애고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다.

뿐만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간다.

질병은 자연의 여러가지 현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세균을 비롯한 생물학적인자들과 물리화학적 및 기계적 인자 등 자연적요인들이 질병발생의 직접적원인으로 작용한다.

질병발생의 사회적근원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질병과의 투쟁은 주로 자연과의 투쟁이다.

인민대중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환경과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갖 병적요인들을 청산해나간다.

사람은 또한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자기자신을 개조하며 특히 사상의식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을 예방근절할수 있는 더욱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적열의가 높을 때 그들은 질병예방을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사상의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 양식과 관습을 배양하게 되며 이로부터 질병과의 투쟁에서 자각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집단주의적생활기풍, 문화위생적인 생활양식 등은 질병을 예방근절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으로 된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예방의학사상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시키는 혁명투쟁과정에서 질병을 예방할수

있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는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의학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은 우리 시대 력사의 중심에 서있는 근로인민대중을 질병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보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열어놓은 가장 선진적인 의학사상이며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기에 인민보건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보건건설의 지도사상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예방의학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보건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사람마다 무병장수하는 인민의 락원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우리 제도하에서 비로소 실현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보건문제, 질병의 예방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 빛나게 실현되여왔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보건위생사업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적인민보건제도를 수립하시고 보건사업을 예방에 기본을 두고 조직하고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 결과 인민들의 건강에 끼친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통치의 후과가 청산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근원을 없애며 근로인민대중을 질병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열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선진적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인민들속에서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비문화적이며 비위생적인 생활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문화혁명의 한 부분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보건위생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조치를 취하여주신데 뒤이어 1958년 5월 4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보건위생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고 당과 국가의 결정을 채택하여주신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문화위생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에서 온갖 낡고 비위생적인 생활관습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꾸리기 위한 투쟁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위생상태는 일신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인 전염병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예방사업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 이것이 곧 사회주의의학입니다. 동무들은 사회주의의학의 이 원리를 철저히 알아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건일군들속에서 예방을 홀시하고 치료본위, 약물본위에 매달리는 부르조아적의학관점을 없애고 그들이 주체적의학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한편 인민들에 대한 위생선전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광범한 군중을 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방법, 사회주의적방법으로 여러가지 예방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하자면 군중적인 예방사업을 벌리는것과 함께 보건기관들의 의료봉사사업을 예방에 기본을 두도록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료기관들의 활동을 예방에 기본을 두고 조직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의료봉사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인민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전문과별에 따르는 자기의 담당의사를 가지고 그들의 책임적인 보호밑에 주기적인 예방검진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온갖 예방적의료봉사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언제나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공해를 막아내는데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과 건설도 사람을 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그들의 건강에 유리하게 개조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로동보호사업과 생산문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아낌없는 육친적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그 결과 공장, 기업소들에 로동위생시설과 로동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로동자들에게 로동보호물자와 영양제식사가 보장되게 되였으며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주변은 공원과 같이, 농장벌은 꽃밭과 같이 꾸며져 근로자들의 건강과 장수를 담보하는 즐겁고 문화적인 일터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도 단순히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정치적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과 생산환경을 근로자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게 개조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심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그들의 건강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공장과 살림집을 짓고 거리를 형성하며 공원과 유원지를 꾸리는데서도 위생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시였으며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인민들의 건강에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해가스를 무해화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국가적자금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류례없이 빨리 발전하였지만 공해현상을 미리 막아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공해를 모르고있을뿐아니라 강하천들에 물고기떼들이 욱실거리고 도시와 공장지구의 록음우거진 공원, 유원지들에서 산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오고있다.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로서 공해현상

을 모르게 된 이 자랑찬 현실은 사람의 건강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의 건강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고매한 덕성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들에는 각종 위생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농촌의 생활문화가 현저하게 개선되였다.

농촌에서 수도화의 실현은 농민들의 위생문화생활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음료수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촌수도화방침이 빛나게 실현된것은 공산주의적문화농촌건설을 앞당기는 본보기로 되며 우리 나라 농촌의 높은 위생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뚜렷한 시위로 된다.

군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 꾸려지고 농촌 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였으며 《병없는 리를 만드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짐으로써 농촌주민들도 전문과적인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고 온갖 질병을 미리 막아낼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어지럽고 침침하고 온갖 질병이 무섭게 퍼지던 우리 나라 농촌이 오늘은 깨끗하고 살기 좋고 사람마다 무병장수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점차 도시의 면모를 닮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인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위생방역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위생방역부문의 연구기관들과 위생방역소, 검역소 등 전문적인 예방기관들이 도처에 고치되여 위생방역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이 건강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공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으며 위생선전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인민들의 위생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군중적인 예방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며 여러가지 예방약과 귀중한 보약까지 무료로 보장되는 우리 나라는 인민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모든것이 다 돌려지고있는 가장 우월한 나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의 건강상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평균수명은 73살이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인민보건법을 높이 받들고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공해를 방지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근로자들의 위생지식수준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에게 휴식조건을 더 잘 보장해줌으로써 우리 인민을 병없이 더 오래 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예방의학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지방공업발전과 일군들의 조직사업

서 재 홍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지방공업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관철되여 이루어진 경제부문으로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을 빨리 추켜세워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계획적지도밑에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담보이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와 자재, 로력을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큰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생산기지를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생산과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게 하며 많은 사회적 로동을 절약할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공업을 골고루 배치하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공업과 농업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농업생산과 부업생산을 자극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주고 공업의 선진적인 기계기술과 생산문화, 기업관리방법을 널리 보급하여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다양한 일용소비품과 현대적인 부엌세간, 갖가지 부식물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면 가정에서 지는 녀성들의 로력적부담을 훨씬 덜어줄수 있다. 또한 가정에 있던 녀성들이 지방산업공장에 나가 일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촉진되게 된다.

지방공업은 지방예산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세소상품과 식료가공품들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지방예산수입을 훨씬 높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예산의 축적금을 확대재생산에 더 많이 돌려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상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방침이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지방공업건설강령을 내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지방공업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지방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도 구경은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만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72페지)

지방공업은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지방자체의 생산으로 인민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공업생산부문이다.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적극 동원하여 지방의 원료와 자재, 로력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생산보장하는데 지방공업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은 도처에 있으며 그것을 리용하는 지방공업의 생산자체도 대중적인 운동으로 진행된다. 지방공업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지방의 어디에나 있는 예비라고 하여 그것이 결코 손쉽게 리용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대중을 적극 발동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동원리용될수 있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은 지방공업이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지방공업이 창설되던 초기에는 유휴자재나 유휴로력과 같이 비교적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예비가 많았으나 지방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예비와 가능성은 더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야만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고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것과 같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올바로 동원리용하자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물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조건이 유리한곳과 그렇지 못한곳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유리한곳이라 하여 다같이 지방공업이 더 잘 발전하게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경험은 비록 조건이 불리하지만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는 조건이 유리한곳에 못지않게 지방공업이 빨리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이 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쓰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힘있게 동원한다면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널리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 공고히 하고 그 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에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마다에는 현대적인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수공업마저 다 파피되고 전쟁에 의하여 재더미로 된 페허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공장들과 함께 지방마다에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은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강력한 인민소비품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진 기계화되고 현대화된 공업으로 믿음직하게 발전하게 되였다. 지방공업부문의 기술자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관리일군들의 기술수준도 높아졌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지방산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절반이상의 몫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경공업기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지방예산수입의 첫째가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의 생산능력과 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만 다 리용하여도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지방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있는 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자면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한편 로력과 자재, 자금, 기계설비와 같은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일군들이 자기 지방, 자기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환히 꿰들고 인민들에게 맵시있는 옷과 쓰기에 편리한 가구들,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기술준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하며 설비리용률과 원자재의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수록 지금 있는 생산토대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 문제는 지방공업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성과적으로 늘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우리 당 제6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지방공업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키며 그들을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사업을 실속있게 내미는것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는것과 같은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경제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만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못하고 보장사업을 앞세우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을 옳게 안받침할수 없게 되고 앙양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일군들의 조직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될수록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업을 창설하던 첫시기에는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였지만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분발하여 일떠선 결과 재더미를 헤치고 지방마다에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내여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비롯하여 지방산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은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일군들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당과 조국과 혁명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혁명투쟁이라는것을 깊이 해설선전함으로써 이 부문 근로자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체로 원료의 대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토대우에서 발전하는 공업만이 안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0페지)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져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만약 도들에서 중앙공업에만 의존하면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지 않으면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지방의 원료를 쓰지 않는 지방산업공장은 지방산업공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튼튼한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는 지방산업공장들만이 지방산업공장으로서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지방공업부문일군들은 공업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미 있는 공업원료기지를 정비보강하여 은을 내게 하는 한편 새로운 중소화학공장들과 중소방직공장, 중소도료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화학제품과 규격소재들에 대한 지방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료기지는 공장별, 지역별로도 꾸리고 어려운것은 몇개 공장이 련합해서도 하고, 군단위, 도단위로도 하며 여러 부문이 협력해서도 꾸려나가야 한다.

공업원료기지와 함께 자연 및 재배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처에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원료와 초물제품원료들을 더 많이 심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 그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정연한 수매사업체계를 세우고 상업류통사업을 개선하여 농부산물을 제때에 사들이며 낡은 자재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들을 널리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잡화와 식료, 종이, 가구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으며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지방공업부문일군들은 또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인민생활이 향상될수록 근로자들은 더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요구하고있다.

질좋은 제품은 그만큼 질기고 보기좋고 쓸모있으므로 그러한 제품을 더 많이 만들수록 인민생활은 윤택해진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잘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능공들을 고착시켜 모든 제품의 질을 선진적인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만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가격정책의 요구에 맞게 가격제정사업을 지방자체로 제품의 질에 따라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한편 천과 옷, 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며 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 제품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과학및 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는것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적진보가 없이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멀리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8페지)

기술혁명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지방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으며 원가를 낮추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방공업부문의 모든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점차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5.19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최신과학기술과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승리자의 크나큰 자랑과 긍지를 안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

보 승 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지역적차이를 없애고 농촌의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는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의 본질과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그 정당성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특히 오랜 세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던 농민들에게 새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준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농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야 하며 농촌의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농촌의 지역적차이를 없애고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도, 어느 군 할것없이 모든 지역, 모든 마을이 다같이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되여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수 있는 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18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농촌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오래동안 뒤떨어지게 되며 농촌의 각이한 지역들사이에도 경제문화발전수준에서 일정한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농촌의 각이한 지역들은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적조건이 같지 않으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도 구체적인 지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벌방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들사이의 차이와 같은 농촌의 지역적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도 완전히 없앨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것은 각이한 지역의 농민들이 다같

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각이한 지역의 농민들이 경제생활에서 보다 완전한 평등을 누릴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농촌의 지역적차이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경제발전수준에서의 차이이며 그것은 각이한 지역의 농민들의 로동조건과 물질적생활에서 나타난다.

농촌지역에 따라 농민들의 로동조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농업생산활동에 미치는 자연지리적조건의 영향과 경작조건, 농업의 기술장비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벌방지대로부터 중간, 산간 지대로 들어갈수록 농업로동은 더 힘들고 비능률적이며 영농기술수준과 농사방법도 뒤떨어지게 되는것이다. 농업의 이러한 자연경제적특성으로 하여 같은 로동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수준과 농민들의 물질적생활에서 지역적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벌방지대와 중간, 산간 지대들사이에 생기는 경제발전수준에서의 차이는 나라의 공업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결코 없앨수 없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국가가 공업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가면 경제발전수준에서의 지역적차이가 점차 없어지게 되며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력도, 지배범위도 커지게 된다. 각이한 지역의 농민들이 다 자연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지배하고 동일한 로동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지역들사이에 존재하는 로동조건과 물질생활에서의 차이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각이한 지역들사이의 문화발전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모든 농민들에게 평등한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줄수 있게 한다.

문화발전수준에서의 차이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이 심할뿐아니라 지역에 따라 교육과 의료봉사, 교통운수조건을 비롯한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에서 심한 차이가 있게 된다.

농촌의 각이한 지역들사이에 존재하는 문화발전수준에서의 차이는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농촌주택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키고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교통운수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농민들도 벌방지대의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에서 살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지역적차이를 없애고 농촌지역들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 바로 여기에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모든 지방의 농민들이 다같이 농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야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이 복잡성을 띠게 되는것은 농업의 공업화와 농민의 로동계급화자체가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 농촌의 지역적차이를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완전히 넘기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과업은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것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농촌을 빨리 추켜세워 벌방지대에 접근시키게 함으로써 농촌경리전반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소멸할수 있게 한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또한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한다.

지방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농업과 지방공업이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면 농촌경리의 다각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되며 농산물원료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지방공업을 적극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공업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적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문명하고 기술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나라의 어느 한 지역도 뒤떨어진데가 없게 모든 지역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남아있고 뒤떨어진 농촌, 뒤떨어진 리들을 그냥 남겨두고서는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갈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전망적요구도 실현해나가는것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의 현명성과 독창성이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튼튼히 견지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업의 생산토대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농민들은 세기적인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었다. 특히 자연지리적조건이 불리한 산간지대, 중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은 이루다 말할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도 토지개혁부터 먼저 실시하시여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을 몸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하리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산간지대의 농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자기고장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짓고 수입을 높여나가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신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모든 농촌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기 위

한 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정전직후에 벌써 어렵게 사는 농민들과 뒤떨어진 농촌들을 없앨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으며 테제에서도 이 문제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18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한편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경리를 다각화하고 부업생산을 잘 조직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뒤떨어진 지역과 협동농장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획기적인 대책들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창성군을 산간지대의 경제문화발전의 본보기로 몸소 꾸리신데 기초하시여 1962년 8월에는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를 추켜세우시는것과 함께 녕변군을 중간지대의 본보기로 만들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중간지대의 농업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날수 있게 하시였다.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취하여진 국가적인 혜택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업현물세를 없앨 때에도 모든 농촌을 고르롭게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경제토대가 약한 협동농장들부터 먼저 없애도록 하시였으며 산간지대농촌들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게 국가에서 집짐승도 보내주고 여러차례에 걸쳐 축산물과 공예작물의 수매가격을 높여주도록 하는 등 수많은 혜택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날로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의 정당성을 심장깊이 느끼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특히 지난날 사람못살곳이라던 산간지대의 농민들은 아무리 메마르고 궁벽한 산골이라 해도 자기고장에 능히 살기 좋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변화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자기고장을 사랑하고 대를 이어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새세대들은 집단적으로 농촌에 진출하여 부모들의 뒤를 이어 자기고장에 공산주의농촌을 건설하고야말겠다는 결의드높이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투쟁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또한 농업생산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해발 천메터가 넘는 산간지대에도 정연한 관개체계가 세워졌으며 농촌전기화가 완성되여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리들과 농가들에까지 전기가 들어갔다. 또한 지대적조건에 맞는 크고작은 여러가지 형의 뜨락

뜨락또르가 생산되여 1977년에 벌써 경지 100정보당 벌방에서는 6대, 중간 및 산간지대에서는 5대씩 일하게 되였다. 협동경리를 무을 때는 부림소와 달구지조차 변변히 없었던 우리의 협동농장들이 오늘은 수십대의 뜨락또르와 여러대의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밭갈이로부터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지난날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던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농산과 축산이 배합되고 과수업, 누에치기, 공예작물재배가 빨리 발전하여 농촌경리가 다각화되였다.

알곡생산이 높아지고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한 결과 벌방이나 중간, 산간지대 농민들의 분배몫이 고르롭게 높아지고 전반적인 농민들의 생활은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못지않게 향상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지역들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의 하나는 농민들의 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촌의 문화적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협동농장들의 작업반마다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고 모든 리들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이 있으며 통학거리가 먼 외진 산골의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분교가 수많이 설치되고 통학렬차까지 운영되고있다. 또한 협동농장들마다 수십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수많은 농장원들이 농업대학과 고등농업전문학교의 통신교육망에 망라되여 공부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주생시설까지 갖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어줌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던 오막살이의 흔적이 사라지고 분산적인 주택배치의 유물이 없어졌다. 이와 함께 농촌진료소의 병원화, 농촌의 수도화와 뻐스화가 실현되여 산골도 도시나 벌방 부럽지 않게 살기 좋은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군이 강화된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오늘 벌방이나 산골이나 할것없이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은 수십개의 지방산업공장들과 농기계작업소, 자동차사업소들을 가지고있으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참으로 온 나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세기적인 전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밝히져있고 뒤떨어진 지역을 추켜세운 본보기와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이 있으며 위대한 주체공업과 믿음직한 로동계급의 지원이 있는 이상 보다 큰 성과는 확정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을 안고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우리의 모든 농촌을 더욱 문명하고 살기 좋은 공산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통계는 경제관리개선의 힘있는 수단

신 경 식

통계사업을 개선하여 통계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통계는 사회현상의 객관적실태를 옳게 인식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나라살림살이를 계획화하고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사회 및 자연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시간과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유리하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자면 량적측면과 질적측면을 련관시켜 그 변화과정을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와 자연의 이러저러한 현상들과 그 변화실태를 수자로 표시하는것이 바로 통계이다.

통계자료들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과 자연현상, 자연부원의 실태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통계자료를 깊이 연구분석하면 사회생활과 자연현상의 객관적실태를 량적으로뿐아니라 질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올바른 결론을 얻을수 있다.

통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수자로 여러가지 현상들을 표시하지만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그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통계는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온갖 착취현상을 분칠하고 감싸기 위하여 사실을 외곡하고 과장한다. 자본주의통계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는 반동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통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객관적실태를 거울과 같이 반영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비과학적이며 허위적인 통계를 작성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통계만이 사회현상의 전반실태를 사실그대로 보여주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통계는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는 곧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엄격한 계산과 과학적인 통계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31페지)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업이든지 객관적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나라의 모든 생산설비들과 원료, 자재가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현상의 세부실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계획수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으며 총화 및 평가 사업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과학적인 통계가 없이는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장악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계획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인민경제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사업이다. 인민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자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계획작성에서 현실적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의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계획작성시기에 도달된 생산 수준과 규모, 생산능력과 같은 구체적인 실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며 종합된 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쟁목표를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방대한 사업은 과거와 현재에 나타난 모든 경제현상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그것은 통계에 의하여 해결되게 된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려주고 매개 경제지표들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경제발전의 앞날을 예견하는 계획화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된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장악하는것은 또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계획을 작성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공정에 불과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작성된 계획과제를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그렇게 하자면 통계사업을 강화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통계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계획실행과정을 늘 손금보듯이 환히 장악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지도일군들이 인민경제의 앞선 부문과 뒤떨어진 부문, 앞선 단위와 뒤떨어진 단위들을 정확히 알수 있게 하며 나타난 현상의 원인과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찾아낼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일군들이 경제발전에 작용한 긍정적요인은 조장발전시키고 협동생산규률과 계획규률을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바로잡아줄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전투지휘를 짜고들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통계자료들은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과 생산지도일군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기대와 설비들의 가동정형, 원료와 자재의 보장 및 리용정형,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와 로동생산능률, 생산물의 원가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통계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계획의 실행과정과 그 결과를 정확히 장악하여 계획규률을 세우고 계획실행을 추동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8페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

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경제생활전반과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깊이 분석하는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수자들은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원료와 자재, 설비의 보장상태와 리용정형, 로력관리로부터 인민경제의 모든 단위, 모든 부문의 경영활동실태와 결과를 한눈으로 알아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종합하고 깊이 분석하면 어디에 어떤 예비가 얼마나 숨어있고 그것을 경제건설에 어떻게 동원할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그리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있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통계는 과학적인 수자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힘있게 확증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때 자기들에게 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 마련된다는것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통계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맡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이처럼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통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는 매우 큰 규모로 늘어났으며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의 인민경제는 정연한 부문구조를 갖춘 튼튼한 자립경제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그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커졌다.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도 매우 높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은 오늘의 조건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통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있다.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생산단위들과 모든 부문들에서 경영활동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현실 그대로 제때에 장악하여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에 복잡하고 밀접한 생산적련계가 맺어지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도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기대와 설비를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또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고 생산과 수송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통계의 역할을 높이고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통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통계의 역할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32페지)

자료의 정확성과 시간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통계의 본성적요구이며 통계사업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아무리 신속한 통계라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하거나 아무리 정확한 통계라도 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계자료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한다는것은 현실을 과장하거나 외곡함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재정된 시일안으로 장악한다는것을 말한다.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이 보장되여야 현실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고 옳바른 결론을 내릴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는 통계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통계를 일원화한다는것은 통계사업에서 중앙집권체를 강화하여 통계자료의 장악에서 통일성과 유일성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통계를 세부화한다는 것은 통계지표를 세분확대하여 사회경제현상의 실태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장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원화, 세부화된 통계만이 객관적현실을 구체적으로 제때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통계사업을 주인답게 진행하여야 한다.

형식주의와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은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일군들은 형식주의, 본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의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 사소한 표현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당적, 국가적립장에 엄격히 서서 통계의 정확성과 시간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형기계설비와 같은 큰것으로부터 바늘과 같은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빠짐없이 제때에 정확히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통계가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통계사업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천수만가지의 자료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분석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다. 통계사업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실지 쓸모있는 자료를 장악할수 있다.

일군들은 통계사업 규정과 규범을 엄격히 지키고 국가의 통일적인 통계방법론에 의거하여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공장, 기업소들의 통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하며 아래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이 맡은 사업에서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이룩한 성과를 널리 도입하여 계산사무를 적극 기계화하는것은 통계의 정확성과 시간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

모가 커짐에 따라 계산사무량은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러한 조건에서 늘어나는 계산사무의 기계화를 다그쳐야 짧은 시간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장악할수 있으며 계산로력을 줄이고 일군들을 계산사무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계산기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각종 계산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가통계기관들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의 통계세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통계단위들에서 계산의 기계화를 적극 밀고나가 통계의 과학성과 시간성을 보장할수 있다.

통계의 역할을 높이고 통계가 사회주의건설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성된 통계자료를 잘 분석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는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량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늘 통계를 장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통계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통계수자를 장악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종합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자는데 있다. 만약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만 그치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는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통계자료는 한갖 수자더미에 지나지 않게 된다. 통계는 이미 수행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늘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미 수행한 사업을 총화검토하고 개선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통계자료의 분석은 반드시 당정책적선에서, 정치적각도에서 하여야 한다.

통계자료를 순수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당정책적선에서, 정치적각도에서 분석하여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생산자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자료의 분석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있을수 있는 약한 고리들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국가통계기관들을 강화하고 통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이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통계사업의 직접적담당자는 국가통계기관들과 통계일군들이다. 그러므로 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을 강화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모든 국가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 통계일군들은 해당 지역과 단위들의 통계사업을 완전히 책임지고 조직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통계사업에서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 국가적으로나 기업소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통계사업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론증하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통계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통계가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더 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미제는 남조선파쑈독재의 조종자이며 인민탄압의 원흉

황 동 섭

미제국주의는 교활한 신식민주의의 량면술책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고 식민지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는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횡포한 파쑈적폭압과 치떨리는 대중살륙만행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침략과 략탈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쓰고있는 량면술책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파쑈적폭압만행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거덜이난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낡은 곡조를 불어대면서 남조선에 수립된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부지하려고 발악하지만 남조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 *

식민지나라 인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기본수법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력사에 존재한 모든 식민주의는 바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비인간적인 탄압과 폭압, 가혹한 착취로 자기의 잔명을 유지하여왔다. 침략과 략탈이 없는 제국주의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탄압과 착취가 없는 식민주의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에 대한 식민주의자들의 탄압과 착취의 수법은 시대와 력사의 발전과 함께 달라졌다.

그것은 종래의 공공연한 직접적탄압방법과는 달리 은폐된 형태의 간접적방법으로 전환된것이다. 다시말하여 식민주의자들이 직접 정면에서 식민지인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던 총독통치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은 나서지 않고 식민지괴뢰들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인민탄압을 강화하고있다.

이 통치수법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데 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과 세력권이 급격히 약화된 새로운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음흉한 수법이다.

때문에 신식민주의통치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민탄압의 장본인으로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옴폐되고 그대신 《보호자》, 《원조자》의 가면을 쓴 식민지지배자들의 위선적인 정체가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곧 식민주의자들에게 피압박인민들의 직접적반항을 피할수 있는 여유를 줄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저들에 대한 환상까지 조성하여 식민지지배를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수법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무엇보다도 《친선》과 《협조》의 이름밑에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군사적으로 침투하며 《해방자》의 가면을 쓰고 다른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짓밟으며 《인권옹호》와 《민

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인권과 정치적자유를 유린하고 《원조》의 구실밑에 경제적예속과 략탈의 올가미를 씌우는데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들고다니는 표면상의 광고가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가리우고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신식민주의량면술책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특히 그들이 온갖 파괴, 암해, 전복 활동과 함께 가장 포악무도한 군사파쑈독재의 수립도 서슴지 않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군사파쑈독재는 식민지지반이 허물어질 때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의거하는 마지막통치형태이다.

미제가 이전에 남부웰남과 캄보쟈에서 저들의 식민주의통치가 궁지에 빠지게 되자 《민주주의》의 간판을 집어던지고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던 사실, 이란과 니까라과에서 괴뢰들을 내세워 극악한 파쑈독재를 하다가 망한것 등은 다 그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남조선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쓰고있는 침략적수법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고 꾀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6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이 지역을 아세아전반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의 전면적파급을 막기 위한 거점으로, 동북아세아의 지탱점으로 틀어쥐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이로부터 미제는 다른 식민지들과는 달리 남조선에서만은 강점한지 35년이 되는 오늘까지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살육무기들을 끌어들이고 4만여명의 자기의 침략군을 배치해놓고있으며 7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마다 방대한 규모의 군사, 경제적 《원조》를 들이밀고 이것을 미끼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잠재력을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복종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군사전략적 지위와 중요성은 미제로 하여금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도 구식민주의통치수법과 큰 차이가 없는 군사파쑈독재를 강력히 실시하게 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군사파쑈독재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지향과 자주권을 말살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통치형태이기때문이다.

군사파쑈독재를 집요하게 추구한 미제의 책동은 해방직후의 미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전두환군정에 이르기까지 군사파쑈독재로 일관시켜온 지난 35년간의 남조선강점력사에 의하여 그대로 확증되였다.

이 기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구실밑에, 또는 남조선을 《민주주의진렬장》으로 만든다는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보수정당들을 조직하여 정당활동을 시키기도 하고 이른바 《국회》를 만들어 의회정치의 흉내를 내는 놀음도 벌려왔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벌어진 이 《민주주의》놀음은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분장하고 은페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어느 한때도 참다운 민주주의가 보장된 때는 한번도 없었다.

그러한 시기에 남조선에서는 항시적인 《전시상태》 또는 《준전시상태》가 지배하고있었거나 군사계엄령을 비롯한 각종 명색의 《비상사태》들이 2중3중으로 선포되였으며 따라서 로농대중의 계급적리익을 위한 혁명적정당활동과 선

진사상연구를 비롯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기본권은 전혀 보장될수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형식상 때때로 벌리군하던 그 《민주주의》놀음마저도 식민지통치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집어던지고 저들의 주구를 내세워 공개적인 군사파쑈독재에로 넘어가는것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위기에 직면하자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을 집어던지고 박정희군사불한당을 시켜 군사정변으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케 하였으며 1972년 남북공동성명발표와 남북대화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속히 높아지자 이에 당황하여 《10월유신》이라는 제2의 군사파쑈독재를 재수립한것들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박정희역적이 죽은 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전반적인 민심이 민주화에로 쏠리자 다시금 전두환살인악당을 부추겨 오늘의 가장 무지막지한 군사파쑈독재체제를 새롭게 세우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떠들어온 《민주주의》니 《인권옹호》니 하는 구호가 철두철미 기만이고 위선이며 그 화려한 간판밑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추구해온것이란 오직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군사파쑈독재의 유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는 이미 세운 식민지괴뢰정권을 조종하다가도 자기들의 지배와 략탈의 목적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슴없이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군사불한당들로 파쑈독재정권을 꾸리는것이며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군사파쑈독재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것이다.

특히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지난 5월 광주인민봉기를 전후하여 전두환군사파쑈분자를 인민탄압에로 내몬 미제의 범죄행위는 그들의 신식민주의량면술책의 교활성과 악랄성, 인민교살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은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박정희가 죽은 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에 대한 지향과 운동이 급격히 높아지자 이에 편승하여 저들도 마치 남조선의 민주화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동정》을 보이는척 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그 배후에서 민주화운동을 압살하고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할 모략을 꾸미였다.

지난해 12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군부사건》을 일으키고 40여명의 반대파 《고위장성》들을 제거한 다음 군부와 《정부》의 실권을 틀어쥐게 한것은 바로 미제가 이미부터 계획한것이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군대와 남조선괴뢰군의 무력을 더욱 증강하는 한편 땅과 바다, 하늘에서 력사상 최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80》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인민대중의 민주화운동을 힘으로 억누르기 위한 로골적인 위협시위까지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특히 지난 5월 17일 《비상계엄령》의 확대선포와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류혈적탄압을 계기로 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전까지만도 형식적으로 쓰고다니던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두환군사깡패들 부추겨 《비상계엄령》을 남조선전역에 확대선포하도록 한 다음 《국회》를 봉쇄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완

전히 정지시켰으며 대학문을 닫아매고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투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주인민봉기자들을 잔인하게 살륙하도록 적극 뒤받침하였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정의의 무장을 들고 떨쳐나섰을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비상대책》들을 세운후 즉시에 저들의 통제하에 있는 10개 사단의 괴뢰군무력을 전두환역적에게 내주어 인민학살을 위한 무차별 《대토벌작전》에 내몰도록 하였으며 4만여명의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비상동원령》을 내려 임의의 시각에 인민탄압에 동원될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항공모함 《코랄씨》호를 비롯한 기동타격함대와 공중경보통제기를 남조선의 해역과 주변에 새로 투입하여 힘을 시위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을 위협공갈하고 그들에 대한 대중적살륙을 부추기는 광란적인 《성명》과 《담화》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미국대통령보좌관이란자는 광주인민봉기를 《무쇠주먹으로 진압》하기 위해 미군을 즉시에 출동시켜야 한다고 광기를 부렸고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느니 《남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미국의 인권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압살하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바로 미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배후 조종과 힘의 뒤받침이 있었기에 전두환살인백정은 살기등등하여 동족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파쑈악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하여 자유와 민주의 함성으로 들끓던 광주의 거리에는 1만여명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붉은 피와 시체들이 차넘치게 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력사적으로 남조선의 군사깡패들을 내몰아 인민탄압을 감행한 장본인이며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있는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서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 악랄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를 모면해보려는 마지막발악이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대내외정책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불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배격당하고있으며 고립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02페지)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일관하게 추구해온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파탄되고있으며 그들이 뻗치는 간섭과 지배, 략탈의 검은 촉수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배격당하고있다.

이미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그후 꾸바와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데 이어 얼마전에는 이란과 니까라과, 그레네이더에서 또다시 만회할수 없는 쓴맛을 보았다. 또한 사회주의력량의 끊임없는 장성, 신흥세력의 등장과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은 미제의 세력권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제는 대외적으로뿐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오늘 미국경제는 최악의 파멸적위기를 겪고있다.

생산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있으며 물가는 뛰여오르고 통화가 걷잡을수 없이 팽창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거리를 메우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경제가 직면하고있는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미국경제가 《50년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이 이상 더 악화되면 《미국이 2류국가로 떨어지고말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위기와 함께 사회적불안과 정치적혼란도 또한 전례없이 격화되고있다. 때문에 미국이 처하고있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두고 그 《동맹국》들에서는《미국이 이미 초대국이 아니다.》라고 야유아닌 평가를 내리고있다.

이와 같은 사태앞에서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힌 미제는 체면도 《위신》도 다 집어던지고 《힘의 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제날 《군비축소》를 웨치던 그 입으로 오늘은 군비증강의 절박성을 떠들고 《핵무기제한》을 들었던 그 손으로 오늘은 핵무기시험과 새로운 대량살륙무기생산을 더욱 다그치며 그전에 강조하던 《긴장완화》와 《화해》의 구호는 오늘의 광기어린 전쟁준비로써 바뀌여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원료와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야망밑에 원료공급기지와 연료공급기지를 지배하기 위한 쟁탈전에 더욱 발벗고 나서고있다.

특히 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넣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또다시 자기의 식민지체계에 얽어매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적간섭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에 원조를 주지 않겠다던 미국의 공약은 미국의 지배권을 위해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원조를 준다는 새로운 공식으로 교체되고있다.

오늘의 남조선은 미제의 바로 이와 같은 《힘의 정책》의 전형적인 적용지대로, 그 《강경정책전개》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동북아세아의 마지막 전략적보루인 남조선만은 어떤 국제적비난이나 도덕적손실을 당하더라도 기어코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야망밑에 군사파쑈독재를 그처럼 적극 뒤받침해주고 인민탄압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부지할수 없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할수 없다.

탄압과 억압이 있는곳에 반항이 있고 폭압이 커질수록 또한 반항도 커진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이 진리를 거역하고 반역의 길로 나가는자들은 오직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할뿐이다.

지금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대내외적으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인간교살자 전두환악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굴함없이 벌리고있으며 괴뢰들내부에서까지 전두환깡패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전두환살인악당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미제와 전두환일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미제는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물러가야 하며 남조선의 군사불한당들을 부추겨주지 말아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통일단결

명 창 선

오늘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고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충돌과 분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

조성된 정세에서 쁠럭불가담운동앞에는 국제긴장상태를 풀고 세계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고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이 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　　*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이 운동은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민족적독립과 평등, 령토완정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매개 인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숭고한 리념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정책은 제국주의가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71폐지)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세계의 그 어떤 인민,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이 투쟁은 그 무슨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목적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공통된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지향,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 대오에 단합시키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들을 견결히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취하고있는 모든 정책들과 원칙들 그리고 이 운동이 벌리고있는 공동투쟁은 세계혁명위업과 국제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세계무대에서 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과정이 힘있게 촉진되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지난 20년동안의 력사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인류에게 그처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 사회적진보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로운 위업을 추동하는데 힘있게 기여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력사적진군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증대되는 영향력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이 운동을 분렬파괴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세계를 세력권으로 재분할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현대제국주의나 침략과 략탈은 그의 변함없는 본성이다. 이러한 본성은 바로 그것이 제국주의의 본질적내용을 이루기때문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변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늘의 조건에서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며 악랄해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시장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렸다면 오늘은 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사분오렬시켜 자기들의 옛식민지체계에 끌어넣어 지배하기 위한 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특히 놈들은 오늘 절실하게 소요되는 연료와 원료를 확보하려고 연료공급기지, 원료공급기지를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에 피눈이 되고있다. 이러한 쟁탈전은 세력권확장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사이에 대립과 알륵을 격화시키고 랭전과 군비경쟁을 새로이 불러일으키며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과 군사적충돌을 초래하게 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 리간시켜 각개격파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일련의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일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세력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에 말려들어 희생당하고있다.

이리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국제사변들에 대처하여 일치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있으며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쁠럭불가

담운동은 추서지 못하고 무맥해지고말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1페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모두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생활을 지향하고있는만큼 이 공통점에 기초하여 능히 단결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 경제발전수준과 자연지리적조건 등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결코 단결에 장애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그 숭고한 리념과 목적으로 하여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그것은 이 운동의 투쟁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력사는 이 운동성원국들의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분쇄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집요하게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와해시키려고 발악하였던 베오그라드외교부장회의와 제6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때에도 이 운동의 분렬을 막아낼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성원국들이 단결의 원칙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한데 있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고있는 복잡한 과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이 운동의 몇몇 성원국들의 힘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 문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는 문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발전도상 나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문제 등은 오직 쁠럭불가담운동의 강력한 공동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분렬을 막고 통일단결을 확고히 이룩해나갈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쁠럭에 가담하지 않는 자주, 독립, 중립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그 기초로 하고있으며 자기의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자주성을 근본요구로 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민족들간의 예속과 지배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서로 힘을 합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운동으로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며 운동안의 모든 성원국들사이에서도 자주성을 전제로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 독립, 중립의 립장을 지키는것은 진정한 쁠럭불가담나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자주, 독립, 중립의 원칙은 쁠럭불가담운동을 어느 렬강들의 쁠럭에 끌어붙이려 하거나 이 운동안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배격한다.

또한 이러저러한 리유를 걸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으려 하며 이 운동안에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려는

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자 않는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존중함으로써만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의 온갖 형태의 간섭과 쟁탈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 독립,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쁠럭에 가담하지 않는 자주, 독립, 중립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이 곧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만큼 여기에 충실할 때에만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성원국들이 이 운동의 특성을 고수하면서 분쟁문제들과 의견상이들을 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는것이다.

사회제도와 신앙, 정견을 달리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자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아무리 복잡한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서로 싸우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수도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움을 한다면 거기에서 리익을 보는것은 제국주의자들뿐이고 손해를 보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자신이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발생한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자기의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의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리념을 진실로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발휘하여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은 서로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일치한 행동으로 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책동을 막고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진군로를 힘차게 개척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침략과 략탈에 기초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해관계와 사활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원료, 무역, 통화, 기술 등 국제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지 않고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 나라들이 단결을 강화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나갈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적

국 투쟁하여왔으며 이 과정에 여러가지 유익한 결정들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나도 그대로 리행된것이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것만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나간다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에 응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 협조를 잘 발전시켜나가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자립을 이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밀고나가는데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성원국들[illegible] 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가[illegible] 데 선차성을 부여하고 기술이 있는[illegible] 는 기술을, 원료가 있는 나라는 [illegible] 자금이 있는 나라는 자금을 가지[illegible] 발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감[illegible] 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illegible] 불가담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이룩[illegible]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앞당겨나가[illegible]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손잡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0년 제8호(루계 460호)

편집위원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8월 1일 발 행•1980년 8월 5일

ㄱ—05217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제 9 호(46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로정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한다.

우리 당이 걸어온 35년의 력사에서 당 제5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가장 의의깊고 자랑스러운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영광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10년간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왔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되고 그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더욱 찬란히 빛내이는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자랑찬 성과들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우리 당이 창건된후 35년간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지난 1970년대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특기할 사변들과 영웅적위훈들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시기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기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비약과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는 무엇보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강화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로동계급의 조직된 전위부대인 당은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만 자기의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바로 여기에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건설의 근본문제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을 대를 이어 당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대렬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당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강철같은 통일단결이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확고부동한 기본방침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되고 당중앙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전당에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주체의 령도방법,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생기발랄하게 전투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정책이 하부말단까지 깊이 침투되고 전당, 전국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으로서 주체형의 피,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불어주는 사회의 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성과들은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 제5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것이다.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지난 1970년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개시하여 이룩한 불멸의 업적들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80페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총적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영원히 빛내이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며 전투적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첫 위대한 혁명의 진군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뚜렷한 목표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곧바른 길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이 주체적인 인간개조방침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산악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면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이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속도전의 힘찬 진군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매우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그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70일전투속도》와 같은 놀라운 진군속도가 창조되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6개년계획이 훨씬 앞당겨 완수되였

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방대한 제2차7개년계획 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으며 보통이면 몇십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과업도 몇해, 몇달사이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3대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다그쳐짐으로써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많이 해방되고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속에서도 해마다 대풍이 마련되였으며 지난해에는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농촌의 수도화와 농촌뻐스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농촌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기술자, 전문가 대오를 100만명으로 늘일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민족간부대렬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수행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다. 오늘 문화혁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의무교육을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것은 지난 기간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대작들이 훌륭히 창작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일대 전성기에 들어섰으며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에서 그 어느 세대도 누려보지 못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숭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조국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자주적인 조국통일위업을 주체적력량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개척해왔다.

지난 기간 대외활동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 당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 당은 이렇듯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대외관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참으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년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위대한 전변과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 자랑찬 10년이였다.

*　　　　*

지난 기간 우리 당 건설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8페지)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겹쌓인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길이였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거창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은 오직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이 세상사람들을 그토록 경탄시킨 거대한 전변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온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와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를 비롯한 당 및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로선으로 밝히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을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강령으로 선포하고 이 력사적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새로운 당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당조직들로 하여금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게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선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왔다.

우리 당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전반적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수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갔다.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제적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투쟁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앙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였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림으로써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속도전의 진군속에서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강화되고 전면적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여나가고있으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우리 인민들이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면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높은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전격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제때에 발기하고 옳게 지도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과 같은 거창한 사업을 대중적투쟁으로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갔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방대한 과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높은 투쟁목표를 내놓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판을 크게 벌려 적극 밀고나갔으며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대중적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를 비롯한 혁명적구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그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인민대중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람도 자연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 땅우에 끊임없이 솟아났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에서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끝없이 륭성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고있으며 거기에서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감으로써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불이 번쩌나게 해제끼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방대한 투쟁과업은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패기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하며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판을 크게 벌림으로써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곧바로 이끌어나가고있다.

가까운 앞날과 함께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비약이 이룩될수 있게 한 위력한 힘의 원천이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 짧은 기간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왔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국제로동계급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조선혁명에서 이룩된 그 어떤 승리와 성과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으며 민족의 륭성번영과 혁명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과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준다.

지난 기간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거둔 빛나는 성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견인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지난날의 생활을 통하여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로 차넘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며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보람찬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김 화 종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지도사상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0페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지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을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 공산주의사회의 인간이 지녀야 할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옳바른 세계관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정하는 근본표징일뿐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사람들이 옳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세계가 무엇이라는것을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 기초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근본관점과 태도를 세우자는데 있다.

사람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에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과 방법을 밝혀주며 그들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품어야 할 모든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주체사상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새로운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관은 다 일정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세계관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세계관의 출발적전제로 되며 그 본질적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세계관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세계관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이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여기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두 측면에서 밝혀준다.

그 한측면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있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이 주위세계에 있는 모든것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세계의 모든 령역, 모든 대상을 현실적으로 다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외부세계에 얽매여사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력사발전의 매 시기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령역과 대상은 제한되여있다 하더라도 인류의 전력사적 세대는 총체로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 된다고 말하게 되는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다른 한측면은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의 변혁과 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준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아직도 사람이 조절통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운동변화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세계의 운동법칙에 종속되여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의 운동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며 조절통제하여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말하게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관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사람을 위주로 세계관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옳바르게 해명한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근본원리로 된다.

세계관은 원래 사람을 위한것이다. 세계관을 주는 학문인 철학자체가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하여 가지게 되는 주위세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긴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사명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밝히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람을 위주로 하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서는 사람과 주위세계가 현실세계를 이루는 두 기본요소로 고찰되고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밝히고있다. 따라서 이 철학적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를 세울수 있게 하며 사람을 위주로 세계관적 립장과 방법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것을 지향하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근본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특성을 밝힌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근본원리로 된다.

세계관이란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한 지향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세계에 대한 근본관점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급적리해관계가 놓여있다. 인류철학사상에 나타났던 그 어느 철학조류에 대하여서도 다 그렇게 말할수 있다.

반동적인 착취계급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데로부터 《하느님》이나 그 어떤 신비적인 《정신적실체》와 같은것이 사람과 세계를 지배한다는 비과학적인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출발한 관념론적이며 반동적인 세계관을 퍼뜨린다.

그러나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계급

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된다.

이것은 어떤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데 따라 세계관의 기초로 되는 원리가 다르게 서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며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이며 근본리해관계라는것을 발견하시고 여기로부터 출발하시여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세우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근본리해관계의 견지에서 세계를 파악한 원리가 다름아닌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가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해나가는 현실세계의 객관적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해관계의 견지에서 세계를 정확히 파악한 원리라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원리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사상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페지)

세계관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철학적원리에 의해서뿐아니라 세계관이 밝혀주는 내용의 과학성과 그 완벽성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사람이 주위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 관점이기때문에 그것이 옳바른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운동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하며 둘째로,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주어야 하며 셋째로, 세계를 이루는 두 기본요소인 사람과 주위세계의 호상관계, 호상작용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준다.

선행한 그 어느 선진사상도 사람에게 자주성과 같은 본질적속성이 있다는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리해를 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로대한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것으로 된다.

사람에 대한 리해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전제로 하지만 사람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결코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질수 없다.

주체사상은 또한 주위세계와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하여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 호상작용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준다.

사람은 주위세계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뗄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주위세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작용한다. 사람과 주위세계의 호상작용에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에 세계의 모든 물질적존재들을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더 사람을 위한것으로 변화발전하여나간다. 이것이 사람과 주위세계의 호상작용의 양상이며 사람을 위주로 하여 본 세계의 참다운 모습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야말로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옳바른 관점을 준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세계를 대하는 옳바른 태도, 립장과 방법을 밝혀줌으로써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위력한 무기를 준다.

세계관이란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 립장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뿐아니라 세계를 대하는 립장과 방법이 정확히 섰을 때에야 비로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세워졌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단계가 실증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착취제도의 본질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세계관이 다 섰다고 말할수 없으며 착취제도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태도를 철저히 가졌을 때 혁명적세계관이 섰다고 말할수 있다.

주위세계의 일반적특징을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은 더 말할것도 없이 사람이 세계를 대하는데서 의거해야 할 중요한 행동의 지침으로 된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주동적태도를 구별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사람이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는 태도로서의 주체적 립장과 방법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를 대하는 립장과 방법이 바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객관세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립장과 방법과는 구별된다.

자주적립장이 사람의 자주성을 구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창조성을 구현한것으로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세계를 대하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 되는 리유가 있으며 그것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무기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대하는 혁명적인 립장과 방법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세계관이 담아야 할 구성내용을 완전하게 담고있는 참으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

삼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0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며 그들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며 사람밖에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름아닌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말한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그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사람밖에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어떤 힘도 없으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오직 사람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것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

사람의 생활이란 본질상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며 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 운명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며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된다. 혁명투쟁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투쟁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여기에 인간의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본질이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생활의 참다운 본질을 밝혀줄뿐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과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다.

만약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혁명투쟁에 나설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억눌려 살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기고 한탄만하는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억눌려사는 자기의 사회적처지를 통감하면서도 일떠서 싸울 각오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쳐다보고 남의 힘에 의존하며 결국 제정신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바로 여기에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비할바없는 위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관이 풀어야 할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준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확립을 위한 초석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가장 과학적인 토대우에 정연하게 세워질수 있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

립장과 방법,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주체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로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것이 담고있는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내용과 그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 그들을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나타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추세를 반영하여 그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의 혁명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인류의 해방투쟁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은 없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김 용 학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이한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5년, 그것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하신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것은 전당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어있는데 있다.

* *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은 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며 바로 여기에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49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인 당이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려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당만이 사상의지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을 떠나서는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에 대해서도, 그 불패의 위력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은 무엇보다도 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결합된 강철의 대오로 만든다.

당의 통일과 단결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의미하며 또 그러한 단합이라야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된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은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과 분파적인 행동을 막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단합은 오래갈수도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될 때에만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안에 그와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합된 강철의 대오로 만들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그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체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대오로 만든다는데 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사상의지적통일과 함께 행동상 통일을 전제로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한다는것자체가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울뿐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구경은 온갖 자유주의적인 행동과 무규률적인 현상을 없애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행동의 통일은 사상의지적통일이 이룩되여야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따라서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행동상의 일치성은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두가 수령과 같이 숨쉬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당을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에 의하여 조직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대오로 만들수 있게 한다. 이것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이야말로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함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가장 빛나는 총화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철통같이 뭉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강화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 당 대렬은 당과 수령에 대

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있다.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만을 믿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억세게 싸워나아가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되였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제때에 하부말단에까지 침투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세워졌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들은 제때에 철저히 관철되고있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우리 당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의 실현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승리는 전적으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을 로동계급의 당의 운명,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대오로 만들수 있으며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지 못한 당은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진통과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으며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지 못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근본원칙으로 규정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로선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에 의하여 당의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는 당의 유일사상이며 그것은 곧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이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기초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

일단결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49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정치적조직이다.

사람의 몸에는 한가지 형의 피만이 있어야 하듯이 한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의 당이 아니며 진정한 혁명적당, 수령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유일사상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진정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은 바로 전당의 사상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이 원칙적문제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에 의하여 또한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굳게 뭉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한 해명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전당을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되여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룬다.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수령이 없는 당은 마치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다. 또한 참모부가 없는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의 령도를 받는 당이 없이는 로동계급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당이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참모부라면 수령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령도하는 유일한 중심이며 최고뇌수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치지 않으면 대렬의 공고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되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오직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굳게 뭉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일 때라야 당은 가장 공고하고 힘있는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조직된 전일체로, 불패의 전투대오로 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이야말로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에 관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당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당의 철옹성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로선은 또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수령이 이룩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수령이 이룩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수령이 이룩한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지 못할 때에는 당이 변질되게 되며 수령의 위업은 중단되게 된다. 오직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여야 당을 불패의 힘을 지닌 수령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이 원칙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수령이 이룩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에 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섰던 진정한 통일단결, 가장 공고하고 힘있는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길이 바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그것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데 있다는것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안팎의 원쑤들을 쳐물리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우리 당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당과 혁명 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이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안팎의 원쑤들, 온갖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

대하고 당의 통일단결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6페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원쑤들, 온갖 기회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의 통일,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며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당안에 침습하는것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안팎의 원쑤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또한 공산주의운동에는 공산주의의식이 높은 선진분자들과 함께 아직 계급적자각이 낮은 사람들도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우연분자, 불순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통일과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것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하고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 자체발전의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창건된 첫날부터 온갖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서 중요한것은 종파주의를 뿌리빼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리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파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14페지)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당건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종파주의는 부르조아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 특히 개인영웅주의, 공명출세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해독적인 사상이다.

종파주의를 뿌리빼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종파주의가 매우 뿌리깊은것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산주의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분자들은 1925년의 공산당을 요람기에 말아먹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공산주의운동에 끼여들어 혁명대오를 분렬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과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해방후 복잡한 틈을 타서 우리 당안에 기여들어와 또다시 더러운 종파적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여나섰다. 나라와 혁명은 안중에 없고 개인의 직위와 권세에만 눈이 어두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당을 분렬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음모책동을 다하였다.

직위와 권세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이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서로 결탁하여 당을 반대해나섰으며 당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범죄적책동까지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종파주의를 뿌리빼는것이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종파분자들이 례외없이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남만 쳐다보면서 우리 당 정책을 덮어놓고 반대하여나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사상조류를 우리 당안에 끌어들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을 분렬파괴하며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들을 당안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들을 완전히 막을수 없었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를 뿌리빼는것이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종파주의를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정하시였으며 반종파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를 우리 세대에 와서 조직사상적으로 완전히 분쇄해버릴수 있었다. 또한 우리 당은 당안에서 종파주의의 오물을 깨끗이 청산함으로써 온갖 기회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안팎의 원쑤들, 온갖 기회주의를 짓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종파주의를 뿌리빼는데 그 예봉을 돌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의 통일단결에 지장을 주는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하지 못한 현상,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것이라면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타격을 주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650페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당의 통일과 단결에 대한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것을 저애하는 사소한 요소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점차 자라나 당과 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에 진심으로 충실하지 못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시련의 시기마다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변절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고수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할뿐아니라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과 당에 충실치 못한 현상,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특히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움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타격을 주고 철저히 극복해나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하

고도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고 반석같이 다져진 통일단결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로,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는것이다.

*　　　*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해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649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당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뿐이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떠나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도, 전당을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당의 령도에 충실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 때 준엄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쟁취하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온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은 굳건히 고수되고 더욱 튼튼하여지게 될것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발전시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옳은 결합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

배 범 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빛나는 투쟁로정에서 이룩한 자랑찬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이다.

모든 군중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하여온 당의 일관한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계급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주민구성이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이미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실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며 당의 활동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1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전사회를 굳게 단합되고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4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전위부대이다.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당의 계급적본성과 근본사명으로부터 흘

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립장을 튼튼히 지키며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편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승리할수 있는 매우 방대하고 거창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고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일관한 방침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로동계급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자신과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여야 한다. 만일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지 않는다면 반동계급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을뿐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해야 하는것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불가분적인 통일속에서 작용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당의 계급로선은 군중로선의 기초를 이룬다. 당이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는 목적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데 있으며 따라서 계급로선을 떠난 군중로선이란 있을수 없다. 또한 로동계급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기계적으로 분리시켜 그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는 경우에는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주게 된다. 만일 당이 계급로선만을 일면적으로 절대화하고 군중로선을 홀시하거나 위반한다면 좌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며 반면에 군중로선을 관철한다고 하여 계급로선을 저버린다면 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

켜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이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계급관계와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렬, 특히 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매우 복잡하다.》(우와 같은 문헌, 228페지)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놈들의 민족분렬정책,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매우 복잡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계급관계와 주민구성의 복잡성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원쑤와 우리편을 엄격히 가려내며 적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군중을 최대한으로 전취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관철함으로써만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각계각층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극소수의 계급적원쑤들을 제외한 모든 군중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불패의것으로 다지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방침이며 당이 좌우경적오유를 범하지 않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기 위하여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밝혀주는 탁월한 방침이다.

2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받들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그것을 옳게 관철하여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옳게 결합되여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중요한 방침의 하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8～169페지)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계급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대중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되여야 적대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적대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은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게 된다.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다같이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으로 구체화되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적원쑤들을 진압하는 측면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측면을 가진다. 계급적원쑤들을 진압하는 측면을 떼놓고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측면을 떼놓고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계급적원쑤에 대한 독재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조건을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는 계급적원쑤들을 성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그러므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고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적아를 똑똑히 가르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적아를 똑똑히 가르는것은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은 적아를 갈라보는데서 계급적견지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지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적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대상과 단결해야 할 대상을 잘 규정하여야만 원쑤들을 고립시키고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15페지)

계급적견지에서 적아를 갈라본다는것은 계급적처지로부터 혁명을 지지하는 계급인가 반대하는 계급인가를 갈라본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적대계급에 속하는 의식적인 반혁명분자와 기본계급에 속하면서 적들에게 기만당하거나 강요에 못이겨 죄를 지은 사람을 엄격히 구별하여보는것이 중요하다. 계급적견지에서 적아를 똑똑히 갈라보아야만 투쟁대상과 단결하여야 할 대상을 옳게 식별하고 계급투쟁에서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적아를 갈라보는데서 또한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사람들의 사상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반동사상에 물젖어 죄를 지었던 사람도 혁명의 진리를 옳게 인식하고 로동계급의 편에 설수 있으며 지난날 잘 싸우던 사람도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지 않을 때에는 변질될수 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여야 적아를 옳게 가려낼수 있다.

계급적견지에서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적아를 갈라볼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에는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타협없는 혁명적립장과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포섭하는 군중로선의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이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어떤 복잡한 사회계급관계에서도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투쟁대상과 단결하여야 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자

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며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의 역할을 높이면서 반혁명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몇몇 전문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계급적원쑤들은 깊이 숨어있으면서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놈들은 대중의 각성이 해이된 틈을 노리며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단결된 대중을 가장 두려워한다. 인민대중은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기본력량이며 그들이 각성되기만 하면 아무리 깊이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라도 능히 적발할수 있다.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에서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치고 다수의 피동분자들을 포섭하며 관대와 징벌을 배합하면서 반혁명과의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온갖 암해분자를 철저히 적발숙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확히 령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첫시기에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혁명대오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로동자, 농민출신의 선진분자들을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육성하시는 한편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사업과 보조력량을 꾸리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반일력량을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개혁을 불과 1~2년사이에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도 우리 당은 극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계층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소상품경제형태뿐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형태까지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불과 4~5년동안에 순조롭게 완수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조건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확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갔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청산되지만 그 잔여분자들의 반항은 계속되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혁명의 전진을 방해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

가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만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사회주의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을 적대분자처럼 취급하여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만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적대적요소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조성하게 된다.

우리 당은 여기에서 좌우경적편향들을 다같이 배격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짓부실수 있었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중요한 방침의 다른 하나는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하여 개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8페지)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은 혁명의 기본계급, 주력군으로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우리 당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와 혁명성을 가지고있는 농민의 계급적처지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혁명의 기본계급,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그들로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혁명대오,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동요없이 혁명적원칙성을 지키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혁명을 끝까지 힘있게 밀고나가는 강력한 혁명대오를 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이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로동계급과 농민으로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한것은 계급로선의 기본요구를 구현한것으로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대오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기본계급으로 계급적진지를 꾸리는것과 함께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당은 비록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계급과 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쟁취하여 묶어세워야만 혁명대오를 강화할수 있고 반혁명을 압도하는 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다. 만일 동요하고 불철저한 계층이라고 하여 배척한다면 결국 반혁명세력을 강화하고 혁명력량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이며 계급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쟁취하여 혁명대오를 꾸리는 사업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훌륭히 관철되였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종교인 지어는 민족자본가들까지 포함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반제민주력량을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혁명력량의 분렬을 미리 막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며 온갖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타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통일전선에서도 당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단결과 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군중속에서 나타나는 동요성과 불철저성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었으며 강력한 력량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당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도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방침을 일관하게 관철하였다.

민족자본가는 그 계급적처지로 하여 일정하게 반제적혁명성을 가지고있으며 실지로 로동계급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한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따라나가는것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접수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수탈의 방법으로 청산한것이 아니라 협동화의 방법으로 개조하였으며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의 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민족자본가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훌륭히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혁명대오를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서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뿌리뽑고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관철하면서 혁명대오를 가장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하여도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섭, 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왔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혁명을 지지해나선다면 그들을 대담하게 믿어주고 아량있게 포섭하여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조건에서도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

중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 사회는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분위기로 휩싸여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혁명적 정열과 랑만에 넘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 *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준 정당한 방침이며 가장 공고하고 힘있는 혁명력량을 마련하고 계급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 일관하게 관철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그 불패의 위력이 남김없이 증시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 때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성과적으로 진압할수 있으며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대오를 꾸리고 온 사회를 굳게 단합된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전변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한 불멸의 리론적재부로 되고있으며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진운동을 비상히 다그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대오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본질, 그 중요성과 의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깊이 파악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이 나오지 않게 하며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할 때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모든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다져나갈수 있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여야 한다.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

리 주 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력은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기층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질 때 강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세포인 초급당단체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앞에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초급당단체는 매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면서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전투단위입니다.

오직 초급당단체를 강화하여야만 전당을 강화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한결같이 발동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8~169페지)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튼튼하고 제대로 작용해야 하듯이 당을 강화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기층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기층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전당에 왕성한 전투적기백과 패기가 넘쳐날수 없으며 나아가서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없다. 기층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여야만 우리 당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을 공고히 하고 그 전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기층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을 더욱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다. 당이 힘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되자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그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세포생활을 통하여 진행되며 당세포는 매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의 거점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일상적으로 조직하고 총화하며 당규약상 규범의 요구대로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켜나간다.

당원은 당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게 되며 당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실행하게 된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이며 혁명화의 힘있는 무기이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고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게 된다. 또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의 조직원칙과 생활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수 있다.

기층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당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때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끊임

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따라서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인 당의 기층조직들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기층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기본전투단위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관철된다.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은 행정 및 생산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조직되여 있으며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 조직집행한다.

세포와 초급당조직은 생산단위에 조직되여있으므로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잘 알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상태와 기술실무적준비정도를 환하게 들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고있는 기층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대중속에 거침없이 침투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경험은 당의 기층조직들이 잘 움직이는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는 대중의 투쟁기세가 높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당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 있다.

기층당조직들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함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사나운 비바람도 끗끗이 이겨낼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가는 강철의 대오로 될수 있다.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지 못하고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생명력을 잃게 되며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만다.

우리 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언제나 광범한 대중과의 깊은 련계를 맺고있다.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은 광범한 군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기본조직이다.

기층당조직들이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호흡하며 군중의 사상동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만 광범한 군중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을 믿고 따르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세포조직들이 우리 당의 군중사업방침에 기초하여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수천수만의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를 보다 반석같이 다지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의 기층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여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

나 당의 기층조직들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여 우리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의 조직 형식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주시였으며 당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며 시, 군 당조직들이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한편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세포들과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여 기층당조직들을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키워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기층당조직들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그 전투력이 높아진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기층당조직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이며 당사업,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당의 기층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하여 당원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565페지)

기층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 대렬이 튼튼하지 못하고 군중과 혈맥이 잘 통하지 못한 당조직은 결코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될수 없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기층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깊이있게 참신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층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사업을 실무화하려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정치사업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모든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 등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깊이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켜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수인답게 수행하여 생산과 건설, 기술발전에서 혁신자가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군중은 당의 지반을 이루며 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있다.

세포조직은 군중과 생활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관철해나가는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당이 광범한 군중속에 뿌리박은 불패의 전투적조직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기층당조작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기층당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하려면 우선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을 모르고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벌려나갈수 없으며 그들을 내심있게 교양개조할수 없다. 기층당조직들은 군중을 손금보듯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일하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 사람들의 성격과 수준, 그가 처한 위치에 맞게 교양사업을 짜고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당조직을 진심으로 믿고따르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들이 전투력있는 조직으로 되자면 또한 자기 단위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의 관철여부는 그것을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직접 실천하는 세포들의 사업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세포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을 강화할수 없으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8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기층단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당조직들의 임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기층조직들의 사업은 언제나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 결부되여야 한다.

세포와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전투력있는 군대인것처럼 맡겨진 혁명임무를 잘 수행하는 당조직이 전투력이 있는 당조직이다.

기층당조직들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자면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기 단위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한두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옳게 보장될수 없으며 그것은 대중의 집체적지혜가 높이 발양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기층당조직들이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방지하고 당원대중의 지혜를 모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울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옳게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분공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당원들속에 적극 해설선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층단위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언제나 높은 충실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에서 활발히 움직이게 될 때 기층당조직들은 보다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바로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사업을 짜고드는 여기에 기층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있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기층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이고 그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포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의 기초이다. 건전한 세포생활이 없이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할수 없으며 당내의 사상적, 정치적 단결을 보장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40페지)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조직사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며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자기의 정치사상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하거나 시간적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당원은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기층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회의와 당학습회를 비롯한 세포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지도하며 조직사상생활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기층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도록 교양하며 그들이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당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조직에 의거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화를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기층당조직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군당은 당원들을 소속시키고 그들의 당생활을 조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초급당조직들과 직접 련결된 단위로서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정책을 관철하는 문제는 군당위원회의 활동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직부와 선전부를 비롯한 군당의 모든 부서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은 어떻게 하고 경제과업은 어떻게 수행하고있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편향없이 일해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포와 초급당조직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전투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기층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조직들을 더욱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하여 당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정권은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무기

리 영 결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지위가 높은 경지에 오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조국이 지닌 높은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기치이며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정권이 얼마나 우월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정권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있으며 공화국정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권을 가지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가 못누리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따라서 국가주권을 쥐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예속과 굴종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민족적수난이 겹쌓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조국과 정권을 가질것을 절박하게 념원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력사적숙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의 새로운 출현이였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 인민으로서의 높은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혁명적기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강력한 무기이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정권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권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이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삼는것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정권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공화국이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지니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두철미 그 요구대로 활동하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준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실현하며 그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공화국정권은 공업정책, 농업정책, 군사로선 그리고 대외정책 할것없이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세우고 그들의 지향에 맞게 관철해나가고있다. 공화국정권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떠난 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공화국정권의 모든 로선과 활동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기초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는 공화국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으로 되고있으며 공화국정권의 사명과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우리 공화국정권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무엇보다먼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참다운 혁명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예속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오늘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4페지)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실현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사람이 국가주권과 온갖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주성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활동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실현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사업과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대표로 구성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내걸어 수많은 근로자들을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날 시대의 밑바닥에서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나라의 정사를 외논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맡아 관리운영하며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직접 참가하고있다.

공화국정권은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국가사업에 참가하여 온갖 정치적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그리하여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2중3중의 모진 굴욕과 천대 속에 신음하던 우리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업에 적극 나서고있으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을 보장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간다.

공화국정권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라되여 전반적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정치적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리고있는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말살당하는 《자유》,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적자유인것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또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비록 지주나 자본가들처럼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 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7페지)

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성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뿐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때 확고히 보장된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은 공화국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정권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공화국정권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다. 근로자들은 로동보호제와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특히 모성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동능력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뿐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로동재해 또는 병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과 공화국정권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로동생활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해야 할뿐아니라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줄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것이며 교육과 치료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보장받고있으며 농민들도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뿐만아니라 병치료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서도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도시나 농촌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며 살고있는 모든곳에 치료기관과 의료일군들이 있으며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절반이상이나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배나 늘어났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은 공화국정권하에서 비로소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의하여 우리의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은 마음껏 배울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새세대들은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의무교육을 받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 국가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근로자들을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정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보다 확고한 법적담보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온갖 조건을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을 열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전적으로 사회발전과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는것만큼 물질문화적재부가 늘어날수록 인민들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삼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튼튼히 마련해나가고있다. 특히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오늘 공화국정권하에서 우리 인민은 래일의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안고 활기와 랑만에 넘쳐 흥겹게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의 품은 진정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보람찬 생활까지 마련해주는 참다운 보금자리이다.

이렇듯 공화국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이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있는 정권으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불패의 위력과 높은 영예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과 직접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건국위업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온 민족은 진정한 인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8월 20일 력사적인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새 조국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때에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후의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지도적지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우월한 국가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정권기관의 위력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우리의 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사업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건 첫날부터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을 일상적으로 세심히 지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정권으로 하여금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였으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이룩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도, 력사가 물려준 락후성으로 인한 난관도 다 물리치고 짧은 기간에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확립과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위력한 자립경제,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와 불패의 자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에로의 력사적전변,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이 이룩한 가장 큰 변혁이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던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나라와 인민으로 되였으며 오랜 세월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세우시였으며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보람찬 생활과 보다 희망찬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을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1페지)

공화국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정권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국가의 온갖 시책들을 성실히 받들어나가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이며 그들을 정권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공화국정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정권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령들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국가의 모든 시책들을 성실히 받들어나감으로써 공화국공민의 숭고한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국가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 이 땅우에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공화국정권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화국정권의 활동은 결국 정권기관일군들을 통하여 조직되고 실현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절대로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어도 안되며 결코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겨서도 안된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항상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한마음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인민들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공화국정권을 강화발전시키며 그 위력을 더욱 빛내이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작가의 창작적사색

최 언 경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에 대한 문제는 그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에 관한 문제이다. 현시기 우리 문학의 형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도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 있다.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새로운 경지에 보다 높이 올려세울수 있는것이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로 된다.

문학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며 그것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문학이 인간학으로서의 자기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인간과 그 생활을 보여주려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생활을 선택하고 그를 깊이있게 분석평가하며 그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주어야 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형상창조의 이 복잡한 과정은 생활에 대한 깊은 철학적해명을 요구한다. 생활에 대한 깊은 철학적분석만이 인간과 자연 및 사회, 다시말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줄수 있으며 인간생활의 근본문제,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또한 거대한 력사적사변들과 혁명적 변혁들로 충만되여있는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일찌기 인류가 체험해본적이 없는 가장 심각한 혁명적전환의 시대, 위대한 주체시대에 살고있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앙양의 시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여온 아름다운 삶에 대한 리상은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가장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처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작가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문학은 오늘의 이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야 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우리 문학 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은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적풍격에 있어서 일찌기 그 어느 시기에도 도달할수 없었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그것을 주체의 인간학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올려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특히 오늘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된다. 사상적내용이 깊지 못하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개념화된 상식적인 생활이 지루하게 라렬되여있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흥미도 주지 못한다.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사색할 여지를 주며 읽고난 다음에도 강한 여운을 주는 그런 작품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오직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함으로써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이처럼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67폐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은 문학예술자체의 미학적본성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훌륭히 복무하여야 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높은 사상성을 체현하여야 한다. 사상적내용이 심오한 문학작품만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그런데 작품의 사상성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론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해서만 표현될수 있다. 예술성이 없이는 문학이 문학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들을 감동시킬수도 없다. 오직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을 가진 문학작품만이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문학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바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유기적통일을 보장하는 사상미학적기초로 된다.

철학적깊이는 인간과 그 생활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학작품의 질적특성이며 그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인간생활의 본질을 이루는것은 인간의 운명문제,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문제이다. 삶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에 대한 문제,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떠나서는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생각할수 없다.

세계문학사를 빛나게 장식한 모든 훌륭한 문학작품들은 이렇게나저렇게나 바로 인류의 열렬한 지향이며 념원인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에 일정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그러나 모든 문학작품은 시대의 반영이고 산물인만큼 아무리 훌륭한 문학작품도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인간문제에 대한 해답의 철학적깊이도 결국 그것이 어떤 시대를 반영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고무되는가, 특히는 어떤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우리의 주체문학에 이르러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였으며 가장 훌륭히 해결되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

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서의 참다운 생활의 본질이 뚜렷이 밝혀졌기때문이다.

오직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할 때에만 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줄수 있으며 오랜 세월 인류문학이 그처럼 갈망하여온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적인생관만이 영생하는 삶에 대한 인간의 념원과 리상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한다고 하여 행복한것이 아니며 명이 길다고 하여 영생하는것도 아니다. 비록 개인의 육체적생명은 희생할지언정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나가는 거기에 영생하는 삶의 보람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문학작품을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는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것이지만 생활의 본질도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할 때에는 예술에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예술에서의 추상성은 죽음이다. 아무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론리와 개념으로 일반화한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수 없으며 그것은 다른 사회과학과 다름이 없게 되는것이다.

오직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사색하게 하며 오랜 여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교양을 주는 그러한 작품을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이 내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문제와 관련되여있는 철학적깊이는 문학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의 어느 한 측면, 한개의 미학적범주만이 아니라 예술적형상의 모든 고리와 관련되여있다. 예술적일반화자체가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워나가는 형상창조의 전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형상창조과정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통하여 구현되게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였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상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가 하는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문학작품은 그 사상주제적과제에 따라 각이한 인간문제를 제기하지만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심오한 해답을 줄 때에만 철학적깊이를 체현할수 있다.

우리 시대,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 당,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며 신념이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인간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

족을 드리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으며 최대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는 이 숭고한 감정을 깊이있게 밝힐 때 문학작품은 참으로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으로 되게 된다.

당의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예술영화 《초행길》이 철학적깊이가 있고 격이 높은 혁명적대작으로 되게 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영화 《초행길》은 해방직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초행길이 개척되던 간고하고도 영광찬 시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사는 혁명전사만이 한생을 충성으로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릴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험난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체득한 이 혁명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심오히 해명한데 이 작품의 종자가 가지는 철학적무게가 있으며 그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이 있다.

예술영화 《초행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확고한 신조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전국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김철준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넓은 폭과 깊이를 가지고 밝혀내고있으며 혁명전사는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수령을 모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가 있으며 심오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에서의 사상은 생동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해서만 형상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생활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문학에서의 생활은 작가에 의하여 발견되고 탐구된 새로운 생활이여야 한다. 생활을 새롭게 발견하고 탐구한다는것은 아직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문학이 제기해본적이 없는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에 대한 발견을 의미할뿐아니라 그 생활속에 담긴 깊은 뜻과 의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문학작품에 그려진 풍부하고 다양한 모든 생활들은 그 어느 하나도 작가가 오가는 길에 스쳐지나거나 양념처럼 덧붙이는 식으로 그려져서는 안되며 그 하나하나가 작가의 깊은 사색에 의하여 엄밀히 음미되고 정밀하게 정제되여 알알이 령롱한 빛을 뿌리는 진주와도 같이 골라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요란하고 큰 생활속에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것은 아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듯한 일상생활속에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고심하기도 하는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가 있으며 인물들이 주고받는 한마디의 대사, 한걸음의 행동속에도 놀랄만큼 의미심장한 생활이 담겨있는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주인공의 한마디의 말을 두고도 일생동안 못잊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감회깊이 되새겨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것도 바로 이 의의깊은 생활때문이다.

생활을 체험한다고 하여 누구나 다 그 생활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는것은 아니며 또 깨닫는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꼭같이 느끼고 깨닫는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거나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그리고 때로는 그릇되게 깨닫고있는 생활의 본질과 의의를 옳바로 깨우쳐주는 여기에 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작가의 본분이

있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사람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지난날 어느때인가 자기자신이 스스로 체험하면서도 범상히 스쳐버렸던'바로 그 생활의 의의를 새롭게 깨달을수 있으며 또한 그 생활을 체험한 당시에는 깨닫고 느끼였으나 이미 잊혀져버린 그러나 오늘의 생활에서 잊어서는 안될·교훈적의의를 가지는 그 생활의 뜻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의의깊은 생활은 당대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시대를 넘어 세기가 바뀌여도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는 법이다. 여기에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이러한 작품만이 큰 가치를 가진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또한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는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형상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부의 진실성은 형상전반의 진실성과 사상의 심오성을 담보하며 하나의 진실치 못한 세부는 형상전반의 파탄을 가져온다. 세부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작품에 담겨진 생활과 사상은 풍부해지며 세부가 깊고 진실하게 그려지면 형상전반의 사상과 생활도 깊어지고 진실해진다.

풍부하고 진실한 생활세부는 깊이있는 분석적인 묘사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

생활에 대하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한다는것은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깊이있게 파고듦으로써 그 바닥에 깔려있는 생활의 본질과 의의를 심오하게 밝혀낸다는것을 말한다. 생활에 대한 이러한 깊이있는 세부묘사는 하나를 통해 열, 백을 보여주며 작은 세부를 통해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엿보게 한다.

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세부묘사는 또한 하나의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파고듦으로써 그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폭넓게 펼쳐보여주며 오늘의 생활뿐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생활까지 그려보게 한다.

해방후 토지개혁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장편소설 《새봄》은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에서도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 장편소설에는 지주 강병기가 부농 태문갑에게서 귀한 산삼을 사가지고는 돈을 준것이 배가 아파서 돼놈경찰을 끼고 자기에게 준것이 산삼이 아니라 더덕이라고 날조하여 산삼값을 도로 빼앗아내는 세부가 묘사되여 있다.

이 장편소설에서는 이미 지주가 땅을 통하여 농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하였는가를 많이 보여주었으며 독자들은 이것을 통하여 착취자의 전형적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인 수탈자로서의 본질을 형상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작가가 산삼과 더덕의 세부를 삽입함으로써 지주는 강도적인 수탈자일뿐아니라 지어는 몇푼의 돈을 위해서 부농까지도 속여넘기면서 사기협잡행위를 일삼는 교활한자들이라는것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세부는 지주의 계급적본성과 함께 착취계급내부의 모순과 알륵을 그대로 보여주며 또한 산삼을 더덕이라고 하는 강도들을 비호하는 착취사회자체의 반동적본질을 낱낱이 드러내보여주는것이다.

이처럼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는 하나의 작은 세부속에 온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이 반영되고 인간성격의 전모가 드러나보이게 함으로써 작품전반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것이다.

언어예술인 문학의 유일한 형상수단은 언어이며 따라서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도 세련된 언어구사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통하

여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는데서 이루어지는 문학작품의 질적특성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깊이가 문학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 기본척도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였다.

참다운 문학작품의 가치를 무엇으로 재는가 하는것은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문학의 본성과 사명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근본립장과 관련되여있기 때문이다.

부르죠아지들은 문학작품을 한갖 제놈들의 돈주머니를 불리는 기업의 수단으로, 향락을 위한 유흥의 도구로 인정하며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악용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속한 인간취미에 아부하는 기형적이며 렵기적인 사건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흥미》거리에서 문학작품의 《가치》를 찾는것이다.

사랑, 모성애, 삶과 죽음 등 《영원한 주제》에서 그 어떤 《전인류적》의의를 가지는 작품의 가치를 찾으면서 문학작품의 사상성을 거부하고 순수 《예술성》을 표방하는것도 부르죠아예술지상주의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부르죠아지들과는 반대로 세계의 진보적 작가들과 문예리론가들은 시대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류의 영원한 재보로 될수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의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오랜 세월 진지하게 모색하고 탐구하여왔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문예리론에서는 참다운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를 혹은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통일로 혹은 민족적특성의 진실한 구현이나 전형화의 높은 수준 등으로 해석하여왔다.

이러한 기준들은 물론 문학작품의 가치를 잴수 있는 일정한 내용들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은 때로는 보다 사상적내용일면에, 때로는 보다 예술적형식일면에 지나치게 기울어짐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의 높이를 전면적으로 잴수 있는 척도를 주지 못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문학작품의 철학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적심오성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하나의 개별적개념으로 씌여졌으며 작품의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는 되지 못하였다.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문학작품에서의 철학적깊이만이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사상미학적으로 담보하는 기본고리로 되며 따라서 그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되는것이다.

실로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사상은 훌륭한 문학작품의 가치를 잴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을 밝혀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경지에로 높일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독창적사상을 밝히였을뿐아니라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히였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창작적사색이란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창작적사색을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번개와도 같이 작가의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신적인 《령감》이나 타고난 선천적재능의 산물로 보는것은 창작의 목적지향성을 거부하는 부르죠아적궤변이다. 작가의 탐구와 사색이 깃들어있지 않는 작품은 문학작품이 아니며 사색의 빈곤은 곧 철학적빈곤을 가져온다. 탐구란 곧 생활에 대한 탐구이며 사색 또한 생활에 대한 사색이다. 시대의 거창한 숨결을 한가슴에 받아안

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 살며 사색하는 작가만이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창작적사색은 작가에게 저절로 주어지는것이 아니며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사람의 인식의 폭과 깊이는 결국 세계관의 높이와 인식능력에 달려있다. 아는것이 많을수록 현실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받아들일수 있다. 작가의 재능도 결국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다방면적이며 심도있고 폭넓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지식의 끊임없는 축적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려면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여 세계관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작가의 세계관과 문학작품창작과의 호상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작가들의 사상의식, 세계관은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 창작의 전과정에 그대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예술창작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의 사상의식이며 작가의 세계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정치적견해이며 정치적식견이다.

정치적식견이란 모든 사물현상을 혁명적관점에서 옳바르게 보고 예리하게 판단할줄 아는 당적안목을 말한다. 작가가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지고있어야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찾고 명백하게 분석해낼수 있으며 그것을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정치적식견과 함께 작가의 창작적기량은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 같은것이며 작가의 자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작가가 생활속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사색을 깊이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형상할 능력이 없거나 모자란다면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해낼수 없는것이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가진 작가만이 참으로 철학적깊이가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이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방침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이 독창적방침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보다 높은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의 독창적방침은 작품의 핵인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보장하며 종자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전반의 심오성을 보장함으로써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우리 당의 이 독창적방침은 또한 문학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평가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척도와 기준을 마련해준다.

철학적깊이야말로 문학작품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며 그 통일을 보장하는 확고한 사상미학적기초로 된다.

우리는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을 더욱 찬란히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계획화방침

박 남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해야 할 오늘 주체적인 계획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　　　*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바와 같이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43페지)

사회주의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여나가는 계획경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원료, 자재가 계획에 의하여 공급되며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경제생활전반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계획화사업에서 옳바른 체계와 방법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옳바른 계획화 체계와 방법을 세워야만 인민경제계획의 과학성과 동원성,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인민경제계획화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

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계획을 세부화한다는것은 모든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맞물려 계획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세부계획화는 모든 경제활동을 세부에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리는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일원화계획체계를 세워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반면에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릴것을 요구하며 세부계획화가 잘되는 조건에서만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 체계이며 방법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계획화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전기공장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문제가 바로 계획화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문제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2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계획화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다. 기계와 설비를 직접 다루는 사람도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며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요인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은 생산에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계획화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이러한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려면 그에 맞는 계획화 체계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옳바른 계획화 체계와 방법이 없이는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데서 생산자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바로 계획화사업을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그들을 계획화사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다. 생산자대중을 계획화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생산자대중을 떠나 책상머리에서 수자나 맞추던 지난날의 계획화 체계와 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것이였다. 이러한 결함은 주체적인 계획화체계에 따라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생산자들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토의하고 생산자들의 창발적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부적인 지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철저히 극복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인민경제계획은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 과학적인 계획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적인 계획화 체계와 방법은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의도와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전투임무를 정확히 알고 계획을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접수하게 하며 계획수행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 발양하게 한다. 그리하여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전과정이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되게 한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생산단위일군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철저

히 없애고 생산자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생산자대중을 다만 생산력의 한 구성요소로, 계획화의 대상으로 여겨오던 기성관념과 낡은 틀을 마사버리고 그들을 계획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계획화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을 다같이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계획화방침이다.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재생산의 고리들사이에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객관적인 법칙은 인민경제를 철저히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계획성과 균형성의 정확한 보장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막고 가장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여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만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균형성을 무시하고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속도만을 절대시한다면 인민경제부문들과 재생산고리들의 균형은 파괴되고 경제발전에서 심한 혼란과 동요를 일으켜 실제적으로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계획화사업에서 균형만을 절대화하면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위한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을 정확하게 보장할데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계획화사업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세부에까지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을 다같이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방도는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하는데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국가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각급 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직접 통제하여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의 계획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인민경제의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며 그것을 국가의 종합적균형에 철저히 맞물리게 한다. 그리하여 종합적균형과 세부균형사이의 통일적인 련계를 철저히 보장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적극적인 균형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며 지방의 창발성과 생산자들의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계획화방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세부계획화를 실현하여 경영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려놓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있는 경제적밑천들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8권, 551~552페지)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위력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고리로 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된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면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것보다 생산을 더 빨리 늘일수 있으며 기본투자의 경제적효과성도 높일수 있다. 그것은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을 절약할수 있게 하며 더 많은 자금과 자재를 새로운 생산건설에 돌려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부터 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면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에서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주고 생산에 앞세워 보장해줄수 있으며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필요한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있는 기계설비들에 항상 만부하를 걸고 기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투자없이도 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면 또한 로력조직을 불합리하게 하고 설비와 자재를 필요없이 쌓아두거나 랑비하는 현상들을 미리 막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절배치하여 전국가적범위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이 최대한으로 은을 내게 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방침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독창적인 계획화체계이며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한 리론과 실천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획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였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와 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우리는 계획화사업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우리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

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오늘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결정적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지니고 새로운 계획화 체계와 방법이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데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계획화체계와 방법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획화체계에서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모든 계획화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계획화방침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야 계획화사업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해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대로 일하는것이다.

계획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방법으로 계획화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하며 모두가 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주체적인 계획화체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의 하나는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을 바로 움직이는것이다.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은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계획기관들과 계획일군들이 다 당적, 국가적 립장에 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도록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이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에 맞는 그러고 지방과 기업소의 구체적인 현실을 옳게 반영한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계획화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

김 관 현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널리 받아들여 전반적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이미 그 독창성과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독창적인 경제관리형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그들모두가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일하며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책임성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총화사업을 잘할 때 더욱 높이 발양된다. 실속있는 총화사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임무수행에서 나타난 우결함들을 똑똑히 찾고 기업관리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한다.

총화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맞물려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는 재정사업총화를 반드시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와 맞물려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03페지)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는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생산총화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시기별, 지표별로 총화하여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는데 있다면 재정총화는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하면서 증산하도록 자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맞물려 진행하여야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뿐아니라 절약하면서 증산하도록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어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생산자대중을 거기에 빠짐없이 참가시킬수 있으며 총화사업자체가 제때에 실효를 나타내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마련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매일 생산계획수행정형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맞물려 진행하는 새로운 경제관리형태이다. 이 제도는 매일 혁명임무수행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을 놓고 좋은 점은 계속 살리며 부족점은 제때에 극

복하도록 정치사업의 형태로 총화를 짓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나가게 한다. 또한 하루동안의 생산 및 재정 활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원리적으로 따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명확한 행정경제적인 방도들도 세우도록 한다.

이리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상교양과 통제,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과 평가를 옳게 결합시키 그들의 열의와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바로 여기에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마련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는데 있다.

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켜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문제를 포괄하는 경제관리에 광범한 대중을 광범히 참가시켜야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켜 전반적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근로인민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제관리 형태와 방법을 탐구하고 조직사업과 교양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저절로 경제관리에 광범히 참가하게 되는것이 아니며 사상교양사업만 한다고 하여 이 문제를 풀수 있는것도 아닌것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생산자들전체가 매일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하루의 생산계획수행정형과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자기들의 활동을 스스로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집단과 매 개인의 생산계획수행정형을 재정과 결부하여 총화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규범화, 생활화한다. 이리하여 대중의 열의와 책임성을 계속 높이고 대중에 의한 경제관리와 재정관리를 훌륭히 실현하게 한다. 이것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야말로 경제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도록 하는 독창적인 경제관리형태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대중속에서 혁명과업수행과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관점과 태도를 키운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속에 나라살림을 자기 살림처럼 알뜰하고 깐지게 꾸리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자면 사상교양사업을 쉼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련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도 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가야 하는것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생산 및 경영 단위별로 모든 성원들의 참가밑에 생산활동과 절약투쟁을 비롯한 경영활동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솔선 비판에 참가하고 창발적의견을 제기하며 모든 성원들이 다 자극과 통제를 받게 한다. 특히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로 하여 하루의 사업정형을 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임무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한다. 이

려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은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고 아주 생동하고 구체적이므로 그 인식교양적의의가 비상히 큰것이다.

그러므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근로자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 한편 나라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려는 낡은 사상을 빨리 뿌리뽑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근로자들을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이 제도의 독창성의 하나가 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또한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우월한 경제관리형태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일본새,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아무리 열의가 높다 하더라도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생산과 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려면 그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한 전투목표가 있어야 과녁을 바로 조준할수 있는것처럼 나라살림살이지표를 똑똑히 정해주고 기술경제적기준화사업을 바로해나가야 근로자들속에서 깐지고 알뜰한 일본새를 키울수 있으며 그들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생산계획과 절약과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력과 설비의 리용기준 그리고 재산 및 재정 관리질서를 명확히 정하여놓고 그 준수정형을 매일 총화함으로써 생산자들모두가 자기들의 투쟁목표를 똑똑히 알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생산 및 절약투쟁 정형을 비롯한 경영활동결과와 그 원인들을 사상적으로 총화하고 경제기술적으로도 매일 분석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절약을 비롯한 경영활동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예비는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며 새로운 예비를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며 기술기능수준도 빨리 높여나갈수 있게 된다. 특히 생산계획실행정형과 절약투쟁결과를 매일 계산하고 재정과 결부하여 경영활동전반을 분석평가하므로 근로자들모두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경영계산과 기술경제적타산방법을 더 잘 배우게 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면서도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얻기 위한 묘술과 방도를 여러모로 찾도록 한다.

이렇듯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경제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가지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는 우월한 제도이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는 그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으로 하여 생산부문, 비생산부문 할것없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널리 일반화되였으며 전반적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커다란 생활력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도록 추동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80년 1월 1일, 9페지)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나라의 생산잠재력이 매우 크고 인민경제부문들과 재생산고리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밀접한 오늘 생산을 정상화하고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생각할수 없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시기별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교양하고 자극하고 통제하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로 하여 하루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매 생산자들의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인민경제계획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이악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러한 총화는 사람들의 활동정형을 중심에 놓고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넘쳐수행하기 위한 기술경제적대책도 철저히 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제때에 전환시킬수 있게 하고있다.

그러므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가 실속있게 관철되고있는 단위들에서는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질량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하나의 제품이라도 알뜰하고 질기게 만들며 한가지 일을 하여도 실속있게 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여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야말로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같은 지출로 최상의 경제적성과를 거둘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커다란 생활력은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대중을 추동하며 사회주의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계획수행과 480분 로동시간의 리용, 설비관리정형, 원료와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매일 구체적으로 총화하는것을 규범화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절약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은 널리 일반화하고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타산을 구체적으로 하여 한키로와트시의 전력, 한그람의 석탄, 한푼의 돈과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극력 아껴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하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특히 재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절약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수 있게 할뿐아니라 사회주의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있다.

사회주의재정의 본질은 인민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해 쓰도록 하는데 있다. 인민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쓰려면 재정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재정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하며 한푼의 돈이라도 극력 아껴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근로자들의 하루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재정사업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재정관리사업을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시켰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재정은 생산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적극적인 작용을 미치게 되였으며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려나가도록 자극하는 경제적공간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게 되였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기업관

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는데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 대중을 광범히 참가시켜 그에 대한 대중적인 통제를 옳게 안받침하며 계획화사업과 기준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경제계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하나의 통일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도 정연하게 세울수 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 로동시간을 어떻게 리용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총화하는것을 통하여 제정된 규정과 규범대로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고 대중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적경제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우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특히 생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평가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키며 경제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미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나라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규정하는 사회정치적평가로 되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근로자들의 생산 및 재정활동정형을 매일 총화하여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였는가를 평가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가 실속있게 관철되고있는 단위들에서는 제정된 직능과 생활규범에 따라 경영활동이 정규화되고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서고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이 제도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내세운 높은 결의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생산자대중의 사상개조를 다그치고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마련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요구

경 룡 일

지금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35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공동의 위업이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00폐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우리 인민자신에게 있다. 나라의 통일은 오직 그 주인인 우리 인민자신의 주체적력량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조선사람외에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수 없으며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줄수 없다.

자주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민족의 자주독립을 상실하고 예속과 분렬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할따름이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적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리조말엽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사대매국노들은 저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에 의존하여 책동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외래침략자들에게 내맡기고 민족의 머리우에 망국의 비운을 들씌우는 천추에 용납못할 죄과를 저질렀다. 8.15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온 민족이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도 구경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력대괴뢰들의 외세의존정책이 가져온 후과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또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는 본래 그 내용과 성격

이 어떠하든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족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다른 민족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그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시고 오랜 력사적기간에 이루어진 민족적뉴대와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회복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국제적분쟁문제도 아닌 조선의 내정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한 민족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정문제에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개입하거나 간섭할수 없다는것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이다. 민족적자주권에 속하는 내정문제로서의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권리는 오직 조선인민에게만 있는것이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원칙은 통일문제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일뿐아니라 통일문제의 가장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민족내부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해당민족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이다. 해당민족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을 떠나서 문제해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의 기준은 우리 인민의 의사이며 민족적리익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에만 충분히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반영될수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바로 우리 인민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과 통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구체적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다름아닌 우리 인민자신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미제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다. 놈들의 침략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시종일관 우리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두 지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것인만큼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은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된다.

자주성의 원칙은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우리 인민의 실제적능력, 민족주체적력량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자주성과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자기 민족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인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2페지)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이 강한 인민이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용감히 싸워온 자랑찬 민족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긍지높은 인민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주성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며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적인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펼쳐놓은 존엄있는 인민이다.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배격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능히 자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은 자주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원칙이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현시대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통치하며 남의 나라문제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요구하는 매개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나라의 통일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또한 통일문제의 복잡성과 간고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직접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전쟁, 파쑈, 분렬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특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한짝이 되여 우리 나라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교차승인》이니 뭐니 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를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없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의 주변정세는 매우 착잡하고 복잡하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실로 자주성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인민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된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변함없는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앞에 엄중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미제의 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시는 한편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세워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력사적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에도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방침과 방도들을 련이어 내놓으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북과 남의 격폐상태를 마스고 대화의 길을 마련하시였으며 련이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이룩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중한 시기에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일대 구국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시기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와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방침과 방도들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방침과 방안들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는것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자주성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77페지)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물은 외세의 간섭과 침략책동이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것도 외세의 간섭책동때문이며 나라가 분렬된지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도 바로 외세의 간섭책동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제국주의이다. 미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오늘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와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원흉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해보려는 침략적야망밑에 《두개 조선》 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해보려고 온갖

교활한 술책을 다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만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원만히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으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살륙무기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또하나의 외세는 일본반동세력이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여러모로 방해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고 꿈꾸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과 함께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이것은 결국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자신의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이 아니라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이다.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우리는 능히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0년 제9호(루계 461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9월 1일 발 행•1980년 9월 5일

ㄱ—0523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제 10 호(46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김 일 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개회사

(1980년 10월 10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당창건 35돐을 맞는 기쁜 날에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창건 35돐이 되는 때에 당대회를 가지게 된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경사로 됩니다.

우리 당은 지난 35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혁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형편은 대단히 좋으며 전도는 더욱 양양합니다.

오늘 당창건 35돐을 맞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기치따라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당창건 35돐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 당의 35년동안의 자랑스러운 력사에서 여섯번째로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우리 당의 활동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났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대회를 앞두고 충성의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겨완수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시위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여러가지 가치있는 창안품들과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마련하여 당대회에 선물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전례없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올해에도 대풍작을 마련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각이한 초소에 서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맞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불타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당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회로 더욱 빛나게 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뜻깊은 당대회를 맞이하여 군사파쑈분자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당 제5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당은 자기 대오에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온 귀중한 여러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총결기간에 공화국남반부에서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은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에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이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간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한 여러 동지들과 애국적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당의 총결기간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 대렬에서 탁월한 정치활동가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나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우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 당 안팎의 혁명동지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그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대회에는 군사파쑈분자들의 야수적탄압을 박차고 사선을 헤치고 온 남조선의 통일혁명당대표단과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찾아온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남조선의 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당대회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 당과 함께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당들인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당대회와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당대표단과 천도교청우당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당대회에는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대표단들과 사회당, 민주정당대표단들, 쁠럭불가담나라의 당과 정부대표단들, 투쟁조직대표단들과 친선단체대표단들, 여러 국제기구대표단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밖에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대회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 당들과 국제민주단체들, 주체사상연구소조들, 개별적정치활동가들로부터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여왔습니다.

우리 당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참가하고 수많은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온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뚜렷한 표시이며 이것은 우리의 당대회를 더욱 뜻깊게 하여주고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여줍니다.

나는 당대회와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우리 당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다른 나라의 모든 대표단들과 개별적인사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당대회앞으로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의 당들과 국제민주단체들, 주체사상연구소조들, 개별적인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당 제5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당 건설과 혁명발전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리는 당 제6차대

회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과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것입니다.

당 제6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에서 선출된 결의권대표자 3,062명과 발언권대표자 15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김 일 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당의 활동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 력사적인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앞에는 어렵고 중대한 혁명과업이 수많이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고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내세웠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훌륭히 완수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도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과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반미반파쑈투쟁을 통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비록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나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관계를 훨씬 넓혔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유력한 전투대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우리 인민의 앞길에 보다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을것입니다.

1980년대의 첫해에 열린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1.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

동지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1)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동지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며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입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나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매우 뒤떨어져있으므로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섰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3대혁명이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앨수 없으며 근로자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방침입니다.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사상을 발동하는것입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천리마운동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

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며 그것은 곧 3대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입니다.

우리 당은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이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섰습니다.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이후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급 당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 근로단체조직들이 언제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활동하는 모든곳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건설사업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수많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났습니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 강한 추동력으로 되였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으며 3대혁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3대혁명로선은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위대한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

동,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오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목표로 내세우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2)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한 성과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지왔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사상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사상혁명에 선차적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은 당조직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녀성들은 근로단체조직에서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혁명적으로 교양받고 사상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없어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

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우리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적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중로동과 고열로동, 유해로동이 있는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설비와 기술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취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에서 기술장비가 훨씬 개선되고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채굴설비들이 대형화, 고속도화되고 종합굴진기, 원통식채탄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채굴작업의 종합적인 기계화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림업부문에서도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도입되여 림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이 생산공급되고 짐을 싣고부리는 기계설비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건설작업과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이 대부분 기계화되였습니다. 또한 금속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남아있던 공업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

조종화가 적극 추진되고 생산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개조됨으로써 근로자들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벗어나게 되였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농촌에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와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 부침땅 100정보당 평지대에서는 7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6대에 이르렀습니다. 화학비료와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이 많이 생산공급되여 지난해에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1.5톤에 이르렀으며 화학적방법으로 김을 잡은 논면적은 전체 논면적의 97%나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지난날 손으로 모를 내고 김을 매며 힘들게 일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일을 헐하게 능률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녀성들의 가정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을 대대적으로 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주식물과 부식물 생산을 늘이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부엌세간과 가정용품들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부엌일과 잡다한 가정일의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 집단적인 로동생활과 여러가지 사회적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있습니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빨리 장성하였으며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한층 더 튼튼하여졌습니다.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따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현대화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는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으며 새 전망계획의 3년분 과제를 이미 올해 9월말까지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1970년—1979년사이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해마다 15.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공업총생산액은 3.8배로 늘어났으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3.9배, 소비재생산은 3.7배로 늘어났습니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은 총결기간 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심적인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 잘 완비하며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공업부문들을 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을 많이 창설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현대적인 제철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콕스생산에서 나서는 새로운 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열간압연기지와 랭간압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를 많이 꾸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금속공업은 모든 생산부문들이 잘 갖추어진 완비된 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화학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습니다. 아닐론공업, 폴리에틸렌수지공업, 린비료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부문들이 많이 창설되고 이미 있던 화학공업기지들이 정비보강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여러가지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들의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력생산능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수력발전소들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총결기간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으며 특히 화력발전능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70년—1979년사이에 화력발전능력은 2배로 늘어나 우리 나라 총발전능력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연료자원과 수력자원에 기초한 자립적인 동력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능력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탄광, 광산들과 중소규모 탄광, 광산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미 있던 탄광, 광산들이 개건확장되여 석탄과 쇠돌,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원료, 연료 기지가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세멘트생산능력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3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순천세멘트공장과 많은 중소규모의 세멘트공장들이 건설되고 새로운 소성방법이 널리 적용되여 세멘트생산능력은 총결기간에 2.2배로 늘어났습니다.

경공업토대가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큰 규모의 방직공장들이 건설되고 곡산공장, 식료가공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경공업은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들의 기술장비가 전반적으로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이미 있던 기계공장들이 정비보강되고 새로운 기계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특히 공작기계생산기지와 대상설비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그리하여 20메터대형

선반, 자동선반과 반자동선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공급하였으며 발전소설비, 금속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를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 요소와 계기, 기구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여러가지 자동화수단생산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앙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의 하나로 내세우고 농업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주체농법을 창조하여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였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실현됨으로써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가 논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는 9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곡생산과 함께 남새생산,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도 빨리 늘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축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와 로동자구들에 현대적인 돼지공장과 닭공장, 오리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원종장들이 잘 꾸려졌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고 농업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한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을 실증하여주는 빛나는 승리입니다.

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수송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총결기간 새로운 철길이 많이 건설되고 철도전기화가 널리 실시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동서부를 련결하는 이천—세포사이 철길을 비롯하여 새로운 철길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1,600키로메터이상의 철길구간이 새로 전기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비중은 87.5%에 이르렀으며 지선, 인입선을 포함하여 중요한 철길구간들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가 훌륭히 실현되였습니다.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고 남포항과 청진항, 해주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을 현대적으로 꾸림으로써 배수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이 개선되고 수송지휘체계가 현대화되였습니다. 집중화물역들과 역구내선이 많이 늘어나고 기술역과 조차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큰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지역들에 대한 집중수송체계가 섰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배에 의한 련대수송이 발전하였으며 집합수송이 널리 진행되였습니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

습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원료난, 연료난으로 하여 생산이 떨어지고 물건값이 뛰여오르며 실업자가 늘어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파동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총결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총결기간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여 민족간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가 내세운 과업에 따라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들의 교수교양사업을 개선하고 양성규모를 늘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들에 대학을 새로 많이 내오고 고등전문학교를 대대적으로 늘였습니다. 당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총결기간에 대학은 129개로부터 170개로 늘어났으며 481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새로 나왔습니다.

교육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교육의 질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해마다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방대한 목표가 이미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으며 민족경제와 과학, 문화 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이 키워낸 주체형의 인테리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씩씩한 일군들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우리의 인테리대군은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은을 낼것이며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위훈을 떨칠것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의무교육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으며 1975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새세대들은 모두다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중등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

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훌륭한 공산주의적시책입니다. 총결기간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미 있던 탁아소, 유치원들이 더 잘 꾸려짐으로써 온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이 마련됨으로써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난 날부터 국가의 법적보호밑에 현대적시설이 갖추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사회주의적인 교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한 주체적인 야금법과 새로운 주물방법을 발명하였으며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합성고무공업과 새로운 화학섬유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성공하였으며 농작물의 육종방법과 재배방법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온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텔레비죤방송출력이 더욱 늘어나고 텔레비죤수상기가 많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현대적인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있습니다. 농촌뻐스화, 농촌

수도화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농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더 잘 도모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생산문화가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낡은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인민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과 의료봉사사업이 훨씬 개선되였으며 도시와 군소재지의 병원들이 더 잘 꾸려지고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보건정책과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믿음직하게 보호증진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35년이나 늘어나 73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병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며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3)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

동지들!

총결기간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습니다.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고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한 정치적지반과 튼튼한 경제적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고 그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법과 규정들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였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반 원칙들이 새롭게 규제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

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사업은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사상교양이 강화되고 법집행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감독통제기능이 높아짐으로써 모든 국가사업과 근로자들의 사회적활동이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자입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 주권기관과 행정기관들의 기구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민위원회들의 주권적기능이 강화되고 행정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일군들이 늘 주권기관의 감독밑에서 사업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일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관료주의를 없애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하기때문에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민정권과 인민대중을 리탈시키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있으며 국가의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개선됨으로써 인민정권기관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고 광범한 대중이 인민정권기관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며 우리 인민이 세계무대에서 민족적존엄을 떳떳이 지켜나가는것은 바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때문입니다.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담보되여야 합니다. 경제적기초가 약한 국가사회제도는 결코 공고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자주독립국가는 반드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위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모두다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인민들이 조세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에 의하여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에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

동지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반드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

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수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2)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동지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대렬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해방후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로동계급대렬의 골간을 이루고있습니다. 오늘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세대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적단련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

농민은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농민은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로동계급이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할 마지막계급이며 오늘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는 다름아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입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민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이 견결한 혁명정신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려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업과학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성인교육사업과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발전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기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튼튼하여졌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은 농업협동화운동에 못지않은 커다란 사변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회경제적변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넘기는 사업을 일정한 시험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적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테리를 혁명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고 새로 자라난 인테리들이 인테리대렬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의 이중성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실천과 떨어져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적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의한 혁명적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만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혁명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인민이 겪은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입니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입니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숨은 영웅들은 그처럼 훌륭한 행동을 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쳤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광범한 대중을 이 운동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훨씬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점차 모든 사람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고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학교교육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지역적배치와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

과 고등전문학교들을 많이 내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텔레비존방송대학을 새로 내와야 합니다. 앞으로 고등의무교육은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치고나오는 새세대들부터 먼저 실시하면서 점차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지난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다 망라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할것입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문화와 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입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낡은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는것과 함께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체육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동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높이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동지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입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줍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추진되여야 합니다.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수 없으며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습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을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합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나라의 자연부원을 충분히 개발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지하자원을 남김없이 개발리용하는것은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며 새로운 석탄생산후보지와 쇠돌생산후보지를 넉넉히 마련하고

여러가지 합금원소광물을 비롯한 유색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을 더 많이 찾아내며 원유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그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 나라 산림에는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식물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산림을 전망성있게 개조하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나무심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 가까운 앞날에 200만정보의 산림을 더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재생산을 늘이는 한편 산림자원을 리용하여 섬유원료와 종이원료, 기름원료, 약원료, 먹이원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를 많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바다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바다는 무진장한 자원의 보물고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광물자원, 동식물자원,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공업부문의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부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하여 제철, 제강, 압연 공정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보장하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를 강화하며 유색금속압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자원에 기초한 합성고무공업과 카리비료공업을 창설하고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며 산, 알카리 공업과 카바이드공업을 비롯한 기초화학공업부문을 더욱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서는 수입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점차 개편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발전시키며 분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을 세워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것을 말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더 높이며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을 하루빨리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현대화의 목표는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입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려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발전된 기술로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건설, 운수, 체신 부문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다그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곧 기술수단의 현대화입니다. 기계공업의 빠른 발전이 없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기계공업에 힘을 넣어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형단조화, 프레스화 비중을 높이고 주물혁명, 용접혁명, 공구혁명을 일으키며 계렬성이 높은 기계제품생산공정들에 흐름선과 자동선, 종합가공반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는데 맞게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자동화 요소와 계기, 기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화 요소와 수단의 품종과 규격을 바로 정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하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공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도체소자, 집적회로,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자동화 요소와 수단들을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말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된 경제일뿐아니라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입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쳐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생산이 과학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자립적인 경제체계와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하는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농학, 축산학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과학을 빨리 발전시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육종사업과 채종사업,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더욱더 과학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초과학부문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노는 역할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사정은 기초과학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중요한 기초과학부문들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잘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학분야들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며 원자에네르기, 태양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하며 레이자와 플라즈마를 깊이 연구하여 인민경제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계량계측제도를 바로세우고 경제계산을 정확히 하며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현대과학기술발전과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기관들을 늘이고 과학연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과학연구기관들에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연구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며 시험공장들을 잘 꾸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통보사업과 보장사업을 강화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주요과업

동지들!

1980년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입니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는 매우 웅대한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면 1980년대말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은 지금에 비하여 3.1배로, 1946년에 비하여서는 무려 1,000배로 늘어나게 되며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8시간동안에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전망목표를 능히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우리 나라에는 앞으로 새롭게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과 무진장한 과학기술적원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수백만의 근로자대중과 우리 당이 키워낸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가진 경제지휘성원들이 있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

자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우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반드시 수행하고야말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결심하고 달라붙어 투쟁할 때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이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전망적으로 늘여나가기 위한 기본요인입니다. 우리는 채취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반드시 점령하며 1,500만톤의 강철고지를 점령하는데 필요한 쇠돌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쇠돌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안주지구와 순천지구, 덕천지구, 북부지구의 탄광들과 무산광산, 덕현광산, 덕성광산을 비롯하여 큰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며 생산전망이 크고 개발조건이 좋은 지대들에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많이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색금속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에 힘을 집중하면서 유색금속과 비금속 광물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지대들에 새로운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지질탐사부문에 시추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탐사설비와 탐사기구를 충분히 보장하여주며 지질탐사에서 새로운 과학적탐사방법을 널리 적용하고 탐사속도를 높여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의 채굴원천을 넉넉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력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력은 생산의 기본동력입니다.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제대로 할수 있으며 새 전망기간의 높은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수력발전소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동력기지입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크고작은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동강, 청천강을 비롯한 큰 강들에 갑문을 만들고 거기에 발전소를 설치하며 서해안의 유리한곳들에 조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소와 함께 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들을 보강하여 그 발전능력을 높이는 한편 석탄이 많이 나는 지구들과 중요도시들에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하며 지열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와

폐열, 남는 열을 리용하는 중소규모의 화력발전소들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가공공업부문들의 생산능력을 훨씬 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 전재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들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들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더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500만톤의 강철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7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를 반드시 점령하며 모든 가공공업부문들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곡 1,500만톤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과업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여유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투쟁과업입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경공업과 축산업에 원료와 먹이를 넉넉히 돌리고도 인민들의 식량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현시기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함으로써 농업을 공업화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할수 있도록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 농촌에서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적어도 10~12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사업과 다락밭건설을 다그쳐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논밭에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모든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하며 협동농장들에서도 공장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간석지개간사업과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야 합니다. 간석지건설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다그쳐 1980년대말까지 가도와 신미도, 정주와 청천강하구, 대동만을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땅찾기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 20만정보의 새땅을 더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알곡생산

은 늘일수 있는 예비는 많습니다. 농작물의 육종사업을 잘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면 단위당 수확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끊임없이 반전시킴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입니다.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통운수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은 철도입니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쳐 가까운 몇해안으로 철도전기화를 완성하며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고 운수 수단과 장비들을 중량화, 고속도화, 자동화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철도를 더 많이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긴장한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새로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생산을 늘이고 자동차길을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며 자동차수송조직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큰 짐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내고 무역항들을 더 잘 꾸리며 령남리항, 단천항을 비롯한 새로운 항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수송, 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을 발전시키는것은 수송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입니다. 정광수송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송관들과 벨트콘베아수송선, 삭도를 많이 건설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그것을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 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말에 가서 한해 수출액을 지금보다 4.2배이상 높여야 할것입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

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수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1980년대에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일용품과 식료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소비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는 우리 나라는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매우 큽니다. 고기배생산을 늘이고 고기배들을 만능화, 현대화하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어, 양식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여러가지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물고기가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고기 생산지와 소비지들에 랭동시설과 랭장시설을 더 잘 갖추고 물고기가공사업을 널리 발전시켜 질좋은 물고기가공품을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며 큰 도시들을 모두 중앙난방화하여 인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병원,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 휴양소, 료양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하며 전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며 로동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랑비현상을 반대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며 나라의 살

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겠습니다.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적평화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였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뿐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였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책동과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으며 따라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렬주의자들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였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여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해 《10월사건》이후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련합군사령부》의 지시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정치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위반죄》요 하는 여러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여넘고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륙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은 35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쑈화정책을 답습하고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자를 적극 비호하고있습니다.

지금 세상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살륙만행을 지휘한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자리에 올려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보살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를 숨길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피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여가고있습니다. 력사는 렬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릴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렬강들사이의 군사적대결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렬강의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파쑈《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있으며 남조선에는 수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미제

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곳으로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념원하고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것을 미국에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분렬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고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사이의 관계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 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킬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

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

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 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왔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페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블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여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것이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나갈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것입니다.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세계의 면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진하는 과정에 쁠럭불가담운동이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인된 활동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정세발전과 국제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이 장성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세계적판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령역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습니다.

지난날 자본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전횡을 일삼던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있으며 자본주의세계안에서도 독점권과 지휘권을 거의다 잃어버렸습니다.

총결기간 국제정세발전의 전과정은 우리 시대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대외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들을 반대하고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로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의하여 국제관계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인민들속에 《주체의 조국》으로 널리 알려지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받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총결기간 66개의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조국의 영

예와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지켜나가고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진례없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어디서나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주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력사의 흐름과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과 지배세력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지배세력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켜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하여 교묘한 암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치렬하게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이 지역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렬강들의 책동에 의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국제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있습니다. 지난날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며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지배세력들의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렬강들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지배세력들이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떠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지배세력에도 아부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의 대리인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대오에 서서 함께 나아갈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입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

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질수 있으며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그 어떤 쁠럭에 추종하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분렬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나라에 특권적지위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특권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분쟁문제를 군사적충돌에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

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참으로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강대국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공평한 질서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를 개편함으로써 국제적착취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특히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원료는 눅은 값으로 팔고 공업품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되는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세계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곤경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곤경에 빠지 다른 출로가 없을 때 그들은 싫든좋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국제정치관계분야에서도 렬강들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하도록 되여있는 질서는 시대착오적인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질서도 오늘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력량관계에 맞게 개편되고 재조정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끝장내고 불합리한 모든 국제기구들을 세계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평화와 진보의 기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세계혁명에서 마땅히 놀아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더는 확대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야 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절대로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분렬을 조장하고 단결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단결에 리롭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은 외부세력이 우리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할것이며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확고히 지키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적인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군사쁠럭은 랭전정책의 산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입니다. 군사쁠럭들은 지구우에 생겨난 첫날부터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다그쳐왔습니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침략위협》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군사쁠럭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으며 새로운 군사쁠럭과 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군사쁠럭들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있는 한 국제긴장상태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인류를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결코 군사쁠럭이나 렬강들의 이른바 《세력균형》에 의하여 유지될수 없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오직 지구우에서 모든 군사쁠럭들, 침략과 전쟁수단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쁠럭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할것을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쁠럭이 해체되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쁠럭도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와 군대를 두는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령토완정을 침해하는것이며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어긋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침략군대를 무조건 철수할것을 주장합니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것을 주장합니다.

현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분쟁이 끊임없

이 일어나고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교란되고있으며 적지 않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재난을 겪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위업에 맞게 당사자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에 외부세력이 끼여들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면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신흥세력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을것이며 어디까지나 공정한 립장에 서서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에 맞게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당은 팔레스티나와 중근동, 남부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5. 당사업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자랑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전진속에서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총결기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절대로 허물수 없습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우리 당안에는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있습니다. 우리 당의 규률은 당원들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고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규률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민주주의를 발양하여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도, 시, 군 당위원회

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과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들을 배합하여 잘 꾸렸으며 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제기된 문제를 당원들의 의사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우의 당조직이 아래당조직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움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업실태를 늘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지도사업을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하부지도체계에 따라 각급 당기관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준 결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하고있으며 해당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주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군중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있습니다. 군중이 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습니다. 인민들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느끼고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본고리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당생활체계는 항일유격대식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서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습니다.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섰으며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커다란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있습니다.

당안에 당생활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였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높은 당적자각과 왕성한 기백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당사상사업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으며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기동성있게 진행되고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격식이나 차리고 결치레만 하던 낡은 틀이 없어졌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습니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한 대중정치사업, 다양하고 힘있는 선동사업은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총결기간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생활상 제일차적요구로 내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하고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학습에서 모범이 되고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당안에 제정된 학습규률을 철저히 지키고있으며 높은 당적자각을 가지고 학습을 생활화하고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이 강화되였습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섰으며 출판보도물의 사상리론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새롭게 변모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굽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서는 재래식사업방법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는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입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에 주체사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당앞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습니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간부대렬을 잘 꾸려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있습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간부는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정치실무적능력이 있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좋은 일군들을 선발하여 간부대렬을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간부사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간부대렬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며 간부대렬구성에서 로동계급출신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 기간 당에 충실하여온 로간부들이 계속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새로 자라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래동안 로동속에서 단련된 로동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을 선발배치하는것은 간부사업의 첫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간부들을 등용하는데 그치고 교양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간부자리를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릴수 있으며 나중에는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수 있습니다. 오늘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젊은 간부들이 간부대렬에 많이 들어오고있는 사정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늘어나는 간부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현직일군들속에서 간부후비를 장악하고 실지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간부로 키우는 한편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과 우수한 협동농장들을 간부양성기지로 꾸리고 거기에서 후비간부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당생활을 강

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그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울수 있으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동안 끊임없이 당성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고 당원들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입니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위력할수 없습니다.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여기에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본계급속에서 당의 력량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성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는것입니다.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의 성분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합니다. 해방후 35년이 지나는동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였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지난날의 계급적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날의 계급적처지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중지도원칙입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이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는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정치적조직이며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당조직들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모두다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당사상사업부문에서는 선동사업을 강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 이것이 오늘 당사상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과업입니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사상교양의 수단과 방법도 이것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반전풍부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

겨져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본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경제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공명주의의 한 표현형태입니다. 본위주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일하는 공명주의자입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를 반대하는 일대 사상전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전반적리익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숭고한 의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인민정권기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경제기관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은 군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전투도덕적품성과 군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방도는 정치사상사업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안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대관리를 더욱 잘하며 힘을 합쳐 부대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 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활동에 당원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며 일단 토의결정한 문제는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할것을 요구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일군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입니다.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당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 *

동지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지난 반세기동안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발전과정은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우리 혁명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원쑤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는 락관적이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할것입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가까운 앞날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김 일 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페회사

(1980년 10월 14일)

동지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이번 당대회는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가운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축원 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대회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대회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대회는 대표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상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였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대회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된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끝없는 신뢰와 사랑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대회의 진행과정과 대회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회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자동지들과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 대회에는 남조선의 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여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우리를 힘있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사선을 헤치고 우리 당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를 열렬히 축하하여준 통일혁명당대표단과 그들을 보내준 통일혁명당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군사파쑈분자들의 야수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애국적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대회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축하단과 그들을 파견한 재일본조선

인총련합회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7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당 대회에는 우당들인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주었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애국적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당 대회에는 세계 5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대표단들과 벗들이 참가하여 우리를 열렬히 축하하여주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과 민주정당들, 국제민주단체들과 친선단체들, 주체사상연구소조들과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 개별적정치활동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우리 당 대회앞으로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여 우리를 열렬히 축하하여준 세계 여러 나라의 당과 정부와 혁명조직들, 국제기구와 단체들, 개별적인사들과 벗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전세계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동지들!

이번 당대회는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총화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전변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습니다. 당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세웠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된것은 당건

설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입니다.

대회는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확인하고 당중앙위원회가 진행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업적에 대하여 그리고 당활동과 당건설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동지들!

당 제6차대회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았으며 구체적인 투쟁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하였습니다.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령적지침으로 됩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는것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기와 굳은 신심을 가지고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맡겨진 경제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북과 남이 련합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련방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벌써부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적극

적인 지지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이번 당대회에서 천명한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당대회가 내놓은 로선과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전위부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제6차대회는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습니다.

나는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입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은 당중앙위원회의 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당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표자동지들이 지니고있는 책임과 임무는 매우 큽니다. 대회가 끝나면 대표자동지들은 자기 초소에 돌아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당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동지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가 되여야 하며 당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나

아가는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또하나의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당 제6차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의 대회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 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입니다.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정확한 령도밑에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로선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과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로선과 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페회를 선언합니다.

근 로 자 1980년 제10호(루계462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0년 10월 15일 발 행•1980년 10월 18일

ㄱ—0525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제 11 호(46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문헌을 깊이 학습하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당 제6차대회는 전체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혁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고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소집된 당 제6차대회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나고 세련된 우리 당의 불패의 전투적위력과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끝없이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았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총결기간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보고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전략적원칙과 투쟁과업,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 그리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구국방안과 방침, 반제자주위업과 전반적국제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과 탁월한 전략전술 등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빛나는 활동과 투쟁업적, 풍부한 경험을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완성된 주체사상화의 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총서이다.

독창적인 심오한 혁명리론과 강철의 론리로 일관된 보고는 조선혁명을 끝까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대로 수행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주체적립장을 구현하고있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을 밝힌 혁명대강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보고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키며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의지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

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영광찬란한 력사는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에 구현되여온 주체사상화의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바로 이 력사적진군의 계속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완성의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열어주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완성된 공산주의적강령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뚜렷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가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밝히심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그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편향없이 전진시킬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념원과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낡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과 함께 3대혁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필연성을 밝히시고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로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으로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히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근본방도, 뚜렷한 투쟁과업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공산주의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이번 당대회보고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길을 밝혀준 완성된 공산주의적인간개조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3폐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완전히 갖추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 때에만 공산주의의 두 요새 특히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결코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은 모든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혁명적진리를 밝혀주는 독창적인 인간개조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인 인간개조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개조강령이며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이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올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오늘과 같은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이 자주성과 창조성이 가장 강한 선진적인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웅대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3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기본과업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반드시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선차적힘을 넣는 기초우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수 없으며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실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위대한 전략로선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밝혀주시였다.

보고에서 제시된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경제건설강령이며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거창한

설계도가 제시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승리가 이룩될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공산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이 담겨진 거창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은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드높은 신심과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고있으며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주체형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혁명적당건설리론의 대강이다.

당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며 민족의 장래와 조국의 번영을 마련하는데서 관건적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적전위부대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시고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유력한 당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전진속에서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3페지)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이다.

지난 기간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전면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립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수립되고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강화되였으며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총결기간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당건설사업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에 토대하여 그리고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의 장구한 기간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 이룩하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놓았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밝히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의 명맥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이처럼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적보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밝히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적권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당사상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더욱 성기발랄하고 전투적인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으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특히 강령적보고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확고한 담보를 이룩하여놓았다.

우리는 보고에서 밝혀진 주체형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 획기적인 전변의 국면을 열어놓은 성스러운 구국강령이다.

력사적인 보고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앞길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를 분석하고 조국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갈 새로운 통일강령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73페지)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

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로부터 장차 련방공화국이 실시하여야 할 시정방침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장래발전의 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 천명된 새로운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부합되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애국적이며 현실적인 통일강령이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는 량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구국방안이다.

이 획기적인 새로운 통일방안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있는것으로 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력사적인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인민은 분렬로 인한 민족적재난과 겨레의 고통을 가시고 혈육의 뜨거운 정이 하나로 융합된 화목한 민족적대가정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5천만의 지혜와 힘을 합쳐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번영하는 통일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반제자주위업과 국제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복잡하고 긴장한 현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보고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는 전투적강령이며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투쟁의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대외관계분야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자주, 친선, 평화를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방침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과 원대한 전략적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과 대외활동방침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주체외교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리념으로 된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는 필승불패의 위력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은 자랑찬 승리의 기록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끝없이 휘황찬란한 전망을 펼쳐준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는 불멸의 증서이며 로동계급의 참신한 혁명리론의 집대성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문헌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가장 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있는 강령적보고에 담겨져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비범한 예지로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일반화한 생명이 약동하는 혁명의 참다운 량식이며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인민대중을 창조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이다. 보고는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견인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빨리 다그치며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가까운 앞날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5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와 거기에서 제시된 투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진군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랑을 안고 새로운 포부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당대회보고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를 진지하게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와 전반사상, 내용과 수행방도를 환히 통달하여야 한다.

보고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주체의 대백과전서이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확증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보고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을 더욱 깊게 하는 귀중한 교과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보고원문을 깊이 파고들어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학습한 내용을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대회보고 학습이 얼마나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대회보고학습의 높은 질을 보장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리고 당사상사업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거기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철저히 관철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다. 우리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의 위력과 령도력은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

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언제나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결정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과업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이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길은 오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조국땅우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기와 투지를 안고 당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10대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고 당이 내세운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우리는 강령적보고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며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반제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투쟁강령은 참으로 웅대하며 그것을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과 위력한 사회주의경제토대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

정 성 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의 대강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혁명의 총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주체위업의 밝은 전도와 민족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신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공산주의위업을 이룩할 때까지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을 명시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새로운 투쟁강령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밑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 확고한 신심과 불타는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일찌기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

혁명의 총적임무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총적임무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틀어쥐고 수행하여야 할 임무, 모든 사업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지향되고 복종되여야 할 총적인 과업이다. 혁명의 총적임무에 따라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발전의 전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이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세워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총적임무를 옳게 내세워야 뚜렷한 목표와 방향, 방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

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최종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지향에 맞게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완성되는 거창하고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학설에 의거하여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려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되는 목적의식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높이 체현하고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실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옳게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을 철저히 개조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가 일색화된 사회, 바로 이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건설하려는 공산주의사회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한 사회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되는것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제도를 변혁하기 위한 혁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이 해결된 조건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

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 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온갖 사회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것과 함께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의 자주성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반드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인간개조의 성스러운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그들의 사상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참다운 사회적존재로 만들수 있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과 관념,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있게 되면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우선 그들의 사상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

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한다.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나간다. 그리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혁명가,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출 때 사상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변혁하여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그들의 생활환경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낡은 경제제도를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경제제도는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며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놓여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 공산주의적소유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제도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한다.

경제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물질생활조건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지 못하며 그들의 생활수준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남아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질생활령역에서 자연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근로인민대중에게 풍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자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기술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여야 하며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생활수단을 얻어내야 한다. 생산력을 발전시켜 생활수단을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물질적복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물질생활령역에서 그들의 자주성이 그만큼 더 실현되게 된다.

로동생활조건을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령역의 하나이다. 로동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적예속에서 해방된 다음에도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있고 유족한 물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들의 사회적평등은 완전히 실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

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해준다. 경제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생산을 최대한으로 기계화하여 어렵고 힘든 로동과 온갖 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사회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풍족한 물질생활을 마련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문화생활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새로운 문화의 확립과 그 높은 발전에 의해서 보장된다.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낡은 사회의 문화를 철저히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문화를 건설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될수 있으며 참으로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문화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온갖 낡은 문화를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적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문명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한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연과 사회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위업으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한것은 우리 혁명이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선포한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들의 혁명적지향을 옳게 반영하여 제시하신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폐지)

하나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의 총적임무는 아무때나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여야 제시되게 된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의 총적임무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여야 한다. 또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이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것이다.

주체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

하여 나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며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의 총적임무를 제기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축성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다져지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한 정치적지반과 튼튼한 경제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사상의 일색화를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기할수 있는 충분한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비할바없이 공고화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결속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처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토대와 혁명의 정치적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기하는것은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 혁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가슴속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때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이 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확고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치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생활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사업은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할 력사적과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영원히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혁명위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신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굽임없이 전진시키며 그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근본방도

혁명의 총적임무를 옳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똑바로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벌어지는 혁명투쟁일수록 사회적변혁의 원칙과 방도를 정확하게 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그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근본목적과 그 실현과정의 특성과 관련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인류해방투쟁력사에서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창조적사업이다. 력사에는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사회적변혁들이 있었

으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처럼 그렇듯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 변혁과정은 일찌기 없었다.

이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립장이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주체사상화의 본질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제정신이 없이 남의 풍에 놀 때에는 그 어떤 문제도 옳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만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길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그들의 생활환경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사람과 사회관계,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이처럼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으로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정신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에 맞게 철저히 개조할데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옳게 구현하고 있는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제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선포하신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데서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를 선포하신것은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따라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지향과 불굴의 의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장엄한 력사적선언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의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성격을 끝까지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지름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가 힘있게 펼쳐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밝혀진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과학적 공산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총적과업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완벽하게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본질적요구,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었다.

그리하여 인류의 리상을 막연한 표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공산주의를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되였다. 과학적공산주의학설은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으로 발전풍부화되고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은 인류의 리상을 참답게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영원히 승리하며 전진할것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

박 태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당대회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장기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옳바른 투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옳게 밝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려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지난날 소수 억압자들과 착취자들에 의하여 노예적굴종만을 강요당하여온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살아나갈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새제도, 새생활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이다. 자기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다름아닌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와 수행방도도 꼭같을수 없다.

이것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옳은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만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을 잃고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으며 남이 하는것을 덮어놓고 따라가게 된다. 뿐만아니라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자기 인민의 힘과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기본혁명임무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간다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떤 문제든지 남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로동과 자원, 자기의 기술로써 풀어나가는것이다.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사람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이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근본원칙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또한 그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32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비할바없는 넓은 폭과 깊은 심도를 가진 사회적변혁과정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들고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분배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거창한 혁명위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유물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다. 이 위업은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게 된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아직 그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첫 위대한 혁명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예견할수도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게 되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주체적인 력량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또한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자기 나라의 민족적특성과 력사적조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수 있다.

오직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며 생소한 사업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에 관한 사상은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본질적요구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성,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특성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밝혀진 탁월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과 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집행하여왔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것이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고 거기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때마다 근로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해결방도를 의논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한 결과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켜놓았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원칙으로 삼을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사상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에 관한 리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침을 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

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칙을 밝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번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과 과업,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와 함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근본원칙으로 삼을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따라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보다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근본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3대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

최 문 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이번 당대회보고는 3대혁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구호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명시한 주체의 혁명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2폐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제시하신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강령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4폐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하려는 총적목적과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

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내세우고있는 총적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구경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낡은 사회의 유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을 받게 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게 되고 근로자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이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적목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기술,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3대혁명은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교양하여 우리 사회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끊임없이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게 한다.

이처럼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내세우고있는 최종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 하는 투쟁과업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방도들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이며 그것은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근로자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그이후 시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는 한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특히 3대혁명은 모든 사업에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정치적방법, 혁명적방법으로 대중을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치경제제도를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주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인민대중을 높은 정치적자각과 문화기술수준을 갖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워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나서는 기본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혁명단계의 투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내세우고있는 총적목표를 가장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명확한 로정과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투쟁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되고있다.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것으로서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방침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3대혁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된 사회이며 그러한 인간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되는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무엇보다도 사회를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의 전일적인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근본문제로 나선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고와 활동을 저애한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는것은 아직 그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충분히 갖추고있지 못하다는것을 말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본주의사상의 침습을 막음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것과 함께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혁명적동지애를 비롯한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특징지어진다.

사람들이 이러한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도록 하자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현시대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미래사회에서 살게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다.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술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사람들을 다방면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혁명인재로 만들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3대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3대혁명이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는데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비로동계급적인것을 없애고 로동계급이 대표하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며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는 계급적차이가 없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완전하게 실현된 사회이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이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될 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경제적관계와 물질기술적토대, 로동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가장 발전된 공산주의적문화를 창조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활동방식과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

여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요구는 3대혁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원만히 실현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비로동계급적요소들과 뒤떨어진 측면들은 중요하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과 락후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관계를 확립해나가야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공고발전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지반과 경제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그 우월성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는 점차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게 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특히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중요하게 로동계급에 비하여 농민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이 뒤떨어지고 공업에 비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한것과 관련되여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공업의 선진적인 수준에 따라 세우고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전인민적,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나갈수 있다.

이처럼 3대혁명은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계급적차이가 없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또한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생활과 물질생활 전반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누릴수 있도록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자면 생산력이 높이 발전되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빛나게 실현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담보는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세움으로써만 마련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는 기술혁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축성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2페지)

기술혁명을 하여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가 수행해야 할 기술혁명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며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물질기술적토대를 자립적인것으로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기술혁명은 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은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쌓을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주체화된 경제토대일뿐아니라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토대이며 그것을 빨리 쌓을수록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나라의 전반적경제토대를 강화하고 그 장비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요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바꾸고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참으로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 모든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페지)

우리 당은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섰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3대혁명을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힘있게 밀고나갔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우리 당앞에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3대혁명수행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상혁명을 기술, 문화 혁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규정하신 사상혁명을 기술, 문화혁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며 사람들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사상을 발동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킬 때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다.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천리마의 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져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가진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특히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왔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3대혁명에 대한 당의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오늘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우리의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기치아래 우리 당과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

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며 억세게 싸워나가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여가고있다. 이것은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이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경제문화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이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수 있게 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이 빨리 장성하였으며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인민은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혁명적인민으로,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이렇듯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이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맺은 자랑찬 행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빨리 다그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가장 위력한 방도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는 곧바른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빛나게 실현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

박 수 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람들간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제시하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지향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근로자들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가 키우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은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다음에도 그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은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수 없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모든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것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척도이다.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나설수 없으며 따라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같이 만들어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키워나간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혁명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나갈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활동을 능숙하게 벌려나갈수 있고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활을 문화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실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되는 과업인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또한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하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뿐아니라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근로자들사이의 평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온갖 계급적대립을 청산하고 사람들사이의 평등을 실현하는데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람들사이의 사회적평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사회성원들사이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람들간의 사회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이러한 차이들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사회성원들사이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

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3페지)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그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에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은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농민들이 로동계급에 비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문화기술적으로 뒤떨어져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아직 농촌경리에서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공업의 선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고 농민들의 사상문화기술수준을 로동계급의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그러자면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이 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사상의식수준,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극복되여간다. 또한 이 과정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에서의 락후성을 극복하며 온 사회에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은 또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앰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결코 사람들의 사회적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까지를 포함하여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차이가 없어질 때라야만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 등 로동생활에서의 차이는 주로 기술발전의 미숙성에 기인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에서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만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빨리 실현할수 있다. 그리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까지도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4페지)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과 인테리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들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사업기풍을 적극 따라배울 때 자신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또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훨씬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사회주의적인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위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면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인 방침이다.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보물고를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써 풍부화하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

리화 방침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곧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확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미풍이 꽃피나고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된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며 인간해방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로선

문 성 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총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시고 당사업, 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건설의 근본문제를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본담보문제,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 항구적인 요인문제 등 일련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리론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당을 영원히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여 당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상을 같이하는 계급의 선진분자들을 묶어세워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그를 통하여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한다.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인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다면 그러한 당은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만이 당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한 조직사상적기초로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사업, 당활동을 조직전

개하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당의 본성과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이것은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4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

당의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담보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차넘치게 하고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배겨나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전당을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을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가진 강철의 대오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며 그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전투적부대이다. 따라서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전당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그 전투력의 원천이 있으며 온갖 기회주의적당들과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근본특징의 하나가 있다.

당안에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안에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참모부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자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며 전략전술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여야 수령이 내놓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언제나 정확히 관철하고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련향

없이 곧바른 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의해서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길은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조직적선봉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건설의 기본로선은 당의 창건과 공고발전, 당사업과 당건설의 어느 한 분야나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철하면 당사업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은 선봉적, 조직적부대로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당사업, 당활동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게 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을 비롯한 당조직사업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도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등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렇듯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며 따라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로선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적당건설의 어느 한 시기, 어느 한단계에서뿐아니라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에 대를 이어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로선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세대를 이어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력사상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로

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이 거창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 세대는 끊임없이 교체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며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따라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도 역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함에 따라 부단히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계속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다.

혁명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은 심해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으로부터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로선으로 된다.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기본로선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05페지)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확립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전체 당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반석같이 다져진것으로 하여 그 어떤 잡사상도 발붙일수 없고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고 있다.

전당에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섰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였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완전한 통일단결의 실현,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 당의 대중적지반의 강화, 인민대중속에서 높아진 당의 권위와 위신,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전면적확립 등 실로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강화발전과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을 영원히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날 로동계급의 당을 대를 이어가면서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당건설로선을 어떻게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건설의 기본로선이 명백히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건설,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시작된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위대한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사명을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이 뚜렷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를 힘있게 뿜어주는 사회의 심장으로서의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이 차넘치는 혈기왕성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전반적 당사업, 당활동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건설의 기본로선이 제시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사상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영원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수령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이 명백히 제시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이 뚜렷이 명시되게 되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또한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반동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을 건설하고 그를 불패의 대오로 꾸려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명시되게 되였다.

참으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오늘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의 주선으로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안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웅대한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리 동 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시고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10대전망목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로운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가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뚜렷한 전망과 굳은 신심을 가지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는 새로운 10대경제건설목표의 제시와 그 실현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것, 바로 이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목표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휘황한 리정표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

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것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곧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쳐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민생활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물질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이렇듯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철저히 확립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바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을 어느 정도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한다는것은 곧 우리 나라를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될 때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 강력한 생산력을 가지게 될것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또한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아직 세계적범위에서 민족적차이와 국가가 남아있고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았다고 말할수 없다.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인민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면서 생산을 계속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체의 공고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새 경제건설전망목표는 전력공업부문에서 점령하여야 할 전례없이 높은 고지를 밝혀주고있으며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한 중요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채취공업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건설전망목표야말로 채취공업

과 전력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의 자주적인 구조를 계속 강화하도록 힘있게 추동해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새 전망목표들에는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소비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기 위한 중요지표들도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그러므로 새 전망목표들을 다같이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 경제의 자주적인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인 균형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있게 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할뿐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인 기술로 튼튼히 장비해야 한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도 이룩할수 없다.

새로운 경제건설전망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새 전망목표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들은 기술혁명을 다그쳐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새 전망목표들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기술장비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높은 수준으로 빨리 올라서게 될것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가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한 길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3페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지난날의 중산층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후대들을 공부시킬 걱정 등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고있으며 모두가 다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보다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근로자들에게 마련해주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 특히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중공업 특히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경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충분히 생산공급하여 인민소비품과 농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 전망목표는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하여 중공업부문에서 점령하여야 한 고지들을 뚜렷이 제시함으로써 중공업제품들에 대한 경공업 및 농업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련계를 밀접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경공업과 농업에서 도달하여야 한 중요목표를 명백히 제시해줌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물질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 새 전망목표에 제시된대로 15억메터의 천과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해내면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는 더욱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해결되게 된다.

참으로 새 전망목표들이 실현될 때 우리 인민들은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신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다는데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키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는 근로자들에게 뚜렷한 투쟁목표와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에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안겨주고있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다 왕성한 투지와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의 제시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신것은 또한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고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란 보잘것없고 기형적인 공업과 황폐화된 농촌경리, 장부만 남은 금고뿐이였으며 그것마저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참히 파괴되여 전후복구건설의 첫시기에 남은것은 사실상 재더미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웠으며 수천년의 유구한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우리 인민이 보다 큰 비약과 승리를 내다보게 하는 웅대한 10

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장엄한 진군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과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가 실현될 때 우리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도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밑천을 보다 튼튼히 마련해놓게 될것이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영광스러운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휘황한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주고있다.

우리는 또한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충분히 가지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도 대단히 높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우리 나라에는 앞으로 새롭게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과 무진장한 과학기술적원천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수백만의 근로대중과 우리 당이 키워낸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가진 경제지휘성원들이 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우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반드시 수행하고야말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들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3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는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매우 높은 고지이다. 이 높은 고지를 가까운 앞날에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투적인 혁명정신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위력한 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운 경제건설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을 혁신하는데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채취공업, 전력공업, 가공공업, 농업, 교통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높고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이 대단히 커진 오늘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일군들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드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나선 혁명과업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계획화사업과 자재공급사업, 집동생산조직과 로동조직, 설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대중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오늘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물자자원을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기준화사업을 개선하고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사업과 통제를 배합하여 랑비현상을 없애야 하며 한와트시의 전력, 한토막의 강재, 한방울의 연유라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사이,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옳게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고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

한 웅 식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밝혀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지난 시기의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확신성있는 통일구국강령이다.

온 민족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가장 알맞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실현되면 통일된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할것이며 가장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될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든 민족주의자이든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지난 기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우리 나라 안팎에 조성된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획기적인 통일대강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안을 새로이 천명하시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지난 기간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는 자주사상과 사대주의,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숙한 시기에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반파쑈민주화투쟁방침을 거듭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온 겨레를 민족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분렬된 조국의 력사는 벌써 35년이상이나 지속되고 북과 남의 겨레가 그처럼 념원하고있는 조국의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미제와 전두환일당의 민족분렬책동과 군사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고있다.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고 말것이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렬강들사이의 세력권쟁탈전이 날로 격화되여가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이 계속 분렬된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당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나라 안팎의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평화통일의 국면을 결정적으로 타개해나갈 획기적인 통일강령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에는 그 형성의 기초와 원칙으로부터 국호문제에 이르기까지 련방국가의 형성과 관련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정확히 해명되여있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에는 련방국가형성의 기초와 그 본질적내용문제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져있다.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은 련방국가형성의 기초이며 그 본질적내용이다.

련방국가형성의 기초와 그 본질적내용에 관한 사상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는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며 북과 남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사상이다.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에는 또한 련방국가의 정부기구와 그 구성문제에 대한 정연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져있다.

새로 형성될 련방국가에는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여있다. 북과 남의 정부들은 각각 련방국가의 지역정부로 될것이며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 될것이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를 이루는 최고민족련방회의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될것이며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조직되게 될것이다.

통일정부를 이와 같이 조직구성하는것은 련방국가형성의 기초와 그 본질적내용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통일문제의 거족적성격으로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다음으로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에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와 지역정부가 담당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임무 및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담겨져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전민족의 단결과 합작 및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 등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되여있다. 통일정부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추진하고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게 될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할것이다.

이것은 련방국가가 립법적기능과 함께 행정적기능을 담당수행하면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통일정부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자기의 기능과 임무를 원만히 하도록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련방국가의 지역정부들은 통일정부의 지도밑에 사업하게 될것이며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안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지역자치제

를 실시하게 될것이다.

또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서로 동등한 권한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각각 담당수행하여야 할 이러한 기능과 임무는 우리 당이 제기하는 련방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기하는 련방국가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지는 련방국가이며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련방국가이다.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에는 련방국가의 중립적성격과 국호문제에 관한 심오한 사상도 담겨져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국가로 될것이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련방국가가 중립로선을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또 이것은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렬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형성할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규정하여주시였다. 고려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적리념이며 인민대중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은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적리념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가장 정당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당대회에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천명하신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련방국가에 관한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획기적인 통일구국대강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밝히신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적이며 중립적이며 평화적인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구국헌장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73페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두 지역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민족문제에 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하게 관통되여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문제의 혁명적본질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민족문제가 차지하는 지위를 비롯하여 민족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되찾고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문제의 혁명적본질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민족문제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기본구성부분의 하나를 이루며 짓밟힌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는것이 첫째가는 혁명위업으로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처음으로 밝혀주었다.

지구상에 나라가 있고 국경이 있는 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기마련이다. 이로부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투쟁에서 짓밟힌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으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내는것이 첫째가는 혁명위업으로 되는것이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사상과 리념을 비롯한 모든것이 아무런 의의도 가질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당한 인민들은 민족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가 신봉하는 사상리념과 제도가 어떠하든지간에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을 첫째가는 위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는것이다.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바로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로부터 직접 흘러나온것이다.

이것은 이번 당대회에서 새롭게 천명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그 어떤 일시적인 전술적대책인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의 분렬을 방지하고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키고있는 가장 철저한 애국적방안이며 통일구국대헌장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또한 우리 나라 안팎의 객관적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해방후 오늘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다. 그렇지만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며 한나라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 단란하게 살아온 전체 조선민족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념원하고있으며 그것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킨 렬강들사이의 세력권쟁탈전이 날로 격화되여가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주변에 큰 나라들을 끼고있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에 놓여있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는 우리 나라 안팎의 이러한 객관적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여야 한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나라가 처한 객관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 함께 손잡고 살아나갈 방도를 모색하여야 하며 외세에 리용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어부지리를 주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

여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통일독립국가로 될데 대한 방안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현존하는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남북쌍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가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 나라의 두 지역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엄연한 객관적현실을 무시하고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분렬된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부세력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수 있는것이다.

물론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는 서로 다르며 차이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에 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민족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나라 한강토에서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한피줄을 이어 살아온 단일한 민족이며 자기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재능있고 슬기로운 인민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객관적현실은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능히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북과 남이 각각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것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위업에 복종시키는 립장을 견지한다면 비록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련합하여 통일국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내놓으신 민족문제해결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가장 올바른 길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또한 북과 남의 쌍방이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천명하신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담고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북과 남의 리익과 리해관계에 맞게 설정되고 전개되여있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중립적인 련방국가로 될데 대한 문제 등이 이를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지어 련방국가의 국호문제까지도 남북쌍방이 자기의 리익과 리해관계를 손상당함이 없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의 공정성은 앞으로 세워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집행해야 할 시정방침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집행해야 할 시정방침에는 련방국가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

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이것은 사대와 예속이 아니라 자주와 독립을 요구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접수하지 못할 리유와 근거가 설수 없는 가장 공정한 시정방침들인것이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에 담겨져있는 모든 내용들은 북과 남의 리익과 리해관계를 다같이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남북쌍방에 아무런 부대조건이 없이 쉽게 접수될수 있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는것이다.

지금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새로이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을 조국통일의 앞길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획기적인 통일방안으로 일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신문, 방송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획기적인 조국통일방안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보도하고있으며 그것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속에서 더욱 더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실현되면 전체 조선인민은 분렬로 인하여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가시고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굳게 융합된 하나의 화목한 민족대가정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5천만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합치고 풍부한 자원을 마음껏 개발하여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인 륭성번영하는 통일조선의 새 력사를 자랑높이 창조해나가게 될것이다.

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강령이 밝혀짐으로써 5천만 우리 겨레는 그처럼 절절히 바라오던 조국의 통일과 통일조선의 밝은 앞날을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관철될 때에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대통일전선에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 인민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자주성과 쁠럭불가담운동

최 상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복잡하고 긴장한 현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차지하는 지위를 밝히시고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옳바른 전략적로선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3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진하는 과정에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과 특히 조선전쟁이후 수많은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이 자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거세찬 흐름이 세계의 모든 대륙을 도도히 굽이치게 되였다.

그러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으며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자주세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투쟁으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에 맞서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이 쁠럭불가담운동의 출현을 가져왔고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 경제발전수준과 자연지리적조건 등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가지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이 쁠럭불가담의 기치밑에 하나의 대오에 결속되게 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속에서 나왔을뿐아니라 이 운동의 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이 운동의 반제자주적성격을 명백히 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사명과 활동원칙을 밝히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협조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주요한 원칙들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공통된 념

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을 자기 대오에 단합시키고있다.

오늘에 와서 세계의 그 어떤 반동세력도 감히 공개적으로 이 운동에 도전하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갖은 감언리설로 쁠럭불가담운동에 교묘하게 편승하려 하며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꾀하는것은 이 운동의 장성하는 위력과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인된 활동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났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일관하게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과 모든 정책들 그리고 이 운동이 벌리고있는 공동투쟁은 세계혁명위업과 국제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세계적범위에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과정이 힘있게 촉진되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지난 20년동안의 력사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고 민족적독립과 자유, 사회적진보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로운 위업을 촉진시키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출현과 그 대렬의 끊임없는 장성강화는 세계가 몇몇 강대국들에 의하여 분할되고 그들이 세계정치와 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롱락하던 시대는 이미 끝장났으며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세계의 모든 발전과정이 신흥세력, 자주세력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였다는것을 확증하는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세계적판도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과 지배세력 사이의 치렬한 투쟁과정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킨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쁠럭불가담의 기치, 자주성의 리념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4폐지)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활동을 철저히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개하는것은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기본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게 되면 벌써 그것은 쁠럭불가담운동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만약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지 못한다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세계 정치와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도 미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고수되여야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이 운동의 전반적위력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결심에 따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할수 없으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을 떠나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고 자위적인 국방력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으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 하는것은 마땅히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자체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자체의 혁명진지를 공고화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에 참가하고있는 매개 나라가 주체를 세우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민족적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쁠럭불가담력량의 매 고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반제혁명위업발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국제적인 반제혁명력량은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하여질 때 그 전반적위력이 강대해진다. 만일 쁠럭불가담운동의 매개 나라가 자립성을 잃고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력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어떤 한두개의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크고작은 과업들을 도맡아할수 없고 또 어떤 개별적나라가 혼자서 쁠럭불가담운동을 대표하거나 대신할수 없는만큼 쁠럭불가담력량의 개별적고리들을 강화하는것은 그 전반적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주체적력량을 보장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에서 자주성의 원칙,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고수되여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수 있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신흥세력, 쁠럭불가담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떠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는 서로

다른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에서 각이한 혁명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나라들이 망라되여있다. 이러한 력량을 하나의 대오에 튼튼히 결속하는것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 대오를 국제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국들의 공통된 념원과 시대의 지향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자주성이 바로 이러한 단결과 협조와 국제적련대성의 기초로 되고있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존중하여야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도모할수 있기때문이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매개 나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쁠럭불가담운동과 전반적 세계혁명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 내부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또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고한 국제적련합을 이룩하여야 전반적인 쁠럭불가담력량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는것이다.

만일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이 무시되면 쁠럭불가담운동은 개별적민족부대들의 자주적인 혁명력량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말것이다. 또 아무리 개별적고리들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서로의 련계가 자주성을 호상존중하는데 기초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사이의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쁠럭불가담운동은 하나의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될수 없고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교수되여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이 이룩될수 있으며 이 운동의 확대발전을 저애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반제자주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의 리념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주의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어떠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침략과 간섭을 계속하고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보고 반제적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매개 성원국들은 자기 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한 반제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나가야만 자기 나라에서

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을뿐아니라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고수하고 이 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의 기치를 계속 고수하며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그 어떤 쁠럭에 추종하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분렬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4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고수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렬강들의 쁠럭에 끌려들어가지 않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는 운동인것만큼 결코 어느 한 쁠럭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 될수 없다.

자주성을 잃고 어느 한 세력을 따라가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는 벌써 쁠럭불가담나라라고 말할수 없다. 전체로서의 쁠럭불가담운동도 본래의 정치적리념이 고수될 때에만 그 운동이 강화될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운동자체의 리념이 유린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은 불피코 변질을 가져올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로 있어야 하며 쁠럭에 가담하는 나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쁠럭불가담운동을 어느 렬강들의 쁠럭에 끌어넣으려 하거나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더우기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 이 운동안에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여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려는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아무리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성격을 변경시키거나 원칙을 유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여야만 쁠럭불가담운동은 그 존재를 보존할수 있으며 세계의 장래를 결정하는 보다 영향력있는 혁명력량으로 전진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은 쁠럭불가담운동자체를 말살할것을 꾀하면서 당면하게는 이 운동이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거세해보려 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대렬이 확대되고 그 위력이 장성할수록 지배세력들의 이러한 책동은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다.

분할하여 통치하며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침략수법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겪고있는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갖 지배와 예속이 종국적으로 청산될 때까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절대로 특권적 지위와 행세가 허용될수 없으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분쟁문제를 군사적충돌에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하지 말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

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기들을 단결시키고있는 근본요인들을 귀중히 여기고 분렬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단결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갈 때 참으로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기 력량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해관계와 사활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재자체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개별적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쁠럭불가담운동도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예속과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강대국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공평한 질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적착취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 특히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국제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세워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선차성을 부여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손에 장악된 경제적지테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국제정치관계분야에서도 렬강들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하도록 되여있는 질서는 시대착오적인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끝장내고 불합리한 모든 국제기구들을 세계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평화와 진보의 기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적극 지원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모든 군사쁠럭들을 해체하며 신식민주의를 끝장내야 한다. 군사쁠럭들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군사세력권으로 분할하고 도처에 군사쁠럭들을 조작하는것을 반대하며 이러

한 렬력들의 지배가 없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창조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만큼 군사렬력들의 해체와 외국군사기지와 외국군대의 철거를 주장하는것은 쁠럭불가담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려나가야 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정치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든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다같이 좋은 일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야만 국제무대에서 그들은 더욱 철저히 고립시킬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리념과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며 세계의 변혁과정에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이 현 국제정세와 쁠럭불가담운동의 안팎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의 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밝힌 제반 원칙적문제들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비록 일시적인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지만 모든 성원국들이 쁠럭불가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힘을 합쳐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고수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근로자 1980년 제11호(루계 457호)

편집위원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80년 11월 1일 발 행•1980년 11월 5일

ㄱ—0527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80

제 12 호(46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문헌을 깊이 학습하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을 그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사명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헤치고 오직 승리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고있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 때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1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혁명을 계속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되며 그것은 혁명위업의 력사적뿌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력사적기간에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93페지)

혁명전통은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행정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그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힘의 원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초석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고귀한 업적,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을 정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의 명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마련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며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완성되는 과정, 그것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

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빛내여나가는것을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있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고 모든 사업을 혁명전통으로부터 출발하여 설계하고 전개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는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신 가장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담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귀중한 투쟁의 기치로, 우리 혁명위업의 불패의 힘의 근본원천으로, 그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만넌초석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영원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근본초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이며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전통이라는데 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위업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인류해방위업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것으로 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위업의 유일한 력사적뿌리를 이루며 따라서 그것을 옹호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우리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는 오직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전통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한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있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구감으로 되여있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참다운 세계관이며 조선혁명의 전과정과 공산주의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

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모든 리론 실천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혈맥으로, 생명선으로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는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또한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며 조선혁명승리의 튼튼한 밑천으로 될뿐아니라 인류해방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근본초석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들을 담고있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분야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여러 분야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은 총적목적에 복종되며 그것들은 전일적이며 통일적인 과정을 이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이러한 혁명투쟁이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투쟁에는 반드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본보기와 원형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본보기와 원형들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 집중적으로 담겨지있으며 그것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구현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력사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들이 구현되여있으며 고귀한 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본보기로, 원형으로 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고귀한 업적과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들은 그 혁명성, 위대성으로 하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과정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참다운 본보기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또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력사상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된 혁명전쟁이였다.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혁명적지조, 강의한 투지와 동지적의리 그리고 한없이 귀중한 업적과 투쟁경험 등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필승의 신념과 불패의 힘을 안겨준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 폭과 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 그리고 생활력과 감화력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건설하며 혁명무

력을 강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또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고 전후 재더미속에서 짧은 기간에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조국땅우에 오늘과 같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력사적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구현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고귀한 열매들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그 력사적뿌리로, 근본초석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확고히 전진하고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

2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있게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처하여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있게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세대가 바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장기적인 투쟁이며 그 행정에서 세대가 바뀌여지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새로 자라난 세대들로 하여금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고 생활이 더욱 유족해지면 질수록 새로 자라난 세대들속에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는 교양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속에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해이해질수 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의 참된 계승자로, 로동계급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야 그들이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는것이다.

혁명전통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는

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안에 수령이 창조한 혁명전통외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재부만을 전통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혁명의 피줄기를 튼튼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철저히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혁명위업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빛내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8폐지)

수령의 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당과 혁명의 생명으로 된다. 그리고 수령이 이룩한 업적은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로 된다. 오직 수령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옳게 계승해나갈 때만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오랜 혁명투쟁력사가 확증해주는 진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이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실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끝없이 귀중한 모든 재부들과 전취물들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적본분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9폐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과 세기에 빛날 업적이 우리 당에 의하여 어떻게 빛나게 계승되고 활짝 꽃피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당중앙의 절대적권위와 위신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거기에 담겨진 혁명정신, 혁명적재부들을 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것은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순결하게 고수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는 오늘 항일의 그날과는 비할바없이 우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며 일하고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하였던 그 높은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와 생활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맞게 제때에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받들고 지난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그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사업방법이 온 나라에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를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자신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과 비약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오늘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심장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

김 주 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한데 대한 혁명의 대강을 펼쳐주시면서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학설이며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일찌기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성스러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오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주체의 한길을 따라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근로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인 동시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근본원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근본원칙과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

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되자면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높고 강렬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학설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는 혁명학설만이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될수 있으며 참말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주체사상에는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바로세우며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총적목표와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정확한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추동력이 뚜렷이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밝힐수 있는 사상리론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혁명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근로인민대중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체의 혁명리론의 전개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그것을 담당수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이 일어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위주로 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모든 리론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전개원칙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학설확립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를 이루는 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강력히 지향하고 요구하는 사회적존재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한다.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자연과 사회에는 력사발전단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이러저러한 질곡과 요인들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이러한 질곡과 요인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환경, 새로운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과 조건을 창조해나감으로써만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이 결국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되며 모든 혁명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혁명의 원인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구속하는데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자주적존재인 근로인민대중은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성이 짓밟히고 구속당하는것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계급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은 반동적지배계급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이 계속되는것도 결국은 이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기때문이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한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게 된다.

주체의 혁명학설은 혁명의 본질과 원인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혁명이 승리하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신의 창조적능력의 준비정도와 객관적조건의 성숙정도에 맞게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의 발전과정은 결코 자연사적과정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투쟁과정이며 이 과정에 혁명투쟁이 발전하고 승리하게 된다.

혁명이 일어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활적요구로 제기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활적요구로 제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객관적조건이 아무리 유리하게 조성되였다 하더라도 혁명은 일어날수 없을뿐아니라 승리할수도 없다.

혁명이 일어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맡아 수행할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할 때에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본질과 근원,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이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의 목표를 옳게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학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전략전술을 옳게 세워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객관적환경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히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기 위한 가장 옳바른 원칙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는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으며 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방도, 로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인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제시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최종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학설에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최종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는것을 밝히고 이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가르치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들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위업은 단번에 실현될수 없으며 주객관적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해결되여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위업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로정을 자주성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적과정으로 밝힘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순차적 발전과정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매 단계의 혁명과업과 수행방도를 뚜렷이 가르치주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리론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정과 순차성이 완전히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단계를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본질적요구, 그 완성의 합법칙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전면적으로 제시해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의 면모를 밝혀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최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 전략전술을 옳게 세울수 있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가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라는것을 밝히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된 사회이다.

사회의 주인은 사람인것만큼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사상정신적풍모의 소유자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풍부한 물질생활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이 밝힌 공산주의사회는 또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이 진 사회적범위에서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이다.

사람은 사회관계속에서 살며 일정한 활동방식에 따라 행동하는것만큼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공산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인것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공산주의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에 기초하여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생활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주체의 혁명학설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은 오직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확립하고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종래까지 륜곽적으로만 그려지고있던 공산주의사회의 면모가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인류는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가지고 어떠한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대중령도방법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줍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26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혁명학설로 되자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대중령도방법까지 밝혀주는 전일적인 체계로 되여야 한다. 혁명투쟁의 목표와 수행방도, 전략전술이 옳게 세워진다 하여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과학적인 령도방법이 없이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대중령도방법을 옳게 밝히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을 확립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사회적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 립장이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그들이 저절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의 옳은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밝히고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대중령도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밝혀줌으로 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게 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대중령도방법이 해명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본질과 합법칙성, 총적인 목표와 수행방도, 근본원칙과 대중령도방법 등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그것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학설을 새롭게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을 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학설이 밝혀짐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혁명학설은 또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것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세계 피압박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이 주어짐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혁명학설이 담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다 갖춘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되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의 혁명학설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장 과학적인 학설로 전환시키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백두의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선차적요구

김 봉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4페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력사적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앰으로써 실현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전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자면 대중을 혁명화하여 각성시키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서기 이전 시기에 전면에 나서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것이다. 이 과업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으로써 실현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다음에는 그들을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

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의연히 존재하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켜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 다음에도 계속하여야 한다.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렇듯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잘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4페지)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선차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그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다른 계급과 계층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라는데 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로동계급이 농민과 인테리 등 사회의 다른 계급과 계층들에 대한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급, 계층들 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나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다. 만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자신을 다른 계급과 계층들 속에 용해시킨다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가장 정확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

로 개조하는 력사적과업은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쳐 그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른 계급, 계층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해결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화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선차적요구로 나서는 것은 또한 로동계급이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령도계급이라는것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은 그 계급적본성과 지향으로 하여, 현대적생산과 직접 련결되여 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이 가장 높은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그 형성초기부터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령도계급으로서 자기 자신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견결하고 용감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은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는 혁명투쟁에서 모든 근로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위력하고 조직된 부대로 될수 있었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도 결정적인 력량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령도계급이다.

농민과 인테리는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적령도와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서만 공산주의사회에로 나갈수 있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령도와 지도방조밑에서만 온갖 사회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되고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될수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 령역에서의 온갖 락후성을 청산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올라설수 있다. 인테리 역시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를 받음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함께 공산주의사회에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계급적처지로 하여 그 어느 계급보다 단결력과 조직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령도계급으로 된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농민과 인테리의 본보기가 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화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은 자신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벌리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의 앞장에 서서 나가야 하며 여기에서 본보기가 되고 농민과 인테리들에게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킬수 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로동계급의 혁명화가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특히 로동계급대렬이 부단히 새로운 세대들로 보충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이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 새로운 세대들로 부단히 보충되고있다.

로동계급대렬에 부단히 보충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고 자라났으며 행복하게만 살고있다. 이러한 새세대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로동계급대렬에서 골간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데서 새세대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만일 새세대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잊고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한다면 그들속에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일하기를 싫어하고 혁명하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승리한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새로운 세대들로 보충되는 로동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그들을 높은 계급적자각과 견결한 혁명성을 가진 참다운 로동계급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세대로동계급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수행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선결조건이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주체위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적단련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35페지)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은 로동계급이 사회의 령도계급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고유한 풍모이다.

로동계급은 이러한 풍모를 지녀야 온갖 비로동계급적사상, 온갖 잡사상들과 썩어빠진 불건전한 도덕을 철저히 극복하고 건전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도덕으로 다른 모든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다. 그래야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성과있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로동자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로동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언제나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유일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당면하게는 로동계급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보고의 진수와 전반사상 그리고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자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모든 로동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과 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확고한 로동계급적원칙성과 견결한 혁명적립장,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높은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속에서 조직적단련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조직성과 혁명성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람들은 조직적단련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더 잘 키우게 되며 강의한 혁명성을 지닌 참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게 된다. 조직적단련을 떠나서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 조직성을 튼튼히 소유할수 없다.

로동계급속에서 조직적단련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그들이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혁명교양을 받을수 있고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옳게 벌릴수 있으며 혁명가적품성을 키워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도, 로동계급의 기본적특성인 강한 혁명적조직성도 오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잘 배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조직성이 강한 참된 로동계급으로,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참말로 조직과 집단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로동계급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그들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 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각급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여 그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며 모두가 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는 혁신자가 되고 발명가,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이 다 숨은 영웅들처럼 공산주의적 인간의 본보기가 되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로동계급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로동계급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뿌리깊이 박힌 낡은 사상잔재와 그 독소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양식분야에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사람들의 생활질서와 생활관습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생활양식은 낡은 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틈으로, 온상으로 되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지장을 주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데서도 앞장에 서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로동계급들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검박하게 생활함으로써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인 인간개조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인간개조강령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중요한 과업

리 영 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주체의 혁명대강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시면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문화혁명의 종국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고등의무교육을 남먼저 실현하고 주체교육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의 본질과 의의,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과업의 하나이며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근본방도로 내세우심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나갈 옳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고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0페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이 지녀야 할 문화지식수준의 높이가 새롭게 규정되고 그 실현방도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인 공산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할뿐아니라 생산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과학과 문화가 개화발전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적으로 자동화되며 원격조종에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힘든 육체적로동은 모두 기계가 맡아하게 되며 생산자들은 다만 종합적으로 자동화된 기계의 운동을 조절하고 감시, 통제하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또한 수요에 따라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부가 풍족한 사회일뿐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적수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정신도덕생활과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철저히 극복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과학기술발전과 문학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공산주의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기술공정을 훌륭히 관리운영하며 누구나 다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고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수준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된다. 그것은 대학교육이 사람들에게 현대 과학과 기술, 문화의 성과를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시켜 그것을 실천활동에 써먹을수 있는 전문기술지식과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지식수준을 가지게 하자면 바로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우선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교육을 주어 그들이 장차 대학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주며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또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더 많이 키워내여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은 한걸음한걸음 실속있게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게 되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이 문화혁명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사람들의 로동생활령역에 가장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은 착취사회가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 첨예한 모순

관계에 놓여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심한 불평등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이 기초하고있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없애버림으로써 이것들사이의 대립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로동조건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차이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힘든 육체적활동을 모두 기계기술수단의 힘으로 대신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사정과 함께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화기술지식수준에서도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려면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바로 육체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모두 정신로동에 참가하는 인테리들,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게 함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차이를 없애게 한다. 이때에 가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를 따로 가려볼수 없게 될뿐아니라 그들모두가 지적활동과 육체적활동이 조화롭게 결합된 리상적이며 매우 능률적인 로동에 참가하면서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며 이 사업은 다름아닌 교육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힘을 넣어야 할 주공방향과 그 근본방도가 뚜렷이 해명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교육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성스러운 사업을 맡아나설수 있는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온 결과 이 분야에서는 세기적인 변혁과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해방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연필생산문제를 제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교육사업은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거쳐 오늘은 가장 높은 수준의 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교육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 다 일할 나이가 될때까지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있으며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며 가까운 앞날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고등교육을 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낡은 사회로부터 단 하나의 대학도 물려받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대학만 하여도 170개나 되고 지방마다에는 종합적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이미 100만명이상의 인테리대군을 믿음직하게 키워내게 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으며 나라의 경제, 문화건설과 함께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실현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0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중등교육을 완성시켜주며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세워져있으며 이 훌륭한 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훨씬 높이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나가려면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 시대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준 대백과전서적문헌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로정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주체의 혁명적 교육대강이다.

위대한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경험은 교육테제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심장으로 받들고 교육테제에 밝혀진 사상과 리론, 혁명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관철하여나아감으로써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교육기관들에서 교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우선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참다운 학설인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이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아래서 행복하게만 자라온 세대들이다. 만일 청소년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으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안일해이해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종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폭넓게 가르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학생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가 급속히 생산에 도입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창조적능력을 가진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수많이 요구하고있다.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들을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학교들에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주어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리론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하고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만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창조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교양적가치가 높은 여러가지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더 많이 출판해내며 학교들과 지방마다에 도서관들을 잘 꾸려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의 구호밑에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교원들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학교교육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1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문화지식수준을 가지게 하는것인것만큼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이 다 차례지게 하는 고등의무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곧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완성하여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것이다.

우리는 급격히 늘어난 각급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을 민족간부양성기관답게 정비보강하고 더 잘 꾸림으로써 그것이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끊임없이 늘이고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고등의무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이 다 차례지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도록 고등교육기관을 계속 늘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교육사업에 막대한 국가적투자가 돌려진다고 하여도 생산과 건설에 참가하고있는 청장년들을 모두 떼내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킬수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하시였으며 실

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광범한 근로자들을 생산에서 떼여내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고등의무교육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지역적배치와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산업지구들에는 공장대학을 더 늘이고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들, 수산기지와 어촌들에는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을 새로 내오며 고등전문학교들도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통신교육체계를 강화하며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빛나게 실현된 오늘의 조건에 맞게 텔레비죤방송대학을 새로 내와야 한다.

고등의무교육과 같은 거창한 사업을 아무런 편향없이 잘 준비해나가려면 나라의 경제건설과 교육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교육의 효과성과 실제적인 교육조건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고등의무교육의 대상과 순차를 옳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통하여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나오는 새세대들부터 고등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하면서 점차 교육조건이 마련되는데따라 지난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다 망라하여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빠른 속도로 실속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본질과 요구를 심오히 해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고등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새세대들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게 될 때 우리 나라는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인테리화된 나라로 전변될것이며 우리앞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리상사회가 찬연한 현실로 활짝 펼쳐지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남먼저 실현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이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한다.

당생활과 당성단련

곽 영 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사업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을 당성이 강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당원의 숭고한 의무이며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당과 운명을 같이할것을 맹세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성은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떠나서 당원의 혁명활동과 본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원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이자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다.

당성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숭고한 계급적자각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정신이며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이다.

당성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신념,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당적원칙성과 혁명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당성을 단련하는 과정은 곧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과정으로 된다.

당원들이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성을 단련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당성단련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나 오래하지 못한 사람이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과업이다.

당원은 누구를 물론하고 일생동안 끊임없이 당성을 단련하여야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은 당조직생활을 통하

여 끊임없이 단련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당생활은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당생활이 당원들의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통하여 그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좌우된다. 당원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언제나 로동계급의 립장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원들의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 세계관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만 세워질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사회와 자연을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관점과 립장,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뚜렷한 길이 밝혀져 있으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완전무결하게 구현되여있다.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옳바른 혁명의식을 가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소유할수 있다.

당조직은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속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일군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생활이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원들속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겸비한 사람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겠다는 높은 혁명정신과 함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질 때라야만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위임분공에 무한히 성실한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품성이다.

당원이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당원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지 않고서는 당성을 단련할수 없으며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당원만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원의 이러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강화된다.

원래 혁명위업에 나선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강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당생활이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중요한 방도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생활이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원칙적인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고 당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사업은 심각한 사상개조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은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만으로써는 옳게 수행될수 없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사업은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릴때 성과적으로 촉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당성과 계급성을 부단히 높일수 있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7페지)

당조직은 원칙적인 비판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게 하며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고 그들이 혁명의 옳바른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할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게 된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사상투쟁의 힘있는 무기이다.

당원들은 당회의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많은 자극을 받고 좋은 교양을 받게 된다.

당원은 누구나 다 당생활을 통하여 자기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도 하게 되며 이 과정에 자기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된다.

이렇듯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게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당원들의 당성은 또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된다.

혁명적실천은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원들은 혁명실천과정에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되며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공고화하게 된다.

당원의 혁명활동, 실천활동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당생활을 떠난 당원의 실천활동, 혁명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당조직은 매개 당원들에게 빠짐없이 위임분공을 주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시킨다.

당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 혁명과업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그를 수행하는 과정은 곧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혁명투쟁과정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에서 주는 분공,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을 배양하게 되며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방침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이며 선봉투사인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자신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단련하며 열사람, 백사람, 천사람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될 때 우리 당의 권위와 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을 당성이 강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키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사업은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어떻게 강화해나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에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당생활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은 그들이 당조직에 망라되기만 하면 저절로 당성이 단련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생활이 참말로 당원들의 당성단련의 용광로,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정치생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당원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원이 당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당생활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거나 시간적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것이 아니다. 당원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생활을 하여야 하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언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이 주는 혁명임무를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당원의 견결한 립장과 관점이다.

당원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값있게 살며 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높은 조직관념을 가져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수 없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당성이 높은 당원은 언제나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며 일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는 당원이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데 대한 문제,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을 가질데 대한 문제 등 당원들의 당생활을 건전하게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규정되여있다.

당원이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킬 때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할수 있고 사업과 생활을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은 모든 사업과 생활뿐아니라 일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제때에 보고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당원은 누구나 다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한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원활해야 건강하듯이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여야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질수 있다.

경험은 당세포가 전투력이 있고 당생활지도를 잘해나가는 단위에서는 당원들의 당성이 높고 제기된 혁명과업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세포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습성화하고 당원들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누구나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누구나 다 정규화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당조직들은 이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세포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당생활총화제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생활의 가장 적극적인 형식이며 정규화생활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묵여두지 않고 제때제때에 비판하고 넘어가도록 하기때문에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도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세포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당생활총화를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이 비판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하며 비판을 당적원칙에서 건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판을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비판된 문제를 허심하게 접수하고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매일 세수하는것과 같이 항상 원칙적이고도 솔직하고 성실한 립장에서 자기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며 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그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수 있다. 당적분공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매개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분공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며 하나의 분공을 수행한 다음에는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적분공,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으며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이며 당원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리 능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창시되고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이 영원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1

당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함께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옳바른 령도방법,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은 대중지도의 위력한 무기이다. 당은 옳은 사업방법에 의거하여야만 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대중령도분야에 구현하시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주체의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의 창조는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3페지)

사업방법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것은 그 기초로 되고있는 사상이며 세계관이다. 사업방법이 어떤 사상,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따라 그 본

질과 성격이 규정된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기초에 놓여있고 그에 관통되고있는 근본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인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사업방법의 본질과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을 새롭게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을 어떠한 위치에 놓으며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의 근본립장, 근본방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서 찾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세우게 하며 혁명과 건설을 가장 정확히 령도할수 있는 사업방법을 세울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는 혁명적관점에 기초할 때만이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세울수 있다. 반대로 인민대중을 멸시하는 낡은 관점에 기초할 때에는 대중과 동떨어져서 대중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 나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립장과 관점을 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직접적담당자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옳은 관점과 방법을 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으로 된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또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그들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자기자신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확고히 지킬 때라야만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옳게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그들이 모든 사고와 행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방법이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이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풀어나가게 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사업방법이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사업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우선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켜야 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할 때라야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련결시키며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게 한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위력은 바로 그것이 전당과 온 사회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며 우리 인민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묶어세우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2

오늘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지닌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으며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사업방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그를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고 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며 적과의 싸움에서 이신작칙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높이 발양하였다.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한것은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대중령도방법의 전형이며 그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직접 정권을 령도하게 되였고 우리의 많은 일군들이 지난날에 혁명투쟁과 대중사업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업방법을 바로세우는것을 대중령도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집권당인 경우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진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당세도와 관료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사대주의자들이 퍼뜨린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해방후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자들은 혁명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퍼뜨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당 사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사대주의자들이 퍼뜨린 낡은 사업방법의 후과는 전후시기에 와서 엄중하게 나타났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55년 4월전원회의와 특히 우리 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당안에 퍼뜨려진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 2월 강서군과 청산리 당단체들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새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대중지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당사업방법은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페지)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였다.

당중앙은 무엇보다도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들을 명백히 밝히고 그것을 당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지도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또한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진행하고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당중앙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령도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이 더욱 약동하게 되였다.

3

우리 당의 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를 원형으로 하는 청산리방법이 대중령도분야에 구현된 결과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고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9페지)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사업방법과 같은 낡은 사업방법이 더는 배겨날수 없게 되고 당사업이 참말로 생신하고 패기있고 전투적인것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또한 당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풍이 전당을 지배하고있다.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 사업에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으로부터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거침없이 곧바로 대중속에 들어가고 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인차 당에 반영되고있으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

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사람과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이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으며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우리 당 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혁명적전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 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당사업방법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계승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한다.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고 언제나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또한 군중을 존경하고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여야 하며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대중을 새로운 총진군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전투강령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

서 재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 제6차대회가 밝혀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해줄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이다.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계속 튼튼히 쌓아나가려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입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줍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3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여준다는데 있다.

경제건설로선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단계에서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것은 바로 경제

건설의 성격과 목표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여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전략적단계에서의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전략적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주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이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규정하여준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하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로동생활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줌으로써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근로인민대중은 힘든 로동과 자연의 구속에서 많이 벗어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도 현저히 높아진다. 그러나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생산력발전의 제한성으로 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는 남아있게 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사회정치생활에서뿐아니라 경제문화생활에서까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것이 바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이며 그것을 가장 훌륭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자기 나라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하고 과학기술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그것들이 자기 나라 근로자들의 생산과 로동 활동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공업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전환시키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나아가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 없애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로동의 효과성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보다 완전한 평등을 누릴수 있게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생산을 빨리 늘여 물질문화생활령역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여줄수 있게 한다.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로동생활에서 평등을 누릴뿐아니라 물질문화적수요를 마음껏 충족시킬수 있게 될 때 완전히 실현된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최대한의 배려도 본질에 있어서는 물질문화생활령역에서까지 자주성을 완전히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면 인민생활에 필

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부문구조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튼튼히 올려세울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비상히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급속히 증대시켜 축적을 빨리 장성시키면서도 소비를 계통적으로 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평등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며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물질기술적토대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주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로 되며 그것은 오직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서만 건설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목표도 뚜렷이 규정해주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의 구조로부터 기술장비수준에 이르기까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으로부터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어떤 높이에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완벽하게 밝혀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아직 세계적범위에서 민족적차이와 국가가 남아있고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경제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해야 매개 나라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관계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세계혁명위업에도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며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계속 튼튼히 보장할수 있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밝혀주는것은 바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기본은 주체화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가장 원만히 달성할수 있게 한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새로운 경제부문들을 계속 창설하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할 때 가장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커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를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목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인민경제 현대화의 목표는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이며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은 곧 기술장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경제를 건설할것을 목표로 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튼튼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주고있는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방도를 밝혀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3~44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은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줄뿐아니라 그 방도까지 밝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방도까지 밝혀주는 로선만이 가장 현실성있고 과학성있는 전략적로선으로 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며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를 전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가장 옳바른 방도를 제시하여주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며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건설해나가면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더욱 자립적으로, 현대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경공업과 농업, 운수 등도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자주성과 다면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춘 생산력, 자체의 자원에 기초하여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고 현대화, 과학화된 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 문제는 공업화가 수행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높은 발전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전반적균형이 확고히 보장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될뿐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을 때에라야 이루어진다.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이 보장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되였다 하여도 생산이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지 못하면 결코 경제발전속도를 높일수 없다. 반대로 인민경제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다 하여도 전반적균형이 잘 보장되지 못하고 부문구조가 완비되지 못하면 역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게 되며 생산활동이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옳게 리용하여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를 견지할수 있게 된다.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는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하고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모자라는것은 적극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는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명백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3대기술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다음 매우 절실한 과제로 나선다. 이 문제들을 제때에 옳바로 해명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성격과 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을 밝히는것은 그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립장을 옳바로 세우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되며 그 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고찰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주는 방향에서 경제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혁명적인 립장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 명시되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불멸의 공헌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산주의경제의 면모를 뚜렷이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단순히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으리만큼 생산력이 발전한 경제로 되여야 한다는것만으로는 공산주의경제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리해했다고 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그 과학적인 해명을 절실하게 요구하던 공산주의경제의 면모를 가장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에 의하여 공산주의경제는 바로 자체의 공고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이며 종합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현대적인 경제이며 모든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이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선 경제이라는것이 명백히 해명되였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에 의하여 경제건설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라는것이 더욱 뚜렷이 밝혀졌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사업과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사업,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사업과 생산활동을 과학화하는 사업,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사업과 과학기술을 이에 안받침하는 사업 등을 다같이 결합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를 철저히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준 혁명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

림 형 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그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전체 인민이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인민생활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성과도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자기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페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는것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언제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계급적성격과 투쟁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조직적, 선봉적 부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가장 철저한 옹호자, 대표자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큰 임무는 없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보람찬 사업은 없다.

우리 당의 투쟁목적은 근로인민대중

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투쟁목적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빨리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계급적성격과 투쟁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로 되며 그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또한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서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세련된 령도력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에 자기들의 모든 운명도, 행복한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며 인민들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야 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데 대한 방침,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방침 등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현명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실질수입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가적인 혜택을 돌리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생산한 일용필수품을 쓰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극심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로 하여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고있다. 또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와 가장 높은 형태의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전체 인민이 세금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할 걱정 등 온갖 근심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누구나 다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지향,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2페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오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것은 곧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다 원만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더욱 훌륭히 보장되게 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생활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들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보다 원만히 실현해줄수 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징표들을 성과적으로 갖추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지난날의 중산층이 동요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적극 지지할 때에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난날의 중산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여 지난날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도 사회주의를 확고히 지지하게 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또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많이 줄

어들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어려운 과업이 많이 남아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특히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결정적요인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경제생활과 중요하게 련결되여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빨리 높여야 정치사업자체도 더 큰 은을 내게 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보람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것이며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될것이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군길은 더욱 다그쳐지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징표를 성과적으로 갖출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이미 마련된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있는 오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복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0페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당대회가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해야 하며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소비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며 물고기가공사업을 널리 발전시켜 질좋은 물고기가공품들을 인

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고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하며 전체 인민이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나선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중공업, 경공업을 위한 중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더욱 원만히 생산공급하여 인민소비품과 농산물, 수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안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데 있다.

인민의 충복인 일군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으며 인민대중에게 충실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밀접해진 현실적요구에 맞게 소비품생산계획을 빈틈없이 맞물려야 하며 계획수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절약은 증산의 예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야 하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은 소비품을 더 좋게 생산해내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며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

최 창 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현시기 조성된 정세를 분석총화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2페지)

민족공동의 위업인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반영한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이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통일문제해결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민족적자주권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며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갈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민족의 자주권이 짓밟히는 주되는 근원은 외세에 의한 지배와 간섭이다. 따라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하여 생겨난 모든 민족문제는 본질상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며 민족적자주권문제의 해결을 떠난 민족문제의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미제는 군사적강점과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남조선의 온갖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저들의 침략적 목적에 동원리용하고있다.

남조선은 말 그대로 민족적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된 미제의 완전한 식

면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마저 무참히 짓밟히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무엇보다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 동시에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에서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하게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으로 갈라서있으며 오래동안 분렬되여있는탓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립이 조성되고있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더욱더 엄중한것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발전에서 심히 비정상적인것이며 하루빨리 가셔지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가시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두 측면을 동시에 안고있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은 통일문제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해결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문제를 해결할 주인도 그 당사자인 바로 조선사람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문제이다.

민족자결권은 모든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이 자결권을 제끼놓고 민족문제의 올바른 해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떠나서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한갖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나라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 없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구경은 외세의 간섭과 남조선사대매국역적들의 외세의존정책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롭고 문명하고 용감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근본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우리 민족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조선의 분렬은 외부적요인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분렬로 말미암아 재난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은 다같이 평화통일을 갈망하고있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조선사람끼리 싸워야 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무력적방법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바라는 길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동족상쟁을 피하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요구에 부합될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해결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것은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원칙과 함께 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한 계급, 계층의 힘이나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으며 오직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단합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이러한 거족적성격은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민족의 리익을 앞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북과 남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통일에 대한 지향만 있다면 단결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서로의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민족적리념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능히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오직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풀어나갈 때에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3페지)

지난 197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진 자랑찬 년대였으며 통일문제,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가득찬 특기할 년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에 따라 자주적평화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오래동안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대화가 실현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다. 한편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짓밟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선 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입》이니 《교차승인》이니 하는 분렬주의적궤변을 부르짖으면서 그를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적음모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정체는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배격당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시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7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방국가창설방안을 제시하시고 련방국가가 전민족의 단결과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이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며 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으로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견지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의 실시,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의 보장,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의 실현,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의 도모, 민족련합군의 조직과 민족보위임무의 수행, 모든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의 옹호,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조절,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나라의 객관적현실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철저히 부합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구성형태로 보나 국가의 성격으로 보나 시정방침으로 보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국가형태로서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것이다.

련방국가형성방안과 련방정부의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조선이 나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이 력사적인 통일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끝없는 민족적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전두환도당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다. 이런 조

진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과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리고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석방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또한 《유신체제》를 청산하고 군사파쑈《정권》을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만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맞대고 있고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없애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미국은 조미회담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무조건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끝장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것이며 미제의 지배와 예속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전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위력한 담보

리 승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은 복잡하고 긴장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세계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혁명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반제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방침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이룩해야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원래 혁명하는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위업자체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혁명하는 인민들의 불패의 힘은 오직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하는데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혁명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이룩하면 혁명의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인류해방투쟁의 력사적경험은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자들과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합된 힘으로 굳게 뭉쳐 싸웠을 때에는 언제나 승리하였으며 반대로 혁명력량이 분산되고 단합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는 진통을 겪고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과 지배세력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의 본질은 인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성을 유린당하고있거나 그런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의 처지와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데 다같이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을 하나의 투쟁대오에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 객관적기초를 이루고있으며 바로 이 기초우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이룩하고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는것은 현시기 세계혁명력량편성의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지배세력들이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하여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지배세력들의 쟁탈전,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시장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렸다면 오늘에와서는 과거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을 사분오렬시켜 자기들의 옛 식민지체계에 다시 얽어매놓고 지배하기 위한 쟁탈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현시기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쟁탈전에서 특징적인것은 자기들에게 절실하게 소요되는 원유를 비롯한 연료와 원료를 확보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반판을 마련할 목적밑에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교묘한 암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저들의 침략무력을 신흥세력나라들 또는 그 주변지역과 해역들에 들이민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협조》와 《원조》, 《보호》와 《공동개발》 등 갖가지 허울좋은 미명밑에 신흥세력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지배권쟁탈책동은 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에 엄중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마구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끊임없이 빚어지고있다. 지어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할 형제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사이에 무력충돌을 일으키는것과 같은 참을수 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고있다.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구라파의 여러곳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온상들이 계속 발생하고있으며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더욱더 짙어가고있다.

이것은 자주를 지향하며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안전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의 책동에 제때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된 힘,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의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서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여기에 날로 커가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치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

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조성된 국제정세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방침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때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키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현시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1폐지)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다름아닌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단결의 목적도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자주성을 온전히실현하는데 있다.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는 문제는 오늘 국제무대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책동이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현시기 자주성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온갖 외세의 압력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기의 주견을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남이 시키는대로만 하는것은 자주성과 아무런 공통성도 없을뿐아니라 결국 자주성을 좀먹는 유해로운 경향으로 된다.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빌붙어 살아가려는것은 지배세력이 발을 붙일수 있는 온상, 지배주의가 의거할수 있는 지탱점을 마련해주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저애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의 간섭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이 중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고있다.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며 남의 리익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규범을 위반하고 유린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백해무익하며 반제자주의 공동위업수행에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매개 나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은 고수될수 있고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지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2폐지)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옳은 립장을 지켜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대오에 저저 함께 나아갈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떠나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제멋대로 유린하면서 남을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을 본업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에 그 사회경제적기초를 두고있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유일한 목적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는데 있으며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지 않고서는 독점자본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수 없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저들의 강도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다 못해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다.

오늘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는 제국주의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며 독점자본에 보다 안전한 리윤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원료원천지를 얻기 위한 략탈정책에서, 날로 장성하는 반제자주력량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도 없고 약화될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변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평화》와 《긴장완화》, 《친선》과 《협조》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침략적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이며 《협의 정책》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정책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국지배층들이 한때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와 미군을 짧은 시일안에 철수하겠다던 《공약》을 하루아침에 휴지화하여버린 사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살자인 극악한 파쑈독재체제의 출현을 음으로양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사실만을 놓고보아도 놈들이 부르짖는 《평화》, 《인권옹호》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않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지며 경제문화교류를 진행하는것은 국가들사이의 호상관계에서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하여 원칙적문제를 놓고 흥정하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제국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립장을 포기하거나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모든것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현시기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이 운동이 세계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3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줄기찬 투쟁은 세계무대에서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세계정치에 미치는 이 운동의 영향력은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오늘 그 어떤 중요한 국제문제도 쁠럭불가담운동을 제처놓고서는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옳게 해결할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이 운동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철저히 자주적으로 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쁠럭에 추종하거나 끌려가며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분렬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에 충실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오랜 성원국이건 그렇지 못한 나라이건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그 어떤 개별적인 나라에 특권적지위가 허용될수 없으며 완전한 평등이 보장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울것이 아니라 굳게 단결하여 지배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면 강대국들에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공평한 낡은 경제질서를 마스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능히 세울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정치관계분야에서도 렬강들의 특권과 전횡이 허용되고있는 낡은 질서를 끝장내고 오늘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력량관계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완전한 평등을 지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

화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될것이며 이것은 세계적규모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내부에서 발생한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이루지 못하고있으며 전일적인 대오로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혁명에서 마땅히 놀아야 할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그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힘있는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하여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하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는것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분렬을 반대하고 오직 단결에 리롭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만을 한다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은 회복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인 세계혁명운동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력량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을 아무런 우여곡절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한데 대한 일관한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이다.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이 기본리념에는 모든 대외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확고한 자주적립장,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도모해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폭넓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근 로 자 1980년 제12호(루계464호)

편 집 위 원 회

번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80년 12월 1일 발 행 • 1980년 12월 5일

ㄱ—05307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1980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